

부산 북구

금곡동 행로지



부산광역시북구
부산북구낙동문화원

금곡동 향토지

題字：蓮洲 魚順熙

금곡 연가

박태완

금정산의 첫 번째 골짜기라고 금곡동
 공창부락 동원부락 화정부락 율리부락
 네 부락이 어우러져 금곡이라 꽃을 피우는 곳이다

금곡의 밤은 적막한 고요로 늘 깊고도 길었다
 단내 뼘는 고단한 하루를 마친 사람들의 종착지
 초가삼간 속에 고단한 육신 눕히려 찾는 곳이건만
 힘겹게 올라가던 산중턱 밤길 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가족을 위한 당신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가기만 했고
 오막살 옆으로 흐르던 도랑은 삶에 겨운 골마등마*의
 마음을 아는 듯 골목길 따라 뭇 화음으로 흘러 내렸고
 썩은내 비린내 풍길 새도 없는 한스런 뮤음의 울림이었다

땀 눈물 범벅 설움 사연 가득한 그 시절
 살림살이는 어느 곳도 냉기 어린 차가움만 남았다
 동네 어귀 널바위에 앉아 이술 저술을 마셨다
 가난이란 놈은 취하지 않았고 나만 코를 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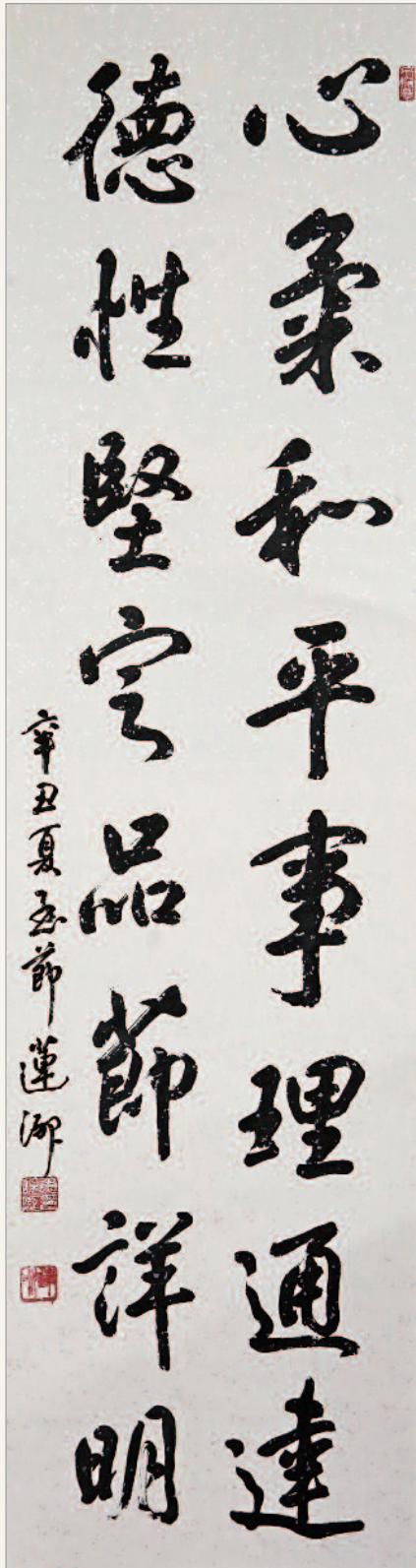
낙동정맥 금정산자락의 골바람 탓인지
 금곡동 사람들의 기골은 당당하고 담백하다
 도랑 바위에 쭈그려 앉아 바라보았던 보름달
 한가득한 추억은 얇은 물소리에도 가슴을 젖게 한다.

*골마등마 - 아랫윗마을



박태완

부산 금곡동 출생. 「월간 한국시」시 등단
 부산문인협회, 부산시인협회, 새부산시인협회
 저서 : 첫시집 「봄이 오는 날」제2집 「그대여 그대는 사랑」
 부산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156, 113-1103호(화명동, 롯데낙천대)
 Mobile. 010-8518-2961 E-mail. ptw7@hanmail.net



蓮洲 魚順熙

(歷任)

- 부산미술협회 이사
- 부산서예비엔날레 부이사장
- 국제서법연합회(영남지회)부회장
- 한국서도협회 이사
- 부산여성서화작가회 부회장

(審查經歷)

- 부산미술대전 심사
- 세계서 법문화예술대전 심사
- 한국서도예술협회·부경서도대전 심사
- 전국학생서예회 한마당 심사
- 한·일 인테리어전 심사

(作品活動)

- 부산미술대전·한국서도협회 초대작가전 다수
- 세계서법문화예술대전 초대작가전 다수
- 한국미술협회 회원전·부산미술제 다수
- 국제서법영남지회전·부산여성작가회 회원전 다수
- 부산서예비엔날레 회원전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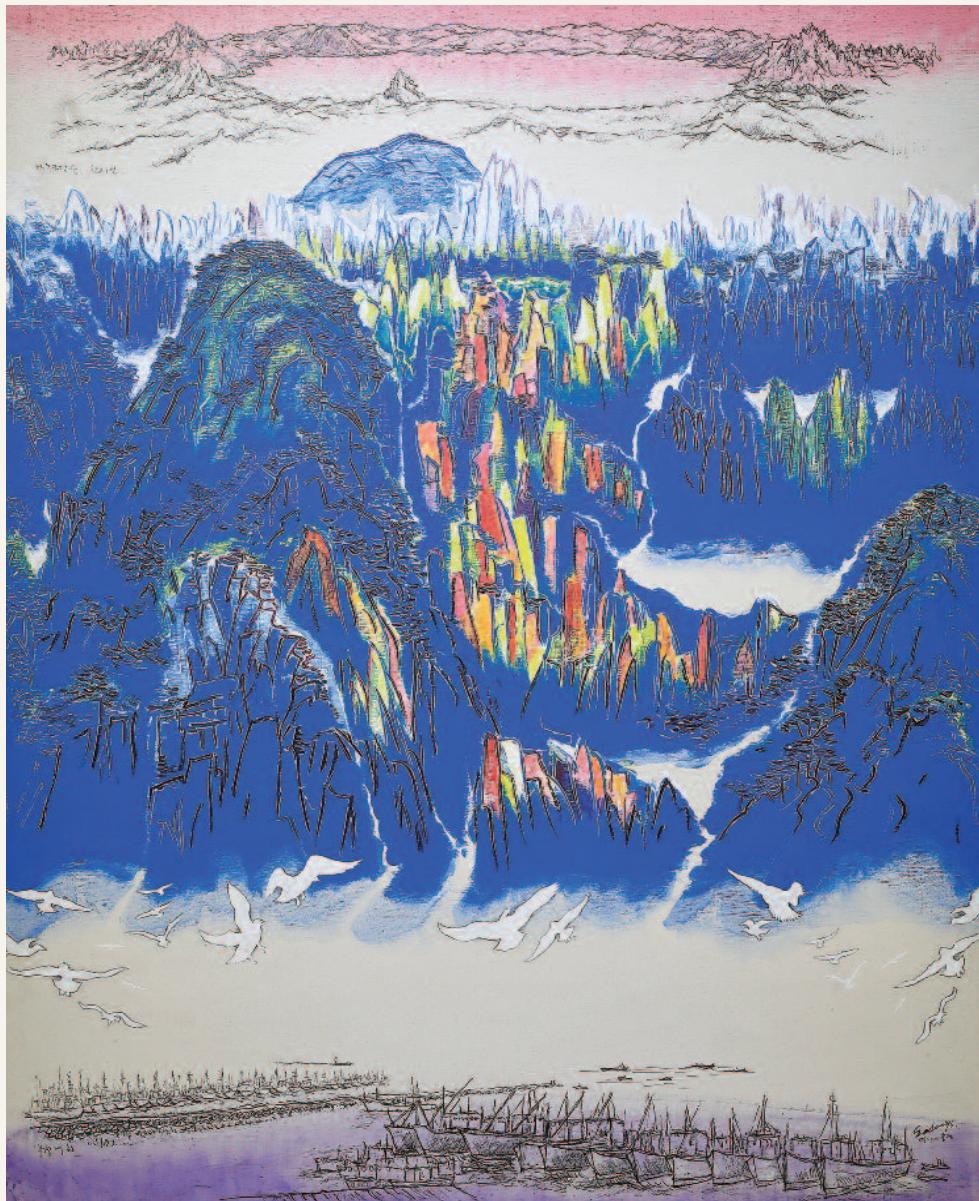
(受賞)

- 부산미술대전 초대작가(2003년)
- 세계서 법문화예술대전 종합대상(국회의장상):2006년
- 세계서 법문화예술대전 초대작가(2006년)
- 한국서도예술협회 초대작가(2007년)
-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및 입선 다수(한국미협)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616번길57 유림2차 205-1302
Mobile. 010-3580-5876

銘言句

- 心氣和平 事理通達(심기화평 사리통달)
<마음의 기운 평화스러우면 일의이치가 통달되고>
德性堅定 品節詳明(덕성건정 품절상명)
<덕의 심성이 굳고 안정되면 품성은 밝아진다>



삼분법-부산내항, 1996, 115x145cm, 캔버스에 아크릴



소두(蘇斗)
김 인 환(金仁煥)

1941년 부산생.

홍익대학교 서양화학과 졸업/프랑스 파리아카데미 그랑슈메르 수학
현) 부산미협회원 / <공간소두>(부산 북구 금곡동) 대표작가

논골동인창립전(서울신문회관 1965), 한국청년작가연립전(서울중앙공보관 1967), 한국현대미술의 전개-전환과 역동의 시대전(과천국립현대미술관 1967), 한국현대미술 20년의 동향전(서울국립현대미술관 1978), 문제작가 초대전(서울시립미술관 1983), 부산미술 70

년대, 다시 보고 싶은 작품전(부산시인호랑 1984), 한국현대미술, 경과 도전의 세대전(서울토털미술관 1993), 개관기념 부산미술 재조명전(부산시립미술관 1998), 물성과 구조에 대한 인식 전환전(부산시립미술관 2001), 한국현대미술의 전개-전환과 역동의 시대전(과천국립현대미술관 2001), 미협60주년기념 부산미술의 재조명전(부산시청전시실 2006), 8회 부산국제환경예술제(을숙도문화회관 2010), 부산북구예술인연합전(북구빙상문화센타 2010), 틀없는 틀전(대안문화공간 자인 2012), 부산원로작가 오늘전(부산예술회관 2014), 김환기 국제미술제전-남풍(무안군 오승우미술관 2016), 삶과 작업전-기억의 공간, 사유의 시간(부산시청전시실 2019), 부산회화제(부산문화회관 2019), 부산미술제(부산문화회관 2019), 3회 신사회전(금련산갤러리 2020) 등 단체전 수백회. 1969년 1회 개인전부터 2020년 <소두김인환화업60년전>까지 개인전 55회.

발 간 사

부산북구 낙동문화원
원장 임 성 근



우리 고장의 향토 전통문화를 아끼고 계승·보존해오신 문화원 가족 여러분들께 코로나 위기로 인한 염려로 먼저 안부인사 전합니다.

우리고장 북구는 신석기시대부터 삶의 흔적이 있는 금곡동 율리 바위그늘유적을 비롯한 많은 문화유적 등 조상들의 얼과 숨결이 살아있는 유서깊은 고장입니다. 특히 금정산과 낙동강의 빼어난 산천경관 속에 자연의 혜택을 누리는 복 된 땅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금정산의 주봉인 고당봉에서 낙동강변으로 뻗어내린 큰 골짜기인 금곡동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수많은 문화유적을 가지고 있는 선사시대부터 민초들의 삶의 역사를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낙동강 하류지역의 명당지역인 것입니다.

오늘날 산업화, 도시화를 넘어 급속한 정보화의 흐름속에서 어릴적 앞동산 뒷개울에서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을 나누고 어우러져 함께 울고 웃던 기억은 이제 아련한 추억으로 간직되고 있을 뿐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처럼 요즘 한국적인 고유 콘텐츠가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빌보드 차트 1위로 전세계 음악인들을 열광시켰던 비티에스(BTS)의 K-POP 바탕에는 우리네 일상생활의 삶과 우리가락이 녹아 있듯이, 알고보면 김치, 한옥, 한복 등 가장 한국적인 것의 기저에도 우리 선조들의 삶속에서 표현되는 각 마을의 고유문화 콘텐츠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히 마을에서부터 출발한 지역 향토고유문화가 한국문화와 역사의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낙동문화원도 지역 고유의 향토문화 지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역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향토사연구소를 중심으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북구 5개 법정동(구포, 금곡, 덕천, 만덕, 화명)의 역사와 문화”라는 제목으로 자연, 인문, 문화환경을 망라한 마을중심의 동 종합 역사서를 시리즈로 발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첫 성과물로서 전년도 사료조사를 바탕으로 올해는 『부산북구 금곡동 향토지』라는 타이틀로 금곡동 향토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개략적 내용은 금곡동의 향토사를 자연, 인문, 문화의 3개의 큰 카테고리로 구성하여 금곡동민은 물론 북구민들에게 금곡동의 다양한 옛 이야기들을 담아내고자 한 책입니다. 이후 나머지 법정동의 경우에도 종합적인 동 역사서로써의 기능과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향토사 연구위원들의 활발한 연구활동과 구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낙동문화원은 낙동강 하구 일원의 문화와 역사의 뿌리를 탐구하여 계승하는 정신적·학술적 구심점이 됨은 물론, 낙동민속예술제, 구포장터 3·1만세운동을 포함한 지역의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주관하고, 향토사 연구강화와 문화유적답사, 주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다양한 문예강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와 꾸준히 교류하며 소통하여 우리지역 문화발전의 중심축으로써 그 역할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도읍 의원님과 정명희 구청장님, 김명석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사료 조사를 포함한 지난 2년여의 기간동안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향토사 연구소 최진식 소장님 이하 연구위원님, 자문위원님, 금곡동 동장님 이하 동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 책이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축 사

부산 북구청장
정명희



우리 고장 전통문화 발굴과 계승에 노력해 오신 낙동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의 『부산 북구 금곡동 향토지』 발간 및 편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한 권을 뚫어내기까지 고증은 물론, 자료 조사와 집필 등 인내와 열정을 쏟아 부으셨을 임성근 낙동문화원장님과 최진식 향토사연구소장님, 이수재 연구위원님을 비롯한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과 자문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곡동은 금정산을 두르고 낙동강을 굽어보는 천혜의 입지를 갖고 있어 ‘금곡동 율리 바위그늘 유적’에서 보듯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깃들여 살았고, 이후로도 동원진과 공창마을, 화정마을 등 촌락을 이루며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금곡동 일원에 대한 성과를 담아낸 『부산북구 금곡동 향토지』는 우리 지역 또 하나의 빼어난 문화 유산이며, 나아가 다음 세대가 지역의 삶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새로운 미래상을 그려내는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날의 삶 속에 남긴 메모와 일기부터 시대의 사실과 변천을 기록하는 역사서까지, ‘기록’ 이야기로 인류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특징이자 저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칫 잊혀져 사라질 수 있는 지역과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기록하는 작업은 참으로 귀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제와 오늘, 삶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이어가는 뜻깊은 과업에 변함없이 노력해주실 낙동문화원과 향토사연구소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구에서도 그러한 노력이 날로 풍성하고 알찬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초래한 제약과 난관 속에도 『부산북구 금곡동 향토지』를 출간해 내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향후 낙동문화원과 향토사연구소의 활동에도 저간의 어려움을 옷도는 활기와 성과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 12.

축 사



국회의원
김 도 읍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부산 북구·강서구(을) 국회의원 김도읍입니다.

지역 향토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부산북구 금곡동 향토지』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각 지역마다 특색있는 전통과 문화를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잘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부산북구 금곡동 향토지』는 우리 금곡동의 역사와 문화, 자연과 환경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담아낸 우리 지역의 역사서이자 더없이 귀중한 문화자산입니다.

우리 고장의 뿌리를 연구하고 또 그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지역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신 낙동문화원 임성근 원장님을 비롯한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분들과 발간에 도움을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담긴 이 책이 금곡동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 교육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향토지 발간을 계기로 애향심 고취는 물론 우리 지역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산북구 금곡동 향토지』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발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축 사

북구의회의장
김명석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의장 김명석입니다.

주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자긍심이 담겨있는 『부산북구 금곡동 향토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금곡동 주민으로 발간 소식에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교통, 통신의 발달과 급속한 도시화로 요약되는 현대 사회는 빈번한 인구이동과 보편적 문화향유로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소속감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발간된 『부산북구 금곡동 향토지』는, 사라지고 변형되는 동별 역사와 문화, 자연과 환경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여 마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특히 금곡 주민 여러분들에게 지역 고유의 특성과 애향심을 제공하고 무한한 자긍심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역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지식의 교량으로, 유서깊은 지역의 뿌리를 이해함으로써 희망찬 미래를 이어주는 충실한 가교와 길잡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역사를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위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오스카 와일드의 말처럼, 이번 『부산북구 금곡동 향토지』를 편찬하는데 갖은 검증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낙동문화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 12.

축 사

금곡동행정복지센터 동장
정 달 성



지난해부터 한걸음 한걸음 발품으로 우리 금곡동의 지난 역사와 다양한 사료를 발굴하고 기록하고 책자로 발간하신다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금곡동은 낙동강과 금정산을 사이에 둔 북구의 관문지역으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나그네들이 쉬어가던 동원진이 있던 고즈넉한 나루터였습니다.

특히나, 금곡동 율리바위그늘유적은 아주 오랜 시간 북구의 땅위에 사람의 흔적을 말해주는 선사시대 유물로써 부산시 기념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우리의 오랜 이야기를 모르고, 알아도 정확한 기록이 없고 단지 그렇다더라는 이야기로만 간과했던 우리동의 역사와 문화자료를 이렇게 ‘기록의 힘’으로 자연스레 이해시키며 우리가 살아가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 번 더 되새기게 하는 정말 고단한 일을 기꺼이 해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터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부산북구 금곡동 향토지』 발간에 애써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2021. 12.



각 읍 지도 중 양산군도(17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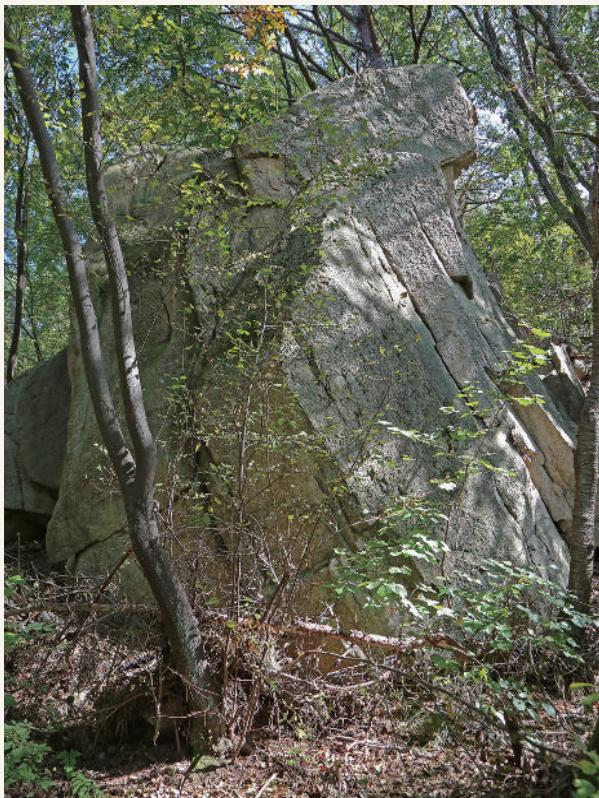
동여비고: 東輿備攷, 1682년경, 양산 대성암



고당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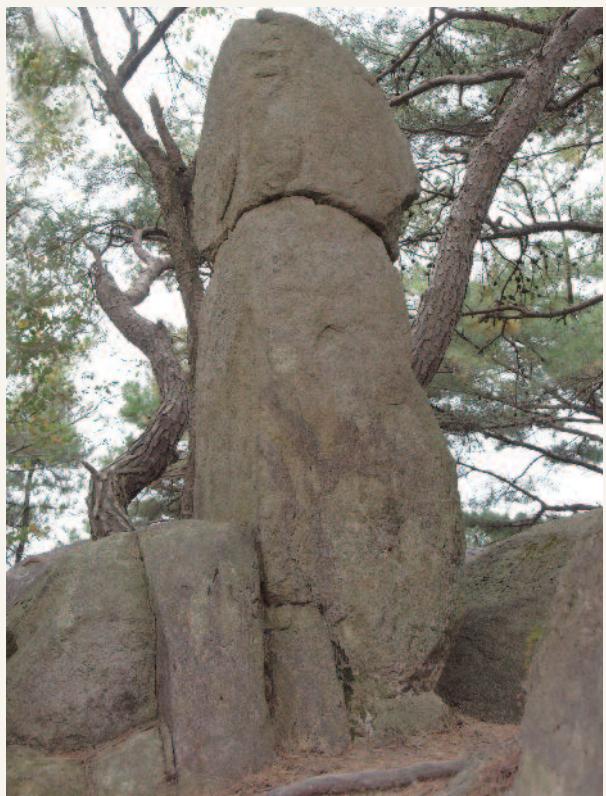
귀신바위



관장바위



대포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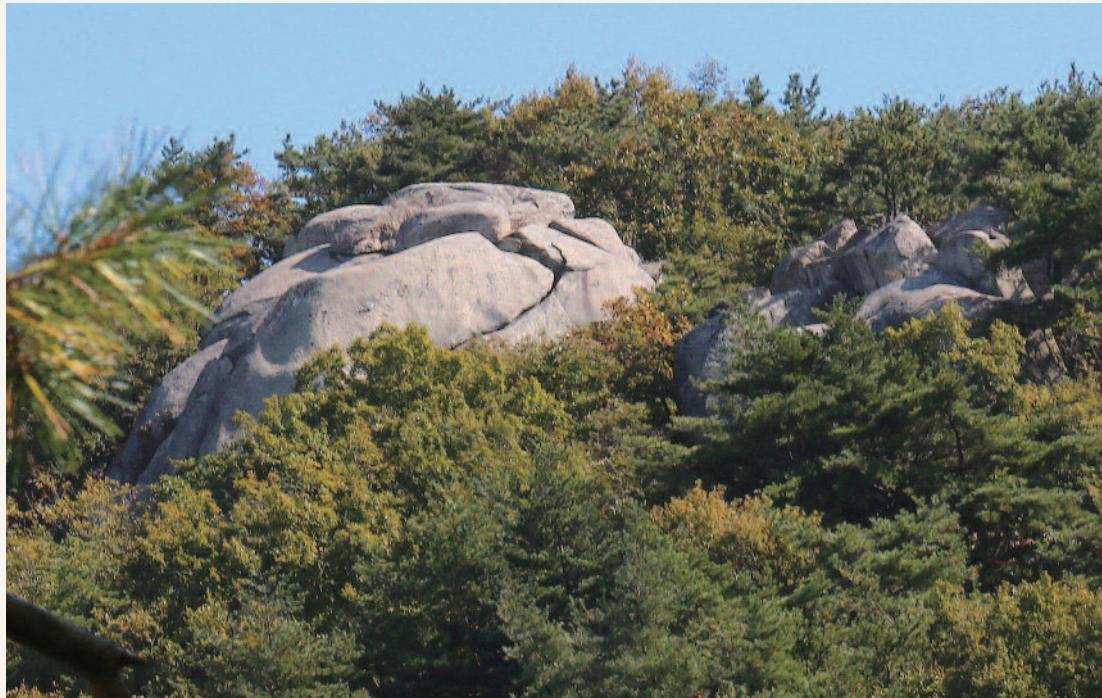


남근바위



선돌바위

산천경관



신선바위



이종바위



문래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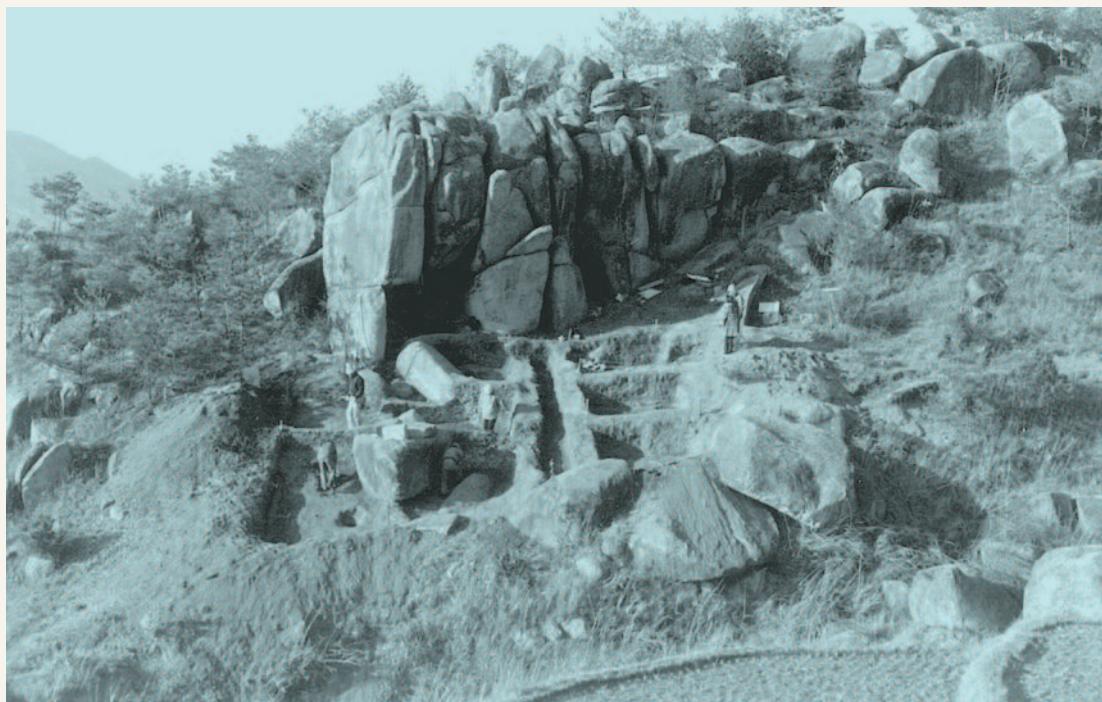
도덕골



안등골 불상터(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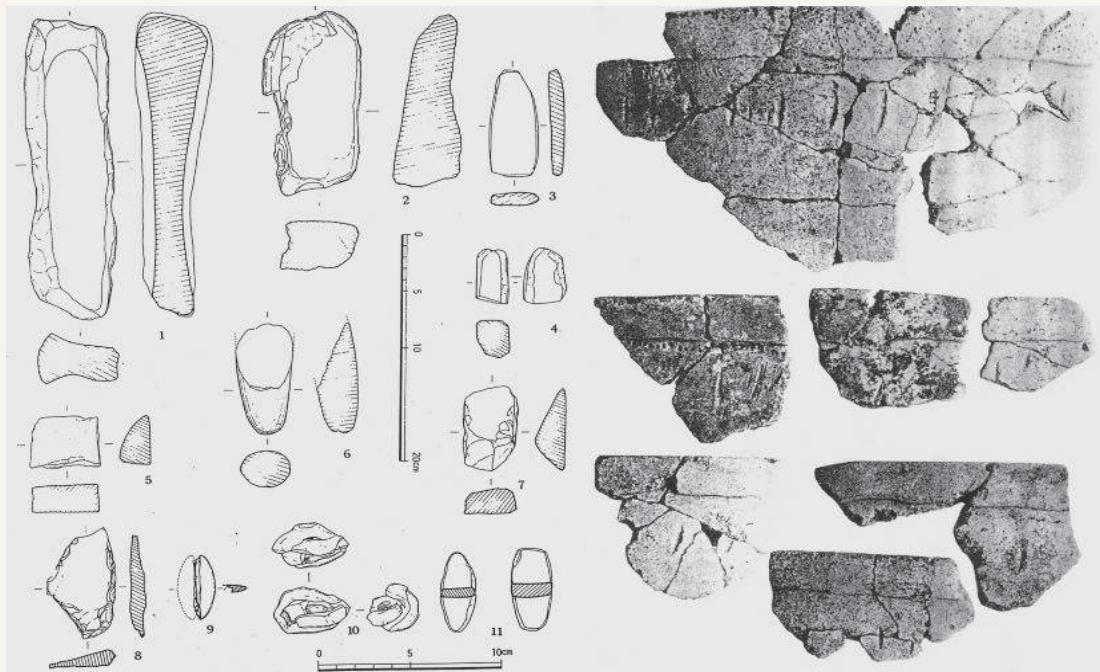
신선바위에서 바라본 낙동강과 금곡동



울리 바위그늘 유적 발굴 모습



현재 울리 바위그늘 유적



석기 유물과 토기편



토기편



이중구연출문토기편

울리 바위그늘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들



동원진 수참지



효자 천승호와 경주 이씨 열녀 정려비각



공창마을 고당



율리마을 당산나무



알터바위



화정마을 산제당



느티나무 축제 공연



느티나무 축제 전시



금곡 공창나루터와 나룻배(195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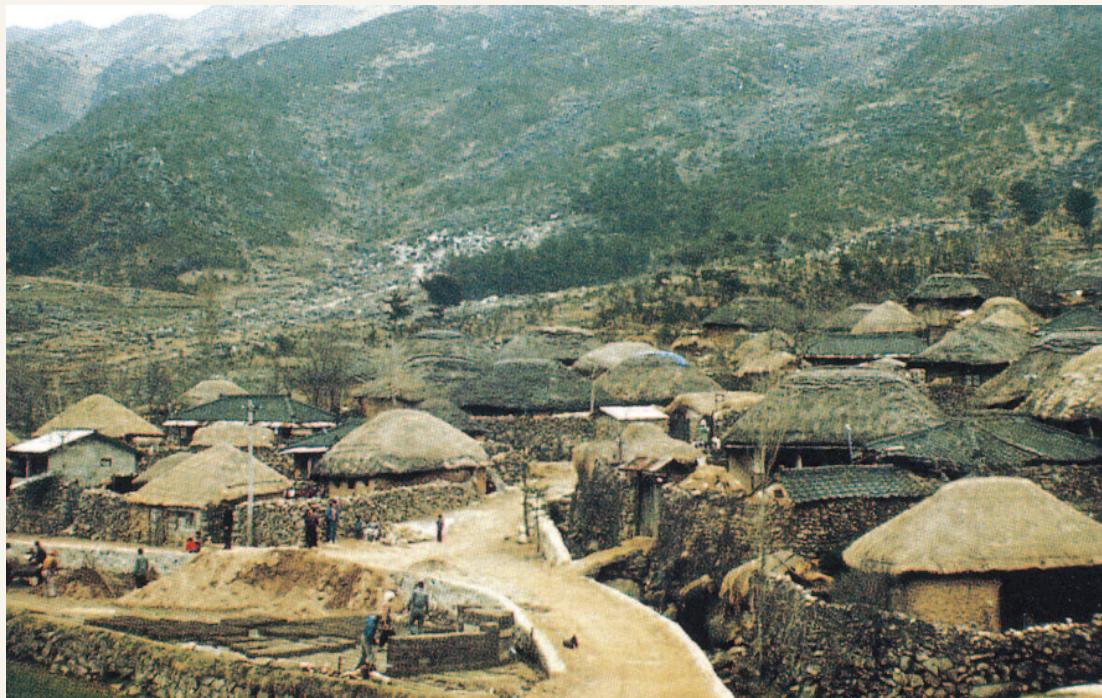


금곡 공창부락

우리마을 옛 모습



공창마을 초가집(1970년대)



금곡 공창마을(1970년대)



금곡 도로개설 사업(1970년대)



공창마을 앞 축대 쌓기에 협력하는 부인네들(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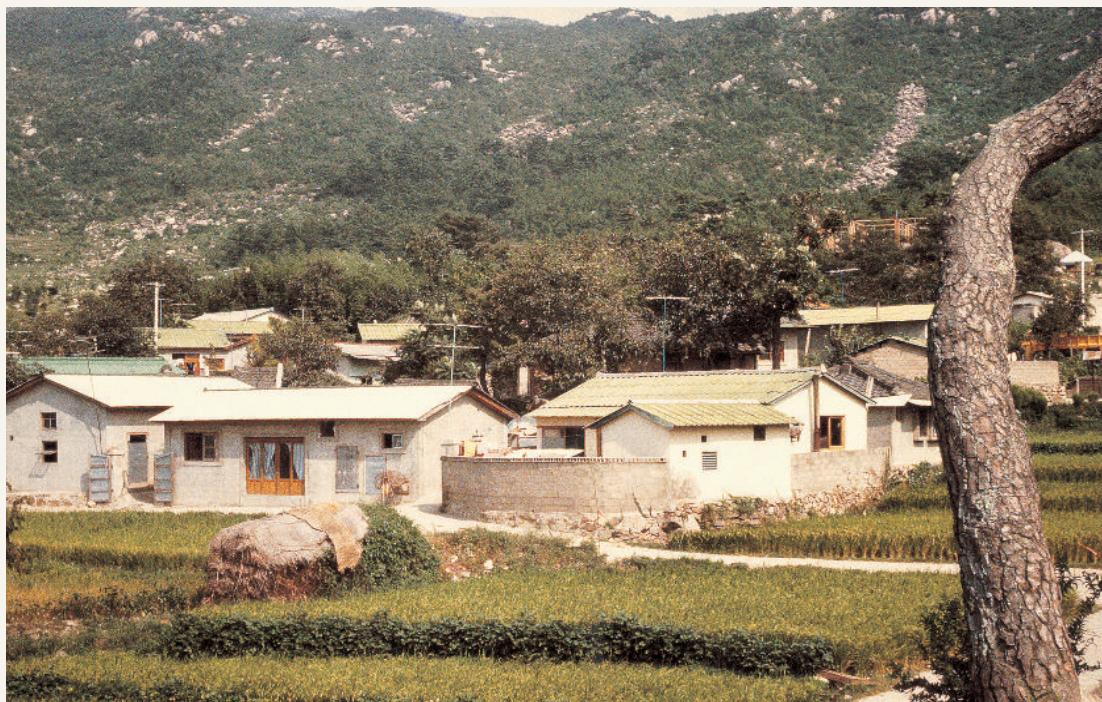
우기마을 옛 모습



동원진에서 본 동원마을



금곡 동원진(1980년대)



금곡 공창마을



금곡동 취락구조 개선마을(1980년대)

우리마을 옛 모습



금곡동 가는길(1970년대)



금곡동 산답지대(1970년대)



화명에서 금곡진입로



낙동강 물금 호포 금곡(1980년대)

우기마을 옛 모습



금곡 화정마을(1980년대)



금곡 화정마을(2005년대)

목차

축시, 서예, 그림	3
발간사 (낙동문화원장)	6
축사(구청장, 국회의원, 의회의장, 금곡동장)	7
화보	11

제1장 금곡동의 자연

제1절 자연환경

1. 금곡동의 기초 자연환경	43
1) 금곡동의 지명	
2) 금곡동의 위치	
2. 금곡동의 산세(山勢)	45
1) 금곡동을 수호하는 금정산 2) 장골봉(長谷峰, 494m)	
3. 강과 하천	49
1) 금곡동을 보듬는 낙동강 2) 골마도랑 3) 소바우골 도랑 4) 공창마을 집수정	
4. 계곡	54
1) 복숭(봉숭아)나무골 2) 안등골 3) 도덕골 4) 명근쟁이골 5) 문바우골	
6) 백지미골 7) 삼박골 8) 신신골 9) 채이골 10) 큰골·작은골	
11) 소바우골(소방골) 12) 개쑥바꿀(개시바꿀) 13) 따박골 14) 서당골	
5. 바위	61
1) 관장바위 2) 기운바위 3) 대포바위 4) 대문바위 5) 삼박골 귀신바위	
6) 신신골 귀신바위 7) 신선바위 8) 선돌바위 9) 약물바위 10) 이충바위	
11) 장삿배바위 12) 영감바위·할매바위 13) 알터바위 14) 장골봉 양근바위	
6. 고개·산등	69
1) 금곡문리재(물래재) 2) 동원고개 3) 주치등 4) 함박등 5) 가락등	
6) 진등대 7) 주치등 8) 불메등(불뫼등)	
7. 나루	72
1) 동원진 2) 공창나루와 화정나루	

제2절 산책길과 보호수

1. 산책길	
1) 기찻길 숲속 산책로	76
2) 화명생태공원 메타세쿼이아 길	83
3) 사람과 자연이 통하는 가람낙조길	86
2. 보호수와 노거수	90
1) 율리 팽나무 2) 금곡동 화정 팽나무 3) 화정 산제당(화방사) 팽나무	
4) 화정원 노거수(老巨樹)	

제3절 금곡동의 자연마을

1. 금곡리	99
2. 공창리	101
3. 동원리	105
4. 율리	108
5. 화정마을	111

제2장 금곡동의 인문

제1절 금곡동의 역사

1. 금곡동 행정구역의 연혁과 변천	115
2. 전래문중과 집성촌	120
1) 공창 영천(永川) 이씨(李氏) 문중	122
2) 공창 달성(達城) 서씨(徐氏) 문중	131
3) 율리 분성(盆城) 배씨(裴氏) 문중	141
3. 금곡동의 출신인물	
1) 전통시대의 인물	142
(1) 효자 천승호(千乘昊)와 열녀 이씨	
2) 근대 인물	143
(1) 권용학(權龍鶴) (2) 서영석(徐泳奭) (3) 양태용(梁太鎔) (4) 안화중(安華重)	
(5) 정치호(鄭致浩) (6) 김기호(金淇鎬) (7) 김정회(金鼎檜) (8) 김인태(金寅泰)	
3) 현대 인물	149
(1)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2) 사회활동가

4. 금곡동의 역대 동장과 시·구 의원	156
1) 역대 동장 2) 역대 시의원 3) 역대 구의원	

제2절 금곡동의 행정

1. 금곡동의 지역특성	158
1) 인구 2) 행정구역 3) 토지지목별 4) 산업별·사업체수 및 종업자수	
2. 금곡동의 공공기관과 단체	162
1) 공공기관 2) 단체현황	

제3절 금곡동의 사회복지

1. 사회복지 수요	171
2. 사회복지시설	
1) 종합사회복지관	172
2) 장애인복지시설	191
3) 아동·청소년 시설	200
(1) 보육시설(어린이집) (2) 아동 시설 (3) 청소년시설	
4) 노인복지시설	203
(1) 요양시설 (2) 경로당 (3) 대한노인회 부산북구지회	
3. 기타 시설	206
1) 북구희망터 지역자활센터 2)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3) 금곡동 자원봉사캠프 4) 공창마을행복센터 5) 공창 새마을회관	
4. 장학회	210
1) 금곡복지회	

제4절 금곡동의 교육과 종교

1. 교육시설	212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2. 종교시설	222
1) 교회 2) 사찰 3) 성당	

제5절 금곡동의 생활편의시설

1. 의료시설	228
1) 병 의원 2) 치과 의원 3) 한의원	
2. 금융기관	229
3. 유통시설	230
1) 농협하나로클럽 부산점	
4. 공원 및 동네체육시설	231
1) 공원 2) 동네체육시설	

제3장 금곡동의 문화

제1절 문화유산

1. 금곡동 문화관광지도	249
2. 유형문화유산	
1) 건축물	250
(1) 금곡동 율리바위그늘유적 (2) 금정산성 서문과 아문	
(3) 동원(東院) (4) 동원진 수참 (5) 주막(공창, 화정)	
(6) 공창마을의 장승과 솟대	
2) 비석과 알터바위	296
(1) 행군수손후상일 훌민성정비 (2) 효자 천승호와 열녀 이씨 정려비	
(3) 행군수이후계필 청덕훌민비 (4) 원효정사 금호당 대선사 부도탑비	
(5) 진홍사 대산당 선사 승탑 및 공덕비 (6) 알터바위 율리유적	
3) 문서	305
(1) 천씨효열문집(千氏孝烈文集)	
(2) 금곡동 화정부락 장부	
3. 무형문화유산	
1) 구비전승	
(1) 금곡동 안동골에 나타나는 귀신	339
(2) 등대 역할을 한 동원나루 당산나무	340
(3) 효자 천승호와 열녀 이씨 효열이야기	341
(4) 산성으로 가는 모래재	344

2) 세시풍속과 전승놀이	346
(1) 세시풍속 (2) 전승놀이	
3) 민간신앙(당산제)	351
(1) 공창 고당 당산 (2) 율리 당산 (3) 화정 산제당 (4) 동원 당산	

제2절 문화생활

1. 문화관련 기관	370
1) 금곡청소년수련관 2) 금곡도서관 3) 금곡 꽃박물관	
2. 문화관련 단체	379
1) 금곡 향토회 2) 울타리풍물단	
3. 문화행사	381
1) 금곡동 느티나무축제	
2) 경로잔치	
4. 관광명소와 먹거리	384
1) 낙동강 전망대 2) 금곡 공창 누룩 3) 질좋은 황금 쌀	
4) 낙동강 장어(금곡동 동원 장어마을) 5) 산딸기와 도토리묵	
5. 금곡문화	
1) 서적소개	391
(1)『공창마을』 (2)『이만하면 잘 살았다 아이가』	
6. 금곡동 경계석과 교통 경계 안내물	393

표목차

〈표1-1〉 북구(금곡동)의 위치	44
〈표1-2〉 북구(금곡동)의 기상개황	44
〈표1-3〉 금정산이 위치하는 행정구역 현황	47
〈표1-4〉 기찻길 숲속 산책로 조성개요	76
〈표2-1〉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소속 동리 현황	116
〈표2-2〉 금곡동 역대 동장 현황	156
〈표2-3〉 금곡동 역대 시의원 현황	157
〈표2-4〉 금곡동 역대 구의원 현황	157
〈표2-5〉 금곡동의 인구추이	159
〈표2-6〉 금곡동의 연도별 인구분포	159
〈표2-7〉 국적별 외국인 등록현황(금곡동)	160
〈표2-8〉 금곡동의 행정구역 현황	160
〈표2-9〉 금곡동 토지지목별 현황	161
〈표2-10〉 금곡동의 산업별·사업체수 및 종사자 현황	161
〈표2-11〉 금곡동의 공공기관 현황	162
〈표2-12〉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정·현원 현황	163
〈표2-13〉 금곡동 단체현황	170
〈표2-14〉 금곡동 기초생활수급자 등 현황	171
〈표2-15〉 북구(금곡동)의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171
〈표2-16〉 금곡동의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172
〈표2-17〉 금곡동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191
〈표2-18〉 금곡동 어린이집 현황	200
〈표2-19〉 금곡동 아동시설 현황	202
〈표2-20〉 금곡동 청소년 이용시설 현황	202
〈표2-21〉 금곡동 노인요양시설 현황	203
〈표2-22〉 금곡동 경로당 현황	204
〈표2-23〉 금곡동의 기타 시설 현황	206
〈표2-24〉 금곡동 유치원 현황	212

〈표2-25〉 금곡동 초등학교 현황	214
〈표2-26〉 금곡동 중학교 현황	218
〈표2-27〉 금곡동 고등학교 현황	220
〈표2-28〉 금곡동 교회 현황	222
〈표2-29〉 금곡동 사찰 현황	223
〈표2-30〉 금곡동 성당 현황	227
〈표2-31〉 금곡동 병·의원 현황	228
〈표2-32〉 금곡동 치과 현황	228
〈표2-33〉 금곡동 한의원 현황	229
〈표2-34〉 금곡동 금융기관 현황	229
〈표2-35〉 금곡동 공원 현황	231
〈표2-36〉 금곡동 동네체육시설 현황	246
〈표3-1〉 바위그늘 주거 유적 비교	266
〈표3-2〉 금정산성 4대문의 특징	274

제 | 장

금곡동의 자연

제1장 금곡동의 자연

제1절 자연환경

1. 금곡동의 기초 자연환경
 - 1) 금곡동의 지명 2) 금곡동의 위치
2. 금곡동의 산세(山勢)
 - 1) 금곡동을 수호하는 금정산 2) 장골봉(長谷峰, 494m)
3. 강과 하천
 - 1) 금곡동을 보듬는 낙동강 2) 골마도랑 3) 소바우골 도랑 4) 공창마을 집수정
4. 계곡
 - 1) 복숭(봉숭아)나무골 2) 안등골 3) 도덕골 4) 명근쟁이골 5) 문바우골 6) 백지미골 7) 삼박골 8) 신신골
 - 9) 채이골 10) 큰골 · 작은골 11) 소바우골(소방골) 12) 개쑥바끌(개시바끌) 13) 따박골 14) 서당골
5. 바위
 - 1) 관장바위 2) 기운바위 3) 대포바위 4) 대문바위 5) 삼박골 귀신바위 6) 신신골 귀신바위
 - 7) 신선바위 8) 선돌바위
- 9) 약물바위 10) 이충바위 11) 장삿배바우 12) 영감바위 · 할매바위 13) 알터바우 14) 장골봉 양근바위
6. 고개 · 산등
 - 1) 금곡 문리재(룰래재) 2) 동원고개 3) 주치등 4) 함박등 5) 가락등 6) 진등대 7) 주치등 8) 불메등(불뫼등)
7. 나루
 - 1) 동원진 2) 공창나루와 화정나루

제2절 산책길과 보호수

1. 산책길
 - 1) 덕천~금곡 기찻길 숲속 산책로 2) 화명생태공원 메타세쿼이아 길 3) 사람과 자연이 통하는 가람낙조길
2. 보호수와 노거수
 - 1) 울리 팽나무 2) 금곡동 화정 팽나무 3) 화정 산제당(화방사) 팽나무 4) 화정원 노거수(老巨樹)

제3절 금곡동의 자연마을

1. 금곡리
2. 공창리
3. 동원리
4. 울리
5. 화정마을

제1절 자연환경

1. 금곡동의 기초 자연환경

1) 금곡동의 지명

금곡(金谷)이라는 지명은 금정산의 주봉인 고당봉에서 낙동강변으로 빠져내린 첫 골짜기(谷)로서 붙여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설로 금정산의 서쪽 골짜기에 금(金)이 나오는 곳이 있다 해서 금맥을 찾아 뚫어 놓은 굴이 많아 금이 생산되는 골짜기라서 붙여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공창마을 뒷산 ‘도덕골’ 아래에 있는 ‘불메등’에서 쇠를 달구고 남은 쇠똥(쇠 녹은 덩어리)이 발견되었는데, 가야시대 쇠를 녹이던 야철지(冶鐵址)라서 쇠 금(金)자를 써서 붙여진 지명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양산군에 속했던 금곡동은 하동방(下東方) 동원촌(東院村)과 공창촌(公昌村)이었다가 이후에 구포행정권에 합해져서 좌이면(左耳面) 동원리, 공창리가 되었다. 1914년에 동래군 구포면 금곡리가 되었는데 공창, 동원, 화정, 율리, 네 개의 마을이 있다.

2) 금곡동의 위치

북구는 부산광역시의 북서쪽에 있는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로 경부선 철도, 남해고속도로, 국도 14호와 35호선, 다대항 배후도로 및 도시철도 2호와 3호선의 통과로서 부산의 관문이자 교통의 요충지이다.

북쪽으로는 양산시 동면과 경계한 금곡동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사상구 모라동과 경계한 구포2동에 이르기까지 8.9km에 걸친 대상형(帶狀形)으로 도로가 형성되어 있다. 동쪽으로는 낙동정맥의 끝자락인 금정산을 주산으로 상계봉에서 백양산까지 수려한 산세를 배경으로 하고, 서쪽으로는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 1,300리의 하구에 자리를 잡고 있다. 화명택지개발, 구포·만덕 지역의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등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부산의 신흥 주거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성장 잠재력도 많은 편이다.

이 중에서 금곡동은 북구의 최북단에 있는 부산 서북부 교통의 관문으로, 앞으로는 낙동강을 아우르고 뒤로는 금정산을 보듬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면적은 8.12km²로 북구 전체 면적(39.37km²)의 20.6%로 가장 넓고, 인구 또한 38,997명(2020.12.31. 현재)으로 북구에서 가장 많은 행정동이다. 행정조직은 38개통 219개 반

으로 북구에서 가장 많은 통, 반 조직이 있으며 공무원은 25명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조달청 비축기지 자리에는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다. 첨단산업 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지식·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육성과 북부산 지역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우수한 젊은 인재 양성과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표1-1〉 북구(금곡동)의 위치

단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지명	극점	
동단	만덕동 산1-1번지	●동경 129° 04' 20" ●북위 35° 13' 08"	동서간 6.7km
서단	구포동 1157-1번지	●동경 129° 59' 25" ●북위 35° 11' 53"	
남단	구포동 산48-1번지	●동경 129° 01' 24" ●북위 35° 11' 07"	남북간 8.9km
북단	금곡동 산2번지	●동경 129° 02' 18" ●북위 35° 16' 37"	

자료: 제40회 북구통계연보(2020)

〈표1-2〉 북구(금곡동)의 기상개황 (2019년 기준)

평균 기온	강수량(年)	상대습도(평균)	일조시간(年)
15.7°C	1,623.2mm	63%	2,691.3hr

자료: 제40회 북구통계연보(2020)

2. 금곡동의 산세(山勢)

1) 금곡동을 수호하는 금정산

(1) 유래와 형성

높이는 802m로 낙동정맥이 남으로 뻗어 한반도 동남단 바닷가에 이르러 솟은 명산이며 부산의 진산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동래현 북쪽 20리에 금정산이 있고, 산꼭대기에 세 길 정도 높이의 돌이 있는데 그 위에 우물이 있다. 둘레가 10여 척이며 깊이는 일곱 치쯤 된다. 물은 마르지 않고, 빛은 황금색이다. 전설로는 한 마리의 금빛 물고기가 오색구름을 타고 내려와 그 속에서 놀았다고 하여 금정산이라는 산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절을 짓고 범어사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금정은 금어(金魚)가 사는 바위 우물에서 유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금정산은 낙동강과 수영강의 분수계가 되는데, 최고봉은 북쪽의 고당봉이다. 북으로는 장군계명봉이 뻗어 있고, 남으로는 원효봉·의상봉·파리봉·상계봉 등 600m 내외의 봉우리들이 백양산(642m)에 이어진다.

산꼭대기는 각섬석화강암(角閃石花崗巖)으로 되어있고, 남동부는 마산암류(馬山岩類), 북부는 안산암질 암류로 구성되어 있다. 산정의 능선에는 암반이 노출된 첨봉(尖峰)이 많으며 대체로 동쪽과 남쪽은 급사면, 북쪽은 완사면을 이룬다. 급사면의 산록에는 주빙하환경(周冰河環境)에서 운반·퇴적된 심층풍화 기원, 즉 핵석(核石) 기원의 화강암 암괴류를 형성하고 있다. 심층풍화 기원의 암괴류는 보통 3단계를 거쳐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1단계는 최종빙기(最終冰期) 이전의 온난 습윤한 환경에서 화강암 계열의 심층풍화에 기원한 원력(圓礫)과 토르(tor)가 잠재적으로 형성된다. 그다음 2단계에서는 최종빙기 동안의 주빙하환경에서 솔리플럭션(solifluction)과 포행(匍行)에 의한 암설(巖屑)의 이동으로 암괴류가 형성된다. 마지막 3단계는 암괴류를 구성하는 암설 사이의 세립물질(細粒物質)이 점진적으로 제거되면서 지형면의 미기복(微起伏)이 형성된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현황

금정산은 산의 북동쪽에 있는 범어사로 인하여 더욱 잘 알려져 있다. 범어사 서쪽에는 주봉인 고당봉이 솟아 있고, 그 북쪽 장군봉에서 동쪽으로 계명봉 능선이 범어사를 에워싸고 있다. 『삼국유사』에는 ‘금정범어(金井梵魚)’로 기록되어 있어 신라시대부터 널리 알려졌고, 항상 금정산과 범어사를 연관 지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범어사는 678년(문무왕 18)에 의상이 창건한 화엄십찰의 하나로 통도사, 해인사와 더불어 3대 사찰의 하나로 손꼽힌다. 20여 동의 가람과 신라시대의 석탑인 범어사 삼층석탑(보물 제250호)은 금정산과 더불어 관광 명소로 이름이 높다. 부근에는 계명암을 비롯한 여섯 암자가 있다. 이 밖에도 금정산에는 금정산성 · 미륵암 · 국청사 등이 있고, 상계봉 남쪽에는 병풍암 석불사가 있다. 사적 제215호로 지정된 금정산성은 원래 동래읍의 외성으로 축성되어 동래산성으로 불렸으나 금정산성으로 개칭되었다.

산성은 임진왜란 후 당시 경상감사의 진언으로 1703년(숙종 29)에 축성되었고, 그 뒤 다시 중축되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훼손되었다가 1972년부터 2년간에 걸쳐 동 · 서 · 남 3문과 성곽 및 4개의 망루를 복원하면서 둘레 17,336m, 높이 1.5~6m인 우리나라 최대의 산성이 되었다. 금정산 주변에는 높이 12m의 마애여래입상, 자연 동굴인 은동굴, 케이블카 시설, 식물원, 금강공원, 산성마을, 동래온천 등이 있다. (한국민속문화대백과사전)

고지도에 보면 화명의 대천 계곡을 중심으로 북쪽에 금정산이 있고 남쪽에 상학산이 있으며 조선시대 봉화를 올리던 봉수대가 설치되었던 계명봉이 공식 지명으로 나와 있다. 금정산 봉우리 중에서 시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름 중에는 최고봉인 고당봉에서부터 상학산 최고봉인 상계봉과 계명봉, 파리봉(일명 波留峰, 615m) 정도였다. 북구와 연접해 있는 성문은 서문(화명 제2동과 연접)과 남문(만덕 제1동과 연접), 아문(금곡동과 연접)이다.

북구의 산세는 낙동정맥의 줄기인 ‘금정산맥’에 속해 있다. 고당봉을 주봉으로 하는 금정산은 금곡동 ~화명동 쪽으로 장골봉의 긴 능선이 펼쳐진다. 지형적으로 학이 양 날개를 펼치고 있는 형상을 한 상학산을 중심으로 화명 쪽으로 화산(華山)이 솟아 있고 산성 쪽으로 파리봉, 만덕 쪽으로 병풍암 석불사와 만덕고개로 이어진다. 구포에는 백 양산의 줄기인 주지봉이 주산으로 솟아 있고 강변 쪽으로 범방산이 낙동강을 향해서 길게 뻗어 있다.

〈표1-3〉 금정산이 위치하는 행정구역 현황

광역 지자체(2)	시군구(4)	읍면동(12)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덕천동, 만덕동, 화명동
	동래구	온천동
	금정구	구서동, 금성동, 남산동, 노포동, 장전동, 청룡동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2) 장골봉(長谷峰, 496.4m)

금정산의 자봉(子峰)으로 해발 496.4m이며, 동쪽으로는 미륵봉과 이어져 있고 골이 많고 깊다 하여 ‘장골봉’이라 이름하였다.

고당봉에서 서쪽으로 사시골을 거쳐 아문(亞門) 밖으로 흘러내리는 긴 능선을 따라 금정산성 성곽이 이어져 있다.

금곡 문리재에서 능선을 따라 오르면 울창한 수림(樹林)에서 벗어난 온갖 형상을 한 기암괴석들이 군립해 있는 곳에 장골봉 암봉이 솟아 있다.

이 산줄기에서 석곽을 따라 직각으로 방향을 꺾어 급한 경사를 이루면서 산성 아문 쪽으로 뻗어 내린다.

장골봉 아래 산성 제6망루가 있던 자리에는 돌을 쌓았던 흔적과 출입하던 석문(石門)이 남아있다. 이 봉우리에서 산성은 절벽을 타고 바위 사이로 곡예를 하듯 사시골 골짜기 쪽으로 뻗어 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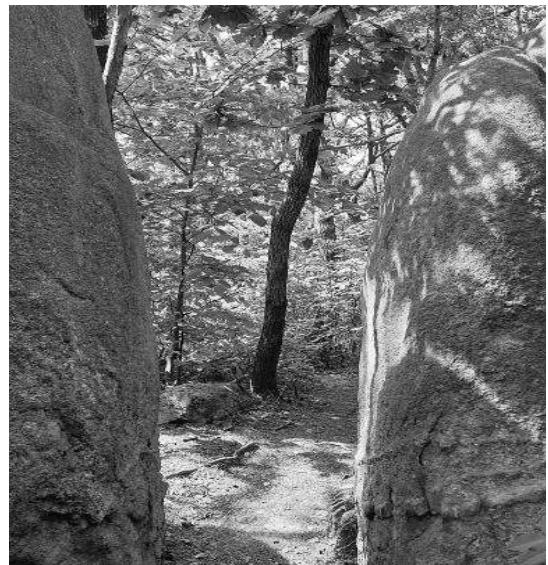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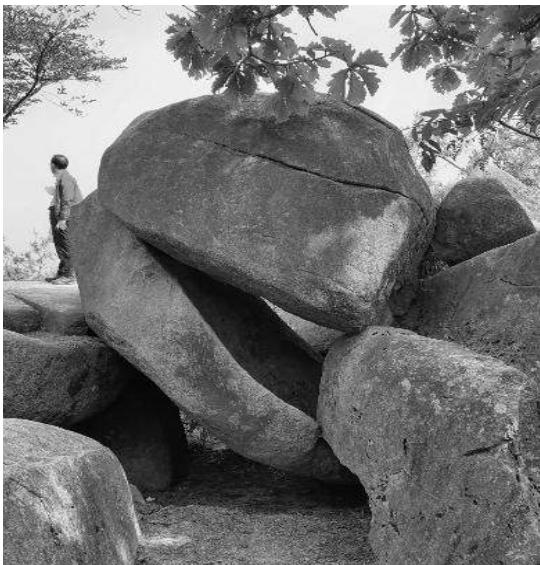
장골봉 아래 사시골 골짜기는 산성 북문재에서 발원하는 대천(大川) 큰 냇물이 시작되는 금정산에서 제일 긴 골짜기로서 조선시대 승군이 주둔했던 해월사(海月寺)가 있던 곳이다.

현재는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이 들어서서 명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장골봉이야말로 금정산에서 으뜸가는 골짜기를 품고 있는 봉우리인 것이다.

(『부산북구향토지』, 2014, pp. 154~155)



장골봉 정상



장골봉 입구

3. 강과 하천

1) 금곡동을 보듬는 낙동강

(1) 개요

본류의 길이 525.15km, 남한에서 제일 긴 강이며, 북한을 포함하면 압록강 다음으로 길다. 총 유역면적은 23,860km²로 남한 면적의 1/4을, 영남 면적의 3/4에 해당한다.

함백산에서 발원한 본류는 남쪽으로 흐르다가 안동 부근에 이르러 반변천(半邊川, 116.1km²)을 비롯한 여러 지류와 합류, 서쪽으로 흐르다가 함창과 점촌 부근에서 내성천(乃城川, 107.1km²)과 영강(潁江, 69.3km²)을 합류한 뒤 다시 남쪽으로 흐른다.

이 유로(流路)에서 상주와 선산에 이르러 위천(渭川, 117.5km²)과 감천(甘川, 76.6km²)을 합하고 다시 대구광역시 부근에서 금호강(琴湖江, 118.4km²)과 합류한다. 경상남도에 접어들면서 황강(黃江, 116.9km²)과 남강(南江, 193.7km²)을 합한 뒤 동쪽으로 흐르다가 삼랑진 부근에서 밀양강(密陽江, 101.0km²)을 합친 뒤 남쪽으로 유로를 전환하여 부산광역시 서쪽(사하구)에서 바다로 흘러든다.

『동국여지승람』에는 ‘낙수(洛水)로 표기되어 있으며, 『택리지』에는 ‘낙동강’으로 되어 있다. 본래 낙동이란 가락의 동쪽이라는 데에서 유래되었다 한다. 영남지방의 전역을 휘돌아 남해로 들어가는 낙동강은 가야와 신라 천년간의 민족 애환과 정서가 서려 있다. 임진왜란과 6·25전쟁의 비극을 간직하고 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영남인들 삶의 젖줄이 되어왔다. 오늘날은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산업화의 동맥으로서 낙동강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2) 낙동강의 자연환경

분류의 주 방향은 남북이나 두 구간에서는 지질구조의 지배를 받아 동서 방향으로 흐른다. 즉, 안동 부근에서 점촌까지는 안동 단층곡(斷層谷)의 지배를 받아 서쪽으로 흐르고, 점촌 부근에서는 변성암 지대와 중생대 퇴적암의 지질 경계를 따라 남쪽으로 흐르며, 남강의 하류 지점에서부터는 동서구조선(東西構造線)의 지배를 받아 다시 동쪽으로 흐른다.

부산 서쪽에 이르러 언양 단층선의 남쪽 연장선을 따라 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흘러든다. 낙동강은 경사도가 극히 완만하여, 하구에서 약 344km 상류에 있는 안동 부근도 하상고도(河床高度)가 90m에 불과하다. 하상의 평균경사는 1만분의 17로서 압록강보다 완만하다. 전 유로 가운데 가장 경사가 급한 곳은 태백산지중의 유로로 경사도가 1만분의 46에 이르며, 네 곳에 경사의 천이점(遷移點: 경사도가 급변하는 지점)이 있다. 그러나 태백산지를 지나 경상누층군(慶尙累層郡)의 퇴적암 지대로 들어서면 하상의 경사는 1만분의 3 정도로 완만해진다. 이에 따라 중류나 하류는 평형상태에 달하고 흐름이 완만해지며 사행유로(蛇行流路)를 취하고 있는 예도 있다. 특히 마지막 160km 구간에서의 경사는 1만분의 1 정도로 극히 완만하다. 이렇게 유로의 경사가 완만하여서 과거에는 안동까지 배가 올라갈 수 있어서, 낙동강은 영남지방의 내륙수로교통의 동맥이 되었다. 강기슭에 발달한 하단·구포·삼랑진·수산·남지·현풍·왜관·안동 등지는 과거의 나루터 춘락이거나 선착장들이었다.

낙동강의 하구에는 삼각주가 발달하여 우리 나리 최대의 충적평야인 김해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양산협곡을 벗어난 본류는 구포의 상류 쪽 2km 지점에서 2대 분류로 갈라지며, 이들 분류는 다시 이차적인 분류로 갈라진다. 갈라진 분류는 하류에서 다시 만나면서 대저도(大渚島)·맥도·일옹도 등의 하중도를 형성한다. 이 삼각주는 전체적으로 동서 16km, 남북 18km의 대충적지를 이룬다. 20세기 이후에는 홍수방지와 삼각주 개발을 위하여 인공제방을 많이 축조하였으므로, 수향(水鄉)과 같은 경관이 나타난다. 최근에는 염해의 방지와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하구에 거대한 하구언을 건설하였다(1987년 11월 완공).

낙동강 유역의 주요 식물상을 보면 상류·중류 유역은 남부난온대낙엽·활엽수림대, 하류 유역은 조엽수림대(照葉樹林帶)에 속한다. 전자는 주로 온대성 식물과 만주계 식물 및 한국 고유식물이 혼재하며, 극히 일부 난대성 식물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온대성 수종으로는 잣나무·육송·노간주나무 등의 침엽수와 굴피나무·떡갈나무·상수리나무·느티나무 등의 활엽수가 있고, 만주 계 식물은 전나무·사시나무·妣나무·물푸레나무 등이 있다. 한국 고유식물로는 철쭉·참조팝나무·개나리 등이 있다.

동물상으로 유명한 것은 하구 일대의 철새 떼이다. 낙동강하구의 을숙도에서 사자도 등과의 사이에 펼쳐진 갈대밭과 모래톱은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로,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되어 있다. 하구 일대는 다른 하천과 달리 넓은 삼각주를 형성하고 있는 데다 수심이 얕고 해수와 담수가 교차하기에 각종 동식물성 플랑크톤, 연체동물, 갑각류, 소형 어류, 그 밖에 여러 해조류가 번식하고 있어 조류의 먹이가 풍부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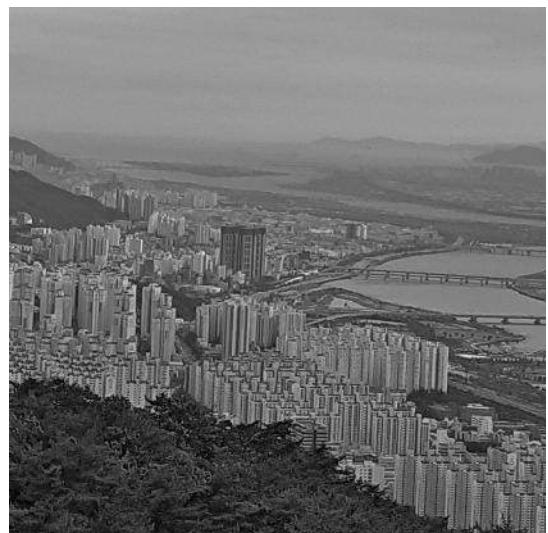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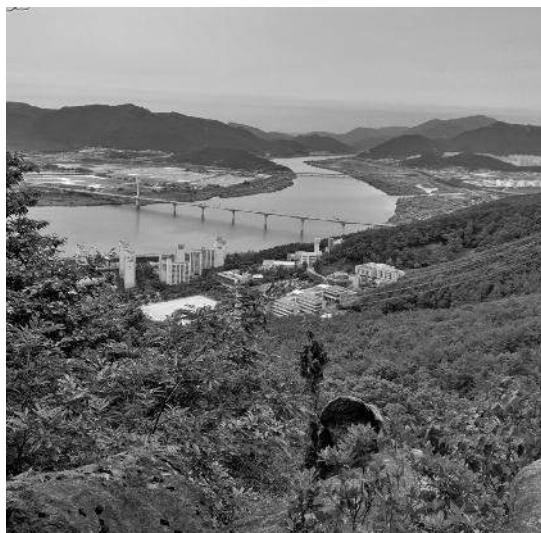
또 겨울이 비교적 온난하고 여름은 시원한 해양성기후에 속하므로 겨울 철새의 월동지, 여름 철새의 번식지로 매우 적합한 지역이다.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조류는 약 120 종으로, 이 가운데 사철을 두고 머무는 톱새가 10여 종이고 나머지 110여 종은 철새들이다. 톱새로는 참새 · 꿩 · 때까치 · 매비둘기 · 붉은머리오녹눈이 등이 손꼽힌다. 톱새 중 겨울에는 주변의 갈대밭에서 머물다가 여름에는 산에서 서식하는 종류도 있다.

겨울철에 오는 새는 10월 상순부터 이듬해 3월 중순까지 머무는데 큰고니와 오리종류로, 청둥오리 · 쇠오리 · 쇠기러기 · 두루미 · 농병아리 등이 있다. 여름 철새는 대체로 4월부터 9월 사이에 볼 수 있는 새들로, 백로 · 황새 · 왜가리 물총새 등이다. 이 밖에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봄 가을 동안 잠깐씩 머무르다 가는 나그네새로서 마도요뒷부리도요 · 노랑발도요 등이 있다.〈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낙동강은 어머니 품같이 넓기도 하지만 소박한 아이처럼 아기자기한 미소를 머금고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을 유유히 흐르고 있다.

2) 골마 도량

금곡동 공창마을의 중앙을 흘러내리는 하천이다. 현재의 효열로 219번길은 여러 갈래의 하천이 한곳으로 모여서 형성된 골마도량이 흘렀는데 공창마을의 젖줄이기도 한 이 골마도량이 마을 경계를 이루었다. 하천을 경계로 북쪽의 낮은 골짜기 주거지역을 ‘골마’(골짜기 마을)라고 하며 남쪽의 높은 언덕 위의 주거지역을 ‘등마’(등허리 마을)



금정산에서 내려다본 낙동강



골마 도랑이 있었던 곳

(출처: 좌-<https://blog.naver.com/yeuill/221748618147> 우-<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kerw79>)

라고 한다. 등마는 공창 본 동네로서 골마도랑을 경계로 한 남쪽의 높은 등허리 지역으로 현재의 유림아파트 방향의 효열로 219번길 지역의 주택지를 말한다.

가구 수는 가장 번성했을 당시 40가구 정도였다고 한다. 골마는 골마도랑을 경계로 북쪽의 낮은 골짜기 지역으로 현재의 한솔아파트 방향의 효열로 219번가 지역의 주택지를 말한다. 1959년 추석날 ‘사라호 태풍’ 때 폭우로 바위가 무너지면서 물이 넘쳐흘러 골마 쪽 거주지의 가구가 물에 떠내려가고 1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다.

지금은 흔적만 있을 뿐 도시화의 바람으로 골마 도랑의 흔적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부산북구향토지』, 2014, p.181 및 『공창마을』, p.6)

3) 소바우골 도량

북구 금곡동과 양산시와의 경계를 이루는 개울이다. 산 중턱에 소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 개울 이름이 소바우골(소방골) 도량이 되었다는 이야기와 옛날에 마을에서 소 한



소비우골 도량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수년 후 아홉 마리의 새끼와 함께 돌아왔다고 하여 소바우골이라 불리었다는 설이 있다.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경계를 이루면서 흐르는 이 도량은 적은 수량이지만 물이 마르지 않고 흘러 경부선 철로 밑 수로를 거쳐 낙동강으로 들어간다.

(『부산북구향토지』, 2014, p.181)

4) 공창마을 집수정

도덕골은 공창마을에서 가장 골이 깊고 수량이 풍부하며, 수질 또한 좋아서 식수로 이용하기에도 손색이 없었다. 그래서 도덕골을 흐르는 물은 이곳 집수정에 모아서 아래 공창마을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되었다.

금곡동은 율리, 화정, 동원, 공창 내 개의 마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공창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마을에는 물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물이 풍부한 공창마을은 복 받은 마을이라고 했다. 지금 어르신들의 어머님들께서는 도덕골의 물을 길어다가 머리에 이고 와서 집에 있는 커다란 단지나 물독 등에 모아두고, 식수로 사용했다고 한다.

현재도 공창마을에서는 일정 금액을 내고 집수정에서 물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현재 화목 아파트 내 당산나무 옆에 집수정이 있었으나, 주택개발사업으로 지금 위치로 옮겨졌다 한다.



공창마을 집수정 가는 길과 집수정

4. 계곡

금곡동의 계곡은 금정산(金井山)의 주봉(主峰)인 고당봉(姑堂峰)에서 낙동강 변으로 뻗어 내린 첫 골짜기(谷)로서 산이 높아 사이사이로 작은 골짜기들이 많이 뻗어 있다. (부산북구 향토지, 2014)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복승(복승아)나무골

현재 조성아파트 뒤 약수터가 있는 곳을 예전엔 복승나무골이라 했다고 하는데, 돌복승나무 군락지가 있어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돌복승은 약효가 좋아 약으로 이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채취해 갔다고도 전해진다. 지금도 이곳 주변에는 돌복승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나뭇가지에 열린 돌복승아를 볼 수 있다.

또한 약수터 옆에 있는 한 돌복승나무는 예전에 밑 등 바로 위까지 잘리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지금처럼 큰 나무로 자랐다고 한다.



약수터 옆 돌복승아나무

(1) 복승나무골 저수지

복승나무골 약수터 맞은편 밭으로, 예전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두어 일종의 저수지를 만들어 주변의 밭을 가꾸었다고 한다. 물을 가두었던 흔적은 아직 남아있지만, 현재는 밭으로 변해 있다.

이곳에서는 원래 벼농사를 지었는데 산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기온이 낮아 이곳에서 벼농사가 어려워, 이 땅을 묵혀 놓았다가 기후조건에 맞는 매실이나 복승아나무를 심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복숭나무골 저수지의 옛 모습

2) 안등골

안등골은 공창마을의 안쪽 등을 말하는데, 이곳에는 옛날 자연적인 저수지가 있어 그 물로 조선시대부터 농사를 지었던 함안 조씨(咸安 趙氏)들이 모여 살았다. 그런데, 어느 해 폭우가 내려 이 저수지가 무너져 내리면서 조씨 일가가 멸족의 화를 입게 되었다고 한다. 그것을 증명하듯 안등골에 나무가 우거지기 전만 하더라도 사기, 옹기, 기와 조각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고, 옛 무덤 자리에는 조씨 각자(刻字)가 새겨진 묘비들이 눈에 띄었다고 한다. 저수지 터가 무너지고 나서 돌 너덜경(돌이 많이 쌓인 비탈)이 2곳이나 생겨 후에 이 돌들은 낙동강 제방을 쌓을 때 운반되어 사용되었다.

금곡동 공창마을에는 옛날 낙동강 변 쪽에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 뒷산 쪽에 개간을 해서 산답(山潘)을 형성하였다.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개울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몇 군데 남아있는데 그중 하나인 안등골에는 논밭이 6 천여 평이나 있었다.



안등골 돌너덜경

(1) 방아송

안등골에서 산을 따라 올라가면 안등과 불메등으로 물이 갈라지는 곳에 마을 정자 나무로서 수백 년 된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디딜방아 형상으로 생겨서 동네 사람들은 방아송(반송)이라고 불렀다. 개인 소유였던 방아송은 일제시대 때 베어져 사라지고, 지금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2) 불상터

안등골에 산사태가 나서 이곳에 살던 함안 조씨(咸安趙氏)들이 멸족하여 불쌍하다는 뜻으로 불상터라고 불렀다. 지금은 조씨들이 거주했던 터와 계단식 논이 잡초에 묻혀 그 흔적만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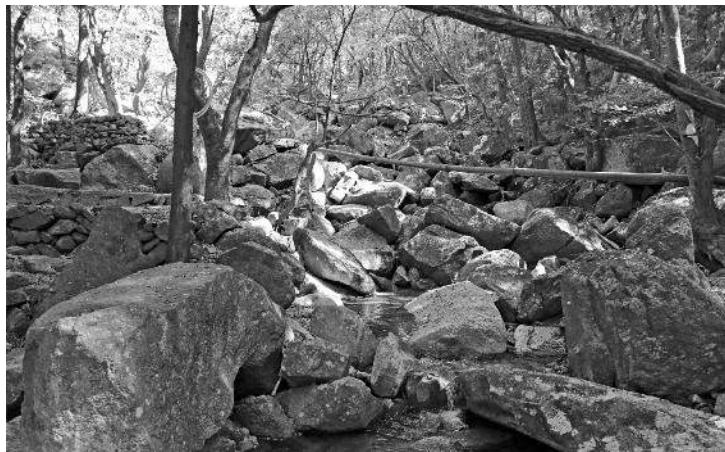


불상터

3) 도덕골

인재개발원 뒤쪽에서 옛 금룡사 산등성까지 형성되어 있는 골짜기의 이름이 도덕골이다.

도덕골이라고 이름 붙여진 유래는 이곳에 큰 길이 있어서 길 도(道)에 큰덕(德) 자를 써서 도덕(道德)골이라고 했다는 설이 있다. 때문에 불매(범에)등에서 캐낸 쇠를 옮기기 위해 도덕골에서 국도까지 연결된 큰 길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도덕골 가는 길은 현재도 옛길 그대로 남아있으며, 지금은 주변의 풍경을 잘 볼 수 없을 만큼 수풀이 우거져 있지만, 옛날에는 나무들을 땔감으로 사용하느라 민둥산이었다고 한다.



도덕골

골은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좋아서 현재도 도덕골에서 내려오는 물은 공창마을 식수로 사용되고 있다. 지금도 도덕골 주변에 경사진 땅을 일구어 계단식으로 만들어 진 천수답이 있는데 계단식 경작지는 세월이 흘러 개발이 많이 되었음에도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4) 명근쟁이골

망건장이의 사투리 말로 옛날 갓을 쓰기 전에 머리에 썼던 망건을 만드는 사람이 살았던 골짜기다.

5) 문바우골

산 끝에 큰 돌이 두 개 마주 보고 있는 형상이 문 같다 하여 문바우라고 이름 붙여졌으며 그 옆으로 난 골을 문바우골이라 한다.

6) 백지미골

공창 뒷산 골짜기로, 이곳은 예전에 유명한 백정이 죽어 묘를 쓴 곳이라 하여 백정 미골, 백정묘골, 백지미골로 불린다.

7) 삼박골

문바우골 밑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은 옛날 금맥(金脈)을 찾아 뚫어 놓은 굴이 많았던 곳으로 옛날에 이곳에 산삼이 났다고 해서 삼박골이라는 설(說)과 바위 3개가 서 있어 삼박골이라고 했다는 설이 있다.

8) 신신골

신신골(신선골)의 유래는 골짜기 위에 큰 바위가 있는데 바위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서 사람들의 추측으로 그 바위 위에는 신선들이 떡을 찧어 먹는 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신신골이라고 했다는 설이 있다. 지금은 텃밭이 형성되어 있는 신신골에는 산 중턱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돌 줄기가 인상적이다. 이 돌 줄기는 산 중턱에서 시작되어 낙동강까지 연결되어 있었다고 하니 그 위용이 대단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던 것이 경부선 철로와 35번 국도 건설, 금곡동 택지 조성 등으로 신신골 아래쪽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옆으로 베끼미골이 있다.



신신골

9) 채이골

챙이처럼 생긴 골짜기라하여 채이골이라고 붙여진 이름이 사람들의 입을 거쳐 내려오면서 채이골이라는 설과 마지막골, 제일 윗골이라 하여 채이골(제일윗골)이라는 설이 있다. 도덕골 위쪽에 있는 채이골은 오르는 길이 아주 가팔라서 현재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 길을 찾아가기가 힘들지만, 그 당시에는 나무를 하며 오르내리던 곳이라고 한다. 공창주민들의 식수원이 있는 곳으로 이 물은 호포 쪽과 금곡 쪽으로 갈라져 흘러내린다. 채이골은 거의 산꼭대기 지점이라 물이 나올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땅에서 물이 나와 부산대 교수들이 조사해보니, 과거 금룡사를 둘러싸고 있는 병풍바위에서 거제도 해금강 근처 주로 서식하는 식물이 발견되어 과거에는 강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정을 한다.

10) 큰골·작은골

소바우골 남쪽 산등 너머에 있는 큰 골짜기와 작은 골짜기를 일컬으며, 작은 골은 현재 소방학교 너머의 골짜기를 말하고, 큰 골은 현재 가축 축산검사소가 있는 곳이다.

이곳은 마을에 초상이 있을 때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던 공동묘지 터였다. 크기에 따라 큰 골, 작은 골로 불렸는데 금곡동에서 호포 쪽으로 가다 보면 작은 골이 먼저 나오고, 작은 골을 지나 큰 골이 나온다.

11) 소바우골(소방골)

양산시와의 경계를 이루는 골짜기로서, 옛날에 마을에서 소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수년 후 아홉 마리의 새끼와 함께 돌아왔다고 하여 소바우골이라 불리었다는 설과 소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 골짜기라 소바우골이라고 이름 붙여졌다는 설이 있다.

12) 개쑥바꼴(개시바꼴)

개쑥이 많이 자라는 곳으로, 이곳의 물은 화정 주민들의 식수원이 되고 있다.

13) 따박골

화정마을과 율리마을의 경계를 이루는 곳의 많은 바위가 있었던 골짜기다. 이 바위들은 해방 후 벌채 허가가 난 후 소나무를 벨 때 채석을 하여 없어졌다. 1930년대 부산 영도다리 공사 때 이곳 따박골 돌들이 케이블로 강변에 옮겨져 배에 실려 갔다고 한다.

(1) 좌방골

따박골에서 도랑 따라 내려오면 좌측의 율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골짜기다.

(2) 화정마을의 뒷산에 있는 골짜기들

참샘이골, 안골, 밭새미골과 사기를 구웠다는 막터골[幕基谷]이 있다.

(3) 탕골(절터)

화정마을의 산 정상부근 인데, 현재 철탑이 있는 곳 좌측의 바위 있는 곳에서 200m 아래쪽에 있는 옛날의 절터로서 기와 조각 등이 흩어져 있었다

14) 서당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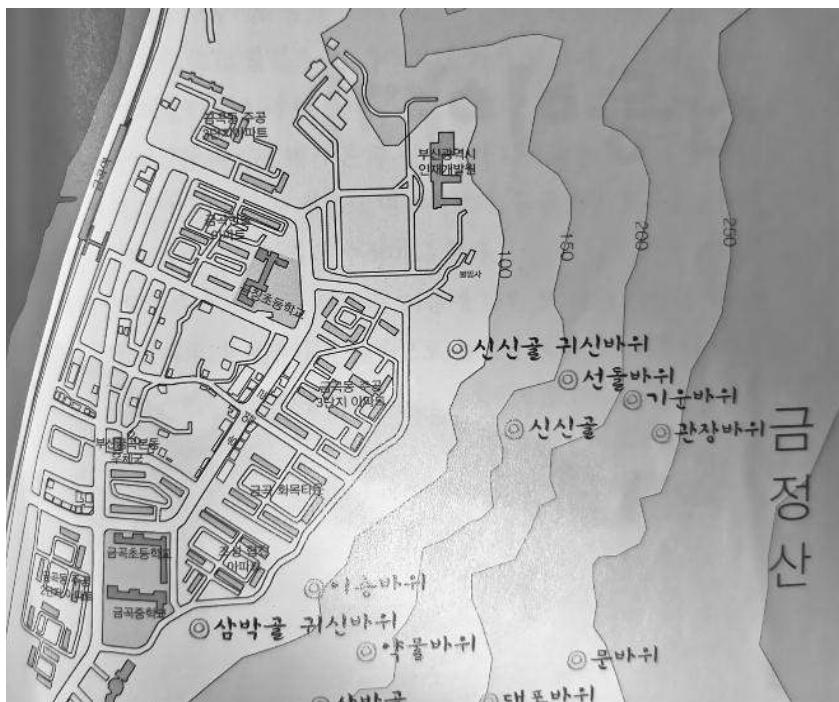
율리패총이 발견된 골짜기로 화명 대천리의 서당골로 넘어가는 곳이다. 옛날 고개 넘어 대천리 양달 마을에 서당이 있는 서당골로 간다고 이곳에 서당골이란 지명이 붙여졌다. 그리고 서당골에 밤나무가 많아서 밤나무골이라고 했는데 율리(栗里)라는 지명이 여기서 생겨났다고 한다.



서당골 출처: 『부산북구향토지』, 2014. 및 『공장마을』, 2012

5. 바위(奇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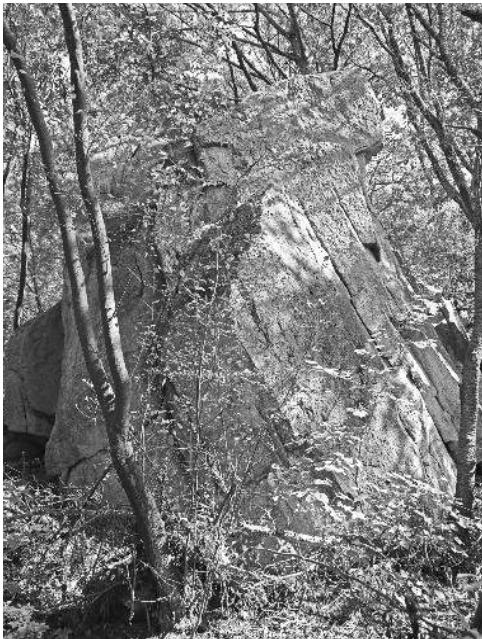
금곡마을 유적을 찾다 보면 바위나 등마루에 익힌 이야기들이 유난히 많다. 예전의 바위나 등마루는 만남의 장소 같은 역할을 했으며, 산에 나무하러 가거나 소 풀 먹이러 가면 어느 바위, 어느 등마루에서 만나자고 하곤, 소는 풀이 많은 곳에 풀어두고 약속장소로 가서 해 저물 때까지 놀거나, 나무를 한 짐 해오다 바위나 등마루에서 놀다 오기도 했었다.



1) 관장바위

바위 형태가 머리에 쓰는 관장같이 생겼다고 하여 이름이 관장바위가 되었다는 설이 있고, 관장 만드는 사람이 살던 곳이라 하여 관장바위가 되었다고도 하며, 간장을 담글 때 쓰는 메주같이 생겼다 해서 간장바위라고도 했다.

또 하나, 고을 관장이 범어사로 가는 길에 이 바위에서 쉬어갔다고 해서 관장바위라고 이름 붙여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관장바위

2) 기운바위

현재는 주변에 퇴적물과 나무들이 있어 올라가는 데 그리 힘든 바위는 아니지만, 예전 민동산이었을 때는 주변에 잡을 것도 하나 없어서 2m가 훨씬 넘는 높은 바위를 지게에 짐을 진 채로 오르내리기엔 기운을 내야 가능 하다는 뜻에서 기운(힘을 뜻함) 바위라고 이름 붙여졌다는 설이 있다. 또 단순히 ‘기울어져 있는 바위’라고 해서 기운바위라고 불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3) 대포바위

대포 모양의 바위로 낙동강을 바라보고 있으며, 당장이라도 대포 한방을 날릴 수 있을 것만 같은 기세를 보인다.

마을 어른신들은 6.25 전쟁 때 북한군들이 삼랑진까지 내려왔는데 대포바위를 보고 진짜 대포로 착각한 덕분에 공창마을은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공창마을 주민들에게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존재다.

이런 믿음 때문인지 비가 오지 않아 가뭄었을 때는 마을주민들이 쌀을 한 되씩 거두어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내곤 했는데 그러면 신기하게도 단비가 내렸다고 한다.



대포바위

4) 대문(大門)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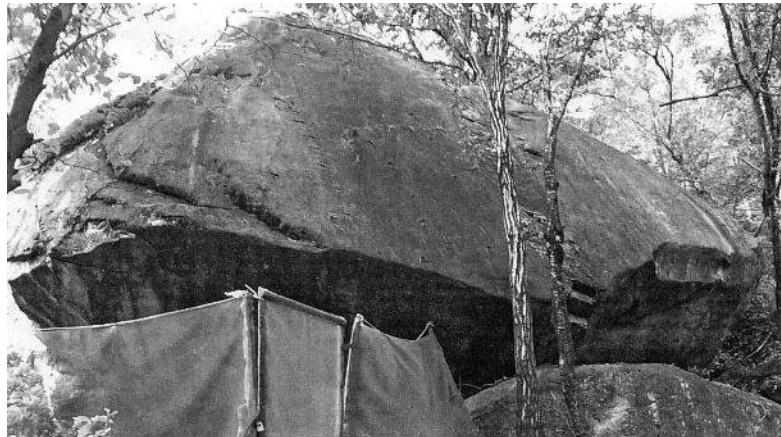
공창마을의 뒷산 마을쪽에서 바위를 쳐다보면 마을로 들어오는 출입문처럼 균형을 이루어 마주보고 서 있어 대문바위라고 불렀다. 지금은 나무에 가려 바위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대문바위

5) 삼박골 귀신바위

이 바위에 귀신이 나타나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새벽이나 저녁 어스름쯤 외진 곳에 크고 검게 있는 바위가 마치 귀신처럼 보여서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귀신바위 이름에는 깊은 산속에서 오래 머무르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내포된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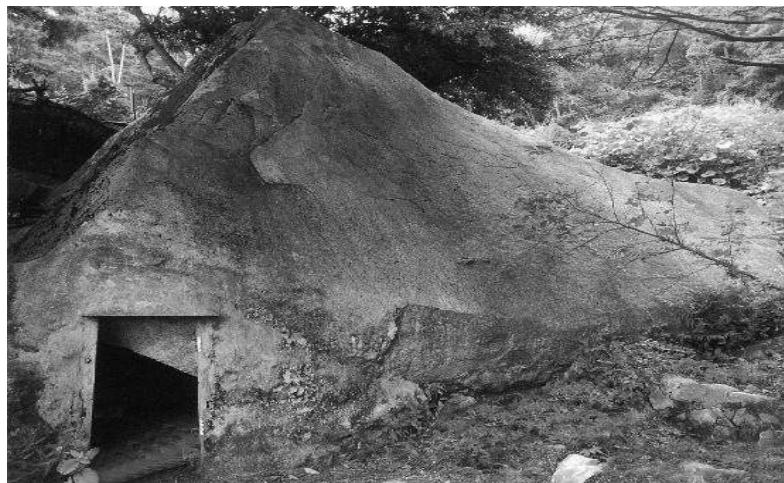
삼박골 귀신바위

6) 신신골 귀신바위

신신골 어귀에는 제법 규모가 큰 바위가 하나 눈에 띈다. 바위 중에 귀신바위가 있는 것은 신나게 놀다 해 저물 무렵에 내려오다 보면 사람보다 훨씬 큰 바위 그림자가 일렁이는 것이 무섭게 보여 그러기도 했지만, 해질녘 하산길은 위험하니 해지기 전에 내려 오라는 뜻이 숨어있다고 한다.

이 바위는 안이 비어있고 어두워 귀신바위라 하기도 했다고 한다.

현재는 바위 안에 굴처럼 작은 공간의 입구를 시멘트로 만들어 무속인이 치성을 드리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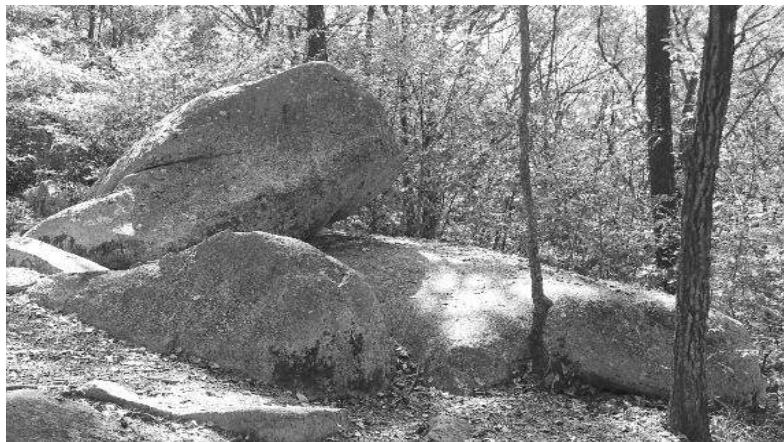


신신골 귀신바위

7) 선돌바위

바위 모양이 서 있다고 해서 선돌바위라 하며, 마을로 내려오는 길목에 있는 바위 중 마지막 바위로, 예전 마을주민들은 이곳에 모여 쉬면서 담소를 나누고 마을로 돌아갔다고 한다. 마을로 내려오는 마지막 만남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선돌 바위는 현재의 진홍사 위쪽에 자리 잡고 있다.



선돌바위

8) 신선바위

공창마을에서 고당봉을 오르는 산 중턱에 솟은 크고 넓은 바위가 있다. 주변 낙동강 경관이 너무도 수려하여 하늘의 신선이 반하여 매일같이 내려와 바둑을 두고 풍류를 즐길만한 자리라 하여 신선바위라 이름 지었다.

옛날 신선들은 이 바위에 내려와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낙동강 경치에 시간 가는 줄 몰랐으리라!

양산에서 낙동강하구 명지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낙동강의 경치가 매번 보아도 가슴을 떨리게 한다. 꼭 한번 뒷산에 올라가면 신선바위에 걸터앉아 신선이 된 기분으로 풍광에 취해 보시길!



신선바위

9) 약물바위

큰 바위 가운데 부분이 웜푹 패 있어 물이 고인 바위로 옛날 의약품이 귀했던 시절, 부스럼으로 고생하던 아이들이 어머니 손에 이끌려와 약물바위에서 몸을 씻으면 신기하게도 깨끗하게 나았다고 전해진다.

비가 내려 고인 물이 어느 정도 증발하면 나무 수액 등이 더해져 과학적으로는 증명하기 어려운 약리 작용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지금은 낙엽이 떨어져 패인 부분이 다 메워져 있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그곳에 있어 찾기가 어렵다.

10) 이층바위

조성아파트에서 동네 체육시설로 올라가는 중턱에 바위 두개가 포개져 있어 이층바위라고 이름 붙여졌다.

이층바위 뒤에는 공간이 있어 소를 몰고 산에 왔다가 갑작스레 소나기를 만나면 소는 그냥 놓아두고, 바위 뒷공간에 들어가 소나기를 피하기도 했다.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빗방울이 그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았다 한다.

11) 장삿배바위

고분등 산 너머에 있는 장삿배(商船)처럼 생긴 바위.



이총바위

12) 영감바위·할매바위

화정마을의 지형인 소쿠리터에 마을의 남쪽 끝에 영감바위, 북쪽 끝에 할매바위가 있어 소쿠리의 손잡이 자리라고 하였다. 이곳 지형이 소쿠리터라서 토박이들은 오래 살면 모든 일이 잘 성사(成事)되지 않고 외래인들은 잘된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현재 북쪽의 할매바위 만 남아 있다.

13) 알터바우

원시 신앙의 유적으로 돌에 알터처럼 둥글게 파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율리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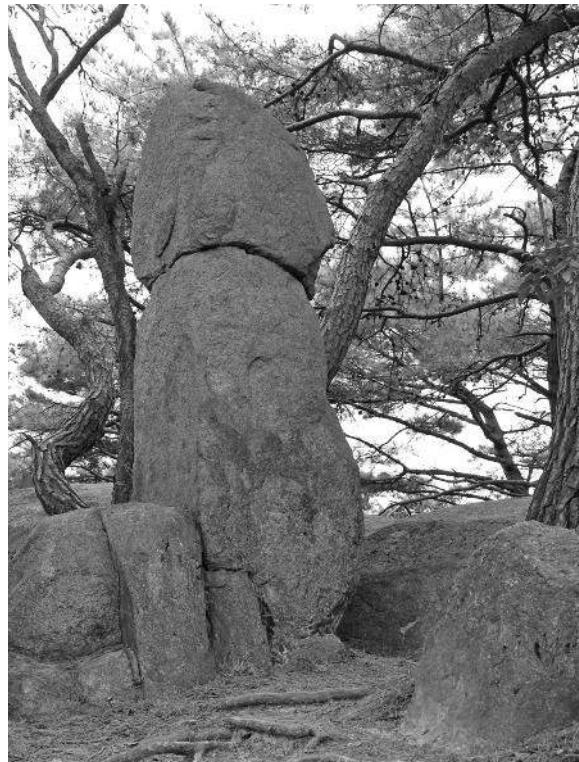
알터바위

에는 2개의 알터바위가 있었으나 지금은 당산나무 앞에 있는 바위만 남아있다. 옛사람들은 풍요와 생산을 염원하는 것이 생활의 첫 번째 일이다.

이곳 율리 알터 유적은 그러한 것을 잘 대변해주는 원시종교에 관련된 민속으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하여 여인들이 이곳에 찾아와 길쭉한 돌로 구멍을 갈며 아들을 낳게 해 달라고 빌었다 한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성혈(性穴이)라고 부르며 ‘덴마크’ 와 ‘시베리아’에서 발견되어 이렇게 명명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산과 풍요를 비는 원시종교의 유적으로 알려졌다.

14) 장골봉 양근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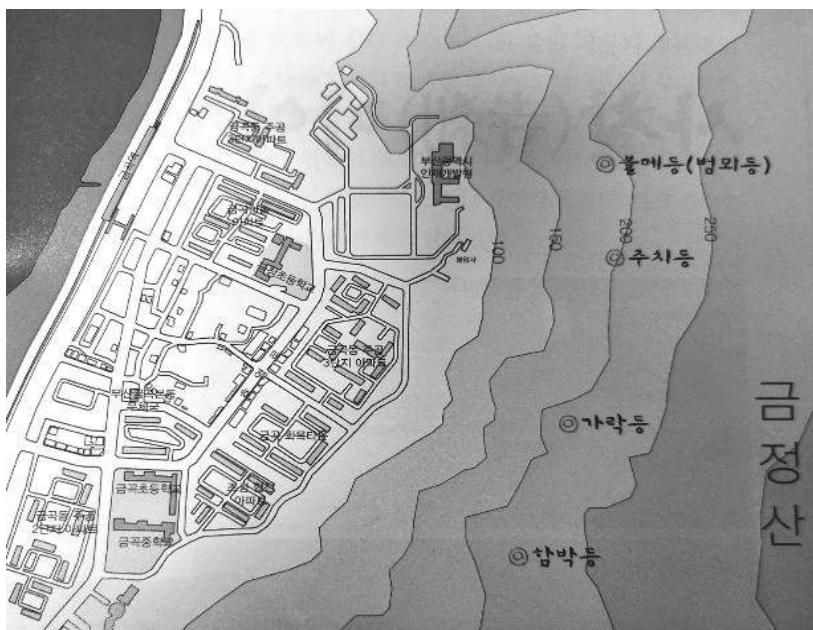
금정산 장골봉 바로 아래 금곡 방향으로 있는 바위다.



장골봉 양근바위

출처: 『부산북구향토지』, 2014. 및 『공창미을』, 2012.

6. 고개·산등



1) 금곡 문리재(門里峙, 물래재)

금곡동 공창마을에서 산등성이를 따라 금정산성 아문으로 오르는 고갯길이라 문리재라 하였다. 옛날 동원진 수참 역원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살던 공창마을에서 이 고개를 넘어 아문리에도 가고 범어사까지 다녔다고 한다.

고갯길 정상인 아문이 있는 곳에는 조선시대 금정산성 축조 때 생겨난 아문리(亞門里)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는 8·15 광복 후까지 산답(山畠)을 경작하여 몇 세대가 살고 있었는데 6·25전쟁 당시 양산의 공비들이 산을 타고 넘어올 때 모두 철수했다고 한다.

금정산에 있는 고개 중에는 물래재, 북문재, 산성고개, 모래재 등이 있다. 물래재는 금곡동 공창마을에서 함박등을 지나서 골짜기를 따라올라 산성으로 넘어가던 고갯길이다. 산등성이에 ‘문리(門里)재’에서 유래했음이 옛 기록에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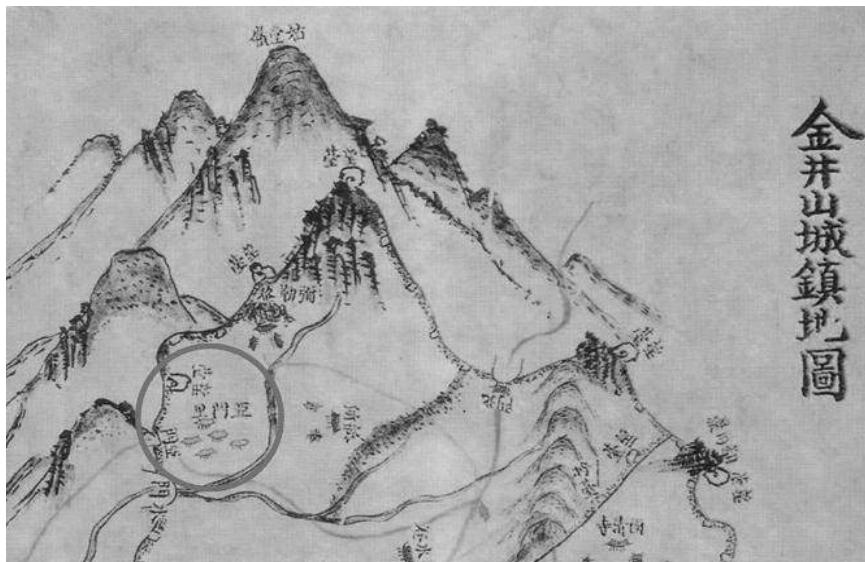
조선시대 금정산성에 대한 기록과 지도 중에서 1872년에 제작한 금정산성진 지도를 보면 군사들이 주둔했던 산성진과 산성 관내의 4대문 및 망루 등이 상세히 그려져 있고, 산성에 있던 죽전리, 중리, 공해마을과 함께 아문리(亞門里)라는 마을지명과 가옥의 그림이 나타나 있다.

이 지도에 나오는 아문리가 문리재의 지명 유래를 밝혀주는 단서가 된 것이다. 지도에 나와 있는 아문리의 위치는 어디일까? 금정산 고당봉에서 미륵봉을 거쳐 서쪽으로 줄곧 뻗어내린 금정산성은 장골봉(長谷峰)의 석문(石門)이 있는 곳에서 직각으로 꺾어 급경사를 이루며 사시골 쪽으로 뻗어 내려 다시 작은 산봉우리를 하나 넘어 중성(中城)이 있는 곳까지 성벽이 이어지고, 여기서 다시 서문 쪽으로 경사를 이루며 성은 뻗어내리고 있다. 장골봉에서 뻗어내린 산성에는 현재의 부산광역시 학생교육관(금성동) 아래 계곡을 가로지르는 수구문(水口門)과 함께 하나의 암문(暗門)이 조성되어 있다.

암문 중에서도 규모가 특이한 이 문이 바로 지도에 아문 이였다. 아문이란 지명은 금정산성의 동서남북 4대문에 버금가는(亞) 문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실제 아문은 아문리에 살던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던 문으로 회문이라고 산성지도에 나와 있는데, 돌아오는 문이란 뜻이 담겨 있는 매우 중요한 문이었다. 그리고 금곡동에서 산길을 타고 올라 아문을 거쳐 아문리로 가는 고갯길이 문리재였던 것이다.

아문리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을까? 지도상에는 아문리 마을 옆에 옛날 종이를 만들던 지소(紙所)가 표기 되어 있어,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선시대 군승이 주석했던 국청사(國淸寺)와 함께 또 하나의 사찰인 해월사(海月寺)가 있던 곳의 마을로서, 산성에서 노역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금곡 강변의 동원나루터에서 산성까지 물자를 날랐던 사람들이 살았던 아문리로 가는 고갯길로서 문리재로 했을 것인데 발음이 변음되어 물래재로 잘못 불려 온 것이다.



1872년 제작된 '금정산성진지도'의 일부, 원안이 아문리
출처: https://www.bsbukgu.go.kr/upload_data/board_data/NEWS/145126544662067.jpg

2) 동원고개

금곡 동원진나루터가 있던 강변 언덕 위에 사또가 행차하면서 민정을 살피기 위해 쉬어갔다는 고갯길 이였다. 조선시대 이 고개에서 나루터를 내려다보면 일본 선박이 들어와 짐을 내리면서 교역을 하던 모습이 한눈에 보였다고 한다. 이곳 강변 일대와 고갯마루에는 나그네들이 머물러 쉬어 가는 주막집이 있는 낭만적인 곳이었다. 그 후 도로변에 장어요리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세월의 흐름에 편승하여 금곡대로(35번 국도)가 되었다.

3) 함박등

문리재로 가는 산등성이로, 오른쪽은 가락등이 있고, 왼쪽으로 물레바위가 있다.

4) 가락등

물레 돌릴 때 잡는 가락처럼 생긴 산 언덕

5) 진등대

공창 뒷산 정상을 말하는데, 산 등허리가 길어서 긴(진) 등대라고 불렸다.

6) 주치등

공창 뒷산 정상아래 응달쪽에 지치가 많이 나는 곳이다.

7) 불메등(범뫼등)

덕(독)골 아랫머리에 있는 언덕으로, 옛날 쇠를 달구기 위해 발로 밟는 풀무(불메)를 설치했던 곳이라서 불메등이라 불렸다. 이곳의 논머리를 파거나 비가 온 후 산사태가 나면 쇠똥(쇠 녹은 덩어리)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가야시대 야철지(冶鐵址)라는 전설이 있다. 불메등에는 산답(山畠)이 4,000여 평 있었다.

7. 나루

1) 동원진

동원진은 행정구역상 한때 양산에 소속되었다가 현재 부산시 북구 금곡동 동원마을 내에 있다. 동원마을은 공창마을과 화정마을의 중간에 있는 자연마을이다. 사료상에 표시되는 위치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동원진은 고을 남쪽 25리, 황산강 하류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대동지지(大東地志)』에서는 “동원진은 고을 동쪽으로 40리인데, 월당진(月唐津)이라고도 한다. 덕산역 아래에 있으며 양산군과 통한다.”라고 하였다.

행정구역 면에서 보면, 1413년(태종 13년)에 동원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원리(東院里, 양산으로부터 25리)는 죽산리(竹山里, 7리), 금산리(琴山里, 10리), 가산리(架山里, 15리), 공창리(公昌里, 20리), 대천리(大川里, 30리)와 함께 양산군 하동방(下東坊)에게 편성되었다. 1603년에는 좌이면(左耳面)에 공창리, 대천리, 와석리, 용당리, 수정리, 산양리, 사량리, 남창리, 소요리, 유도리와 함께 동원리(東院里)도 소속되었다가 이후 1832년에는 다시 하동방에 소속되었다. 1914년 이후 경상남도 동래군 구포면에 소속되었다.

동원진의 지리적인 환경을 보면, 화명 대천에 세거한 파평 윤씨 문중 출신으로서 남창도감, 전결도감 역임했던 동계 윤재형(東溪 尹載衡, 1812~1871)이 쓴 동원진(東院津)이라는 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東院津(동원진)

東溪 尹載衡(동계 윤재형)

一津橫在洛之東	한 나루터 낙수 동편에 걸쳐 있으니
背後金嵐屹若空	등뒤의 금정산, 높으기 공동산 같네.
蓼月三更垂組叟	역귀대 달빛 속, 삼경토록 낚시 드리운 늙은이
蘆風十里掃花憧	갈바람 십리강변, 갈꽃꺾는 아이들
風煙地擅名勝界	풍관으로 이름난 명승지 낙동강 변
舟楫人歌利涉功	뱃사공 노랫소리 배 잘 건너는 적공(積功)
鳥訥相望狐浦近	새느리 나루 서로 바라보며 호포가 가까워
朝朝餞迓幾青驄	아침마다 보내고 맞는 청총마(青驄馬) 몇 마리나

동원진은 낙동강의 동편에 있고, 뒤에는 금정산이 있으며, 강변이 이름난 명승지로 표현하고 있다. 강 건너 조눌나루(鳥訥津)와 가까이 호포진(狐浦津)이 있고, 영남대로라 교통량이 많았다. 낙동강의 주류에 있어 비교적 수심이 깊고, 반원 형태의 만을 이루고 있어 배를 정착하기 양호한 포구라 할 수 있다. 낙동강이 본류와 서낙동강이 분리되는 지점이고, 양산천이 낙동강에 합류되는 지점이 가까워서 강상물류에 있어서 중요하고 우수한 지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



동여비고:東輿備攷, 1682년경, 양산 대성암

옛날 양산군수가 율리마을에서 동원고개에 올라 낙동강을 내려다보며 쉬었다가 공창마을로 갔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고갯마루에는 ‘행군수 손후상일 훌민선정비(行郡守孫侯相駢恤民善政碑)’도 세워져 있었다. 이곳 고개 지형은 금정산 상계봉에서 이어온 마을 뒷산의 능선이 낙동강 가에서 절벽을 이룬다. 율리마을에서 동원마을에 이르는 약간 낮고 짧은 언덕으로 된 지형이다. 한때 동원진 수참이 동원고개 마루의 부근에 설치되어서 낙동강을 왕래하는 배를 환히 조망할 수 있고, 동쪽 담장 곁으로 작은 시냇물이 흘러 동원진과 연결이 되어 있다. 동원진의 공공지역 나루에서 하역된 물품을 옮길 수 있는 짧은 거리이고, 낙동강의 홍수에도 피해가 올 수 없는 곳에 있었다.

이러한 동원진의 지리적인 양호한 면은 일찍이 동원(東院)이 설치되었다. 낙동강을 건너거나 이용해야 하는 길손이나 공무 여행자들에게 숙식에 대한 편리를 제공한 동원(東院)이 있었다. 동원진이 김해의 도요저(都要渚)보다 삼포에서 거리상의 유리한 점 때

문에 수참을 설치했다는 원인에 더하여 양산, 김해, 동래부로 사통할 수 있는 지리적인 환경과 수참의 기능인 물품 보관과 왕래인의 규찰 환경이 우수했던 점이 고려되었다고 본다. 동원진은 이곳을 중심으로 하는 동원과 수참의 포구의 역할을 마감한 후에도 계속 이 지역 명산물인 잉어와 장어요리를 파는 주막집이 조선 말까지 있었다.

동원진 강변에 500여 년 된 당산나무가 있어 나루터의 이정표 역할을 해오다가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사라졌다.(『낙동강토문화연구』1집, pp. 127~130)



금곡동 동원진 나루터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2) 공창나루와 화정나루

금곡동 동원진 나루터 아래동네인 화정마을과 윗동네인 공창마을에도 경부선 철로가 가설되기 이전부터 나루터가 있었다. 이들 나루터에는 일제시대에는 잉어와 장어를 잡는 고깃배들이 드나들었고 낙동강 상류에서 곡물을 싣고 내려온 선박들이 이곳에 정박하고 하역을 하기도 하였다. 이곳 나루터에 내려진 곡물은 마을 사람들이 소질매에 싣고 양산, 동래 방면으로 나가서 매매하였다고 한다.

이들 나루터는 1924년 낙동강 대홍수 때 철길 너머 강가에 있던 나루 시설과 가옥이 침수되어 주민들이 살 수 없게 되어 대부분 철거되었다.

구포역을 통한 곡물 수송이 활발해짐에 이들 나루에서 곡물창고나 하역작업은 자취



화정나루 옛모습



공창나루 옛모습

를 감추었다. 이후 동원진 나루만 겨우 존속하여 잉어, 장어 고기잡이배들의 선착장이 되었고, 김해 대동 조눌리 나루로 오가는 나룻배가 1972년까지 운행되었다.

제2절 산책길과 보호수

1. 산책길

1) 기찻길 숲속 산책로

(1) 기찻길 숲속 산책로 조성개요

- 위치: 경부선 철로변(덕천·화명 경계~금곡동 하나로마트)
- 사업규모: 70,466 m² (L=3,350m, B=20m)
- 사업비: 500백만원(국시비보조금)

(2) 공사개요

- 공사기간: 2019.10.31. ~ 12.29.(실준공일: 2019.12.26.)
- 공사내용

〈표1-4〉 기찻길 숲속 산책로 조성개요

구분	세부내용
식재공	나무수국 등 4종 5947주, 꽃무릇 등 2종 19100본 장미아식 등 4종
시설공	숲도서관, 피크닉테이블, 비상벨 등 13종
포장공	마사토 포장 5895m ² , 야자메트 602m 설치 등
기타	공원등 LED교체, 산책로 보행가교 교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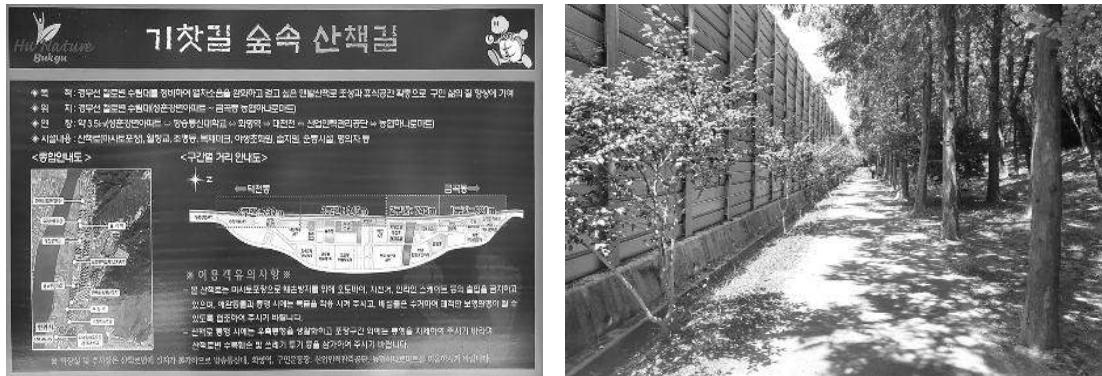
(3) 추진사항

- 2019.2.: 부산시 2019년 ‘도심보행길’(마실길 분야) 공모사업 신청
- 2019.3.: 공모사업 최종평가 결과 선정
- 2019.4.: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9.7.: 금곡~화명간 철로변 산책로 보행가교 교체공사 완료
- 2019.10.: 실시설계용역 준공
- 2019.10.~12.: 전기·조경공사 추진
- 2019.12.: 전기·조경공사 완료

(자료제공: 북구청 공원녹지과)

‘기찻길 숲속 산책로’의 시작 지점은 성훈강변아파트 뒤쪽, 덕천2동과 화명3동의 경계 지점인 경부선 철로 변 수림대(樹林帶)이다. 시작 지점이 찾기가 애매하고 교통이 불편하다면 도시철도 2호선 수정역 1·3번 출입구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 정문을 지나 수정마을 아파트 방향으로 진입 후 ‘새싹공원’에서 시작하며 편리하다.

기찻길 방음벽 쪽에는 애기동백이, 맞은편에는 메타세쿼이아가 줄로 심어져 있다. 애기동백과 메타세쿼이아 사잇길을 한참 걸으면 ‘새싹공원’을 만난다. 새싹공원에는 ‘조대(釣臺)’가 있고 최근에 조성한 ‘KRX 통통 꿈 놀이터’도 있다. “KRX 국민행복재단과 부산시청, 북구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뛰놀 수 있는 KRX 통통 꿈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도 있다. 우리들의 아이(미래)가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시작지점 안내도와 애기동백·메타세쿼이아 산책길



새싹공원 입구와 조대



새싹공원내 통통 꿈 놀이터

새싹공원을 지나 금곡동 쪽으로 조금 가면 ‘화명생태공원 연결보도’ 입구에서 ‘숲 도서관’과 운동시설을 만난다. 쉬고 가기에 안성맞춤이다. 숲 도서관에는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책꽂이에 가득 채워져 있다. 피크닉의자에 앉아서 독서삼매경에 빠져보는 것도 좋으련만 양질의 도서가 없어서 아쉬울 뿐이다.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길이 있고, 생명이 지나는 곳에는 길이 만들어진다. 누군가가 “길은 떠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라고… 이제는 존재의 가치를 찾아서 길을 나서 본다.



운동기구(좌)와 피크닉 테이블(우)

이제 대천천의 징검다리를 건너서 금곡동 영역으로 진입한다.

‘금곡동 동네 체육시설’을 지나 시멘트 포장길의 좁은 나무데크로 진입하면 된다. 은목서 군락지를 지나면 메타세쿼이아, 산수유, 동백, 중국단풍나무 등 다양한 수종(樹種)을 만날 수 있다. 금곡동 지역에는 비상벨도 여러 군데 설치되었고 ‘화명뜨란채아파트’

뒤쪽에는 흙먼지 텔이개도 설치되어 있다.

‘부산뇌병변복지관’ 뒤쪽 보행 가교와 ‘LH주공율리마을아파트’ 뒤쪽의 보행가교를 지나면 메타세쿼이아 숲속의 운동시설과 숲 도서관도 만날 수 있다. 숲 도서관에서 잠시 쉬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를 지나면 종점인 ‘농협하나로클럽’이다. 여기서는 길을 더 이상 이을 수가 없다. ‘금곡골프프라자’ 건물이 철길과 접해있기 때



산책로 보행 가교(좌:화명생태공원 연결보도 위, 우: 대림쌍용@ 뒤)



좌: 숲 도서관, 가운데: 비상벨, 우: 정원등



개잎갈나무와 메타세쿼이아 숲길(용수중학교 뒤 ~ 학사초등학교 뒤)



벽오동(대림쌍용아파트 뒤)



중국단풍(용수중학교 뒤)



후박나무(숲길 여러곳)



박태기나무(학사초등학교 뒤)



산수유(숲길 여러곳)



꽃사과(학사초등학교 뒤 횡단보도 주변)

문이다. 향나무 숲에서 경부선 기차 소리를 떠올리듯 길을 되돌아 나오면 농협하나로 클럽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사이의 소나무 숲 오솔길을 지나면 금곡대로 와 만난다.



대천천 징검다리 건너서 산책로 입구



은목서와 메타세쿼이아 숲길



보행 가교(뇌병변복지관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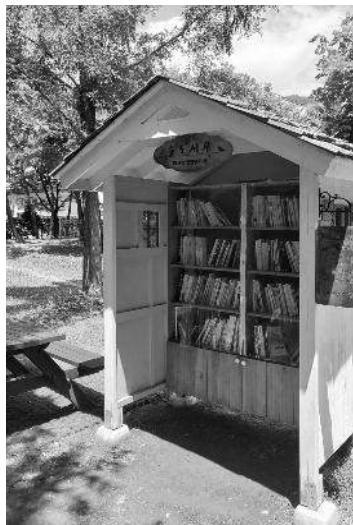
보행 가교(율리마을 302동 뒤)



먼지 털이개(화명뜨란채아파트 뒤)



운동시설



숲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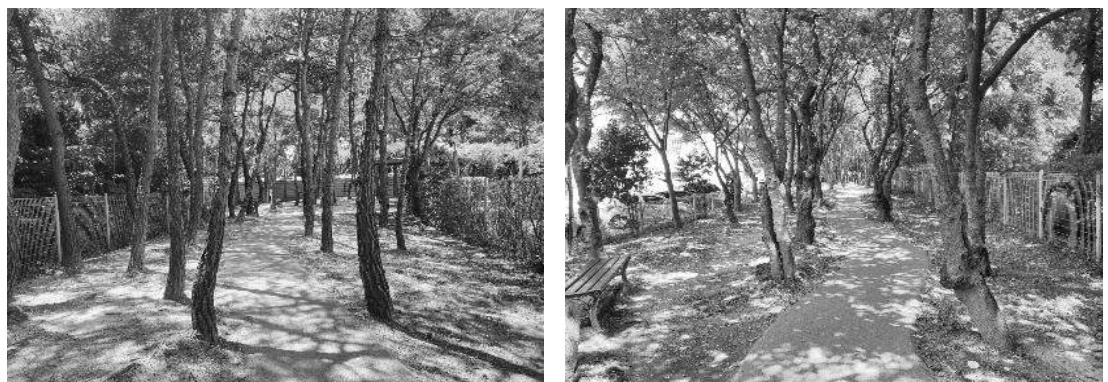
비상벨



비상벨



산책로 끝지점인 향나무 숲



농협하나로클럽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사이의 오솔길



은목서(대천천 지나서 산책로 입구)

무궁화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뒤)

(4) 동백나무와 오페라 ‘춘희’

- 오페라 ‘베르디’ 의 춘희(椿姫): 주인공 비올레타는 한 달 가운데 25일은 흰동백, 5일은 붉은 동백을 들고 사교계에 나오는 창녀 이야기인데, 일본에서는 동백나무를 두고 춘(椿) 자로 쓰기 때문에 오페라 제목을 춘희라 불렀다. 제목만으로 추측하기 어려운 어정쩡한 일본 제목을 쓰느니 차라리 “동백아가씨‘나 원제(原題) 그대로 ’라트라비아타‘가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 프랑스 소설가 뒤마가 1948년에 발표한 소설 ‘동백꽃 부인’에서 일본이 ‘춘희’로 해석(1853년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로 각색) 한데서 온 오류다.

- 춘(椿)은 식물학적으로 동백나무가 아닌 참죽나무를 말한다.

2) 화명생태공원 메타세쿼이아 길

- 위치: 화명생태공원 동원진교 ~금곡 하나로 마트 뒤
- 메타세쿼이아 생태(구과목- 낙우송과): 낙엽침엽교목으로 꽃은 4~5월에 피고, 열매는 10~11월에 맺는다.

대천천이 끝나고 낙동강과 만나는 지점에 ‘동원진교’라는 조그마한 다리가 한 개 있다. 2010년 7월 15일에 준공된 다리로 길이가 33m, 폭이 6m이다. 이 다리를 중심으로 낙동강 쪽에는 넓은 향나무밭이 조성되어 있고, 대천천변에는 은행나무 등의 묘목장과 능수버들 몇 그루가 자라고 있다. 여기서부터 ‘메타세쿼이아 길’이 시작된다. 나무수국이 호위하는 이 길은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치유의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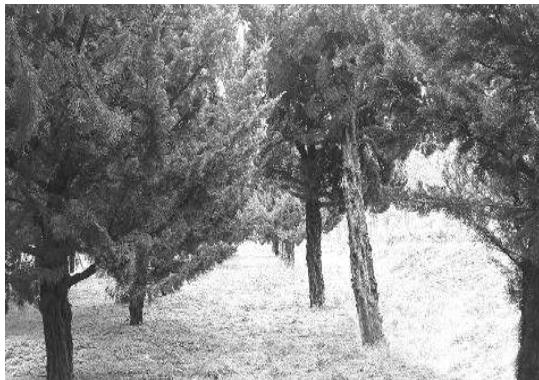
“무소유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



시작지점인 동원진교

는다는 의미다.”라는 어느 유명 스님의 말처럼 무소유의 심정으로, 바쁘고 번잡했던 도회지의 무거운 짐을 버리고 자연으로 들어가 본다.

메타세쿼이아의 피톤치드와 향나무의 향이 합쳐지면 치유의 효과는 더욱 상승할 것이다. 향나무숲 뒤로는 또 다른 메타세쿼이아길이 강바람에 베티고 있다. 가을이면 강변의 갈대도 함께 즐길 수 있으며, 봄이면 연초록의 경연을 느낄 수 있겠다. 구포역을 기점으로 화명생태공원 그리고 호포까지 느긋하게 걷고 호포마을에서는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 좋을 것 같다.



향나무숲과 숲속의 타임캡슐

메타세쿼이아는 1946년에야 양쯔강 상류에서 지구상에 살아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전까지는 그 존재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 나무가 지구상에 사라진 것은 빙하기에 대부분 죽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지만, 해수면이 높아져 나무들이 바닷물로 인해 침명적인 피해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어쨌든 은행나무나 소철처럼 살아 있는 화석이라 불릴 만큼 유구한 역사를 품고 있다.

메타세쿼이아의 메타(Meta)는 영어의 포스트(post), ‘이후’라는 뜻이고 세쿼이아(sequoia)는 인디언 추장 이름이다. 즉 메타세쿼이아는 세쿼이아 이후에 등장한 나무라는 뜻이다. ‘물가에서 잘 자라는 삼나무’란 의미로 중국 이름은 ‘수삼(水杉)’이며, 북한 이름도 ‘수삼나무’다. 철자도 어려운 메타세쿼이아라는 영어식 긴 이름보다 간편하고 생태도 쉽게 짐작이 가는 수삼나무가 훨씬 마음에 듈다.

우리나라의 도로변이나 공원에 심을 만큼 널리 퍼진 이 나무는 1970년대에 권장 가로수로 지정된 아래 남부지방의 가로수로 심었으며, 담양과 순창 사이의 아름다운 메테세쿼이아 길은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다. 아울러 창원 시내의 가로수도 담양 못지 않은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나무가 뿌리를 수평으로 길게 뻗었다

가 다시 수직으로 깊게 뻗는 특성이 있어 아스팔트를 들썩이게 하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가로수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화명생태공원의 메타세쿼이아는 아스팔트에게 피해 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연륜이 쌓이면 담양과 창원의 가로수 못지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나무가 처음 미국과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1960년 당시에는 비중이 낮고 연약한데다가 방음, 방열 효과가 커서 실내의 방음 장치나 포장재로나 붉은 갈색의 목재 빛깔이 고와 건축 내장재로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나이를 먹을수록 생장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보면 다른 나무와의 경쟁력을 차츰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

● 메타세쿼이아의 부활

이 나무를 처음 발견한 시기는 중일전쟁 때인 1937년이었으니, 인간과 대면한 시기는 아주 짧다. 만약 중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지 않았다면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훨씬 뒤에 발견했을지도 모른다. 중국이 일본에 빌려 서북 산간 지역으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메타세쿼이아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학명을 붙인 사람은 중국의 후(1894~?)



출처: '낙동강사람들' 부산북구 낙동문화원(2020), pp.132-133.

와 쟁(1903~?)이다. 그러나 현재 극히 일부 지역에서 자생하는 중국 원산의 메테세퀴이아는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포항에서도 화석이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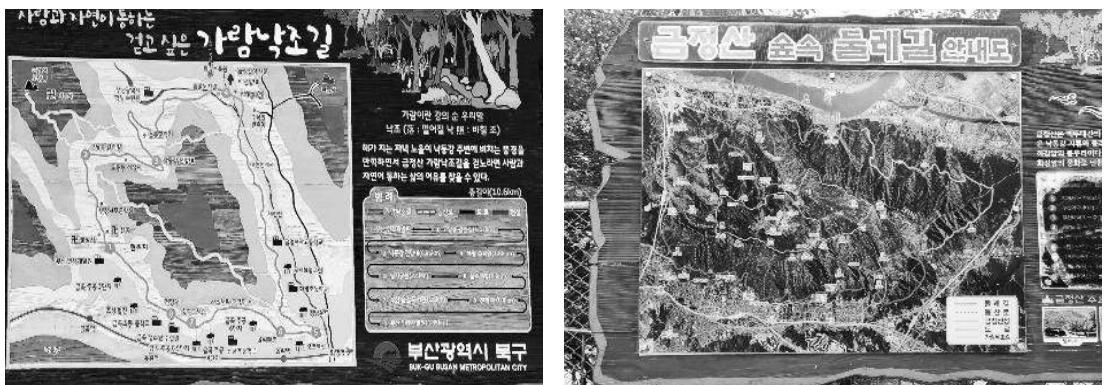
3) 사람과 자연이 통하는 ‘가람낙조길’

- 위치(들머리, 날머리): 금곡주공3단지 302동 뒤(진홍사불암사 입구)
- 총길이: 10.6km
- 소요 시간: 4시간 30분~5시간
- 등산로 준공: 2012년 10월

들머리(혹은 날머리)에는 『사람과 자연이 통하는 걷고 싶은 가람낙조길』이란 안내도가 있다. 등산 안내도 오른쪽 여백에는 ‘해가 지는 저녁노을이 낙동강 주변에 비치는 풍경을 만끽하면서 금정산 가람낙조길을 걷노라면 사람과 자연이 통하는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가람낙조길 순환 코스(둘레길)는 진홍사~생강나무 군락지~고당봉 · 화명수목원 갈림길~도룡봉 서식지~낙동강 전망대 갈림길~가람낙조길 전망대~금정산성 암문~장골봉~화명수목원 · 율리역 갈림길~화명수목원~인재개발원 · 율리역 갈림길~금곡주공4단지 갈림길~금곡주공8단지 인재개발원 갈림길을 지나 진홍사 · 불암사로 돌아오는 둘레길형 코스로 10.6km이며 소요 시간은 4시간 30분~5시간이다.

순환 코스가 부담되면 화명수목원으로 하산하여 화명수목원과 서문을 답사 후, 화명수목원 입구 산성로에서 ‘북구1번’ 마을버스를 승차하면 화명동을 경유 구포시장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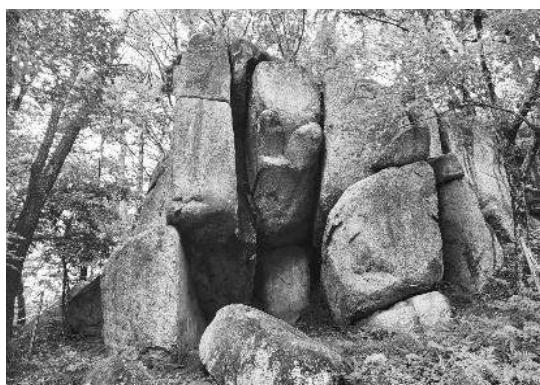
가람낙조길과 금정산 숲 속 둘레길 안내도

갈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화명수목원 · 율리역 갈림길(화명수목원 2.8km→, 율리역 0.5km↓)에서 율리역 방향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율리바위그늘유적(일부 안내도에는 율리쾌총)’이 나온다. 이곳에서 조상들 삶의 모습을 일견한 후 3~4백m를 내려오며 도시철도 2호선 율리역 4번 출구가 나온다.

삶의 여유를 찾아 금정산의 서쪽 사면을 오르내리는 가람낙조길을 시작하기로 한다. 진홍사 방향에 진입하여 시계방향으로 낙동강 물줄기와 주변 시가지를 조망하고자 한다. 물론 낙동강 너머의 낙조는 더욱 아름답겠지만 꼭 낙조 무렵이 아니더라도 풍광은 아름답다.

초입은 ‘금정산 숲속 둘레길’과 일부 겹친다.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뒤쪽의 부드러운 흙길을 밟고 얇은 계곡을 지나면 ‘생강나무 군락지’가 나온다. 산행길이 초봄이라면 노랗게 편 생강나무의 꽃을 볼 수 있으며, 신록의 계절이라면 잎에서 나오는 생강나무 냄새도 맡을 수 있다. 정규 탐방로 외에도 수많은 등산로가 수시로 나타나는 갈림길이 많아 헷갈릴 때도 있지만 가람낙조길 전망대, 화명수목원, 율리역 방향으로만 진행하면 바르게 가는 길이다.

생강나무 군락지를 지나 편안한 걸음으로 20분 정도 걸으면 ‘고당봉 · 화명수목원 갈림길’이 나온다. 고당봉 방향을 빗겨 화명수목원 방향으로 진입하여 택 다리를 건넌다. ‘도롱뇽 서식지’ 안내판을 만나면 도롱뇽이 서식하는지 관찰할 일이다. 운 좋으면 만날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듯하다. 물 한 모금 마시고 경사진 임도를 오르면 ‘낙동강 전망대’ 이정표를 만난다. 이정표 왼쪽의 ‘고당봉 · 낙동강 전망대’ 방향으로 올라가면 길을 벗어난 왼쪽에 전망대가 나온다. 낙동강과 낙동강 대교가 보이고 강 건너편에는 신어산과 무척산이 아슴아슴하게 보인다. 잠시 쉬고 바위 군을 지나면 ‘가람낙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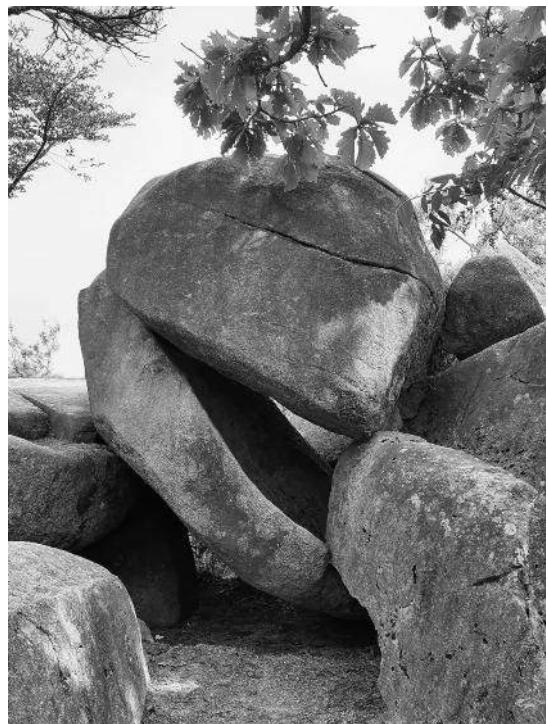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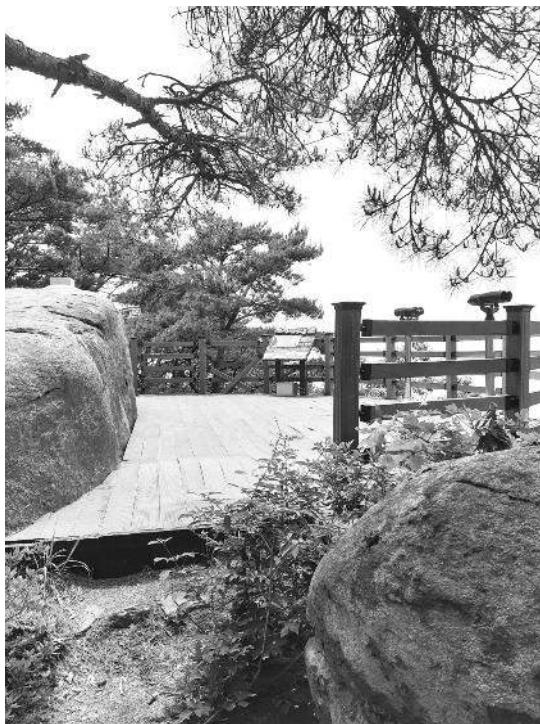


율리바위그늘 유적과 화명수목원 · 율리역 갈림길 이정표

길 전망대' 가 나온다.

'가람낙조길 전망대'를 지나면 '금정산성 암문'이 나온다. 암문을 지나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성벽과 석문 일부가 남아있는 '장골봉'을 만난다. 최근에 석문과 성벽 일부를 복원한 흔적은 있지만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화명수목원·율리역 갈림길'로 곧장 진행한다. 이곳에서 화명수목원을 관람하고 '금정산 서문'을 거쳐 곧장 북구(화명동)로 내려갈 수도 있고 금정구(금성동)로도 갈 수 있다.

화명수목원 수서생태원 윗길로 해서 '율리역·인재개발원' 방향으로 진입하면 '인재개발원←, 율리폐총·율리역 ↓, 화명수목원→' 이정표를 만나게 된다. 여기에서 율리역 쪽으로 내려와서 산행을 마무리해도 되고 인재개발원쪽으로 진행해도 된다. 갈림길에서 인재개발원 방향으로 3~4백m 걸으면 '사스레피나무' 군락지를 만난다. 인위적으로 심은 듯 등산로 좌우로 사스레피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사스레피나무에서 씹쓰레한 맛이 나는지 확인해 볼 일이다. 오르락내리락 갈림길도 지나고 '금곡주공4단지'와 '금곡주공8단지'를 지나면 잘 단장된 나무 턱길의 날머리(들머리)인 '진홍사·불암사' 입구가 나온다.



가람낙조길 전망대와 바위군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앞에서 15번, 111번 등의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화명동을 경유하여 덕천동으로 이동할 수 있고, 도보로는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앞에서 공창종합사회복지관을 경유하여 10분 거리(500여m)에 도시철도 2호선 금곡역을 만날 수 있다.



금정산 암문(좌)과 장골봉(우)



가람낙조길 등산지도

4. 보호수와 노거수

1) 율리 팽나무

- 품격: 市나무(고유번호: 2-8-2-2)
- 지정일자: 1980. 12. 8.
- 소재지: 금곡동 1239번지
- 수고(樹高): 15m
- 나무둘레: 3.5m

금곡대로와 효열로 교차 지점에 모양새가 늘름한 팽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매연과 소음의 고통에도 아랑곳없이 품위만은 변함이 없다. 인간의 욕심마저 비껴간 신목(神木)에 경의를 표한다.

보호수를 가로지르는 효열로가 개통되기 이전 금곡대로(35번 국도)만 개통되어 있던 당시에는 나무 주위로 철제 펜스가 둘려 있었으며, 당산나무 앞의 제단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다. 지금의 제단은 화강석으로 단장되었고 제단 앞으로 거북 모양의 알터바위가 자리 잡고 있다. 이 거북 모양의 바위는 옛날 과거 보러 가던 사람이 과거 합격 기원을 했던 바위라는 이야기도 전한다.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신목(神木)으로 여겨지고 있어, 해마다 정월 보름 자정에 동제(洞祭)를 올린다. 동제는 불교 의례식으로 화방사에서 제의를 지내고 있으나 주변의 관심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다. 그리고 당산에 있는 개미는 사람을 물지 않으며, 또 당산나무에 아이들이 올라가 놀다가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다.

당산 신앙은 마을을 단위로 한 지역적 결속과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민간 신앙의 형태로, 마을 주민들의 구심점이자 자연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사회적 기제로 자리해 왔다. 당산제는 불식해야 할 미신이 아니고 전통문화로서 이웃 간의 횡적인 유대감과 지역적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축제로 승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팽나무 이야기

팽나무는 잎 떨어지는 넓은잎 큰키나무로 남쪽 바닷가의 노거수는 대부분 팽나무다. 어긋나 기로 달리는 잎은 타원형이고 끝이 뾰족하며 가장자리의 절반 정도에만 톱니가 있다.

늦봄에 아주 자그맣게 피는 팽나무꽃이 지고 나면 금세 콩알만 한 초록빛 열매가 달리고, 가을에는 등황색으로 익는다. 팽나무 열매는 가운데에 단단한 핵이 있고, 그 핵 주위를 약간 달콤한 육질이 둘러싸고 있어서 옛날에는 배고픈 시골 아이들의 좋은 간식거리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왜 팽나무일까?

작은 대나무 대롱의 위아래에 팽나무 열매를 한 알씩 밀어 넣고 위에 나무 꼬챙이를 꽂아 손으로 '턱' 치면 아래쪽의 팽나무 열매가 멀리 날아간다. 이를 팽총이라고 하는데, '팽~'하고 소리가 난다고 해서 팽나무가 되었다고 한다.

팽나무의 한자 표기는 팽목(彭木)이다. 전라남도 진도 맨 남쪽에 있는 '팽목항' 이란 이름의 작은 항구가 있다. 주위에 팽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2014. 4. 16. 이름 없는 갯마을의 자그마한 '팽나무 항구'는 세월호 사건으로 비극의 현장이 되어버렸다. 이제 갓 피어나는 고등학생들이 희생된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다. 예부터 아이들과 유난히 친근했던 팽목항의 팽나무들도 두고두고 가슴앓이를 할 것만 같다.

팽나무는 따뜻한 곳을 좋아하며 큰 고목은 주로 남부 지방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늘 소금기 머금은 바람이 부는 바닷가에서도 끄떡없다. 그것도 두툼한 나무껍질을 뒤집어쓰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이 되어도 울퉁불퉁하게 갈라지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은 회갈색 나무껍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버틴다.

갯내 물씬 풍기는 포구 부근에서 흔히 자라서 팽나무를 포구나무라고 부른다. 크게 자란 고목은 흔히 배를 매어두는 나무로 쓰이기도 한다. 팽나무는 느티나무, 은행나무와 함께 오래 살고 아름드리로 크게 자라는 정자나무로도 유명하다.

경북 예천 금원마을의 넓은 평야 가운데에 나이가 약 500살, 높이 15m줄기 둘레가 3m나 되는 팽나무 고목 한 그루가 자라고 있다. 이 나무는 황목근(黃木根)이라는 번듯한 이름도 가지고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1939년 마을 공동재산인 토지의 소유권을 팽나무 앞으로 등기 이전할 때 이름이 필요해서 붙였다고 한다. 황목근이 소유한 토지는 12,232m²로 웬만한 부자 못지 않은 부자 나무다.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목이자 당산나무인 황목근은 천연기념물 제400호로 지정되어 있다. 매년 정월 대보름 자정에 당제(堂祭)를 올리며, 음력 7월 보름 백중(百中)에는 마을 주민이 나무 아래에 모두 모여 잔치를 벌이며 동네의 화목을 다지고 있다. (박상진, 『궁궐의 우리 나무』, pp.106~109)



율리 팽나무

2) 금곡동 화정 팽나무

- 품격: 市나무(고유번호:2-8-2-1)
- 지정일자: 1980.12.8.
- 소재지: 금곡동 1019번지(신화명리브류자이@ 105동 옆)
- 수고(樹高): 17m
- 나무둘레: 2.9m

화정 팽나무도 도시화의 바람을 피하지 못했다. 아파트 빌딩들이 빼빼이 들어차 있고 보호수가 서 있는 자리만 겨우 비워 두었는데, 사방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어서 햇빛이나 바람의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어 나무의 생육에는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 높은 건물에 둘러싸인 것도 모자라 다시 울타리에 갇혔다. 외출은 엄두조차 못 내고 평생을

갑갑함에 견뎌야 하는 운명이 되었다. 바람도 부족하고 햇볕도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 용케 견디어 내는 팽나무에 오직 감사할 뿐이다. 그래도 외로운 섬처럼 살아남은 것 만도 감지덕지다.

비록 팽나무가 외부 손님의 환대는 못 받더라도 아파트 주민에게나마 사랑과 보살핌의 손길을 기다리는 중이다. 나무로부터 존중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나무와 숲을 만나야 하는 이유다.

나무는 지상의 모든 생명체를 키우는 어머니 같은 존재다.

◆ 보릿고개를 함께한 팽나무

팽나무는 느티나무와 은행나무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오래 사는 나무가 많을 만큼 역사를 함께해왔다. 특히 영호남 곡창지대에 팽나무가 많은 것은 싹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해의 풍작과 흉작을 점쳤기 때문이다. 이 지역 사람들은 새싹이 일제히 나오면 풍작, 그렇지 않으면 흉작이라 믿었다.

팽나무의 또 다른 한자 이름인 박수(樸樹)는 질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한자는 한방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무의 껍질을 강조한 이름이다. 팽나무는 껍질만이 아니라 느티나무처럼 부모인 느릅나무과에 속하기 때문에 재질도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나무로 통나무배인 ‘마상이’ 또는 ‘마상’을 만들었다.

먹을 게 귀하던 옛날에는 팽나무 잎과 느티나무 잎, 쑥은 보릿고개를 견디게 해주는 3대 잎이었다. 2월 이후에 팽나무 잎을 따서 곡식과 섞어 먹으면 기근을 구제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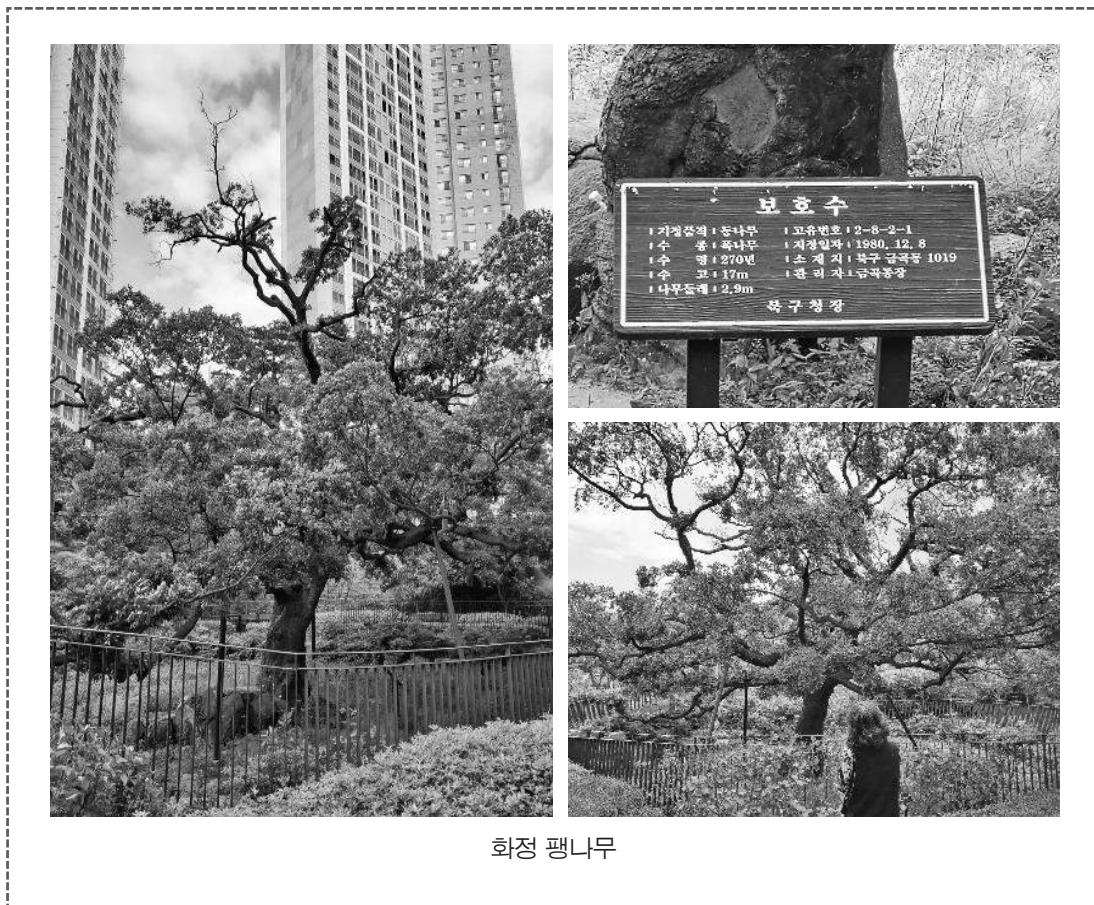
민간에서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보릿고개 때 산채나 팽나무 잎과 섞어 먹을 곡물은 꼭 남겨두었다. 2월이 되어 나무에 새싹이 돋기 전에는 팽나무 잎조차 없어서 못 먹는 경우도 많았다. 『증보산림경제』를 보면 그럴 때를 대비한 침 삼기는 법이 소개되어 있다.

보고 있노라니 눈물겹다.

“문득 입을 다물고 혀로 위아래 이를 휘저어서 침을 취하여 삼킨다. 하루에 360번 삼기게 되면 좋다. 차츰 습관이 되면 1천 번 삼킬 수 있게 되어 자연히 배가 고프지 않다.

3~5일에는 피로가 심하지만 이를 넘기면 차츰 몸이 가볍고 강해진다.”

강판권, 『역사와 문화로 읽는 나무사전』, pp. 699-703)



화정 팽나무

3) 화정 산제당(화방사) 팽나무

- 품격: 市나무(고유번호:2-8-2-3)
- 지정일자: 1980.12.8.
- 소재지: 효열로 75-16(금곡동, 화방사 경내)

화방사의 풍경소리를 들으면서 수양에 드는 팽나무 4그루가 있다. 당초의 화정 산제당을 지키던 보호수(팽나무)는 태풍으로 없어지고, 지금은 또 다른 팽나무가 대를 잇고 있다. 어쨌거나 이들도 세월이 지나면 민속적, 생물학적 보존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지금은 조금 야윈 모습으로 낙동강을 굽어보고 있지만, 또다시 몇백 년이 흐른 후에 도 누군가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풍경소리와 함께….

◆ 팽나무 설화

팽나무는 마을의 당산목으로 위엄을 보이고 서 있으면 까마득히 멀게 느껴지는 나무였다가도 잘 갈라진 나무 위에 올라 달콤한 열매를 따 먹을 때면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청천리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82호는 줄 나무이다. 청천리 마을 앞 국도변에 가로수로 줄지어 선 나무는 팽나무 60여 그루를 비롯하여 개서어나무, 느티나무인데 나이는 500살 정도로 추정되고 높이는 20m가 넘는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500여 년 전 이곳에 낙향한 배씨의 선조가 이곳이 지형상으로 허함을 보충하기 위해 심었다고 한다. 마을로 보아서는 중요한 방풍림 역할도 하고 있다. 이 나무를 꺾거나 열매를 먹으면 병에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간 별 탈 없이 자랐다.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의 천연기념물 제108호 역시 팽나무 열 그루를 비롯해 느티나무, 개서어나무 등 여러 나무가 섞인 줄 나무다. 이 나무 역시 청천리 줄 나무처럼 풍수지리상 지형적인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심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명륜당 남쪽에 있는 함평산의 화산(火山) '수봉산'이 화기를 품어 재앙이 예상되므로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 유림 대표인 정방 이양휴 등 몇 사람이 향교리에서 나무를 옮겨 왔다고 한다. 이 나무가 처음 조성될 당시는 물론이고 처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일본 강점기에도 80여 그루가 있었는데 지금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지금부터 200여 년 전 평택시 현덕면 도대리는 박 씨가 많은 동네였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시주를 권하는데 박 씨들은 시주는커녕 오히려 봉변을 주고 내쫓았다. 돌아가는 길에 스님은 마을에 있는 산의 허리를 자르고 산속에 있는 팽나무를 옮겨 마을에 심으면 마을이 잘 된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박 씨들은 자신들이 한 일은 생각지도 않고 잘 살려는 마음에 그 스님의 말대로 실천했는데 이는 저주였던지 박 씨 마을은 망해 버리고 말았다. 이때 옮겨 심은 팽나무가 아직도 이 마을에 살아 있다.

소나무 '석송령' 처럼 팽나무 중에도 유일하게 논밭의 소유주가 되어 등기부에 오른 나무가 있다.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삼락리(평부마을) 108-2번지가 본적인 동시에 주소로 하는 이 나무를 마을 사람들은 수호신으로 숭상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의 이름을 '김목신(金木神) 이라 이름 짓고 동네 논 400여 평을 이 이름으로 등기했으며 여기서 나는

곡식으로 매년 동제를 지낸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든 이 나무에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재앙이 생긴다고 믿었다.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이 마을 앞바다에 정박하고 있다가 출정하면서도 이 나무에 제사를 지내서 왜군을 크게 무찔렀다는 이야기도 있다.(이유미,『우리 나무 백가지』, pp. 274~277.)



4) 화정원 노거수(老巨樹) - 회화나무1주 · 느티나무 1주

- 품격: 노거수
- 소재지: 금곡동 1500-2번지
- 수고(樹高): 12m
- 나무둘레: 2.6m

화정원(花亭園)에는 물질문화와 소비문화에 짓눌린 처량한 신세의 나무가 있다. 원래 화정 산제당에서 당제인 산신제와 고모령신제를 지내고 이곳으로 내려와 성왕제를 지냈다. 나무아래에는 제물을 진설했던 좌판석이 있다. 그래서 화정마을 주민들이 이곳에 화정원을 조성하여 당산나무와 유물을 보존하고 있다. 온갖 잡소리에 인내하는 오래되고 큰 나무 두 그루다. 회화나무 한 그루와 느티나무 한 그루다. 자동차 소리, 기

차 소리, 골프 치는 소리, 매연... 사방에서 침범한다. 언제쯤 소음과 매연에서 벗어날지 난감하기만 하다. 나무에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영원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매연에 강한 회화나무와 느티나무라서 버티고 있다.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변화를 덤덤히 받아들이며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잘 적응하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버텨온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내년 봄에도 풋풋한 신록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 회화나무

회화나무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 여름에 나비 모양의 연노랑 꽃을 나무 가득히 피운다. 일제히 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시차를 두고 한쪽은 꽃이 피고 있고, 일부는 살랑바람에도 후드득 떨어져 나무 아래에 두툼한 꽃덮개를 만들어 놓는다.

회화나무꽃은 그냥 꽃이 아니다. 10~15%에 이르는 '루틴(rutin)'이라는 황색 색소로 무장하고 있다. 루틴은 특히 종이를 노랗게 물들이는 천연염색제로 쓰인다. 또 모세혈관의 강화 작용을 도와 뇌출혈 예방에 효과가 있고, 고혈압 약을 만드는 원료로 쓰이기도 한다.

중국이 고향인 회화나무는 상서로운 나무로 생각하여 중국인들도 매우 귀하게 여겼다. 회화나무를 문 앞에 심어두면 잡귀신의 접근을 막아 그 집안이 내내 편안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른 이름으로는 '학자수(學者樹)'가 있으며, 영어 이름도 같은 의미인 'scholar tree'이다. 나무의 가지 뺨은 모양이 멋대로 자라 '학자의 기개를 상징한다'라는 폴이도 있다. 반대로 아무 곳이나 이익이 있는 곳에는 가지를 뺏어내는 곡학아세(曲學阿世)를 대표하는 나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어쨌든 옛 선비들이 이사를 하면 마을 입구에 먼저 회화나무를 심어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는 선비가 사는 곳'임을 만천하에 천명했다.

회화나무는 전국 어디에서나 심고 있으며 키 20m 이상, 줄기 둘레가 네댓 아름에 이르는 큰 나무다. 네 그루의 천연기념물과 320여 그루의 보호수 고목이 있으며, 팽나무, 은행나무와 함께 오래 살고 크게 자라는 나무로 유명하다. 동의보감에는 "회화나무의 열매, 가지, 속껍질, 꽃, 진, 나무에 생기는 버섯까지 모두 약으로 쓴다."라고 했다. 목재는 재질이 느티나무와 비슷하여 기둥과 기구재 등으로 쓸 수 있다. 두 나무(느티나무와 회화나무)를 다 같이 괴(槐)로 쓴 것은 이렇게 재질이나 쓰임이 비슷한 이유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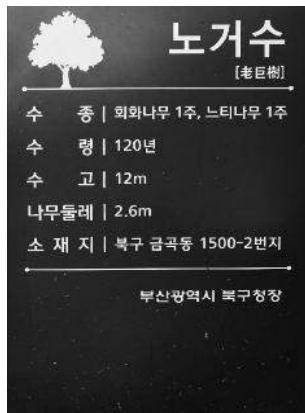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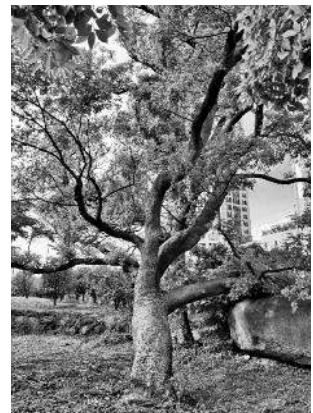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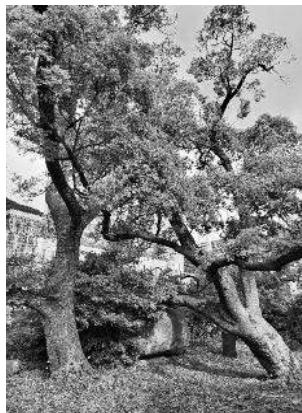
◆ 느티나무

나지막한 동산을 뒤에 두르고 널찍한 들판을 내려다보는 곳, 시골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아름드리 고목 한 그루는 서정적인 우리 농촌의 대표적인 풍경이다. 당산나무나 정자나무로 불리는 이런 나무 대부분은 느티나무가 차지한다. 아득한 품 안은 뛰약볕 여름 농사에 지친 농민들의 안식처이며,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는 여론광장이 되기도 한다.

산림청의 지도 감독을 받아 각 지자체가 지정 및 관리를 하는 고목은 현재 약 1만 3천 그루쯤 되고, 그중에서 느티나무가 7천 1백 그루로 가장 많다. 따라서 고목 하면 느티나무다.

느티나무는 위로는 임금의 궁궐부터 아래로는 백성들의 생활 터전까지 심고 가꾸는데 낮가 림이 없다. 모두를 다 함께 편안하게 보듬어주는 넉넉하고 편안한 나무다. 이처럼 아름드리 굵기 에 이야기거리가 얹혀 있는 느티나무라면 짧게는 조선왕조, 길게는 고려나 신라인과 삶을 해온 역사 속의 나무다. 긴긴 세월을 이어오면서 맞닥뜨린 민족의 비극도, 애달픈 백성들의 사연도 모두 듣고 보아오면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왔다. 쓰임새가 너무 많은 느티나무는 당산 지킴이로서 만족할 수 없었다. 목재는 나뭇결이 곱고 황갈색에 약간 윤이 나며, 썩거나 벌레가 먹는 일이 적은데다 무늬도 아름답다. 건조할 때 갈라지거나 비틀림이 적고 마찰이나 충격에도 강하며 단단하다. 한마디로 나무가 갖추어야 할 모든 장점이 있다.

목재의 쓰임도 화려하다. 천마총을 비롯한 관재(棺材)로서 임금의 시신을 감싸고 영생의 길을 함께한 영광의 나무였다. 건축재로는 부석사의 무량수전, 해인사 대장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 법보전, 조선시대 사찰건물인 강진 무위사. 부여 무량사, 구례 화엄사의 기둥은 전부 혹은 일부가 느티나무다. 또 흔히 스님들이 ‘싸리나무’로 만들었다고 하는 구시, 절의 기둥, 나무 불상 도 대부분 느티나무다. 그리고 가정의 사방탁자, 뒤판, 장롱, 궤짝 등의 가구까지 느티나무의 사용범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박상진,『우리 나무의 세계2』, pp. 43-47 & 153-157)



화정원 노거수

제3절 금곡동의 자연마을

금곡(金谷)이라는 지명은 금정산(金井山)의 주봉(主峰)인 고당봉(姑堂峰)에서 낙동강변으로 뻗어내린 첫 골짜기(谷)로서 붙여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설로 금정산의 서쪽골짜기에 금(金)이 나오는 곳이 있다 해서 금맥(金脈)을 찾아 뚫어 놓은 굴이 많아 금(金)이 생산되는 골짜기라서 붙여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금곡동 공창마을 뒷산 도덕골 아래에 있는 불메등에서 쇠를 달구고 남은 쇠똥(쇠 녹은 덩어리)이 발견되었는데, 가야시대 쇠를 녹이던 야철지(冶鐵址)라서 쇠 금(金)자를 써서 붙여진 지명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금곡동에는 조선시대 역원(驛院)으로서 수참(水站)이 설치되었던 동원진(東院津)이 일본과 교역을 하던 곳으로 지명이 전해오고 있다.

양산군에 속했던 금곡동은 하동방(下東坊) 동원촌(東院村)과 공창촌(公昌村)이었다가 뒤에 구포행정권에 합해져서 좌이면(左耳面) 동원리, 공창리가 되었다. 1914년 동래군 구포면 금곡리가 되었는데 공창(公昌) 동원(東院) 화정(花亭) 율리(栗里) 등 네 개 마을이 있다.

1. 금곡리

금곡리는 1914년 동래군 구포면 금곡리가 되면서 공식 지명에 처음 나타난다. 그리고 동네의 범위가 조선시대 공식 지명에 나오는 공창리, 동원리, 자연마을인 화정리와 율리 등 4개 마을을 포함하고 있다.

금곡이란 지명은 금정산의 주봉인 고당봉에서 낙동강변으로 뻗어내린 큰 골짜기로서 붙여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금정산의 서쪽 골짜기에 금이 나오는 곳이 있다고 해서 금맥(金脈)을 찾아 뚫어 놓은 굴이 많아서 붙여졌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리고 금곡리 공창마을 뒷산 도덕골 아래 위치한 불매등에서 옛날 쇠를 달구고 남은 쇠똥(쇠 녹은 덩어리)이 발견되었는데 가야시대 쇠를 녹이던 야철지(冶鐵址)라서 쇠 금(金)자를 써서 붙여진 지명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금곡리는 금정산이 낙동강과 만나는 마을로서 골짜기가 많아서 붙여진 지명으로 보는 게 정설이다.

금곡리의 골짜기를 살펴보면 안등골, 도덕골, 소바우골, 큰골, 작은골, 채이골, 개쑥바골, 명근쟁이골, 문바우골, 삼밭골, 베끼미골, 신선골 등 많은 골짜기가 뻗어있다.

금곡리에는 중요한 문화유적들이 있다. 먼저 신석기시대 유적인 율리마을의 패총은

그 당시 삶터였던 바위그늘집 자리가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신석기 패총이 있는 울리마을에 선사시대 유적인 알터바위가 2곳 있었는데 현재 1개만 남아있다. 동원마을의 역원(驛院) 터는 조선시대 일본과 교역을 할 때 부산에 도착한 일본 국왕 사절 일행이 배를 타고 낙동강으로 올 때 거쳐 가는 첫 기착지였다. 이곳에서도 옛 역사(驛舍)가 발굴되었는데 고려시대의 건물 유적이 나타나 고려에서 조선시대까지 낙동강을 배경으로 한 수참(水站)의 요지였음이 증명되었다.

금곡리에는 조선시대 효자 천승호와 열녀이씨의 정려비가 전해오고 있어 교훈이 되고 있다. 금곡리의 명산물로 낙동강의 옛 이름인 황산강에서 잡은 잉어회와 장어구이 요리가 일품이었다. 그리고 공창마을에는 특산물로 누룩이 생산되기도 하였다.

금곡리에는 공창마을에서 산성으로 넘어가는 문리재(門里峙) 고갯길이 있다. 강변에는 동원진(東院津), 공창나루, 화정나루 등이 있었다. 금곡리는 조선시대 양산군 좌이면 공창리와 동원리로 되었다가 1831년에는 양산군 하동방(下東坊) 소속으로 공창리, 동원리 그리고 대천리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 후 다시 양산군 좌이면에 속하였고 1906년 부산부 좌이면, 1914년 동래군 구포면 소속으로 금곡리의 지명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8·15 광복 후에도 동래군 구포읍 금곡리로 있다가 1963년 부산직할시에 편입되어 금곡동이 되었다.

이곳 금곡동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양산으로 통하는 소로가 포장도 되지 않은 채 변두리 취급을 받아 왔고, 교통이나 주택 등의 모든 사정이 부산시내에 속하면서도 산간벽지처럼 낙후된 지역이었다.

구포에서 금곡로에 이르는 길이 5km의 금곡로를 확장, 정비, 포장하였고 1988년도부터 4차선 도로가 양산 유산공단까지 직항로로 시원하게 개통되면서 금정산과 낙동강을 함께하는 주거지역으로써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정부의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마을마다 문화주택이 들어서면서 1980년대 말에는 농어촌 전래의 모습이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천하였다. 현재 금곡동은 주공아파트 대단지를 비롯한 아파트 지대가 주거환경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2. 공창리

공창리는 조선시대 동원진(東院津)에 설치된 수참(水站)에서 근무했던 역리(驛吏)들이 집단으로 거주했던 곳이라 공창(公昌) 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행정구역상으로 양산군 하동방에 속했다가 뒤에 좌이면에 속했다.

공창(公昌)리는 이웃 동네인 동원마을의 강변에 설치된 역원(驛院), 수참(水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마을이다. 동원역은 2004년 옛 역원터의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으로 고려시대부터 역원이었고, 조선시대 초기에 대일 교역으로 일본 국왕 사절들이 낙동강 수로를 이용한 상경로의 첫 기착지였기 때문에 동원역 수참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 공창마을인 것이다.

조선시대 역참(驛站)에는 역리(驛吏), 참리(站吏), 일수(日守), 조력백성(助力百姓), 서원(書員), 관군(官軍), 노비(奴婢) 등이 각기 제 역할을 맡아 근무하였다. 이처럼 역참에 소속하여 역할을 부담하는 호구(戶口)를 역호(驛戶)라 하여 첫째, 국가 명령을 전달하거나 둘째, 사신들의 왕래에 따르는 영송과 접대. 셋째, 관수물자의 수송. 넷째, 역마의 보급. 다섯째, 일부 변방 지역에서의 군사 방어 등 역역(驛役)을 담당하였다.

일반적으로 역호는 역성(驛姓)을 두고 일정한 역할을 부담하여 역에 적을 두고 역촌(驛村)을 형성하여 신분적으로 세습하여 자손 대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역참 부근에 공동체적 집단촌락을 형성하면서 향촌(鄉村)사회를 발달시켰다. 그리고 역호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기 위해 마위전(馬位田) 또는 공수전(公須田) 등의 역전(驛田)을 지급하거나 보포전(保布錢)을 징수하여 역의 재정 운영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동원 수참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이처럼 공창마을에 역촌을 형성하여 공동체적 집단촌락을 형성하였다.

공창마을은 골마도랑을 경계로 등마마을과 골마마을로 구분되어 있었다. 등마마을은 공창본동네로서 도랑을 경계로 남쪽의 높은 언덕등허리 주거지역이다. 골마마을은 공창 본동네의 도랑을 경계로 낮은 골짜기 주거지역을 일컫는다. 등(疊)마는 높은 언덕지대 마을을 뜻하고 골(谷)마는 낮은 골짜기 지대를 말한다.

두 마을을 경계로 흘러내리는 골마도랑은 옛날 큰내(大川)라고 하였다. 이 골마도랑에는 1959년 사라호 태풍 때 폭우가 쏟아져 도랑물이 넘쳐서 골마마을의 7가구가 물에 떠내려가고 주민 1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다. 강변의 공창나루터 쪽에도 4,5채의 집이 있었고 주막도 있었다.

공창마을의 안쪽 안등골에는 조선시대 조씨(趙氏)들이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곳이다. 이곳의 산 위쪽에 있던 저수지가 폭우로 산사태가 나서 무너져 내려 조씨 일족이 멸족의 화를 당했다는 전설이 있다. 이곳에는 산에 나무가 우거지기 전에는 사기, 옹기, 기왓조각 등이 많이 흩어져 있었고 옛 무덤 자리의 비석에는 조씨의 각자(刻字)가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나온 기왓조각을 동네 사람들이 놋그릇을 닦을 때 썼다고 한다. 이처럼 안등골에 산사태가 나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이 불쌍하다고 불쌍터라고 불렀다. 현재 그 자리에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곳에 있던 옛 저수지 터가 무너질 때 돌 너덜경이 2곳이 생겼는데, 이 많은 돌은 1930년대 강 건너 김해 대동 쪽 낙동강 제방을 쌓을 때 운반되어 갔다. 이 안등에는 옛날 산답(山畠)이 6,000여 평 있었다.

안등과 불메등으로 물이 갈라지는 곳에 방아송이란 이름의 정자나무가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베어 없어졌다. 고당봉에서 공창 쪽으로 바로 내려오는 골짜기가 도덕골이요, 뒷산 정상은 산 등 허리가 길어서 진등대라고 한다.

산성으로 가는 문리재를 넘기 위해 가락등과 함박등을 거쳐서 갔는데 문리재의 물과 챙이처럼 생긴 채이골 골짜기의 물은 공창 주민들의 식수원이었다.

도덕골 아랫머리에 불메등이란 언덕이 있다. 옛날 쇠를 달구기 위해 밭로 밟은 풀무(불메)를 설치했던 곳이라 불메등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곳의 논머리를 파거나 산사태가 나면 쇠똥(쇠 녹이는 둉어리)이 발견되었는데 가야시대 야철지(冶鐵址)라는 전설이 있다.

불메등에는 산답(山畠) 4,000여 평이 있었다. 공창리는 산성마을과 함께 누룩으로 유명하였다. 조선시대 동원수참에 소요되는 술을 조달하기 위하여 역촌인 이 마을에서 누룩을 생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공창리는 조선시대 역촌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왔고 일제강점기를 지나 8·15 광복 후에도 금곡동 4개 마을 중 가장 인구가 많아 60여 세대가 살았던 마을이다. 이 마을에 대대로 살아온 성씨로는 함안 조씨, 달성 서씨, 영천 이씨, 진양 강씨 문중이 있다.

공창리 출신 인물로는 달성 서씨 문중의 서영석(徐泳奭, 1925~1963) 선생이 있다. 1938년 일본 대판에서 중학교 4학년 때인 1941년 5월 장덕수 씨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조선독립청년당에 입당하여 활약하였고, 1943년 관부민락선을 타고 귀국하려다 검거되어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1945년 8·15 광복으로 뒤늦게 풀려나 귀국하여 교편을 잡았는데 39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국가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공창리 고당은 기와지붕의 당사가 서북향으로 앉아있다. 제의 날짜는 음력 정월 대보름 자정(0시)에 치르며 제당 내부의 위패는 왼쪽에 ‘귀의본산대신위(歸依本山大神位)’, 오른쪽에 ‘귀의고당묘령신위(歸依姑堂母靈神位)’ 2개가 있다. 제물은 돼지머리, 과일 등을 썼으나 사찰(삼보정사)에 의뢰하면서 돼지머리는 쓰지 않으며 일반 가정의 기제사처럼 진설하여 지낸다.

제의 절차는 고당할미제 → 산신제 → 거릿대제의 순서였으나 요즘은 고당할미제와 산신제를 동시에 당사에서 지내고, 거릿대제는 마을 앞 향나무에다 오리를 얹어 지냈으나 금곡동 택지개발 시에 이 나무가 없어지면서 지금은 거릿대제를 지내지 않는다.

공창리에는 아래와 같은 지명들이 전해지고 있다.

- 등마 : 공창 본동네의 도랑을 경계로 위쪽의 높은 언덕지대.
- 골마 : 공창 본동네의 도랑을 경계로 북쪽의 낮은 골짜기 주거지역
- 제공 : 안등골 위쪽에 개인이 집을 지어 놓고 제단을 쌓아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공창 사람들이 치성(致誠)을 드리는 곳이다.
- 골마도랑
- 안등골
- 복승아나무골
- 도덕(독)골
- 소바우 : 소처럼 생긴 바위.
- 소바우골 도랑
- 큰골 작은골
- 채이골
- 명근쟁이골
- 문바우골
- 삼박골
- 백지미골
- 신신골
- 문리재(물래재)
- 함박등
- 가락등
- 진등대

- 주치등

- 불메등(범뫼등)

- 불쌍터 : 안등골에 산사태가 나서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죽었다고 불쌍하다는 뜻으로 불쌍터라고 불렀다.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 공창나루 : 공창마을 앞에 있던 선착장.

- 방아송 : 안등 쪽과 불메등 쪽으로 물이 갈라지는 곳에 있었던 소나무로 마을의 정자처럼 수백년 된 나무였는데 일제강점기에 베어 없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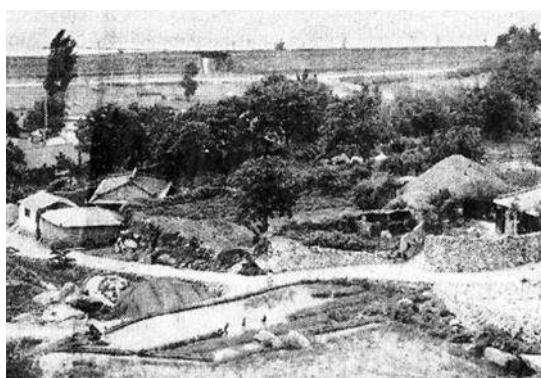
(출처:『부산북구 향토지』,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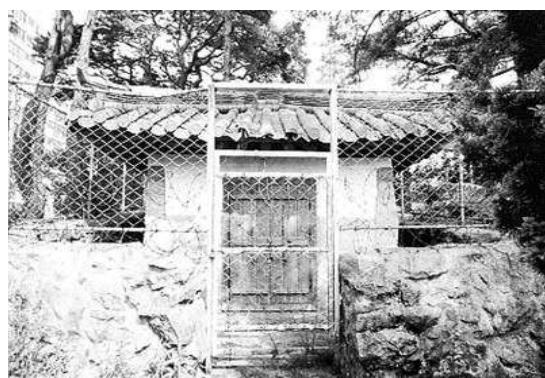
금곡 공창리 공창 등마마을 옛모습



금곡 공창리



공창리 골마마을 옛 모습



금곡동 공창고당

3. 동원리

옛날에는 공창, 동원, 화정 일대를 모두 동원이라고 했는데 조선시대 일본인과 교역을 하던 나루터로서 동원(東院)과 수참(水站)이 설치되었던 곳인데, 그 이름이 그대로 전해오고 있다. 조선시대 양산군 하동방에 속했다가 뒤에 좌이면에 편입된다.

동원리(東院里)는 공창마을과 화정마을의 중간에 있는 자연마을이다. 고려시대부터 생겨난 역원제(驛院制)에 의해 동원(東院)이 설치된 곳이고, 조선시대에는 일본과의 교역과 사신접대를 위한 수참(水站)의 업무를 보던 지역으로 기록에 남아있다. 동원리에는 강변에 동원진이 있었고 500여 년 된 당산나무가 있어 나루터의 역사를 증명해 주었다.

조선시대 양산군에 속했던 동원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먼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양산군산천(山川)조」에 동원진, 「역원조」에 동원역이 나온다. 그리고 『세종실록』에 보면 세종 3년(1457년) 1월 26일 도순찰사가 임금께 올린 동원진에 관한 기록에 “김해의 도요저(都要渚)는 비록 본디는 선척(船隻)이 있었지만 제포(진해옹천)와의 거리가 90리이고 부산포에 이르기까지 70리이므로 왜인이 가져오는 물건을 운반하기 어려우니 양산 동원진의 동쪽 부근에 수참을 두어야 한다.”라고 보고하여 이때부터 대일 교역의 근거지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원은 삼포에 도착한 일본 사신이 상경로(上京路) 중에서 낙동강 수로를 이용한 첫 기착지였다. 삼포에 도착한 일본사절은 부산포의 왜관(倭館)에서 물품 교역을 한 뒤 상경하는 노정(路程)의 기착지(寄着地)인 역참(驛站)에서도 교역이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일본사절의 첫 기착지로 김해 상동의 도요진을 이용했으나, 부산포 · 제포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 세조 3년에 양산 동원진에서 수참 업무를 보게 하였다.

『성종실록』에서 성종 16년(1485년) 2월 15일 삼포의 왜인 무역에 대해 신하와 논의 한 조목에 보면 “삼포에 도착한 왜인들의 물품을 양산 동원나루에서 배를 거슬러 7, 8 일이나 가야 바야흐로 성주(星州) 화원(花園)에 닿게 되는데 …”라는 기록과 “삼포에서 동원나루까지의 거리가 부산에서 1식(息)쯤이고 제포에서는 3식(息)이고 염포(울산)에서는 4, 5식(息)이 되는데 …”라는 기록들에서 양산의 동원진에서 교역 물품을 1차로 거두어들이고 다시 성주 화원의 창고에 저장하였다가 서울로 옮겨보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왜관을 거쳐 상경하는 사절들에게 일정한 식량을 지급했는데, 조선 전기(前期) 동래는 여러 고을에서 각출한 전세(田稅)를 모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기에

이는 식량인 왜료(倭料)를 양산 동원진의 수참에서 거두어 저장토록 하였다. 그래서 동원 수참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교역 물품을 수합(收合)하고, 왜관에 지급되는 식량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그리고 일본사절 상경로의 첫 기착지의 역할을 해내었다.

동원 수참 지역의 옛 포구 주변의 주막이나 접객 시설 등 유적지는 1903년 경부선 철도 공사를 할 때 그 흔적이 사라졌고, 나루터의 이정표 역할을 했던 500여 년 된 당산나무도 1959년 사라호 태풍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2004년 이곳 동원진 나루터의 높은 언덕 위에 35호선 국도 화명~양산 간 도로의 확장공사와 함께 현대식 고층아파트 공사를 시작했을 때 공사 현장에서 잠자고 있던 옛 유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정식 발굴조사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곳 유적지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복합건물 기초구조임이 밝혀졌고 역사적 기록에 나오는 동원진 수참의 본거지로서 왜물고(倭物庫)로 추정할 수 있었다.

동원 수참은 임진왜란 전까지 대일 교역의 첫 기착지로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동원리의 강변에는 수참 포구의 역할을 마감한 후에도 계속 지역 명산물인 잉어와 장어요리를 파는 주막집이 조선 말까지 있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부산의 미식가들이 잉어회와 장어구이 집을 찾았고 8·15 광복 후에도 명맥이 이어졌다.

1970년대에는 부산시에서 동원장어마을의 장어구이를 부산의 7진미(七珍味) 중 하나로 지정하여 1990년대까지 성업하였다. 동원리 강변의 주막이 있던 곳에서 북쪽 공창마을로 넘어가는 짧은 고갯길이 있었다. 옛날 양산 군수가 이곳을 지날 때 강을 내려다보며 쉬어갔던 곳이라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동원리 당산은 위쪽 당산나무인 감나무 10그루, 회화나무 3그루, 팽나무 3그루가 밀집해 있고, 가운데 당산나무는 낙동강변 옛 당산나무가 있던 곳에 은행나무 2그루가 있다.

제단의 형태는 상당 제단은 큰 바위 4개를 신체로 하며, 중당의 제단은 강변 은행나무를 신체로 한다. 제의 날짜는 음력 정월대보름 자정(0시)이고, 제물 진설은 가정의 기제사와 같으나 절에서 지내기 때문에 육류는 일체 쓰지 않는다.

제의 절차는 옛날 상당(산신령)→중당 고당할미→하당→거릿대제 순서였으나 근래에는 상당 산신제와 고당할미제를 지내고 중당에서 진압장군제를 지낸다. 일제강점기에 콜레라가 창궐할 때 마을 한 노인의 꿈에 건강하고 늠름한 장군이 백만 군사가 쳐들어오는 것을 막았다고 하여 그 뒤부터 진압장군제를 지내고 있다.

동원리에는 아래와 같은 지명들이 전해지고 있다.

- 장어마을: 옛날 동원의 강변에 있던 장어요리집이 언덕 위에 옮겨져 조성된 마을로 부산의 7진미(七珍味) 중 하나로 지정된 장어구이 요릿집이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 동원진(東院津)
- 화정나루
- 동원고개

(출처:『부산북구 향토지』, 2014.)



1990년대의 금곡 동원리



금곡 동원리 장어마을 표지석. 1998년

4. 율리

옛날 이 마을에 밤(栗)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 마을에는 신석기시대 유적인 율리 바위그늘유적이 있고 희귀한 알터바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밤>은 <밝>에서 왔다고 볼때 <밝>은 곧 <신(神)>과 관련이 있어 생긴 지명이 아닌가 짐작된다.

율리(栗里)는 부산 북구 지역에서 가장 먼저 사람이 살았던 문화유적이 있는 곳이다. 유틀리바위그늘유적은 신석기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빗살무늬토기(櫛文土器)가 출토되었고 청동기시대의 민무늬토기(無文土器)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고고학계에서는 유틀리문화(栗里文化)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율리바위그늘유적은 1972년 12월부터 2개월에 걸쳐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를 하여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문화의 말기(末期)에 속하는 바위그늘 자리와 조개무지에 무덤으로 추정되는 유적들이 확인되었다.

이 암굴은 약 2m~2.5m 높이의 바위가 병풍처럼 서 있는 자리 아래 자연적으로 생긴 유적인데 북쪽은 바위로 막히고 남쪽으로 열려있다. 굴의 크기는 입구에서 북쪽까지의 길이가 약 2.8m이고 동서의 폭도 비슷한 대략 4각형으로 높이는 약 2m 정도이다. 그리고 북쪽 바위틈에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 환기도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태의 자연 동굴은 선사인들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곳으로 청동기시대는 물론 삼국시대 초기의 경질 토기 조각까지 발굴되어 그 무렵까지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보이는 유적이다.

율리바위그늘유적에서 대량의 조개껍데기와 생선 가시, 짐승의 뼈, 석기와 토기 유물이 발굴되었다. 그리고 암굴 밖 동북쪽에서 돌로 깨서 만든 적석유구(赤石遺構)가 발굴되어 매장시설로 추정되었는데, 바위그늘유적은 2013년 부산시 문화재기념물 제63호로 지정되었다.

율리바위그늘유적은 마을 뒷산 골짜기에 동남향으로 400m의 경사진 야산을 올라가는 중턱에 있어, 오랜 옛날 낙동강 하구 지역이 바다였을 때 수위가 현재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생각하면 유틀리바위그늘유적은 당시 해변에서 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율리마을에 살던 최복남(1994년 조사 당시 71세) 할머니는 “율리바위그늘유적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고 1948년 25세 때 유틀리마을에 시집을 왔는데 어른들이 서당골 안 마창에 있는 큰 바위 앞에 가서 큰절을 올리고 오라 해서 다녀왔다”라고 하면서 뒤에 알고 보니까 이곳에서 공을 들이면 아기를 잘 낳게 된다고 빌게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율리에는 선사시대 유적인 알터바위가 있다. 돌에 알터처럼 둥글게 파놓은 곳에 작은 돌을 갈면서 기도를 하면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알터바위가 2곳이 있었으나 하나는 없어졌고 현재 율리 당산나무 앞에 있는 바위만 남아있다.

율리바위그늘유적이 있는 골짜기를 서당골이라 하는데 이것은 옛날 고개 넘어 대천리 양달마을에 서당이 있는 서당골로 간다고 이곳에도 서당골이란 지명이 붙여졌다. 그리고 서당골에 밤나무가 많아서 밤나무골이라고 했는데 율리(栗里)라는 지명이 여기서 생겨났다고 한다. 율리의 식수는 고당봉 아래쪽 옛날 망건 만드는 사람이 살았다는 명근쟁이골에서 물을 끌어와서 썼다. 마을의 강변 쪽에는 약간의 전답이 있었으나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겨서 농사를 망치는 수가 많았다고 한다.

율리 입구에 이 마을 출신 효자 천승호(千乘昊)와 열녀 이씨(李氏)의 정려비가 세워져 있었다. 효자 천승호 선생은 모친이 중한 병에 걸리자 겨울에 화사(花蛇, 꽃뱀)를 구해 살려냈던 인물이다. 부인 이씨(李氏)는 남편이 별세한 후 뒤를 따르니 양산의 유림이 조정에 추천장을 올려 1872년 나라에서 효자 열녀 정려비를 세우게 된 것이다. 효자 열녀 정려비는 도로 확장공사 때 금곡중학교 앞으로 옮겼다가 현재는 금곡청소년수련관 정원에 세워져 있다.

율리의 당산은 당산나무인 팽나무 1그루가 서 있어 동나무로 지정하여 신체로 모시고 그 앞에 제단을 설치해 놓았다. 제의 날짜는 음력 정월대보름 자정(0시)이다. 제의 절차는 옛날에는 당산제 → 산신제 → 거릿대제 순서였으나 현재 신목에서 당산제와 거릿대제를 지낸다. 신목 옆에 있는 거북 모양의 바위는 과거 보러 가던 사람이 합격을 빌던 바위였다고 한다. 거릿대는 금곡로 강변 쪽에 있는 회화나무이며 그 뒤에 150년 된 팽나무 2그루와 큰 바위들이 있고 제단이 있다.

율리에는 아래와 같은 지명들이 전해지고 있다.

- 알터바우: 원시신앙의 유적으로 돌에 알터처럼 둥글게 파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율리마을에는 2개의 알터바위가 있었으나 지금은 당산나무 앞에 있는 바위만 남아 있다.
- 금곡동 율리 바위그늘 유적: 신석기시대 후기의 유적. 부산 북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흔적을 알 수 있는 오래된 유적으로 1972년 12월부터 2개월에 걸쳐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했으며, 학문적으로 '바위그늘집 자리'라고 부르며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파편, 돌도끼, 돌화살촉 등이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율리사람들은 이곳에서 치성(致誠)을 드리기도 했다. 2013년 부산광역시 문화재기념물로

지정되었다

- 서당골: 율리폐총이 발견된 골짜기. 화명 대천리의 서당골로 넘어가는 곳.

(출처:『부산북구 향토지』, 2014.)



금곡동 율리 당산나무



금곡동 율리 바위그늘 유적 발굴조사

5. 화정마을

화정(花亭)마을은 당산 앞에 정자나무가 많은 동네로 전 부산지방조달청 자리의 진등대는 옛날 공동묘지였는데 진달래가 유달리 많이 피어 진달래 구더기라고 불렸다. 화정마을의 북쪽 입구 밸나무등대에는 돌도 많고 정자나무도 있었는데, 언덕 위에 백일홍이 피어있었다. 이처럼 꽃과 정자나무가 많았던 곳이라 화정이란 지명이 생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을 뒷산 정상의 큰 바위에서 200여m 안쪽으로 절터가 있었는데 이 골짜기를 불당골, 절터골(寺基谷)이라고 한다.

화정에서 동원으로 이어지는 산등성이가 곱게 생겼다고 고분등이라 했는데, 산 너머에는 장사배(商船)처럼 생긴 장사 배바위가 있다.

율리마을과 경계를 이루는 곳에 많은 바위가 있었던 따박골 골짜기가 있다. 이 바위들은 8·15 광복 후 벌채 허가로 소나무를 쳐낼 때 채석을 하여 없어졌다. 이곳의 돌들은 1930년 부산 영도다리 공사 할 때 케이블로 강변에 옮겨져 배로 실어 갔다고 한다.

강변에는 화정나루터가 있었고 주막도 있었다. 화정마을의 뒷산에 있는 골짜기로 참새이골, 안골, 밭새미골과 사기를 구웠다는 막터골(幕基谷)이 있다. 그리고 따박골에서 도랑을 따라 내려오면 좌측으로 율리마을과 경계를 이루는 곳이 좌방골이다.

화정마을의 식수는 개쑥이 많이 나는 개쑥바골의 물을 끌어다 사용하였다. 그리고 문바우골 너머 도덕골 물은 공창, 동원, 화정 주민들이 먹었던 물로 부산시에서 제일 좋은 물로 인정받았다. 화정마을의 지형을 소쿠리터라고 하는데, 마을의 남쪽 끝에 영감바위, 북쪽 끝에 할매바위가 있어 소쿠리의 손잡이 자리라고 하였다. 이곳 지형이 소쿠리터라서 토박이들은 오래 살면 모든 일이 성사되지 않고 외래 인들은 잘된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화정마을은 재건축사업으로 마을 전체가 이주해갔는데 공사 자연으로 빈집들이 남아 있다가 2011년부터 아파트가 건립되었다.

화정마을의 산제당(山祭堂)은 화방사 사찰 경내에 팽나무가 있는 곳에 당집이 있으며 대나무 숲이 있고 크고 넓은 바위가 있다. 제의 날짜는 음력 정월대보름 자정(0시)이며 제당 내부의 오른쪽에 ‘고모영신지위(姑母靈神之位)’ 왼쪽에 ‘항주본산 왕대신지위(恒住本山王大神之位)’ 위패가 있다. 제물은 육류를 쓰지 않고 진설은 가정의 기제사와 같다. 제의 절차는 산신제 → 고모령신제 → 성왕제(거리당산제) 순서로 한다.

화정마을에는 아래와 같은 지명들이 전해지고 있다.

- 화정나루: 화정마을 앞에 있었던 선착장.

- 남지: 화정마을의 남쪽 입구 관문으로 정자나무인 참나무가 있었던 곳.
- 소쿠리터: 화정마을의 지형을 말하며 남쪽과 북쪽 끝에 영감바우와 할매바우가 있어 소쿠리의 손잡이 자리라고 했는데 현재 북쪽의 바위만 남아 있다.
- 진달래등대(진달레구더기, 진등대): 옛날 공동묘지가 있는 터로 전 부산지방 조달 청 자리로 옛날 진달래가 많이 피었던 언덕 지대이다.
- 개쑥바골(개시바꼴): 개쑥이 많이 자라는 곳으로 화정 주민들의 식수원이 되고 있다.
- 벌나무등대: 화정마을의 북쪽 관문으로 옛 주민센터가 있던 자리로 돌도 많고 정자나무가 있었는데 정자 통행로의 언덕 위에 백일홍이 몇그루 피어 있었다.
- 절터골(불당골): 화정마을의 산 정상. 현재 철탑이 있는 곳. 좌측 바위있는 곳에서 200m 아래쪽에 있는 옛날 절터로서 기와조각 등이 나왔다.
- 고분등: 화정~동원쪽 산 등성이로서 곱게 생겼다고 고분(고운) 등이라고 불렸다.
- 따박골: 율리와 경계를 이루는 곳의 많은 바위가 있었던 골짜기. 이 바위들은 해방 이후 벌채 허가가 난 후 소나무를 칠 때 채석을 하여 없어졌다. 영도다리 공사 때 이곳 따박골 돌들이 케이블로 강변에 옮겨져 배에 실려갔다고 한다.
- 좌방골: 따박골에서 도랑따라 내려오면 좌측 율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골짜기.
- 장삿배바우: 고분등 산 너머에 있는 장삿배(商船)처럼 생긴 바위.

(출처: 『부산북구 향토지』, 2014.)



금곡 화정마을<1980년대>



금곡 화정마을<2005년>



금곡동 화정산제당



화방사 산제당 팽나무

제2장

금곡동의 인문

제2장 금곡동의 인문 환경

제1절 금곡동의 역사

1. 금곡동 행정구역의 연혁과 변천
2. 전래문중과 집성촌
 - 1) 공창 영천(氷川) 이씨(李氏) 문중 2) 공창 달성(達城) 서씨(徐氏) 문중 3) 울리 분성(盆城) 배씨(裴氏) 문중
3. 금곡동의 출신인물
 - 1) 전통시대의 인물
 - (1) 효자 천승호(千乘昊)와 열녀 이씨
 - 2) 근대인물
 - (1) 권용학(權龍鶴) (2) 서영석(徐泳奭) (3) 양태용(梁太鎔) (4) 안화중(安華重)
 - (5) 정치호(鄭致浩) (6) 김기호(金淇鎬) (7) 김정희(金鼎暉) (8) 김인태(金寅泰)
 - 3) 현대인물
 - (1)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2) 사회 활동가
4. 금곡동의 역대 동장과 시·구 의원
 - 1) 역대 동장 2) 역대 시의원 3) 역대 구의원

제2절 금곡동의 행정

1. 금곡동의 지역특성
 - 1) 인구 2) 행정구역 3) 토지지목별 4) 산업체별·사업체수 및 종업자수
2. 금곡동의 공공기관과 단체
 - 1) 공공기관 2) 단체현황

제3절 금곡동의 사회복지

1. 사회복지 수요
2. 사회복지시설
 - 1) 종합사회복지관
 - 2) 장애인복지시설
 - 3) 아동·청소년 시설
 - (1) 보육시설(어린이집) (2) 아동 시설 (3) 청소년시설
 - 4) 노인복지시설
 - (1) 요양시설 (2) 경로당 (3) 대한노인회 부산북구지회
3. 기타 시설
 - 1) 북구희망터 지역자활센터 2)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3) 금곡동 자원봉사캠프 4) 공창마을행복센터 5) 공창 새마을회관
4. 장학회
 - 1) 금곡복지회

제4절 금곡동의 교육과 종교

1. 교육시설
 -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2. 종교시설
 - 1) 교회 2) 사찰 3) 성당

제5절 금곡동의 생활편의시설

1. 의료시설
 - 1) 병·의원 2) 치과 의원 3) 한의원
2. 금융기관
3. 유통시설
 - 1) 농협하나로클럽 부산점
4. 공원 및 동네체육시설
 - 1) 공원 2) 동네체육시설

제2장 금곡동의 인문

제1절 금곡동의 역사

1. 금곡동 행정구역의 연혁과 변천

1) 삼한(三韓)시대

- 변한(弁韓)의 지배권에 속함

2) 가야(伽倻)시대

- 금관가야(金官伽倻)의 지배권에 속함

3) 삼국(三國)시대

- 신라(新羅) 지증왕(500~514) 때 지배권에 속함

4) 통일신라(通一新羅)시대

- 665년(문무왕 5): 삽량주(歇良州)에 속함
- 757년(경덕왕 1): 양주에 속함

5) 고려(高麗)시대

- 940년(태조 23): 양주(梁州)
- 983년(성종 2): 경주목(慶州牧) 양주군(梁州郡)
- 1022년(현종 13): 경상도(慶尙道) 양주군(梁州郡)

6) 조선(朝鮮)시대

- 1413년(태종 13): 경상도 양산군(梁山郡) 하동방(下東坊)
- 1520년(중종 15): 경상좌도(慶尙左道) 양산군 하동방
- 1603년(선조 6): 경상도 양산군 좌이면(左耳面)
- 1896년(고종 33): 경상남도 부산부 좌이면
- 1897년(고종 34): 경상남도 양산군 좌이면
- 1899년(광무 3): 경상남도 양산군 하동방

7) 일제 강점기 시대

- 1910년: 경상남도 부산부 좌이면
- 1914년: 경상남도 동래군 구포면 금곡리
- 1943년: 경상남도 동래군 구포읍 금곡리

8)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 경상남도 동래군 구포읍 금곡리

9) 부산 관할 이후

- 1963.1.1: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금곡동
- 1978.2.15: 부산직할시 북구 금곡동
- 1995.1.1: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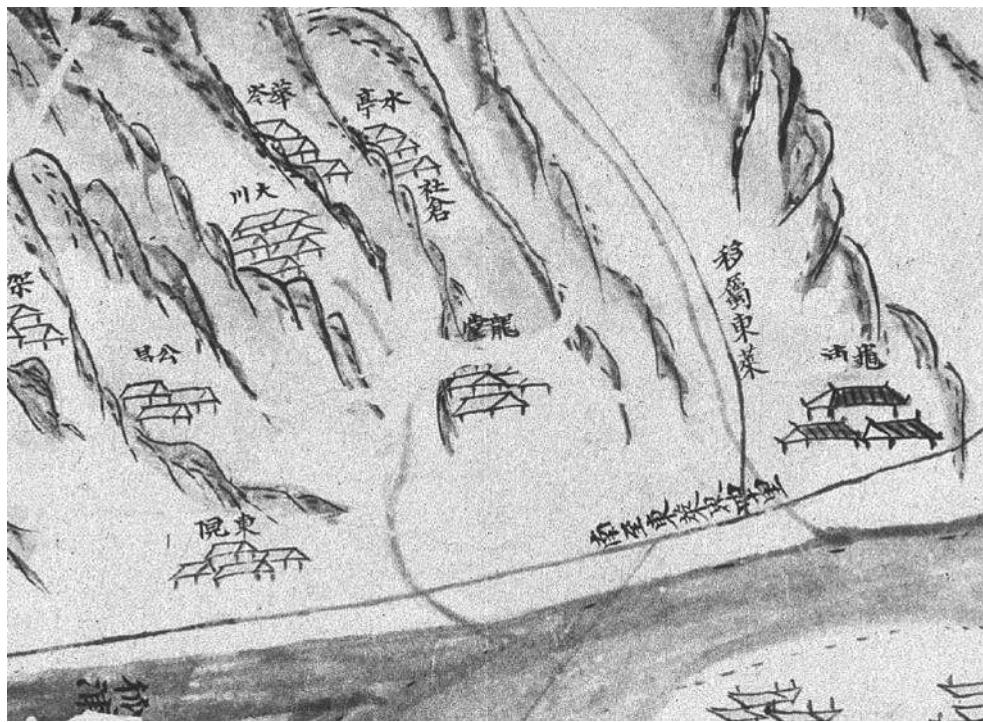
〈표2-1〉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소속 동리 현황

면	동	1914년 이전 소속동	현재
좌이면 (左耳面)	화명동	(釜山府 左耳面) 龍堂洞, 水亭洞, 華岑洞, 大川洞 一部	북구 화명동 일대
	구포동	(釜山府 左耳面) 龜浦洞, 師良洞 一部	북구 구포동 일대
	덕천동	(釜山府 左耳面) 師良洞, 堂洞 各 一部	북구 덕천동 일대
	금곡동	(釜山府 左耳面) 東院洞, 花亭洞, 公倉洞, 大川洞 各 一部	북구 금곡동 일대
	만덕동	堂洞 一部 沙上面 萬德洞	북구 만덕동 일대
	금성동	(釜山府 左耳面)(北面) 仙公驛洞	금정구 금성동 일대

자료:『부산의 자연마을』 제5권(2010년)



금곡동 주변의 고지도, 자료:『부산의 자연마을』제5권(2010년)



각읍지도(양산군도, 1750년), 자료: 전자항토사도서관



금곡동 자연마을 지도. 1950년 자료: 부산의 자연마을 제5권(2010년)



금곡동 위성사진(2021년)



금곡동 관내도(2021년)

2. 전래문중과 집성촌

금곡동은 낙동강을 앞에 두고 금정산자락에 마을을 형성한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 산명수자(山明水紫)한 고장으로 역사 이전 시대부터 조상의 숨결과 얼이 서려 있는 유구(遺構)와 유물을 남겼다. 울리 바위그늘유적이 신석기시대의 흔적을 남겼으며, 해상교통을 이용한 역원으로 한일 문물과 외교의 길을 연 금곡 동원진(東院津)도 유구와 유물을 함께 남겼다. 이 고장 지명 금곡(金谷)의 유래를 유추하면 금관가야시대에 인근 물금의 자철광을 가져와 쇠를 제련하던 곳('불메등')이 있어 후대에 집합적 기억으로 쇠가 나오던 곳이라 금곡(金谷)이라 불렀을 것이다

고대의 첨단 산업인 쇠의 제련은 전한(前漢)에서 김수로(金首露) 집단이 가져와 국가의 전매사업으로 영위되었으므로 고대의 철은 지금의 화폐 이상의 가치를 가져 권력자의 고분에서만 철정(鐵釘)이 무덤의 토지 대금, 위세품 성격으로 출토되고 있는데, 최근에 발굴된 김해 대성동고분의 철정을 포스코 연구소에서 분석한 결과 물금의 자철광을 제련한 것으로 밝혀져, 금곡동(金谷: 쇠가 나오는 골짜기) 마을 위쪽에는 지금도 조금만 깊게 파면 제철 과정의 폐기물(슬러시)이 나오는 '불메등'이 있으므로 지명의 유래를 연역적 추론(演繹的推論)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쇠, 도구와 기술자들이 있어도 1200°C의 고열을 내는 연료는 숯으로 철광석을 녹여야 했기 때문에 금정산의 참나무를 숯으로 만들어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금곡동은 제련하기 좋은 천혜의 입지였을 것이다. 지금도 금곡동 토박이 어르신들은 공창마을 '불쌍터'의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없지만, 대홍수로 인하여 함안 조 씨 집성촌이 있었는데 수해로 전몰되어 그 뒤 공창 아랫마을 사람들이 집합적 기억으로 '불쌍터'로 부르고 있다. '불쌍터'의 위쪽에 '숯터'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전 금곡동 향토회 회장 영천이씨 24대손 이오용 씨·공창마을 달성서씨 종문 23대손 서병오(徐柄五) 더 나아가 철 생산은 국가 독점의 전매사업이므로 항상 관리·감독하던 관청을 두었는데, 그때 금곡(金谷)제련소를 운영하고 관리하던 김수로왕 집단의 후예들이 화명동·덕천동 고분 집단을 남기지 않았을까?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당시에는 큰 번영을 누렸다고 볼 수 있으며 현 북구 지역이 한국사의 주축으로 활동했던 때는 금관가야 시절이었다.

이후 긴 정체를 이어오다 황산강의 수로를 이용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포구와 역원이 생기고 근세에 들어 일본의 한반도 진출로 큰 부침을 겪게 된다.

그간 금곡동은 동원수참을 중심으로 유지되던 지역 산업은 수참이 사라지자 자급 정도에만 머물든 소농의 향토 농업인은 마을 위쪽에 있는 채석장에서 노동하며 경부선 철로 건설에 쓰는 골재를 생산 공급하기도 하였다. 양조산업도 발달하여 밀양에서 생산된 밀을 가져와 가가호호에서 누룩을 만들어 산성을 넘어 동래지역으로 공급하는 부산 일대 최대의 누룩 생산을 기록하였는데, 이것도 과도한 징세와 밀주 단속으로 이를 중간 공급지인 산성마을에 넘겨주게 되었고, 그 뒤 농촌 4H 운동과 어촌계의 변화로 원예 산업과 장어마을을 일구게 되었다고 한다.(이오용 씨 증언)

금곡동에서 제일 큰 공창마을이 번창했던 시절에는 350가구 정도의 가호(家戶)가 있었지만, 영농의 규모와 농사지을 땅이 모자라서 주민들은 양산이나 김해 등지로 역유출되는 현상도 생겨났지만, 최근의 금곡동은 북구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 화명신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2021.12.31. 기준 18,168세대에 38,997명의 도시화를 이루어 근세 금곡동 모습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금곡동에는 금곡동 공창마을 영천이씨(永川李氏) 문중, 공창마을 달성서씨(達城徐氏) 문중, 율리·대천마을 안동권씨(安東權氏) 문중, 율리마을 분성배씨(盆城裴氏) 문중이 19세기 이후에 이곳에 자리 잡았고 금곡 화정마을 장흥고씨(長興高氏), 공창마을 진양강씨(晉陽姜氏), 함안조씨(咸安趙氏) 등이 터전을 잡고 살다가 도시화의 물결에 묻혀 집성촌을 떠나고, 현재는 공창마을 일부분만 지난 농촌 마을의 잔상을 남기고 있다. 조선 후기 연대(年代)가 확실하지 않지만, 함안조씨(咸安趙氏) 문중은 공창마을 맨 위쪽에서 일가를 이루고 살다 애석하게도 큰비에 수해를 당하여 전몰 당하여 ‘불쌍터’라는 전래지명을 남기고 있다.

특히, 대동 조눌리에서 공창마을로 이주한 달성서씨 현감공파 문중은 집성촌을 이루었지만, 소농으로 문중 일원이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로 역이주하여 그곳에서 상업으로 큰 집성촌을 이루었다. 일제강점기에는 금곡동의 서영석, 상북면의 서병희, 그의 아들 서두성 등 세 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사실을 이번 향토사 연구로 밝혀내고 공창마을 달성서씨(達城徐氏) 문중에 면면히 흐르는 민족정기의 자긍심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예로 우리 역사의 기저에는 향토사가 있는 것이다, 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 선생은 『조선상고사』에서 ‘역사는 아(我)와 비아(非我) 투쟁의 기록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EH카는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계속된 상호 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금곡동의 전래문중 중에서 영천이씨, 달성이씨 위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공창 영천(永川) 이씨(李氏) 문중



(1) 개요

영천이씨는 경상북도 영천시를 본관으로 하여 라말·여초(羅末·麗初)의 시조(始祖)로부터 1,00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씨이다. 영천은 영천이씨, 영천최씨, 영천윤씨, 영천황보씨 등 영천을 본(本)으로 하는 4대 토성(土姓)의 관향지다.

1985년 11월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姓)씨는 총 274개로 본관은 3,380개이며, 이(李)씨의 본관은 237개, 5,985,000명이다. 이 중 영천이씨는 95,473명, 가구수는 23,290호로 전체 이씨의 1.6%로 이씨 10대 본관 중 열 번째이다. 1985년 인구조사 당시 4,040만, 그 후 2000년에는 4,600만으로 15년 동안 14% 증가하였다. 이 증가율을 적용하면 현재 영천이씨는 남한만 약 12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영천이씨의 종파로는 선대계보(先代系譜)와 후대계보(後代系譜)로 나누어지는데, 선대계보는 서승공파, 익양군파, 상장군공파, 상서공파 등 4개파이며, 후대계보는 선대와 중시조를 모신 계보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지파로서 선대 2개파(서승공파, 상장군공파)와 익양군파 후손 7개파로서 9개 지파로 이루어진다.

영천이씨는 본관이 영천이나 그 세거지(世居地)는 전국에 산재해 있다. 조선초 선조가 이북 함흥으로 처음 입북하여 관북파라고 불렀는데 현재 알 수는 없지만 북한에도 상당수가 살고 있는 듯하다. 주요 집성촌(集姓村)으로는 경북의 영천, 경산, 군위, 의성, 안동, 청송, 영덕, 경주 등이고 경남의 김해, 양산, 거창, 전남 광양, 담양, 경기도의 안성, 강원도의 인제 등이다.

(2) 시조와 종파



존덕사 전경과 존덕사

영천이씨의 시조는 이문한(李文漢)이다. 고려초 평장사를 역임하였으나 배위와 묘소는 실전(失傳)되어 전하는 바가 없으며, 평장사의 관직은 고려조 6대 성종(982~997) 때 생긴 것으로 미루어 시조 이문한은 고려초 또는 신라말에 탄생하여 성종조에 벼슬에 오른 것으로 예상된다(고려건국: 918년, 신라멸망: 935년). 묘소가 실전되어 관향지인 영천에 존덕사(尊德祠)를 세워 매년 2월에 후손들이 제향을 올리고 있다.

시조의 6세 이영(李榮)은 영천이씨의 중흥조이다. 이영은 금오위장군(金吾衛將軍)으로 경상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를 지냈으며, 6子를 두어 가문을 번창시켰다. 장자 이광순(李光純)은 효도와 우애가 하늘에 닿고 문학에 정진하는 등 안빈락도로 가문을 지켰으며, 차자 이광청(李光清)은 무후, 3子 이봉(李封)은 별정동장으로 역시 무후이다. 4자 이극인(李克仁)은 1202년(신종5년) 경주별초군 난을 평정하고 1217년(고종4년) 거란족 10만이 침입했을 때 충청도 박달현과 함경도 정평에서 격퇴시켰으며, 1224년(고종11년) 권신 최우의 제거를 주도하다 도리어 화를 입었다. 그 후 평장사 상장군 익양군(益陽君)으로 봉해지고 존덕사와 고려 통일대전에 봉안되었다. 5子 이수춘(李守

椿)은 형 극인과 함께 별초군 난을 평정하여 상장군이 되고 6子 이세화(李世和)는 이부 상서다. 이 때부터 영천이씨는 4개지파(장자 서승공파, 4子 익양군파, 5子 상장군공파, 6子 상서공파)로 분파되어 선대계보를 이루었다.

선대 4개 지파중 서승공파, 상장군공파는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 내려오고 있으며, 상서공파는 이북에 많이 살고 있다고 전해지나, 그 후손들을 찾을 수 없다. 익양군파는 이영의 6세(시조 이문한의 12세) 대장군 이백수(李伯修)의 하대(下代)에 미상이 되어, 고려중기 말 후손 이대영(李大榮), 이중영(李仲榮) 형제분이 각각 파를 창설하여 익양군파를 승계하였다. 이로써 이대영은 영양군파의 중시조로, 이중영은 울산군파의 중시조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고려 진사 신호위대장군 좌명공신(佐命功臣) 이대영은 영양군(永陽君)으로 봉군(封 현 오미동에 있다. 이대영의 후손은 크게 번창하여 고려말 6세에 이르러 6개 지파로 분파되고 많은 문무현관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1457년(세조3년) 그의 8세손 순홍도호부사 대전 이보흠(李甫欽)이 금성대군과 더불어 단종복위를 주동하다가 멸문지화를 당하자 수난이 시작되었다. 이 사건 초기 대부분의 영천이씨 일족은 관향지영천을 떠나 전국의 각처로 구명도생하였는바 영양군의 묘소도 실전된 채 300여년 동안 타 성씨의 선묘(先墓)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영君)되고 시호는 文貞(문정)이며, 생줄년과 배위는 실전되었으나, 묘소는 영천 석현 오미동에 있다. 이대영의 후손은 크게 번창하여 고려말 6세에 이르러 6개 지파로 분파되고 많은 문무현관이 배출되었다.

그러나 1457년(세조3년) 그의 8세손 순홍도호부사 대전 이보흠(李甫欽)이 금성대군과 더불어 단종복위를 주동하다가 멸문지화를 당하자 수난이 시작되었다. 이 사건 초기 대부분의 영천이씨 일족은 관향지영천을 떠나 전국의 각처로 구명도생하였는바 영양군의 묘소도 실전된 채 300여년 동안 타 성씨의 선묘(先墓)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영조41년(1765년) 뜻밖에 관북(함경도) 출신 후손 이창례의 관향지 방문이 계기가 되어 영양군의 묘소 찾는 일이 시작되었다.

이 후 47년 동안 계속된 오랜 송사과정에서 군과 감영, 조정까지 관여하게 되었는 바 한 종중의 심묘사건으로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마침내 순조13년(1812년) 묘소를 찾게 되었으니 이는 사필귀정의 범(範)이요 영천이씨 종중사를 빛낸 일대 장기(長舉)라고 할 것이다.

영양군파 중시조인 이대영의 6세에 이르러 6개 분파(소감공파, 판서공파, 남곡공파, 소윤공파, 감사공파, 생원공파)를 이루어 각 지파별로 후손들이 오늘날까지 선조들을 봉향, 제향하고 있다.



고려 금오위장군 영공의 묘소 소재지 : 영천시 청동면 계지리 양지산

(3) 경남 양산에 정착한 영천이씨

경남 양산은 신라 초·중기에 삽량성(畝良城)이었던 것이 문무왕 5년에 와서 삽량 주로 승격되었다. 이후 경덕왕 16년(757년)에는 삼국통일후의 지역편제를 다시 조정하면서 삽량주를 양주(良州)로 개칭하였는데, 당시 양주 관할에는 12군, 34현 4정이 있었다.

고려시대의 양산은 태조 23년(940년) 양주(良州)에서 양주(梁州)로 군현의 명칭이 변경되었고, 고려 후기에는 밀성(현 밀양)에 합속되었다가 충렬왕 30년(1304년)에 다시 양주로 환원되었다.

조선시대에 군현제의 시행으로 조선초 양주군에 편제되어 태종 13년(1413년)에 양산군(梁山郡)으로 고쳤다. 조선시대에 양산은 삽량주, 양주, 의춘, 순정이라고도 불렸다.

경남 양산에 정착한 영천이씨는 영양군 이대영 후손 6개 분파 중 남곡공파(南谷公派)의 후손이다. 현재 남곡공파 후손들의 세거지는 경북 영천, 군위, 대구, 경기도 안성,

전남 광양, 대치, 순천, 경남 거창, 통영, 김해 양산 등 전국 8,900여호 32,300명이다.

남곡공파 파조인 이석지(李釋之)의 호는 남곡(南谷), 시호는 충정(忠貞)으로 영천에서 태어났다. 고려 충혜왕 2년(1341년) 목은 문정공 이색과 진사과에 동반급제하고 충목왕 3년(1347년) 문과에 급제하여 경상도 안렴사, 보문각 대제학과 판도판서를 역임하였다. 그는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 오자 이성계가 국사를 전단하는 것을 보고 나라의 운수가 다한 것을 알고 벼슬을 버리고 용인 남곡에 은거하여 두문동 72현(賢)의 한 사람으로 사적은 두문동 충현사(杜門洞 忠賢事)와 부조현록(不朝峴錄)에 기록되어 있다. 남곡 선생은 비사비은(非仕非隱 ; 벼슬할만 하면 하고 은둔할만 하면 은둔함)의 이치를 알고 세속에 구애됨이 없이 유유자적하게 살았다고 목은의 남곡기에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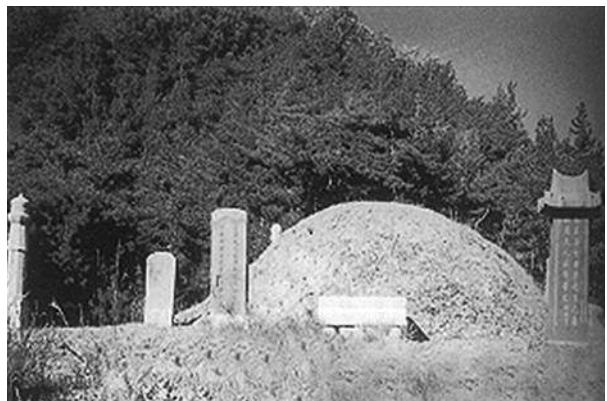
보문각 대제학 판도판서 시 충정 남곡 서지공의 묘소

남곡 선생은 다섯 아들을 두어 장자 이안우(제학), 차남 이안직(직제학), 3남 이안유(이조정랑), 4남 이안실(정랑), 5남 이현실(사직) 등 관직에서 영달하였으나 손자 충장공 이보흠이 단종사화(端宗史禍)로 멸문지회를 당하자 이때부터 벼슬한 후손들이 드물다. 이 사건으로 남곡공파는 전국 각지로 각자도생 피난하여 현재 영천이씨 종파 중 가장 세거지가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단종사화의 당사자인 영양군 이대영 8세인 이보흠(李甫欽, 1397~1457)의 호는 대전(大田)으로 사직 이현실의 장자로 남곡 이석지의 손자이다. 영천에서 태어나 태재 유방선의 문하에서 수학 후 세종 11년(1429년) 기유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 박사, 성균관 주부, 군수, 사헌부 장령 등 내외직을 역임하였다. 1455년 단종이 세조에게 선위하자 낙향하여 영천에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중 1457년 나라에서 순흥부사로 제수하자 그곳에 유배된 세종의 제6자 금성대군과 뜻을 함께 할 기회라 흔쾌히 부임했다. 부임

후 금성대군과 단종복위를 위해 삼남에 격문을 돌려 거사를 도모하다 관노의 밀고로 실패하고 만다. 그는 멸문지화를 당해 평안도 박천으로 장류(杖流)되어 그해 10월 27일 교살(絞殺)되었다.

이보흠은 영조14년(1738년) 복권되어 이조판서로 증직되고 정조15년(1791년) 충장(忠壯) 시호가 내려졌으며, 장릉 충신당 어정배식자(御定配食者) 32인중 1인으로 배향되었다. 영조조 조정고관들은 “육신(六臣)에 가일신(加一臣)하여 칠신(七臣)”이라 했으니 공의 충절의 기림이 이렇게 높았다. 공주의 숙모전, 영월 장릉의 충신당, 청원의 죽계서원, 영천의 송곡서원과 대전정사, 담양의 대치서원, 거창의 덕천서원과 성인사, 순흥의 성인당과 도계서원, 군위의 경절정사 등에 배향되었다. 묘소는 영천 화남면 단애 절동에 있다.



위치 :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 단애(사직公 묘下)
그의 묘소는 1457년 10월 동생 부사 이보관이 시신을 수습하여 이곳에 안장하였으며, 묘소에는 3기의 비이 있는데 좌측의 비는 1704년(숙종30년) 영천군수 여필관이 최초 건립한 「李甫欽之墓」로 되어 있으며, 중앙은 1744년(영조20년)에 영천군수 윤봉오가 개갈(改碣)한 「贈 賚憲大夫 吏曹判書 通訓大夫 行順興都護府使 李甫欽之墓」로 되어있으며, 우측은 1973년 후손 이병수가 독답으로 세워 「忠莊公 大田 李先生之墓」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한 묘소에 3기의 비는 충장공의 수난과 설원 복권, 증시 등 기구한 역정을 설명하고 있다.

증 이조판서 시호 충장 대전 이보흠의 묘소

이러한 사건으로 약 200년 동안 숨어 지내온 영천이씨 남곡공파 후손들은 전국각지로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임진왜란을 계기로 벼슬하는 후손이 나타났다.

영천이씨 남곡공파의 7개 지파(支派) 중 서파공파(西坡公派)는 영양군 6세 남곡 이석지의 다섯 아들 중 셋째인 서파(西坡) 이안유(李安柔)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지파이며 남곡공파 7개 지파중 4번째의 지파이다. 서파는 태종 5년(1405년) 을유문과에 절재 김종서와 동반 급제한 뒤 사간원 현납, 정언, 이조·병조 정랑을 지냈으며, 1400년대 초에 영천 쌍계동으로 입향하였으며, 만년에 용인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졸하였으나 1457년 충장공의 순흥참변으로 묘소가 실전되어 후손들이 영천 쌍계동에 제단소를 설단하고 구인사(求仁祠)를 세워 배향하고 있다.

영양군(永陽君) 7세 서파 이안유는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장자는 귀전(歸田) 이종근(李宗勤)이다. 세종조에 등과하여 예빈시 직장이 되었으나 벼슬에서 물러나 영천에서 은거하던 중 1457년 종제 이보흠의 순홍사건이 발생하자 일족이 구명도생하여 사방으로 흩어지자 귀전도 객지에서 전전하다 1460년 8월 영덕 남쪽 칠령산 기슭 지곡리로 옮겨온 뒤 이름을 감추고 살았으며 묘소도 실전되었다. 영조 16년(1740년) 원종 3등공신으로 추배되었다. 후손들이 영덕읍 지곡리에 제단소를 설립, 매년 제향하고 있다.



서파 안유공의 제단소와 삼우정

차자는 산수정(山水亭) 이종양(李宗讓)으로 세종 11년(1429년) 형 이종근, 종형 이종검, 종제 이보흠과 함께 등과하여 은산(지금의 평안도)현감을 지냈으며 형 이종근과 함께 벼슬에서 물러나 있던 중 1457년 종제 이보흠의 순홍사건이 발생하자 은거, 여생을 보내어 묘소는 실전되었다. 그 이후 영조시대에 호조참의로 추증되었으며 배위는 증숙부인 용인이씨(龍仁李氏)로 관찰사 청백리 백지의 따님이다. 후손들이 영천시 대창면 오길동에 제단을 설립하였으며, 양산 세덕사에 봉안하여 매년 봉향하고 있다.

그 밖의 서파 이안유의 후손으로는 임란 순절의사 증 한성판관 영양군 13세 이영근(李榮根), 영양군 묘소 찾기의 주역인 영양군 17세 서계 이낙징(李洛徵), 영천 유정리 입향조 동지중추부사 영양군 10세 정재 이수천(李壽千)공, 예천군수 영양군 10세 이구수(李龜壽), 양산 입향조 임란공신 영양군 14세 어모장군(禦侮將軍) 훈련원 정(訓練院正) 이구(李鳩) 등이 있다. 서파공파 후손들은 대구, 영천, 경산, 영덕, 양산·김해 등에 세거하고 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영천이씨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다.

영천이씨 남곡공파 후손 중 양산의 입향조(入鄉祖)는 어모장군(禦侮將軍) 훈련원 정(訓練院正) 이구(李鳩)이다. 그는 영양군 14세이며 서파 이안유의 7세손이다. 생몰년은 문헌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의 공적으로 미루어 선조조 초반 1570년대 출생하

여 인조조 후반 1640년대에 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군은 임란때 양산에서 이수생(李秀生) · 최흥국(崔興國) 등과 창의하여 의병 활동을 하다가 송담(松潭) 백수회(白受繪) 선생과 함께 일본에 피납되었으나 절개를 굽히지 않고 3년 후에 방환되어 그 후 선무원종공신(宣武 原從功臣)이 되었다. 장군은 폐립된 지 3년 뒤 귀국하여 정유재란(1597년) 때 경상남도 창녕의 화왕산성(火旺山城) 전투에서 전공을 세웠다. 그 공로와 절의로 인해 선무원종공신(宣武 原從功臣) 3등 훈련원 판관에 녹훈되는 한편, 포로 생활을 같이 한 송담(松潭) 백수회(白受繪) 선생의 매제가 되었다. 1603년(선조36년) 무과에 등재하여 벼슬이 훈련원정(訓練院正)에 이르렀다.

이구 장군은 양산(梁山)의 입향조(入鄉祖)로서 후손들이 1987년 4월에 건립한 세덕사(世德祠, 公의 묘소 좌측사당)에 봉향하고 있으며, 배위(配位)는 숙부인(淑夫人) 부여(夫餘)백씨[白氏 : 송담 선생의 누이(妹)]의 묘소는 물금 가촌리 청룡동에 있었으나 도시 계획사업으로 1998년 이장 후 물금 가촌에 있는 장군의 묘소와 합봉하였으며, 2012년 9월 양산시 교동 춘추공원내 충렬사에 송담(松潭) 백수회(白受繪) 선생 등 임란공신 28위와 함께 위패가 봉안되었다. 후손들은 1950년대부터 영천이씨 남곡공파 김해·양산 종중회를 결성하여 세덕사에서 선조들을 봉향하고 있으며, 현재 종중회 회장은 영양군 26세 금곡동 공창마을 문중의 이광재(72세)가 맡아 종중회를 이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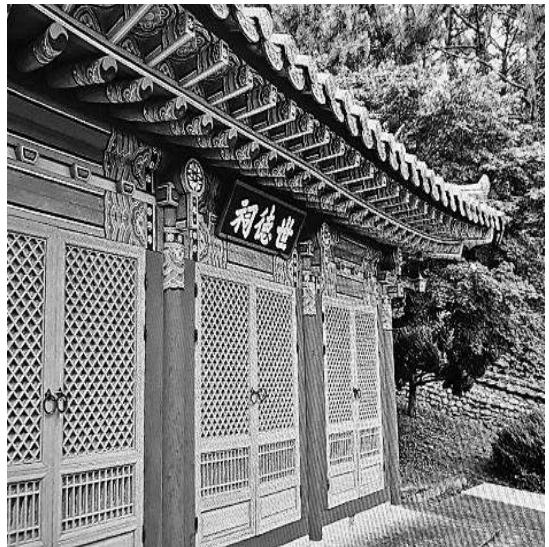
어모장군 이구의 묘소와 세덕사

(4) 금곡동 공창리에 정착한 영천이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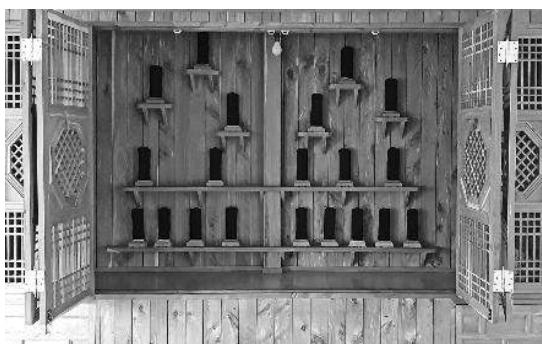
양산군에 속했던 금곡동은 하동방(下東坊) 동원촌(東院村)과 공창촌(公昌村)이었다가 뒤에 구포 행정권에 합해져서 좌이면 동원리, 공창리가 되었다. 1914년 동래군 구포면 금곡리가 되었는데 공창(公昌), 동원(東院), 화정(花亭), 율리(栗里) 네마을이 있다. 공창리는 조선시대 동원진(東院津)에 설치된 수참(水站 : 수로에 의한 물품운반 역)에서 근무했던 역리(驛吏)들이 집단으로 거주했던 곳이라 공창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 8.15 광복 후에도 금곡동 4개 마을 중 인구가 가장 많아 100여 세대가 살았던 마을이다. 이 마을 대대로 살아온 성씨로는 영천이씨, 함안조씨, 달성서씨, 진양강씨 문중이 있다.



영천이씨 남곡공파 양산 세거지 표지석



영천이씨 남곡공파 양산 세거지 세덕사



금곡 공창 송익정 위패와 제례 모습

공창리에 입향한 영천이씨는 양산 입향조인 이구 장군의 증손자인 영양군 17세이 익문(李益文)이다. 이구의 증손자는 모두 8명으로 1600년대 중후반대(효종~숙종조)에 생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8명의 증손자는 김해, 양산 원동(내포, 선장, 당곡, 이천리) 등에 출가하여 이후 대대로 집성촌을 이루고 오늘에 까지 이르고 있다. 이익문은 공창리에 입향한 이래 현재 영양군 28세에 이르기까지 100여호 250여명의 후손들이 공창, 좌천, 웅촌, 기장 등에 세거하고 있다. 후손들은 공창마을에 재실(승익정 : 崇益亭)을 지어 매년 영양군 26세 종손 이두신(84세)씨가 회장을 맡아 후손들과 함께 제향하고 있다.〈자료제공:영천이씨 문중(이수재 낙동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2) 공창 달성(達城) 서씨(徐氏) 문중

서씨는 옛 문헌에 165개의 본관이 있었으나 현재 10개의 본관 이외에는 그 시조와 유래를 알 수 없다. 서씨(徐氏)의 성씨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1) 서씨(徐氏)의 유래

● 서씨의 기원은 단군시대[예맥(穢貊): 한(韓)민족의 근간이 되는 민족]의 추장인 여수기(余守己)라는 사람이 9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에게 각기 고을을 나누어 다스리게 한즉 선정을 베풀었다 하여, 그 공을 못 잊어 백성들이 “여러 사람이 고마움의 뜻을 표한다” 하여, 여(余)자에 중인변을 붙여 여(余)자를 서(徐)라고 고쳐서 사성(賜姓)한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 기자(箕子)의 40세손이고 고대(古代) 기자조선(箕子朝鮮)의 마지막 왕인 애왕(哀王) 기준(箕準)이 위만(衛滿)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뱃길로 남쪽으로 옮겨 진(辰)나라 북쪽 변방인 지금의 경기도 이천(利川)땅인 서아성(徐阿城) 지방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지명을 따서 성씨를 서씨라 하였다고 한다.

(위지 동사강목(魏志 東史綱目))

● 기준의 후손인 만주(萬周)라는 사람이 나이 40살에 사슴의 목숨을 구해준 어느 날, 신라 문성왕(文聖王)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특하게 여겨 왕의 눈에 들어 만주에게 서씨(徐氏)의 성을 내리고 뒤를 보살펴 줌으로 신(神)의 가호로 안일하게 되었다는 뜻에서 이름을 신일(神逸)로 고쳤다고 한다.

(서씨 사적정해(徐氏 史蹟精解))

(2) 서씨(徐氏)의 분관

● 서신일은 이천 서씨(利川 徐氏)의 시조이며, 오늘날 이천서씨는 모두 서신일의 후손이고, 후에 이천 서씨에서 달성(達成), 장성(長城), 연산(連山), 평당(平當), 남평(南平), 부여(扶餘) 서씨로 분파되었고, 달성 서씨에서 다시 대구서씨로 갈라져 모두 7개파로 분적되었으며, 이 모두가 서신일의 후손이라고 한다.

〔증보문헌비고, 조선씨족통보〕

● 서씨(徐氏)의 대종(大宗)인 이천서씨의 시조 서신일은 신라 52대 효공왕 때 아간대부를 지내다가 국운이 다함을 예견하고 벼슬에서 물러나 경기도 이천의 효양산 기슭에 희성당(希聖堂)을 짓고 은거하면서 스스로 처사라 칭하고 후진 양성에 여생을 바쳤다고 한다.

● 『동국만성보』와 『조선씨족통보』의 기록에 의하면 서신일은 신라 창업의 개국공신으로 아성(利川城의 이름)대장군을 지낸 서두라(徐豆羅)의 후손으로서, 그의 천품이 인자중후하여 서신일 대에 이르러 산촌에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사슴 한 마리가 화살을 맞은 채 사냥꾼에게 쫓겨 집안으로 뛰어 들어오므로 불쌍히 여겨 화살을 빼주고 먹이를 주며 극진히 간호해 준 다음 다시 산으로 놓아주었다. 그 날 밤 꿈에 한 백발의 신령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오늘 그대의 집에 왔던 사슴은 나의 자식으로 사냥꾼의 화살



달성 서씨 서진(徐晉)의 묘소 (위치: 대구공역시 달성구 다사읍 문양리)

을 맞아 죽게 되었는데 다행히 그대의 은덕으로 살게 되었으니 그대의 자손이 세세로 재상을 지내리라"고 했다. 나이 80이 되도록 슬하에 혈육이 없던 그는 그 날부터 부인의 몸에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으니, 그가 바로 정민공(貞敏公) 서필(徐弼)이요, 필의 아들이 유명한 서희(徐熙) 장군이다.

이천 서씨의 시조인 신라 아간대부 서신일 공의 묘소와 신도비(神道碑)는 현재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산촌리(효양산)에 있으며 음력 10월 1일에 향사 한다.

● 고려 초기에 서목(徐穆)이 있었는데,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남정(南征)할 때 태조를 받들어 인도하여 한천(漢川)에 이르러 대천(大川) 큰 냇물을 잘 건너게 했다는 공으로 이천백(利川伯)의 봉작(封爵)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 서희(徐熙, 942 ~ 998년)장군은 서기 993년(고려 성종 12년) 거란의 장수 소손녕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로 쳐들어오자 홀로 적진(敵陣)에 들어가 외교적 담판(談判)을 지어 돌려보냈으며, 다음해 청천강 이북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용주, 흥화진, 통주, 철주, 구주, 광주 등에 강동 6주를 설치하여 압록강 이남의 옛 고구려 영토를 완전히 회복하는데 큰 공을 세웠으며, 묘소는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후리(상두산)에 있다.(경기도 지정 지방문화재 제36호)

(3) 달성 서씨(達城徐氏)

달성 서씨는 이천 서씨에서 분관(分貫)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내력을 명확하게 고증할 수는 없다. 이천서씨 문헌에 서희(徐熙)의 아들 4형제 중 서주행(徐周行)이 달성으로 이거(移居)하였다는 설이 있을 뿐이니 막연하기 한이 없다. 이천 서씨에서 분관된 달성 서씨는 고려때 서울에 올라와 벼슬을 하여 조봉대부로 군기소윤(軍器少尹)을 지낸 서한(徐閑)을 시조로 하는 경파(京派)와 고려조 봉익대부(奉翊大夫)·판도판서(版圖判書) 서진(徐晉)을 시조로 하며 고향에 남아 벼슬과는 인연 없었던 향파(鄉派)로 나누어 졌는데, 조선 숙종(肅宗) 28년(서기 1702)에 처음으로 족보를 함께 하여 임오보(壬午譜)를 만들었으나 두 파의 의견충돌이 심하여, 결국 영조(英祖) 대에 이르러 서기 1736년 경파(京派)만이 단독 족보를 만들어 대구 서씨(大邱徐氏)로 갈라섬으로써 양파가 완전히 족보를 달리하게 되었다.

위 두 파의 파조(派祖)는 모두 서한(徐閑)을 시조로 하고 있지만, 경파(대구 서씨)는 서한(徐閑)을 시조로 하여 그의 6대손인 서익진(徐益進)을 중시조로 하고 있는 반면, 향파(달성 서씨)는 서한(徐閑)의 3대손(증손)인 서진(徐晉)을 시조로 하여 대동보(大同譜)를 서로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世系)상으로는 향파(달성 서씨)가 큰집이 된다.

- 경파(京坡): 서울에 올라와 벼슬을 지냄→대구 서씨로 분관
- 향파(鄉坡): 고향에 남아 벼슬과는 인연없이 지냄→달성 서씨로 분관

달성(達城)은 경상북도 최남단에 위치하는 지명으로 삼한시대(三韓時代)에 달구화(達句火) 또는 달구벌(達句伐)이라 불렸고, 서기 757년(신라 경덕왕 16)에 대구현(大丘縣)으로 개칭하여 수창군(壽昌郡)에 속하였다. 조선(朝鮮) 영조조(英祖朝)에 구(丘)를 구



서침나무

달성 서씨 문중에서 토지를 국가에 헌납하자 세종께서 이를 포상하려 했지만 '서침'은 사양하고 대신 국가에서 환곡을 텡감해줄 것을 상소했다. 이에 세종은 회화나무를 심어 서침의 마음을 기리게 하였다. 달성공원 내에 있고 '서침나무' 라 부른다.



달성 서씨 유허비 | (위치: 달성공원 내)

(邱)로 고쳐 대구(大邱)라 하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시가지를 이룬 전역이 대구부(大邱府)로 독립되고, 외곽지 전부와 현풍군을 통합하여 달성군(達城郡)으로 개칭하였다.

달성 서씨의 원조 서진은 고려시대 사람으로서 그의 출생년도는 대략 1260년에서 1280년 사이(지금으로부터 약 730여년전)로 추정되며, 부인은 초계 주(周)씨였다. 벼슬은 고려 봉익대부(奉翊大夫) · 판도판서(版圖判書)등을 역임하였으며, 나라에 공을 세워 달성군(大邱)에 봉해지고 달성을 식읍으로 하사받았고, 후에 그의 아들 서기준(徐奇俊)과 손자 서영(徐頴)에 이르기까지 3대가 모두 달성군(達城君)에 봉해졌으며 후손들이 그곳에서 대대로 살게 되어 본관을 달성(達城)이라고 하게 되었다.

달성 서씨 원조인 서진을 비롯하여 2대(서기준), 3대(서 영), 4대(서균형)의 묘소는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면 문양동(봉계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사일은 한식날이다.

달성 서씨 문중에서 토지를 국가에 헌납하자 세종께서 이를 포상하려 했지만 ‘서침’(徐沈)은 사양하고 대신 국가에서 환곡을 탕감해줄 것을 상소했다. 이에 세종은 회화나무를 심어 서침의 마음을 기리게 하였다. 달성공원 내에 있고 ‘서침나무’라 부른다.

(4) 달성 서씨의 분파

후대로 내려와 현감공파(縣監公派: 濟), 학유공파(學諭公派: 渡), 판서 공파(判書公派: 涉), 감찰공파(監察公派: 近中), 진사공파(進士公派: 錫蓮), 생원공파(生員公派: 錫蓂), 진사공파(進士公派: 錫筭), 참판공파(參判公派: 宗一), 종사랑공파(從仕郎公派: 震) 등 9개파로 갈라져서 세계(世系)를 이어왔다.



현감공파 파조 서제의 묘 (제설: 瞻慕齋)

(5) 달성 서씨 현감공파(縣監公派)

달성서씨의 계보는 현감공파(縣監公派)로 달성 서씨 원조가 되는 서진의 7세손 서제에서부터 분파되므로, 서제가 달성서씨의 중시조가 되는 현감공파의 파조가 되고, 현감공파의 파명은 그때 당시 서제가 조선시대 하양(河陽)지방의 현감을 지냈으므로 그관작명을 따서 현감공파라 칭하게 되었으며, 그의 부인은 숙부인 밀양 박씨이다.

현감공파 파조인 서제를 봉향하는 제실은 ‘첨모제(瞻慕齋)’로서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에 위치하고 있다.

이후 달성 서씨 12세손에 이르러 다시 익룡파(翼龍派: 翼龍), 한룡파(翰龍派: 翰龍), 준룡파(俊龍派: 俊龍), 언룡파(彥龍派: 彥龍)로 각각 파조가 갈라 짐에 따라, 가문의 파조는 현감공 서제의 5세손이 되는 언룡공의 휘자(諱字)를 따서 『언룡공파』라 하였다. 언룡공의 부인은 나주 추(秋)씨이다.

지금의 경주시 시동(矢洞)에 자리잡고 있는 마을은 달성 서씨 원조가 되는 서진의 19세손(20代) 서학중공(徐學中), 현감공의 13세손때부터 거주하기 시작하여 터전을 잡아온 이래로 24세손(25代)인 서병기(徐丙麒), 초명 월상, 현감공(서제의 18세손)대에 이르기까지 6대에 걸친 약 200여년간 일가들이 한데 모여 지금껏 대대로 살아온 고향 터전이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타지로 이거하고 전체일가 중 10여호도 채 안되는 일가만이 고향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가문을 빛낸 대표적인 인물로는 달성서씨 원조가 되는 서진의 증손 서균형(徐鈞衡: ? ~1391, 시호 貞平)이 1360년(고려 공민왕 9) 문과에 급제하여 간관(諫官)으로 있으면서 신돈(莘聃)의 방탕한 횡포를 탄핵하는 직언을 서슴치 않았고 잣은 왜구의 침입에 대비한 군(軍)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그의 아들 서침(徐沈)은 정몽주의 문하에서 학문을 연마하여 조선이 개국한 후 조봉대부(朝奉大夫)로 전의소감(典醫少監)을 지냈다. 묘소는 대구광역시 동구 공산1동 산125 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사일은 한식날이다.

서침의 아들 3형제 중 장남 서문한(徐文翰)은 승사랑(承仕郎)으로 광홍창 부승(廣興倉副丞)을 거쳐 문과에 급제하여 현감을 지냈으며, 차남 서문간(徐文幹)은 중시(重詩)에 올라 역시 현감을 역임했고, 막내 서문덕(徐文德)은 숙부인 송화부사(松禾府使) 서습(徐習)에게 출계(出系)하여 이조정랑(吏曹正郎)과 만경현감(萬頃縣監)을 지냈다.

대사간 서충(徐衷)의 증손 서한정(徐翰廷, 徐均의 아들)은 세종 때 진사로 태학에서 학문을 연구하였고, 1455년(세조 1년)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자 이를 개탄하여 벼슬의 뜻을 버리고 가족을 데리고 영주 이산면 한성동으로 내려가 은거

하다가 소백산 밑 순흥으로 옮겨 세상과 인연을 끊고 학문 연구에 진력하며 스스로 호를 돈암(遜庵)이라 불렀다.

한편 임진왜란 때 중봉(重峯) 조현(趙憲)의 휘하로 들어가 금산(錦山)의 전투에서 칠백 의사(義士)와 함께 순절한 서응시(徐應時, 현감공파 서제의 증손)는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선조 때 학행으로 명성을 떨쳤던 서사원(徐思遠)은 청안 현감(淸安縣監)에 부임하여 학문의 진흥과 후진 양성에 진력하였다.

그 외 선조 때 무과에 급제하여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아 주사장(舟師將)으로 연전연승을 거두었던 서인충(徐仁忠)과 병자호란 때 김상현(金尙憲)과 함께 화의를 반대했던 서변(徐?)이 유명했고, 충무공 이순신의 막하에서 선봉수문장으로 임명되었던 후손 서수천(徐壽千)은 대나무로 뗏목을 만들어 노량해전에서 무공을 떨쳤다.

한말에는 서화에 탁월하여 팔능(八能)으로 일컬어졌던 서병오(徐丙五, 1862~1935)와 독립운동가로 대동청년당(大東青年黨)을 조직하여 항일투쟁에 앞장섰던 서상일(徐相日, 1887~1962)이, 영친왕 결혼식전에 참석했던 총독부 요인과 이완용 등의 살해를 기도하다 피체되었던 독립운동가 서상한(徐相漢, 서상일의 아우)과 함께 명성을 떨쳤다.

1895년 일본의 명성황후 시해사건 때 의병장 이춘영(李春永)의 휘하에 들어가 단양 등지에서 활약하다가 1896년 예천에서 회맹소(會盟所)를 조직, 유인석(柳麟錫)부대가 서진할 때 낭천(狼川)에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의병장인 서상렬(?~1896)은 1963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으며,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 서목렬(徐穆烈)의 아들 서재승(徐在承, 종사랑 震의 12세손)은 일찌기 유학에 전념하여 시와 예학에 정통했으며 효성이 뛰어나 세인들의 칭찬을 받았다.

1905년(광무9년) 통사랑(通仕郎)으로 탁지부주사(度支部州事)가 되었으나 일본의 침략 흥계에 의한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의분을 참지 못해 의병을 일으켜 항일투쟁에 앞장섰으며, 군자금 조달을 위하여 고향인 영주로 내려가 활약하다가 밀고자에 의해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도중 영풍군 풍기읍 창락동에서 일본 현병과 격투하다가 40세로 순절하였다. 그후 그의 충절을 기려 사림에서 충의(忠義)라 사시(私謚)하였고, 1980. 8.14. 대한민국 건국포장이 수여되었다.

근대에 와서는 죽림(竹林) 서재승의 장손 서병극(徐丙極)이 전국 사림의 공의(公議)에 의하여 사업비 일체를 전담하여 경북 영풍군 단산면 사천리에 백산서원(白山書院)을 건립하여 전사청(典祀廳)을 비롯한 부속건물을 세우고 경내의 조경과 진입로 공사를 완료하여 선조(先祖)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서원 재산으로는 전답, 유기 400여벌, 서적 1만여 권이 보관되어 있다.

● 현감공파 항렬자

세대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항렬자	열(烈)	규(圭)	진(鎮)	수(洙)	상(相)	교(敎)	보(輔)	덕(德)	(水)변	(木)변	(火)변
	곤(坤)	석(錫)	영(泳)	동(東)	병(丙)	정(廷)	규(圭)				
	규(奎)	현(鉉)	윤(潤)	준(春)	병(炳)						

◆ 항렬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다

- ▷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 수(水) 목(木) 화(火), 토(土), 금(金)의 변을 순서적으로 사용.
- ▷ 십간(十干)순으로 사용: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를 차례로 사용
- ▷ 십이지(十二支)순으로 사용: (子), 죵(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를 순서적으로 사용.
- ▷ 숫자순서로 사용: 일(一:丙.尤), 이(二:宗.重), 삼(三:泰), 사(四:寧) 등

(6) 달성 서씨 과거급제자(科舉及第者)

조선시대에 56명의 과거 급제자를 배출 하였다.

(문과36명, 무과7명, 사마시13명)

서성 (徐○, 1558, 戊午生): 문과(文科) 선조19년(1586) 알성시 을과(乙科)
 서문중(徐文重, 1634, 甲戌生): 문과(文科) 숙종6년(1680) 정시 갑과(甲科) 장원급제
 서문익(徐文翊, 1646, 丙戌生): 문과(文科) 숙종15년(1689) 증광시 병과(丙科)

서종섭(徐宗燮, 1680, 庚申生): 문과(文科) 숙종43년(1717) 정시 병과(丙科)
서명빈(徐命彬, 1692, 壬申生): 문과(文科) 경종3년(1723) 정시 병과(丙科)
서효수(徐孝修, 1716, 丙申生): 문과(文科) 영조20년(1744) 정시 병과(丙科)
서지수(徐志修, 1714, 甲午生): 문과(文科) 영조16년(1740) 증광시 병과(丙科)
서호수(徐浩修, 1736, 丙辰生): 문과(文科) 영조41년(1765) 식년시 갑과(甲科)장원
서구연(徐九淵, 1736, 丙辰生): 문과(文科) 중종32년(1537) 별시 을과(乙科)
서승열(徐承烈, 1773, 癸巳生): 문과(文科) 순조7년(1807) 식년시 병과(丙科)

(출처: 달성서씨 현감공파 28대손, ‘민우정범’ 블로그)

(7) 금곡동의 달성 서씨

김해 하동군(현, 대동면) 조눌(鳥訥)마을에서 19세기 중엽 조선 고종때 중농의 가계를 이어오던 달성서씨 현감공파의 18세손 서극렬이 아들 2명과 같이 거듭되는 낙동강 수해를 겪어 강 건너 공창마을에 정착하였고, 뒤이어 집안 형제들도 이곳으로 건너와서 살게 되면서 집성촌을 이루었다. 그 배경에는 중농이었던 입향조 서극렬이 당시 이웃마을 동원마을에는 한·일 교역의 요지로 수참(水站)이 있었고 공창마을에는 그 수참에서 하역 노동자와 뱃사공들이 머물었고, 동원이 있어 숙박시설로 인해 꽤 붐비었던 시절이어서 호황을 누리던 시절이었다. 그의 아들은 동원수참의 별감으로 재직하여 마을사람들은 서별감으로 불렀다고 한다.(공창마을 영천이씨 종친회장 이오용씨의 증언)

● 달성 서씨 현감공파 22세손 서영석 (徐泳奭, 1925~1963)

부산 금곡동 출신의 독립운동가로 금곡동 244번지에서 출생하였다. 조부는 서(徐)별감(別監)이며, 1938년(14세)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가 일찍부터 항일 활동을 시작하였다. 대판(大板, 오사카)에서 중학교에 다녔는데 4학년 때인 1941년 5월 이곳에서 장덕수씨가 중심이 되어 조직한 비밀결사 ‘조선독립청년당’에 입당하였다.

선생은 대판시내 및 인근 도시에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당원포섭의 임무를 맡고 활약하던 중 선생 나이 17세인 1941년 10월 일경에 탐지되어 대판부내 조선인 학생 일제 검거가 있을 때, 이 기미를 재빨리 눈치채고 동경으로 피신하였다. 이때 많은 동지들이 피검되어 투옥되었는데, 그 후 장덕수씨도 체포되어 옥고를 치

르고 있었다.

1942년 선생은 대판으로 돌아와서 검거 선풍을 피해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든 동지들을 규합하라는 옥중의 장덕수씨 지령을 받고 활동하였다. 1943년 가을, 금곡동 본가의 누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하였는데 시모노세끼에서 관부연락선을 탔을 때부터 미행하던 일본 형사와 부산의 형사에게 누님의 결혼식장에서 체포되어 대판으로 압송되었다.(달성서씨 현감공파 23세손 금곡 입향조 종손 서병호(徐柄浩)씨 증언)

오랜 예심 끝에 1944. 8. 27. 대판지방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언도 받고 대판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 조국은 일제에서 광복이 되었으나 선생은 옥중에서 안타까운 나날을 계속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1945. 9. 5. 일본에 진주한 미군 맥아더 사령부의 정치범 석방령에 의하여 출옥하였다.(부산 중부경찰 박유수 서장 임증) 출옥 후 선생은 귀국하여 교편을 잡았는데 1963. 6. 25. 39세의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대한민국 정부는 1977년 서영석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고,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특이 사항은 대동 조눌리에서 공창마을로 이주한 달성서씨 현감공파 문중은 집성촌을 이루었지만, 소농으로 문중 일원이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로 역이주하여 그곳에서도 상업으로 큰 집성촌을 이루었다. 일제강점기, 금곡동의 서영석, 상북면의 서병희, 그의 아들 서두성 등 세 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사실을 이번 조사로 밝혀내어 공창마을 달성서씨(達城徐氏) 문중에 전하며, 면면히 흐르는 민족정기의 자긍심을 발견하며 존경을 표한다.

(8) 집성촌과 인구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서씨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1.5%로 총 274개 성씨중 제14위이고, 총 55개의 본관이 있으며 달성 서씨는 2015년 407,431명 서씨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본관으로 조사되었다.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는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집성촌에서 분가하여 1세대 후에 이주하였다. 그리고 가안리는 산남의진 의병장 서인찬(徐仁贊)의사와 항일의병 활동을 한 서중표(徐仲杓)의사가 출생한 마을이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대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 ▶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이매)
-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 ▶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좌삼리
-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조산리
- ▶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동, 봉동, 작산동
-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
- ▶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평천리
- ▶ 경상북도 안동시 수하동
-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 서울특별시 송파구
- ▶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 오동리
- ▶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 ▶ 경상남도 밀양시
- ▶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예둔리
-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어은리
-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가안리
- ▶ 경상북도 상주시 사벌면 묵상리
- ▶ 충청북도 청주시 북이면 장재리
-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지경리
- ▶ 전라남도 순천

〈위의 달성서씨 전통문중과 관련한 내용은 낙동문화원 향토사연구소 김정수 위원이 조사하고 정리하였다.〉

3) 율리 분성(盆城) 배씨(裴氏) 문중

분성배씨는 경주배씨 문중의 신라개국 공신 6부 촌장의 한 분인 문양공(文讓公) 배지타(裴祇陀)를 시조로 하고 있으며, 고려 개국공신 무열공(武烈公) 배현경(裴玄慶)을 중시조로 한다. 그 뒤 분파되었는데 분성배씨는 고려중엽 병부상서(兵部尙書)를 역임하고 분성군에 봉(封)해졌던 배원룡(裴元龍)으로부터 문중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금곡 율리마을 배씨문중은 19세기 초에 정착한 배윤근(裴潤根)을 입향조로하여 8대째 이어오고 있다.

문중 출신으로는 구포, 사상에서 극장을 운영하고 부산시의회 3선 부의장을 역임한 배학철(裴鶴喆)과 부산시의회 2선 의원 배문철(裴文喆)이 있다.

3. 금곡동의 출신인물

1) 전통시대 인물

(1) 효자 천승호(千乘昊, 1817~1866)와 열녀 이씨

효자 천승호와 열녀 이씨의 효행은 1872년 나라에서 교지를 내려 금곡동에 정려각을 세운 이야기로서 양산군 유림들이 군수에게 올린 추천서에 잘 나타나 있다.

천승호는 처음 경상남도 양산군 대하면 덕두리(현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에 살았다. 본관은 영양(頴陽)이다. 석대리(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에 영양 천씨(頴陽千氏)가 대대로 모여 살아 석대 천씨(石大千氏)라고도 한다. 임진왜란의 공신(功臣) 화산군(花山君) 사암(思庵) 천만리(千萬里), 명나라 원군의 장수로 와서 귀화함(归化)의 9세손이고,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 천상(千祥)의 8세손이다. 그의 선조인 천만리는 본관이 중국 영양(頴陽) 자는 원지(遠之), 호는 사암(思庵)으로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장수로서 조선에 지원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조선으로 귀화한 인물이다. 시조 천암(千巖, 1350~?)이 서촉(西蜀) 종북산(終北山) 천고봉(千古峰) 만인암(萬仞巖) 밑에 살았다 하여 성을 천씨로 하였다고 한다.

효자 천승호는 선비 집안의 전통을 이어받아 일찍이 효를 행하였다. 김해군 녹산면에 살때 선비 집안의 전통을 이어받아 시례(詩禮)의 풍(風)과 글을 배우지 않고도 효를 알았다. 26세때에 어머니가 풍담(風痰)으로 앓아눕자 극진히 간호하였다. 의원이 능구렁이가 그 병의 약이 될 것이라 하였는데, 겨울이라 능구렁이를 구할 방도가 없었다. 천승호가 하늘에 간절히 바라니 눈 쌓인 산에서 능구렁이가 나타나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었다. 그 후 그의 어머니가 또 학질에 걸리게 되는데, 천승호는 좋은 음식으로 어머니의 병을 구완하기 위해 송아지를 팔아 돈을 구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적을 만난다. 효자가 어머니를 봉양할 돈이라고 울며 말하자 도적들은 천승호를 알아보고 사죄하며 그냥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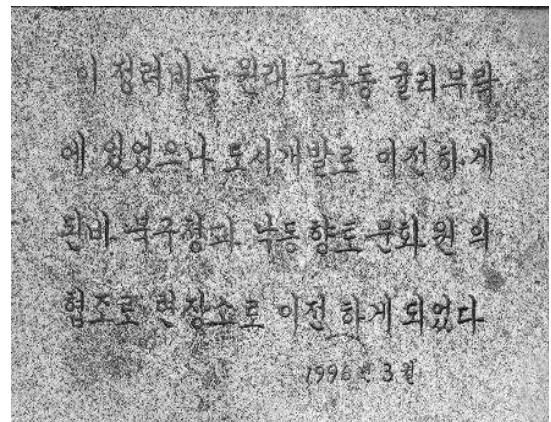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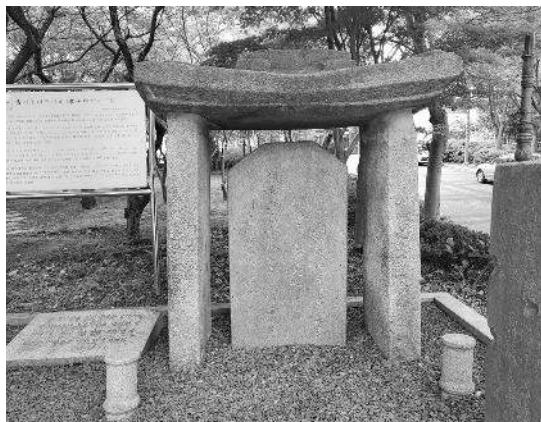
천승호의 아내는 열녀로 후손들에게 전해진다. 그의 아내는 경주 이씨로 본래 전통이 있는 가문의 딸이었다.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데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할 정도로 정성을 다하였다. 1867년(정인년) 4월에 남편 천승호가 위독하게 되자 자신이 대신 죽기를 하늘에 빌었다. 남편이 죽자 사람들 몰래 곡기를 끊은 채 시어머니를 위로하고 상을 치렀다. 7일째 되는 날 아이들을 불러 놓고 남편을 따라 죽을 뜻을 밝히고 장성한

자식들과 다른 며느리들에게 시어머니를 잘 모실 것과 어린 자식들을 잘 돌볼 것을 당부하고 숨을 거두었다. 천승호의 묘는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에 아내의 묘와 함께 있다고 전해진다.

● 상훈과 추모

1867년(고종 4) 양산군의 유림이 천승호와 아내 이씨의 행적을 상소하여, 1872년(고종 9년) 예조에서 천승호에게는 통훈대부 사헌부 감찰(通勳大夫司憲府監察)을, 아내 경주 이씨에게는 숙인(淑人)을 증직(贈職)하였다. 또한 인근에 널리 알리고 후세의 본보기로 삼고자 부부의 효열행을 책으로 만들고 효열각(孝烈閣)을 세우도록 하였다.

천승호와 경주 이씨 정려비는 현재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금곡청소년수련관 정원에 있다.



천승호와 경주 이씨 정려비

2) 근대 인물

(1) 권용학(權龍鶴, 1898. 2. 2. ~ ?)

- 이명(異名): 없음
- 본적: 경상남도 동래군 구포면 금곡리
- 훈격: 대통령 표창(2017년)

- 활동 계열: 3.1 운동

- 공적 개요: 1919년 3월 중순 경성 의학전문학교에 다니는 양봉근(梁奉根)이 구포로 내려와 구포면 서기 임봉래(林鳳來)에게 서울과 평양의 3.1 만세운동 소식을 상세히 전하고 ‘독립선언서’를 보여주면서 구포에서도 만세 시위를 전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3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임봉래 · 윤경(尹涇) · 유기호(柳基護)를 중심으로 3월 29일 구포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 시위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월 29일 정오 권용학은 박덕홍(朴德弘) · 손진태(孫晉泰) 등과 함께 구포시장에서 장꾼 1,000여 명과 ‘독립 만세’를 외치며 연호했다.

권용학은 3월 39일 구포시장의 만세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미결구류(未決拘留) 149일 만인 8월 26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2) 서영석(徐泳奭, 1925. 11. 24. ~ 1963. 6. 25.)

- 이명: 없음

- 본적: 경상남도 부산 부산진 금곡동 244

- 훈격: 애족장(1990년)

- 운동계열: 항일 운동

- 공적 개요: 1941년 5월 일본 대판(大阪)에서 ‘조선독립청년단(朝鮮獨立青年團)’에 가입, 1943년 정덕수(丁德秀)의 지령을 받고 항일활동 중 일경에 피납, 1944. 8. 27. 대판지방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죄로 징역 3년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1941년 일본 대판(大阪)에서 유학생인 정덕수(丁德秀) 등 동지들과 함께 조직한 ‘조선독립청년당’에 가입하여 민족 독립운동에 신명을 바치기로 맹세하였다고 한다. 이후 조직 확대를 위하여 전념하는 한편 1942. 3. 1을 기하여 조선 독립선언 항일 학생 봉기를 추진하던 중 일경에 탐지되어 동지들이 붙잡혔다. 그는 일단 피신하였으나 1943년 관부연락선에서 일경에게 붙잡혀 1944. 8. 27. 대판지방재판소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독립유공자 공훈록

유공자정보

관리번호	287	한자	徐泳奭
성명	서영석	성별	남
이명	없음	시망년월일	1963-06-25
생년월일	1925-11-24	시망년월일	1963-06-25
본적	경상남도 부산 鎏山鎮 金谷洞 244		



포상정보

운동계열	일반방면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공훈록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6권(1988년 발간)					

부산 부산진(釜山鎮) 사람이다.

1941년 일본 대판(大阪)에서 유학생인 정덕수(丁德秀) 등 동지들과 함께 조직한 「조선독립청년당」에 가입하여 민족 독립운동에 신명을 바치기로 행세하였다고 한다. 이후 조직 확대를 위하여 전년하는 한편 1942년 3월 1일을 기하여 조선독립선언 항일학생 봉기를 추진하던 중 이러한 사실이 일경에 탐지되어 동지들이 붙잡혔다. 그는 일단 피신하였으나 1943년 관부연락선에서 일경에 붙잡혔으며 1944년 8월 27일 대판지방재판소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신원증명서

『독립유공자 공훈록』 서영석 관련 기록

(3) 양태용(梁太鎔, 1893. 2. 24. ~ 1937. 11. 15.)

● 이명: 梁泰鎔, 梁大溶

● 본적: 경상남도 동래군 구포면 금곡리 654

● 훈격: 대통령 표창(1997년)

● 운동계열: 3·1 운동

● 공적개요: 1919. 3. 30. 부산 동래군 구포시장에서 임봉래(林奉來), 윤정은(尹正殷) 등과 같이 시장에 모인 군중들을 지휘하며 대한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다 체포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5개월간 옥고를 치른 사실이 확인되었다.

1919. 3. 29. 경남 동래군 구포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 만세운동에 참가했다. 이곳의 독립 만세운동은 경성의학전문학교(京城醫學專門學校) 학생인 양봉근(楊奉根)이 고향으로 내려와 구포면서기 임봉래를 만나 서울과 평양의 독립 만세운동 소식을 전하면서 시작되었다.

3월 27~28일 박영초(朴永初)·이수련(李守蓮) 등의 집에서 회의를 거듭한 끝에, 구

포장날인 3월 29일 독립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독립선언서와 소형 태극기 수백 매를 제작하였고, 대형 태극기와 ‘대한독립 만세’라고 쓴 플래카드를 만들었다.

3월 29일 정오, 그들은 구포장터에서 1,000여 명의 시위군중에게 미리 제작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때 양태용은 솔선하여 선두에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시위를 주도해 갔다. 계속하여 오후 3시쯤, 양태용을 비롯한 시위군중 1,200여 명은 더욱 기세를 높이며, 주재소로 돌진하였다. 그들은 주먹과 봉등이로 주재소 유리창을 파괴하고 투석으로 대항하였다. 이렇듯 시위군중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변하자, 일경들은 총탄을 쏘며 이들을 해산시켰다.

양태용은 이 일로 8월 2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정부에서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7년에 대통령 표창을 추서했다.

부산형무소 소장 수형인 양태용 명적표

(4) 안화중(安華重, 1882. 7. 27. ~ 1921. 5. 6)

- 이명(異名): 없음
- 본적: 경상남도 동래 구포면 금곡리
- 훈격: 대통령 표창(2014년)
- 활동 계열: 3.1 운동
- 공적 개요: 1919년 3월 경남 동래군 구포면 구포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옥고를 치렀다. 구포면 서기 임봉래(林鳳來)는 경성의학전문학교 재학생 양봉근(梁奉根)으로부터 각지의 독립만세 소식을 듣고, 윤경(尹涇) · 유기호(柳基護) · 박영초(朴永初) · 이수연(李守連) 등과 논의하여 구포장날에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하였다. 이들은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만들고, 만세계획을 여러 곳에 알렸다.

이 소식을 들은 면사무소 소사인 안화중도 3월 29일 정오 무렵 구포시장에 모인 1,0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고, 시장 상인들에게는 가게문을 닫고 만세 시위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19년 7월 1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5) 정치호(鄭致浩)

정치호는 구포장터 3.1 만세운동에 가담하여 옥고를 치렀다. 1919년 부산지방법원에 기소되었는데, 당시 거주지는 경상남도 동래군 구포면 금곡리이며, 직업은 농업이고, 당시 나이는 28세였다. 1919년 8월 26일 재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아 부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루었다. 고인의 공훈에 대해 아직 정부의 공훈자로서 추서되지 못하였다.

(6) 김기호(金淇鎬)

- 주소: 경상남도 부산부 좌이면 화정동(花亭洞) 6통 1호
- 출생: 갑술년(1874년) 정월 18일생
- 가문: 김해(본관), 증집의호모암극일(贈執義號慕菴克一) 16세손,

이정증이판시문민호탁영일손(吏正贈吏判諡文愍號濯纓馴孫),

14세손, 통례선경(通禮善慶) 10세손

- 학업 및 종교: 한문수학(漢文受學), 유교(儒教)
- 관직: 참봉(參奉), 정3품 통정(通政)
- 이력: 좌이면 민의소총무원(民議所總務員), 좌이면 화명학교 교감
『조선신사대동보(朝鮮紳士大同譜)』, p294)

(7) 김정회(金鼎檜)

- 주소: 경상남도 부산부 좌이면 화정동 6통 6호
- 출생: 무오년(1858년) 2월 28일생
- 가문: 경주(본관), 현감증호참덕민(縣監贈戶參德民) 9세손,
진사군필(進士君弼) 7세손.
- 학업 및 종교: 한문수학(漢文受學), 불교(佛教)
- 관직: 사헌부 감찰(司憲府 監察), 돈령부 도정(敦寧府 都正)
- 이력: 부산진농진회원(釜山鎮農進會員), 동래지방금융조합원(東萊地方金融組合員), 주식회사구포은행주주(株式會社龜浦銀行株主), 동양척식주식회사주주(東洋拓殖株式會社株主), 주식회사경남일보 사주주(株式會社慶南日報社株主)
『조선신사대동보(朝鮮紳士大同譜)』, p349)

(8) 김인태(金寅泰)

- 주소: 경상남도 부산부 좌이면 화정동 1통 2호
- 출생: 경오년(1870) 3월 2일생
- 가문: 경주(본관), 현감증호참덕민(縣監贈戶參德民) 9세손,
진사군필(進士君弼) 7세손, 통정정원자(通政鼎原子)
- 학업 및 종교: 한문수학(漢文受學), 유교(儒教)
- 관직: 순릉 참봉(順陵參奉).
- 이력: 칠곡왜관낙관학교(漆谷倭館洛館學校) 교감, 칠곡지방금융조합원(漆谷

地方金融組合員), 부산농업은행주주(釜山農業銀行株主), 동양생명보험회사원(東洋生命保險會社員)
『조선신사대동보(朝鮮紳士大同譜)』, p350)

3) 현대 인물

(1)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① 구청장

○ 권 익(1937년생~) : 부산광역시 북구(초대 구청장, 1대 기초의원)



부산 북구 금곡동 출신이다. 1995년 7월 1일 민선시대가 출범되어 초대로 취임한 권익 구청장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북구건설을 위해 시책을 이루어 왔다. 열린 구정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처리하였다.

② 시의원

○ 조만두(1대, 1991.7. ~ 1995.6.)



부산광역시 북구1지역 시의원으로 활동하였다.

○ 배학철(1937년생)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2~4대, 1995.7~2006.6)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면서 북구의 숙원사업과 북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



히 문화시설이 낙후되어있는 곳에 최신시설을 갖춘 체육관과 강당, 청소년 회관 등이 건립되도록 하였으며, 금곡 지역에 불균형 발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교통문제에서부터 환경 오염실태가 심각한 낙동강 원수의 수질개선, 환경정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대처로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으며,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학교 시설을 확대하고, 쾌적한 지역으로 이전 건립하였다. 그리고 우리 북구에 관광자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민속어촌박물관을 3백 50억원을 투입하여 영화촬영 세트장으로 만들도록 하였다. 정치인이며 봉사자이다.

○ 배문철(1947년생~): 부산광역시의원(5~ 6대, 2006.7~2014.6)



부산광역시 민선 제5~6대(금곡동·화명2동) 시의원을 역임하였으며, 정치인, 봉사자로서 금곡동 발전에 앞장서서 활동하였다. 낙후된 지역 환경을 개선,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전) 금곡동향토회 회장을 역임 하였으며, 회장 재임시 향토회원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고 있다.

○ 이종진(1969년생~): 부산광역시의원(7대, 2014.7~2018.6)



금곡동, 화명2지역 부산광역시 민선 7대의원을 역임. 지역 발전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노력하였으며, 저출산과 안정적 인구대책도 중요하지만, 부산에서 태어난 어린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워내려는 노력은 더욱 더 중요하다며 복지환경위원으로써의 활동을 하였다.

○ 이동호 : 현)부산광역시의회 부의장(8대, 2018.7.~, 7대 기초의원)



금곡동·화명2동 부산광역시 민선 8대 시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북구의 낙후된 현안문제와 소방서 신설 문제에 대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북구 금곡동에 부산시의 저소득층,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위한 영구임대 아파트

가 집중되어 있다보니, 복지비와 행정서비스 비용 과다지출로 지역발전에 큰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시의원으로써 노력을 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사회활동가이자 정치인으로서 활약하고 있다.

③ 구의원

○권 익: 부산광역시 북구 기초의원(1대, 1991. 7. ~ 1995. 6.)

○강동우: 부산광역시 북구 기초의원(2대~3대, 1995.7~ 2002.6.)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등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2대~3대 기초의원으로 의회 활동하였다.

○손봉동: 부산광역시 북구 기초의원(2대, 1995. 7. ~ 1998.6.)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등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2대 기초의원으로 의회 활동하였다.

○박성복: 부산광역시 북구 기초의원(3~4대, 2002.7. ~ 2010.6.)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기초의원으로 의회 활동하였다.

○안상천: 부산광역시 북구 기초의원(5~6대, 2006.7. ~ 2014.6.)

부의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주민도시위원회 위원 등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 화명2동 기초의원으로 의회 활동하였다.

○김명석(1963년생~): 현)부산광역시북구의회 의장(7대 기초의원)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 화명2동 기초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안전한 북구, 복지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항상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앞장서며 원활한 의정 운영



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자연생태환경과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알리고 북구의 자존감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 8대 의장으로써 여야의 진정한 소통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의각하여 북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화합을 이해 노력하고 있다.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받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정봉사상’도 수여받았다.
현재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민들과의 소통과 토론하는 북구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 윤인자: 부산광역시 북구 기초의원(7대, 2014.7. ~ 2018.6.)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부의장, 주민도시위원회 위원 등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화명2동 기초의원으로 의회 활동하였다.

○ 이동호: 부산광역시 북구 기초의원(7대, 2014.7. ~ 2018.6.)

○ 김성택: 현)부산광역시 북구 기초의원(8대, 2018.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화명2동 기초의원으로 현재 의회 활동하고 있다

(2) 사회활동가

○ 이장술

▷사)금곡복지회 이사장: 2012년부터 10회 158명에게 160,500,000원 장학금 지급



▷ 금곡동 청년회 명예회장

▷ (주)경동화학 회장

금곡동은 타 동에 비해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 동네이다. 저 소득층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 이웃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거주하였다. 따라서 복지관도 6개나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다. 이장술 이사장은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졌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이들의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11년 『금곡복지회』를 창립하였다. 2011년 자본금 5천만원으로 시작하여 2012년 15명의 학생에게 총 1천만원의 장학금 지급을 시작으로 매년 금곡동 거주 20여명의 학생에게 1천5백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 (사)금곡복지회(장학회)에서는 장학증서(대학생 18명)를 작년과 같이 학생들과 후원자분들만 참석하는 가운데 조촐한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그는 항상 복지회 회원 및 후원자님, 지역주민들과 함께 금곡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금곡복지회가 더욱 발전적으로 향상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박성흠



▷ 금곡동 자치위원장(2010~2020)

▷ 삼진여객 공동대표이사

2010~2020년까지 10년간 금곡동 자치위원장으로 맡아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였다. 지역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개선에 노력하였다. 또한 금곡동에 본사를 두고 부산광역시의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을 맡고 있는 업체인 삼진여객의 공동대표이사이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금곡동과 화명동을 지나는 노선을 주로 운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에 있는 무지개주유소 건물이 본점 주소이며, 그 옆의 금곡차고지가 주사무소이고, 북구 화명동의 구 태화교통 본사가 있던 곳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 59번, 126번은 구 태화교통에서 운행했던 노선이다. 한때 계열사로 북구의 마을버스 회사인 삼진교통을 두고 있었으나, 2000년대 후반 본 회사가 흡수, 합병하였다. 지역 사회활동가, 사업가로 활동중이다.

○ 이수재: 공창마을행복센터장



공창마을 행복센터는 금곡동 공창마을이 2012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13년에 준공되었으며, 그때부터 현재까지 센터장직을 맡고 있다.

낙후된 주거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공간재생, 사회문화재생, 경제재생을 할 수 있도록 센터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산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등 각종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낙후된 금곡동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 내 독거 어르신, 장애우 등이 많아 사회취약계층을 돋고자 동원복지관 운영위원장을 맡아 사회 활동가로서 활동중이다.

또한, 낙동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으로 지역사의 역사 보존과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시민이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인 2015년 제36회 ‘자랑스런 시민상’을 수상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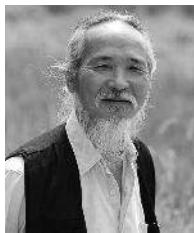
○ 이정숙(1958년생~)



- ▷ 통장협의회 회장
- ▷ 금곡동 자원봉사캠프장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금곡동 새마을부녀회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독거 어르신과 저소득층 가족 보살핌 활동으로 사회활동가로서 활동 중이다. 위기 가족발굴과 독거 어르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멘토링 활동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2021년 북구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수상하였다.

○김인환(蘇斗, 1941년생~)



▷ 서양화가

1941년 부산에서 출생하였으며, 호는 소두이다. 홍익대학
교 서양화학과, 파리 아카데미 그랑슈메르에서 수학하였다.
1965년 <논꼴>, <습지전>, 1967년 <청년작가연립전>, 1969

년 <혁동인> 등에 참여하면서 부산을 중심으로 실험미술운동에 투신했다. 그는 작품 초기시절부터 단청과 한국적 색채를 통해, 서구미술의 형식을 차용했던 현대미술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미술의 자생적 발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수묵화의 세계와 진경산수화의 정신에 착안하여 전통회화의 준법을 중심으로 삼분법 논리에 의한 작품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2001년 국립현대미술관 “한국현대미술의 전개- 전환과 역동의 시대” 전시 도록에 소개된 내용 중 일부)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백색시대에 대해 김인환 화백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고 말하며, 백색을 주로 해서 자연물의 무의지적 흔적을 탐구한 ‘원생지대’, 산의 흔적을 담아낸 ‘공백처’ 시기를 거쳐 1980년대 말 김인환 화백의 삼분법 시대가 출발한다. 삼분법은 우리 전통회화에서 착안하여 화면을 세 번 이상 다시 각화한 화면 분할법이다. 삼분법 원리를 이용해 우리의 산과 강을 화면에 담아오고 있다.

낙동강을 가장 부산다운 자연환경이라 여긴 김인환 화백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부산 북구에 살고 있고, 금곡동 ‘공간소두’ 갤러리에서 작품 활동 중이다. 지금까지 55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수백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2020년 12월에는 화업을 시작한 지 60년을 맞는 기념전시를 ‘공간소두’에서 개최했다.

4. 금곡동의 역대 동장과 시·구 의원

1) 역대 동장

〈표2-2〉 금곡동 역대 동장 현황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제1대	김 동 만	1963.1. ~ 1968.5.	
제2대	김 봉 학	1968.5. ~ 1974.4.	
제3대	노 재 호	1974.5. ~ 1976.6.	
제4대	박 교 원	1976.6. ~ 1979.8.	
제5대	박 상 태	1979.8. ~ 1980.7.	
제6대	김 두 천	1980.7. ~ 1981.7.	
제7대	황 대 지	1982.5. ~ 1983.2.	
제8대	김 명 겸	1983.3.~ 1985.10.	
제9대	박 종 기	1985.10. ~1987.7.	
제10대	김 평 조	1987.7. ~ 1991.7.	
제11대	박 경 수	1991.7. ~ 1993.7.	
제12대	소 광 부	1993.7. ~ 1997.1.	
제13대	박 갑 술	1997.1. ~ 2000.1.	
제14대	강 영 두	2000.1. ~ 2003.2.	
제15대	고 주 혼	2003.2. ~ 2005.7.	
제16대	한 중 희	2005.7. ~ 2006.1.	
제17대	윤 여 성	2006.1. ~ 2009.1.	
제18대	안 남 균	2009.10 ~ 2010.7.	
제19대	김 진 흥	2010.7. ~ 2011.6.	
제20대	김 용 언	2011.6.~ 2012.12.	
제21대	최 우 진	2012.1. ~ 2014.6.	
제22대	이 제 희	2014.7. ~ 2016.6.	
제23대	김 미 수	2016.7. ~ 2016.12.	
제24대	김 성 수	2017.1. ~ 2017.12.	
제25대	유 재 복	2018.1. ~ 2018.7.	
제26대	최 병 환	2018.7. ~ 2019.12.	
제27대	정 달 성	2020.1. ~ 현재	

자료: 금곡동행정복지센터 내부자료

2) 역대 시의원

〈표2-3〉 금곡동 역대 시의원 현황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제1대	조 만 두	1991.7. ~ 1995.6.	북구1
제2대	배 학 철	1995.7. ~ 1998.6.	북구2
제3대	배 학 철	1998.7. ~ 2002.6.	북구1
제4대	배 학 철	2002.7. ~ 2006.6.	북구1(구포1~3동 · 금곡동 · 화명동)
제5대	배 문 철	2006.7. ~ 2010.6.	북구3(금곡동 · 화명2동)
제6대	배 문 철	2010.7. ~ 2014.6.	북구3(금곡동 · 화명2동)
제7대	이 종 진	2014.7. ~ 2018.6.	북구3(금곡동 · 화명2동)
제8대	이 동 호	2018.7. ~ 2022.6.	북구3(금곡동 · 화명2동)

자료: 부산광역시 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재편집

3) 역대 구의원

〈표2-4〉 금곡동 역대 구의원 현황

구 분	성 명	재 임 기 간	비 고
제1대	권익	1991. 7. ~ 1995. 6.	금곡동
제2대	강동우, 손봉동	1995. 7. ~ 1998. 6.	금곡동
제3대	강동우	1998. 7. ~ 2002. 6.	금곡동
제4대	박성복	2002. 7. ~ 2006. 6.	금곡동
제5대	박성복, 안상천	2006. 7. ~ 2010. 6.	금곡동 · 화명2동
제6대	김명석, 안상천	2010. 7. ~ 2014. 6.	금곡동 · 화명2동
제7대	윤인자, 이동호	2014. 7. ~ 2018. 6.	금곡동 · 화명2동
제8대	김명석, 김성택	2018. 7. ~ 2022. 6.	금곡동 · 화명2동

자료: 북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sbukgu.go.kr>)

제2절 금곡동의 행정

1. 금곡동의 지역특성

낙동강과 금정산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북구의 최북단에 있는 부산 서북부 교통의 관문이다. 도심 속 취약계층 밀집 지역(영구임대아파트 4,496가구)으로, 일반 아파트도 22개 단지에 17,632세대가 분포하고 있으며, 2020.12.31. 현재 18,168세대 38,997명이 거주하고 있어 북구 전체 인구(283,952명)의 13.7%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조직은 38개통 219개반으로 북구에서 가장 많은 통, 반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공무원은 25명이 근무함으로써 1인당 주민수 1,560명을 담당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금곡동행정복지센터, 금곡도서관 등 구 단위 시설과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등의 부산광역시 소관 시설을 비롯하여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부산광역시 소방학교, 부산지식산업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등이 있다.

특히, 지역 규모의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현장지휘권을 강화하고 소방수요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북부소방서’가 건립 중에 있다. 그리고 전 부산지방조달청 비축기지 장소에는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식·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육성과 북부산 지역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고 우수한 인재 구축과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양질의 첨단 산업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시설은 공창종합사회복지관 등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와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도 2개소가 있다. 이밖에 보육시설 26개소와 아동시설 3개소와 ‘북구희망터 지역자활센터’,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금곡동 자원봉사캠프’, ‘공창마을행복센터’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있어 지역주민들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 있다.

교육시설로는 유치원 7개소,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분포되어 있어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휴게 공간인 균린공원·어린이공원이 14개소가 있다.

1) 인구

〈표2-5〉 금곡동의 인구 추이

구 분	북구 전체		금곡동		점유 비율(%)	
	세대	인구(명)	세대	인구(명)	세 대	인 구
1995년	80,744	293,568	10,548	36,749	13.1	12.5
2000년	93,697	307,594	13,184	42,470	14.1	13.8
2005년	110,915	336,483	16,419	47,511	14.8	14.1
2010년	112,634	313,553	16,840	44,232	15.0	14.1
2015년	118,865	310,484	18,315	44,312	15.4	14.3
2020년	120,668	283,952	18,168	38,997	15.1	13.7

자료: 북구통계연보, 주민등록인구통계(www.bsbukgu.go.kr)

위의 표에서와 같이 금곡동의 인구는 2005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드는 현상이며 세대수는 25년 전인 1995년(10,548세대)에 비하여 72.2%인 7,620세대가 증가하여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2-6〉 금곡동의 연도별 인구분포

구 분	인구수(명)	18세 이상		65세 이상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2020년 12월 말	38,997	34,449	88.34	48,413	21.57
2019년 12월 말	40,215	34,783	86.49	7,891	19.62
2018년 12월 말	41,544	35,505	85.46	7,472	17.99
2017년 12월 말	42,383	35,923	84.76	7,089	16.73
2016년 12월 말	43,637	36,614	83.91	6,690	15.33
2015년 12월 말	44,312	36,922	83.32	6,352	14.33

자료: 북구청 홈페이지(www.bsbukgu.go.kr)

위 표에서 보듯이 금곡동의 인구분포는 18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가 5년 전인 2015년의 83.32%에서 2020년에는 88.34%로 증가하였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도 2015년에 14.33%로 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에 진입하여 2020년에는 21.57%로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로 진입하였다.

〈표2-7〉 국적별 외국인 등록현황(금곡동)

(단위: 명)

계	베트남	중국	일본	필리핀	미국	대만	영국	캐나다	한국계 중국인	기타
150	55	17	12	10	5	2	1	1	30	17

자료: 제40회 북구통계연보(2020년)

위의 표에서와 같이 금곡동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 수에서는 베트남인이 5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한국계 중국인 30명, 중국인 17명, 일본인 12명, 필리핀인 10명, 미국인 5명, 대만인 2명, 영국 · 캐나다인 각 1명, 기타 17명 등 150명이 거주하고 있다.

2) 행정구역

〈표2-8〉 금곡동의 행정구역 현황

동 별	면 적		행정구역	
	면적(km ²)	구성비(%)	통	반
계	39.37	100	300	1,545
금곡동	8.12	20.6	38	219
구포1동	1.15	2.9	24	108
구포2동	2.91	7.4	34	170
구포3동	1.47	3.7	30	136
화명1동	4.73	12.0	27	140
화명2동	5.03	12.8	15	83
화명3동	2.48	6.3	16	94
덕천1동	1.44	3.7	20	95
덕천2동	2.32	5.9	19	100
덕천3동	0.95	2.4	17	85
만덕1동	4.76	12.1	17	85
만덕2동	2.25	5.7	28	142
만덕3동	1.76	4.5	15	88

자료: 제40회 북구통계연보(2020년)

금곡동은 북구 전체 면적 39.37km²의 20.6%인 8.12km²로 북구에서 가장 넓은 면적이고 통·반 조직도 38개통 219개 반으로 가장 많다.

3) 토지 지목별

〈표2-9〉 금곡동 토지지목별 현황

(단위: m²)

계	대지	전	답	임야
8,122,869.8	993,055.6	19,157.0	92,476.0	5,008,757.0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2,000.1	88,953.6	5,296.2	10,436.0	121.0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도랑)
311,078.0	123,695.1	1,219,609.0	12,590.0	63,645.1
유지(저수지,웅덩이)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종교용지
291.0	28,804.9	80,243.6	7,423.3	18,563.4
묘지	잡종지			
7,648.0	29,025.9			

자료: 제40회 북구통계연보(2020년)

4) 산업별·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표2-10〉 금곡동의 산업별·사업체수 및 종사자 현황(2019년 현재)

계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1,341	5,957	60	320	1	2	35	208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259	756	334	702	173	481	7	99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임대서비스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6	35	59	168	19	170	24	39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리 서비스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4	134	88	1,014	79	1,107	44	11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149	253						

자료: 제40회 북구통계연보(2020년)

2. 금곡동의 공공기관과 단체

1) 공공기관

금곡동에는 다른 동에 비해 많은 공공기관이 있다. 금곡동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하여 2016년 9월에 개관한 금곡도서관 등 구(區)단위 공공시설은 물론이고, 부산광역시 소관 공공시설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과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부산지식산업센터 등 출연기관과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부산광역시 소방학교, 부산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복부소방서’가 2022년 준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현장지휘권 강화와 소방수요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가 기대된다.

〈표2-11〉 금곡동의 공공기관 현황(2021.1.1. 현재)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① 금곡동행정복지센터	금곡대로 466	309-6261	
② 금곡도서관	효열로 203번길	309-6181~4	
③ 금곡동우체국	금곡대로 464	362-0014	
④ 금곡본동우체국	효열로 203번길 30	362-2055	
⑤ 금곡119안전센터	금곡대로 616번길 151	361-4119	
⑥ 금곡피출소	금곡대로 462	361-6112	
⑦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효열로 256	366-7511	
⑧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효열로 256	330-3400	
⑨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효열로 256	334-2947	
⑩ 부산광역시 소방학교	효열로 256	760-3000	
⑪ 부산지식산업센터	효열로 111번길	717-3658	
⑫ 부산지방조달청	금곡대로 596-17	1588-0800	
⑬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금곡대로 441번길 26	330-1910	

① 금곡동행정복지센터

▷ 연혁

- 1995. 4. 8.: 현 동사(洞舍)로 이전
- 2000.10.17.: ‘금곡동 주민자치센터’ 개소
- 2007. 9. 7.: ‘금곡동 주민센터’로 명칭 변경
- 2016.12.26.: ‘금곡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 2017. 9. 27.: ‘금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생활문화센터’ 개소

▷ 시설 규모: 부지 면적 901.4 m², 연면적 1,070.26 m²(지하1층, 지상3층)

- 지하1층(106.4 m²): 문서고, 창고 등
- 1층(420.33 m²): 동장실, 민원실, 마을건강센터, 마을지기사무소
- 2층(420.33 m²): 다목적홀, 프로그램실, 북카페, 음악공작소
- 3층(123.2 m²): 예비군 동대

▷ 직원 현황(2021.7.1.현재)

〈표2-12〉 금곡동행정복지센터 정·현원 현황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명)	30	1(행,행사)	3(행1,사1,행사1)	10(행2,사1)	12(행3,사1)	4(행3,사1)
현원(명)	25	1(행)	3(행1, 사2)	11(행3,사1)	5(사1)	5(행4,사1)

주) 행: 행정직, 사: 사회복지직, 행사: 행정직 혹은 사회복지직

〈자료제공: 금곡동행정복지센터〉



금곡동행정복지센터



금곡동우체국



금곡본동우체국



금곡119안전센터



금곡파출소

⑦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 설립 목적: 공무원 훈련 기관으로,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은 물론 다양화와 고급화되고 있는 시민들의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과정 운영 등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시설현황

- 부지 면적: 132,766 m²
- 건축물: 3개동 연면적 16,723.46 m²
- 주차장: 367대(일반인 351대, 장애인 16대)
- 승강기: 4대(24인승 3대, 17인승 1대)

▷ 연혁

- 1974.11.1.: 개원(직제승인 1과 1부)
- 2009. 2.4.: 이전(광안동 · 금곡동), 명칭변경(공무원교육원 · 인재개발원)
- 2019.1. 9.: 직제개편(3과 7팀 · 3과 8팀)

▷ 비전과 목표

- 비전: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 핵심전략: 내게 힘이 되는 경제도시, 초광역 경제도시, 산학협력 혁신도시, AI기반 스마트 도시, 저탄소 그린도시, 문화관광 매력도시

〈 자료출처: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www.busan.go.kr/hrd/)〉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⑧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설립 목적: 정책 연구 기관으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에 의거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한 여성·가족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관련 주체들과 여성·가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발과 체계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연혁

- 2002.4.30.: 법인 설립허가
- 2022.9.25.: 재단법인 부산공역시여성센터 개원
- 2008.3.31.: 금곡동 청사로 이전
- 2008. 5. 1.: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출범

▷ 비전과 목표

- 비전: 여성·가족 행복을 위한 양성평등 플랫폼
- 경영목표: 시민생활 맞춤 여성·가족 정책연구, 여성·가족 정책의 실천과 확산, 지속가능한 경영 혁신
- 추진전략: 성평등 연구, 성평등정책 지원, 고객 만족 경영, 포용적 돌봄연구, 성평등문화 확산, 사회적 책임 경영, 미래세대 행복 연구, 젠더거버넌스 구축, 경영 효율화

〈자료출처: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홈페이지(www.bwf.re.kr/)〉

⑨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 설립 목적

-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교통질서의식 함양 및 친절봉사자세 확립
- 시민들의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 함양으로 선진교통문화 향상

▷ 연혁

- 1982. 7.: 연수원 설립 지침(교통부)
- 1984. 9.: ‘부산광역시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 적립조례’ 제정
- 2000.12.: 교통연수원 건립 공사 착공
- 2001.11.: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2002. 4. 2.: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에 ‘부산광역시 교통문화 연수원’으로 개원

〈자료출처: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www.bstci.or.kr/)〉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⑨ 부산광역시 소방학교

- ▷ 설립 목적: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거 지역 내 소방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 ▷ 변천: 2006.7.13. ‘부산광역시 소방학교’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에서 업무를 개시하였고, 같은 해 9월 11일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2009.2.20.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의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내로 이전하였다. 2010.9.12. 국제 수상구조 훈련센터, 2011.6.20. 소방 전술관, 2012.10.19. 본관을 각각 준공하고 입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⑩ 부산지식산업센터

- ▷ 부산광역시가 지원하고 ‘(재)부산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도시형 멀티컴 플렉스 산업단지이다. 지역 및 우수 역외기업 집적 시너지를 창출하여 스마트신사업 공공 기업 집적화와 동남권 스마트신산업 전략기지 역할을 하는 스마트신산업 중심 육성을 추진전략으로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소방학교



부산지식산업센터

⑪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 ▷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거, 근로자의 평생 학습 지원, 직업 능력개발 훈련의 실시, 숙련 기술 장려사업 및 고용 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 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 ▶ 변천: 1978년 2월 ‘한국기술검정공단 부산지방사무소’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에 개소하였다. 1982년 3월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부산사무소로, 1987. 4. 15. ‘한국산업인력공단 영남지역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으로 이전하였다. 2004년 2월 ‘한국산업 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로 명칭을 다시 변경하여 같은 해 3월에 북구 금곡동으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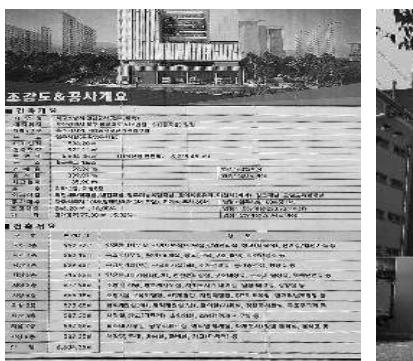
전 부산지방조달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 북부소방서(가칭)건립

- ▶ 위치: 금곡대로 151(금곡동) 외 2필지
▶ 규모: 지상 8층, 대지면적 1,538.1 m², 연면적 6,744.32 m²
▶ 사업비: 17,985백만원



북부소방서 건립 공사장 (2021.8. 현재)

- ▷ 공사기간: 2018년~2022년(기공식: 2020.12.14.)
- ▷ 기대효과: 지역 대규모 화재 등 재난발생 시 현장지휘권 강화와 소방수요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

◆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 ▷ 추진배경
 - 지식·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육성과 북부산 지역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도모
 - 우수한 젊은 인재 구축과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양질의 첨단 산업단지 조성

▷ 사업개요

- 위치: 금곡동 1010번지 일원(조달청 비축기지 이전부지)
- 면적: 46,264 m²(산업용지 52.3%, 주거용지 27.8%, 공공용지 19.9%)
- 유치업종: 제조업(첨단업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 : 고용효과: 120개업체 약3700명, 공동주택 6개동 500세대(약1300명)
- 사업비: 606억원(보상비 388, 공사비 90, 기타 128)
- 개발기간: 2018년~

▷ 추진사항

- 2010. 7.: 조달청 부산 비축기지 이전(북구 금곡동 · 강서구 화전 산단)
- 2014. 8.: 시행자사업 시행을 위한 SPC설립 → (주)금곡벤처밸리
- 2015. 2.: 투자의향서 접수 및 의견협의(15개 부서<기관>)
- 2015. 3.: 산업단지개발 지원센터회의 개최(3.24.)
 - 산업단지 입지타당성 적정하므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 이행 통보
- 2015. 7.: 산업단지계획(안) 제출(사업시행자: 부산광역시)
 - 주민설명회 개최(7.31.), 공람공고(7.20.~8.14.)
- 2015. 9.: 조달청 협의 의견회신(토지 매각 협의완료)
- 2015.10.: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부산광역시 · 낙동강유역환경청)
- 2015.1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부산시 경관위원회 심의 완료

- 2015.12.: 부산광역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12.17.)
- 심의결과 재심의 ·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금곡로 진입도로 확보 등
- 2016.11.: 산업단지계획 변경(안) 제출
- 2020. 3.: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자료출처: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의 위치도와 조감도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

2) 단체 현황

〈표2-13〉 금곡동 단체현황(2021.1.1.현재)

단체명	회원수(명)	비고
주민자치회	32	
통장협의회	3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5	
금곡복지회	21	
방위협의회	17	
새마을지도자협의회	20	
새마을부녀회	14	
새마을문고	10	
바르게살기위원회	30	
한국자유총연맹위원회	19	
청소년지도위원회	29	
청년회	28	
여성민방위대	6	
적십자봉사회	18	

자료: 금곡동행정복지센터 내부자료

제3절 금곡동의 사회복지

1. 사회복지 수요

금곡동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북구 전체 15,357세대 20,853명의 31.2%(세대원 기준)인 5,116세대 6,51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는 북구 전체의 18.7%인 6,769명이 거주하고 있다. 북구의 영구임대아파트는 6,993세대로 부산시 전체 영구임대아파트 26,171세대의 26.7%를 차지하고 있으며(전국 2위), 이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에서 수급자가 가장 많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금곡동에는 북구 전체 영구임대아파트 6,993세대의 64.3%인 4,496세대가 있어서 저소득 밀집지역의 주민복지와 주거환경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표2-14〉 금곡동 기초생활수급자 등 현황(2021.3.31.현재)

(단위: 세대/명)

구분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기초연금	등록장애인(명)	아동수당
북구	15,357/20,853	1,281/3,149	28,885/36,278	16,070	9,651/12,016
금곡동	5,116/6,510	240/574	5,661/6,769	3,752	1,078/1,334

자료: 금곡동행정복지센터 내부자료

〈표2-15〉 북구(금곡동)의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동 별	관리주체	입주시기	입주세대
계			6,993세대
금곡동	소 계		4,496세대
	주공1단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1994년 9월
	주공2단지	“	“
	주공4단지	“	“
덕천1동	BMC부산도시공사	1994년 11월	990세대
덕천3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1991년 10월	1,507세대

자료: 북구청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2. 사회복지시설

1)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4조의 5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 사회의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사회복지관은 통상 지역 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복지관이 금곡동에는 4개소(북구 전체 9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다.

〈표2-16〉 금곡동의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시설명	법인 유형	주 소	전화번호
① 공창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효열로 268(금곡주공1단지)	363-2063
② 금곡종합사회복지관	“	효열로 144	365-2211
③ 동원종합사회복지관	재단법인	금곡대로 616번길 10-9(금곡주공2단지)	361-0045
④ 화정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효열로 76(금곡주공4단지)	362-0111

자료: 북구청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① 공창종합사회복지관(2020.12.31. 현재)

- ▷ 시설설치신고일: 2000.12.3.
- ▷ 운영 주체(법인):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 ▷ 설치 규모: 부지 918.86 m², 건물 1,755.35 m²
- ▷ 종사자: 23명
- ▷ 자원봉사자
 - 개인: 실인원 149명 / 연인원 763명
 - 단체: 실인원 132명 / 연인원 439명
- ▷ 후원자: 개인 283명 / 법인 · 단체 등 58개

▷ 수행사업

- 사례관리: 9개 단위사업
- 서비스 제공: 35개 단위사업
- 지역 조직화: 10개 단위사업

▷ 연혁: 공창종합사회복지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립하고, ‘사회복지법인 공덕향’이 위탁 운영하는 기관이다. 좋은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지역의 자원을 연계하여 주민들이 원활하게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돋고자 1994.12.3. 개관하였다.

1995년 재가복지봉사센터와 공창 노인대학을 각각 개설하였고, 2000년 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회복지법인 공덕향’이 운영하고 있다.



공창종합사회복지관 전경과 내부

▷ 대표 사업(프로그램)

- 사업명: 어르신 공유공간- 어울림센터
- 사업목적
 - 상가를 활용한 공유공간 조성으로 노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교류 촉진
 - 노인을 위한 정서, 건강, 식생활지원을 통하여 노후생활에 필요한 돌봄기능 강화 및 돌봄공백 해소
- 사업기간: 2020년 10월 ~계속
- 2020년 추진실적
 - 공유냉장고: 704건 / 영양상담: 75건

- 당뇨교실: 14명 / 건강지원원: 232건

- 건강교육: 150건 / 세탁: 37건

- 사업개요

사업 추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준비<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홍보: 활동가 및 이용자 모집, 사업 안내지 제작- 공사진행: 1단지 상가 및 공창복지관 3층 공사 진행- 유관기관연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주택관리공단, 치매안심센터- 공청회 진행: 주민공청회 진행 (사업안내)○ 개소식: 2020.10.26.(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개소식)○ 사업진행<ul style="list-style-type: none">□ ‘食’ 커뮤니티공간 (장소:상가 1층)<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냉장고: 주민자율형 반찬 공유- 영양상담: 영양사와의 상담 및 맞춤형 식단제공- 소통공간: 음료, 차 등의 자율휴식형 공간제공□ ‘休’ 커뮤니티공간 (장소: 복지관 3층)<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관리: 건강정보제공, 마사지기등 활용- 휴식공간: 여가지원활용- 세탁방: 자율형 세탁기, 조기 비치□ 활동가 역량강화: 간담회를 통한 사업운영 논의
------------	--

- 사업성과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을 통한 노인돌봄 실현<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가 1층에 조성된 어울림센터는 아파트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높았으며 이로 인하여 회원이 아니더라도 많은분들이 방문하였음- 코로나로 인하여 만나지 못한 이웃을 짧게나마 만날 수 있었고 안부확인이 가능했음- 기존돌봄은 어르신가정에서 정해진 시간에 진행되는 것이 아닌 ‘공유공간’을 통한 ‘공간이 주는 돌봄’으로 인하여 또하나의 돌봄 방식의 모델이 가능했음○ 노인 건강지원을 통한 노후 만족도 증대<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서비스별 이용빈도를 살펴보면 ‘공유냉장고(반찬)’이 가장 높았고 노인 건강과 관련된 서비스 이용률이 높았음
------	---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기 이용회원들과의 인터뷰 결과 다음에도 이용하고 싶다는 욕구가 높았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 - 공유공간이 지역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 및 돌봄의 역할을 하고 있음
------	--



어울림센터 특별활동



어울림센터 내부



어울림센터 이용자 교육



공유냉장고 이용모습



공유반찬



건강지원

출처: 공창종합사회복지관

② 금곡종합사회복지관(2020.12.31. 현재)

- ▷ 시설설치신고일: 1989. 4.28.
- ▷ 운영 주체(법인): 자연수복지재단
- ▷ 설치 규모: 부지 1908.1 m², 건물 1407.59 m²
- ▷ 종사자: 18명
- ▷ 자원봉사자
 - 개인: 실인원 290명 / 연인원 1,399명
 - 단체: 실인원 9명 / 연인원 54명
- ▷ 후원자: 개인 126명 / 법인·단체 등 26개
- ▷ 수행사업
 - 사례관리: 11개 단위사업
 - 서비스제공: 31개 단위사업
 - 지역 조직화: 25개 단위사업
- ▷ 연혁: 금곡종합사회복지관은 1989. 4.28. ‘사회복지법인 금곡자연원’이 설립하여 1994년 ‘사회복지법인 자연수복지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재단의 이념인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추구하며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금곡종합사회복지관은 1958년 3월에 최초 설립하여 1982. 6.29. ‘사회복지법인 부엘모자원’ 아동시설로 인가, 1986. 3.18. ‘금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1. 1. 1. 재가복지센터를 개소하였고, 같은 해 1월 무료 한방 진료소를 개소하였다. 1994. 9.28. 금곡자연노인대학을 개설하였고, 1996. 9.12. 사회복지관을 준공하여 현재의 장소로 이전하였다.



금곡종합사회복지관 전경과 내부

▷ 대표 사업(프로그램)

- 사업명: 반려동물 토탈케어 전문가 양성사업(주민참여형 지역특화 사업)
- 사업목표: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2021년 4월 ~2021년 12월
- 사업요약서

반려동물산업 토탈케어 전문가 양성사업												
사업명	부산광역시 북구	수행기관명	금곡종합사회복지관									
사업예산	총예산 91,900천원	항목구분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24,200천원	62,720천원	4,980천원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및 북구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사업대상: 부산 북구 지역 내 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 20명 ○ 사업목표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계</th><th>취업</th><th>창업(프리랜서)</th><th>비고</th></tr> </thead> <tbody> <tr> <td>12명</td><td>2명</td><td>10명</td><td>교육 20명, 수료 16명</td></tr> </tbody> </table>				총계	취업	창업(프리랜서)	비고	12명	2명	10명	교육 20명, 수료 16명
총계	취업	창업(프리랜서)	비고									
12명	2명	10명	교육 20명, 수료 1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산업 급성장에 따른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1인가구 증가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도래로 급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산업과 이에 따른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여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 - 지역특화형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7. 1. 부산 북구는 전국 최초로 구포가축시장 완전폐업 협약식을 갖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친화도시 조성을 천명, 반려동물학교, 동물사랑 문화축제 등을 개최하고 동물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 반려동물친화도시에 걸맞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 직업군인 반려동물 분야 전문인력 양성으로 지속적인 일자리창출 - 반려동물 관련 창업분야 지원을 통한 성공 창업 및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브랜드가치 향상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배경 : 부산광역시 북구 동물학대의 온상에서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변화 ○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반려동물 관련 시장에서 요구하는 트랜드에 맞춘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전문가 양성 • 전문 자격증 취득 및 현장실습을 통하여 교육 훈련의 숙련도를 높이고, 취·창업을 위한 관련 직종 설명회 및 상담을 통하여 취업률 상승에 도움 - 수료생 취·창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지역의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북구 관내 및 인근의 반려 동물 산업으로의 취·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 수료생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 구직자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수요처에 제공하여 전문 인력 채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 추진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일정</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추진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상시</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반려동물 네트워크 협의회 구성 운영(업무협약)</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3월~10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반려동물 토탈케어 전문인력 양성 훈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3월~12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반려동물 캠페인(현장실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11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컨설팅 지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11월~12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취·창업지원(계속사업)</td> </tr> </tbody> </table> ○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교육에 참여한 훈련생 20명의 지역 내 취·창업을 장려하여 관내 및 인근 지역의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 도움 • 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에게(20명) 전문훈련을 통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분야의 일자리를 연계하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 	일정	추진내용	상시	반려동물 네트워크 협의회 구성 운영(업무협약)	3월~10월	반려동물 토탈케어 전문인력 양성 훈련	3월~12월	반려동물 캠페인(현장실습)	11월	컨설팅 지원	11월~12월	취·창업지원(계속사업)
일정	추진내용												
상시	반려동물 네트워크 협의회 구성 운영(업무협약)												
3월~10월	반려동물 토탈케어 전문인력 양성 훈련												
3월~12월	반려동물 캠페인(현장실습)												
11월	컨설팅 지원												
11월~12월	취·창업지원(계속사업)												



부곡청 협약식



펫피플 입학식



펫 미용 수업



펫 의류 제작 수업



펫훈련사 과정 수업



부산 반려동물 박람회 견학

출처: 금곡종합사회복지관

③ 동원종합사회복지관(2020.12.31. 현재)

- ▷ 시설설치신고일: 1994.1.2.3.
- ▷ 운영 주체(법인): 부산와이엠씨에이 재단법인
- ▷ 설치 규모: 부지 938.86 m², 건물 1710.60 m²

▷ 종사자: 23명

▷ 자원봉사자

- 개인: 실인원 193명 / 연인원 972명

- 단체: 실인원 - / 연인원 -

▷ 후원자: 개인 52명 / 법인 · 단체 등 73개

▷ 수행사업

- 사례관리: 3개 단위사업

- 서비스 제공: 24개 단위사업

- 지역 조직화: 24개 단위사업

▷ 연혁: 동원종합사회복지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립하고 ‘재단법인 부산기독교청년회(부산 YMCA)’가 위탁 운영하는 기관이다. “지역 사회 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제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 간의 상호 협력과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복지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1994.12.23. 개관하였다.

1995년 1월 재가복지봉사센터를 개소하였고, 같은 해 3월 15일 YMCA어린이집을 개원하였다. 1998.4.18. 장애아동 신체놀이학교를 개소하였고, 1999.2.9. 위기가정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2002.12. 2. 보건복지부 지정 자활 후견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05.1.1. ‘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하였다.



동원종합사회복지관 전경과 내부

▷ 대표사업(프로그램)

- 사업(프로그램)명: 한마음그루터기

- 사업 목적: 금곡주공 2단지 내 사회 자본을 활용하여 정신장애인의 낙인감을 줄여줌으로써 회복을 증진한다.

- 사업 목표

-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약물, 증상관리를 유지한다.
-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낙관성 학습, 회복을 증진한다.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전문성을 증진한다.
-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통합을 통한 낙인감을 해소한다.

▷ 사업 개요

성과목표	세부사업	수행방법	수행시기 / 주기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약물, 증상관리를 유지한다.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모니터링 및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수시 - 대상: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 장소: 금곡2단지 주공 내 - 내용: 전화 모니터링,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상담 등 	1월~12월 /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맵핑 업데이트&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 대상: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유관 기관 담당자 등 - 장소: 동원복지관 2층 회의실 - 내용: 현황맵핑 작업, 업데이트 현황맵 공유 	1월~12월 / 월 1회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낙관성 학습, 회복을 증진한다.	자조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리더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매월 2주 목요일 - 대상: 정신장애인 이용자 - 장소: 동원복지관 2층 회의실 - 내용: 욕구를 반영한 활동 	2월~12월 / 월 1회						
		<table border="1"> <tr> <td>교육</td> <td>이용자 역량 강화</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매월 2주 목요일 - 대상: 정신장애인 이용자 - 장소: 동원복지관 2층 회의실 - 내용: 보이스 피싱, 사기 등 권리 옹호 </td> <td>2월, 3월 / 연 2회</td> </tr> <tr> <td></td> <td>정서 지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매월 2주 목요일 - 대상: 정신장애인 이용자, 반딧불이 지역 아동센터 아동 </td> <td>2월~12월 / 월 1회</td> </tr> </table>	교육	이용자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매월 2주 목요일 - 대상: 정신장애인 이용자 - 장소: 동원복지관 2층 회의실 - 내용: 보이스 피싱, 사기 등 권리 옹호 	2월, 3월 / 연 2회		정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매월 2주 목요일 - 대상: 정신장애인 이용자, 반딧불이 지역 아동센터 아동
교육	이용자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매월 2주 목요일 - 대상: 정신장애인 이용자 - 장소: 동원복지관 2층 회의실 - 내용: 보이스 피싱, 사기 등 권리 옹호 	2월, 3월 / 연 2회						
	정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매월 2주 목요일 - 대상: 정신장애인 이용자, 반딧불이 지역 아동센터 아동 	2월~12월 / 월 1회						

성과목표	세부사업	수행방법	수행시기 / 주기
유관기관 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전문성을 증진한다.	마음 쉼터	- 장소:동원복지관 2층 회의실, 반딧불이 지역 아동센터 - 내용:음악 및 미술놀이, 심리치료	
		- 일시:매주 수요일 - 대상:정신장애인 이용자 - 장소:동원복지관 2층 회의실 - 내용: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WSM(Wellness Self - Management) 회복을 위한 자가관리, 사회기술훈련 등	2월~ 11월 / 주 1회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의 지역사회 통합을 통한 낙인감을 해소한다.	네트워크	○정신보건네트워크 - 일시:매월 3주 목요일 - 대상:북구 내 정신보건 관련 유관기관 - 장소:동원복지관 2층 회의실 - 내용:이용자 정보 공유, 서비스 중복예방, 다양화 지원 공유	2월~ 12월 / 월 1회
		○정.다.움 네트워크 - 일시:매월 2주 목요일 - 대상:부산 지역 내 기관 사례관리자 및 정신 장애인 사업 담당자 - 장소:협약기관 - 내용:정신장애인 스터디, 사례회의, 자원공유 및 연합사업 등	1월~ 12월 / 월 1회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의 지역사회 통합을 통한 낙인감을 해소한다.	지역사회 연계활동	○소통의 장 - 일시:6월, 10월 중 - 대상: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가족 - 장소:미정 - 내용:정신장애인 만남의 날, 연합가족 나들이	6월, 10월 / 연 2회
		○자원봉사활동 - 일시:매월 3주 금요일 - 대상: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지역주민 - 장소:금곡2단지 내외 - 내용:금곡2단지 마을 청소 '줍깅', 환경(노플 라스틱) 운동, 지역사회 행사, 정신보건 관련 행사 참여 등	3월~ 12월 / 월 1회

▷ 기대 효과

- 금곡주공 2단지 내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개인, 사회, 환경의 문제 해결에 있어 사회 자본을 적극적소에 활용한다.
- 지역사회에서 누려야 하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위기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 리더(자조)모임, 소통의 장, 자원봉사활동 등 정신장애인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 마련과 낙관성을 높여 낙인감을 해소한다.
- 공공 및 민간이 함께하는 정신장애인 네트워크 회의, 사례회의 등을 통해 실천적 경험과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지속적인 협업의 장을 마련한다.
-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및 낙인을 해소한다.



사업추진 장면

출처: 동원종합사회복지관

④ 화정종합사회복지관(2020.12.31. 현재)

- ▷ 시설설치신고일: 1994.12.23.
- ▷ 운영 주체(법인): 인천(仁泉)사회사업재단
- ▷ 설치 규모: 부지 995 m², 건물 2,930.02 m²
- ▷ 종사자: 32명
- ▷ 자원봉사자
 - 개인: 실인원 201명 / 연인원 2,252명
 - 단체: 실인원 37명 / 연인원 197명
- ▷ 후원자: 개인 262명 / 법인 · 단체 등 46개
- ▷ 수행사업
 - 사례관리: 9개 단위사업
 - 서비스 제공: 50개 단위사업
 - 지역 조직화: 14개 단위사업
- ▷ 연혁: 화정종합사회복지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립하고 ‘사회복지법인 인천(仁泉)사회사업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기관으로, “가정 복지와 가족 문화의 이념을 바탕으로 인근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사회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적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자주적인 통합 및 연대 의식을 고취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고자” 1994.12.23. 개관하였다.
1995.1.3. 재가복지봉사센터를 개소하였고, 같은 해 2월 6일 인천어린이집을, 3월 9일에는 화정노인대학을 각각 개설하였다.



화정종합사회복지관 전경과 내부

▷ 대표사업(프로그램)

- 사업(프로그램)명: 노인특성화사업
- 사업 목표: 북구 지역 내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노인복지시설은 부족하여, 노인특성화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노인은 줄이고, 노인들의 복지 수요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해소해 줌으로써 사회문제 예방과 노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원하고자 한다.
- 사업기간: 2021.11. ~12.31.
- 사업대상: 지역주민 60세 이상 노인 및 예비노인
- 사업개요
가. 건강증진지원사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노인의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건강운동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목적: 지역 내 노인 대상 건강 관련 전반적인 상담 및 검사, 건강운동 교육을 통해 참여 노인의 근력 및 체력을 증진시켜 건강 노후 생활 영위○ 사업대상: 건강관리가 필요한 60세 이상 노인○ <u>프로그램</u><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검사 - 노인 건강관리(신체활동) 스크리닝 도구 & 인 바디 사전 · 사후 검사◆ 건강상담 - 건강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와 건강증진에 부합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 설계 및 목표 설정◆ 신체활동 ‘그룹PT’ (부산광역시 북구보 건소 연계)<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 스포츠 지도사를 통한 체성분 측정 및 상담, 그룹 PT◆ 건강운동<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가, 라인댄스, 시니어 에어로빅, 동네한바퀴 ‘화정run’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노인의 치매예방을 위한 ‘치매예방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북구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지역내 노인 대상 치매 관련 상담 및 치매검사 등을 통해 치매의 조기 발견과 치매 예방 지원 ○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검사 - 북구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한국형 인지선별검사(K-CST) 실시 및 경증치매 대상 발굴 ◇ 치매예방상담 - 경증치매로 분류된 대상자 10명을 대상으로 한 치매 관련 상담 진행 ◇ 경증 치매 노인을 위한 인지·작업치료 PG ‘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선별검사를 통해 경증치매로 선별된 대상자를 위한 작업치료 및 수공예 인지활동, 신체근력 및 균형능력 향상 활동 등 진행 ◇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 - 바둑·장기 교육, 캘리그라피 등을 통한 집중력 향상 및 치매예방 도모 ○ 사업대상: 경증치매 노인 및 치매예방에 관심 있는 노인
<p style="text-align: center;">노인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영양관리를 위한 ‘건강 푸드테라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지역 내 노인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영양관리를 통해 영양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여 노인 건강 개선 도모 ○ 사업대상: 영양관리가 필요한 지역 내 60세 이상 노인 연계 ○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이토케미컬 음식 교육 및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물성 화학물질인 파이토케미컬에 따른 식습관 교육 및 건강 푸드 실습 교육 ◇ 에코 건강특강 - 각종 영양소에 대한 지식 공유 및 영양소에 따른 개별 식단 구성

나. 정서 및 사회생활지원사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p>남성독거노인 식생활 자립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남자의 향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남성노인의 음식 조리 능력 향상 및 건강한 식생활 습관 정립 도모와 소외 지역주민과의 음식 나눔을 통한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 ○ 사업대상: 금곡주공 4단지에 거주하는 무기력한 65세 이상 남성 독거노인 ○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리활동 및 나눔 활동 - 실생활 밀반찬 요리 배우기 및 소외 지역주민과의 요리 나눔활동 ◆ 특별한 날, 특별한 행복 - 음식점 및 문화 체험 등을 통한 특별한 추억 제공 및 스트레스 해소
<p>노인의 우울 완화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집단심리 원예프로그램 ‘생명사랑마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 부산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내 노인 대상 우울 및 자살 관련 상담 및 우울검사를 실시하여 선별된 자살위험군에게 집단의미치료 프로그램 및 원예프로그램을 통한 우울 완화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대상: 우울 증상이 높은 자살위험군 노인 및 예비노인 ○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의미치료 및 원예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감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집단의미치료와 원예프로그램 및 원예 나눔 활동을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 개별상담 - 참여자 개인 상황 및 일상 고민, 우울 정도 등에 대한 상담

다. 평생교육 지원사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노인 리더쉽 개발을 통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화정실버 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노인 동아리 리더의 역량 강화를 통한 노인 사회참여 증진 도모 ○ 사업대상: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 ○ 프로그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 노인 프로그램 반장 운영위원회 - 노인 지도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각종 안건들을 심의하여 원활한 노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 이용자 간담회 - 이용자 불편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개선 </div>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 에 따른 노인 정보화 교육 기회 제공 및 급변하는 정보社会의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버 스마트 라이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컴퓨터 및 키오스크 교육의 제공을 통해 노년층이 실생활에서 다양한 디지털 기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 디지털 소외감 해소 ○ 사업대상: 컴퓨터 및 키오스크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60세 이상 노인 ○ 프로그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 컴퓨터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엑셀 및 한글,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 기초 및 심화 기술 익히기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 IT 활용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문서 꾸미기, 엑셀 문서 만들기, 타자대회 및 인터넷 검색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 키오스크 교육 및 실전 체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스트푸드점, 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키오스크 활용 교육 및 실전 체험 진행 </div>

라. 취미여가 지원사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건강한 노후 및 활기찬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여가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노인 취미 ·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적 · 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여가 선용 기회 제공 ○ 사업대상: 취미 · 여가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60세 ○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미, 여가PG – 장구민요, 한국무용, 어쿠스틱 밴드, 난타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및 지역주민 문화공연 제공 프로그램 ‘문화 복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취미여가 프로그램 작품 전시를 통해 노인의 자아성취감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공연단체 연계 및 다양한 체험 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 ○ 사업대상: 60세 이상 노인 누구나 ○ 프로그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 작품 전시회 - 작품 및 사진들을 전시하여 참여노인 자아존중감 향상</td> <td style="width: 20px; vertical-align: top; padding: 5px;"></td> </tr> <tr> <td style="padding: 5px;">◇ 문화충전 DAY 및 지역주민 문화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단체 연계를 통한 다양한 문화공연 관람 및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 </td> <td style="width: 20px; vertical-align: top;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td> </tr> <tr> <td style="padding: 5px;">◇ 바둑 및 장기대회 - 바둑/ 장기 교육 및 대국을 통해 쌓은 실력을 바탕으로 토너먼트식 바둑 및 장기대회</td> <td style="width: 20px; vertical-align: top; padding: 5px;"></td> </tr> </table> 	◇ 작품 전시회 - 작품 및 사진들을 전시하여 참여노인 자아존중감 향상		◇ 문화충전 DAY 및 지역주민 문화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단체 연계를 통한 다양한 문화공연 관람 및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 		◇ 바둑 및 장기대회 - 바둑/ 장기 교육 및 대국을 통해 쌓은 실력을 바탕으로 토너먼트식 바둑 및 장기대회	
◇ 작품 전시회 - 작품 및 사진들을 전시하여 참여노인 자아존중감 향상							
◇ 문화충전 DAY 및 지역주민 문화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단체 연계를 통한 다양한 문화공연 관람 및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 							
◇ 바둑 및 장기대회 - 바둑/ 장기 교육 및 대국을 통해 쌓은 실력을 바탕으로 토너먼트식 바둑 및 장기대회							

마. 사회참여 · 권익증진사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재능기부활동 을 통한 노인의 사회 참여 활동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 노인의 재능기부 및 서비스 제공 등의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공헌을 통한 삶의 활력 도모 ○ 사업대상 :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60세 이상 노인 누구나 ○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화정실버 봉사단’	<p>◇재능기부 봉사활동 :복지관 및 지역 내 신청 기관에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악기, 공연, 경로식당, 재봉틀 등)을 통해 사회성 및 자존감 향상 지원 및 지역사회 공헌 활동 참여 지원</p> <p>◇밑반찬 배달 봉사활동 :거동이 어려운 지역 내 이웃주민에게 밑반찬 배달 봉사활동</p> <p>◇노인 산타 봉사활동: 지역 내 가정에 사전 신청을 받아 노인 봉사자가 산타로 변신하여 크리스마스선물 전달</p>
노인 인권 및 인식개선을 위한 ‘노인권익증진 P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노인인권 및 권익 증진, 인식개선 도모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노인 영향력을 넓히고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 도모 ○ 사업대상 :부산광역시 내 거주 중인 60세 이상 노인 누구나 ○ 프로그램 <p>◇노인인권교육 - 기본적인 노인 인권에 대한 개념과 이해 교육</p> <p>◇노인 학대 예방교육 - 노인 학대 정의 및 유형 교육, 노인 학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 진행</p> <p>◇노인인식개선 캠페인 -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을 통해 노인 차별 해소 및 세대 간 통합 도모</p>

▷ 기대효과

- 노인들의 건강 증진, 여가 선용, 자립 지원, 권리증진 등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노인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작은 노인복지관의 역할 수행 및 노인 삶의 질 향상

도모

- 자기 주도적이며, 적극적인 노인 취미여가활동 및 평생교육을 통해 건전한 여가 선용의 기회 제공 및 성취감 고취
- 노인우울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심리, 정서적 고립을 해소하고, 근력운동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 영위
- 남성독거노인이 요리활동을 통해 식생활 자립성을 향상하고 요리라는 매개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로 유대관계 형성
- 노인들의 잠재된 지혜와 경험을 활용하여 자율적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자아실현 및 보람된 노년의 삶 도모
- 지역사회 내 노인의 인권 및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노인의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 확대

(출처: 회정종합사회복지관)

2) 장애인복지시설

금곡동에는 북구의 다른 동에는 없는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과 부산뇌병변복지관이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이다.

지역 사회의 가정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의 사정과 평가(진단·판정), 사회 심리, 직업 재활, 교육 재활, 의료 재활, 재가 복지 등 장애인의 지역 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수행한다.

〈표2-17〉 금곡동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유형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이용시설	①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금곡대로 616번길 145	362-7755
주간보호시설	” 부설 주간보호센터	”	365-1462
이용시설	② 부산뇌병변복지관	학사로 246	333-3888
주간보호시설	” 부설 주간보호센터	”	333-3888

자료: 북구청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①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2020.12.31. 현재)

- ▷ 시설설치 신고일: 2009.8.11.
- ▷ 운영 주체(법인): (사단)부산광역시 북구장애인협회
- ▷ 설치 규모: 부지 1,002.4 m², 건물 349.37 m²
- ▷ 종사자: 21명
- ▷ 자원봉사자)
 - 개인: 실인원 24명 / 연인원 157명
 - 단체: 실인원 23명 / 연인원 45명
- ▷ 후원자: 개인 53명 / 법인 · 단체 등 24개
- ▷ 주요 사업: 상담사례지원, 아동개별사업,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사업 등
- ▷ 부설기관: 누리솔주간보호센터
- ▷ 연혁: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의 위탁을 받은 '(사단)부산광역시 북구장애인협회'가 "북구 지역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장애인의 사회 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개인의 잠재 능력을 극대화하고, 가족을 지원하며, 장애 인식 개선을 촉진하는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2009.8.11.에 복지관 설립 인가를 받아, 먼저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개소 하였고, 2009.9.15.에 개관하였다.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전경과 내부

▷ 대표사업(프로그램)

- 사업(프로그램)명: 평생교육지원사업
- 목적: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가지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간다.
- 목표
 - 참여자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 여가만족척도 사전검사 대비 사후검사 점수가 향상한다.
- 사업개요

사업명	내용	장소	인원	시간	이용료
종이접기 교실	다양한 종이를 활용한 종이접기교실	온라인	지역 주민 누구나	복지관 유튜브 업로드	무료
노래교실	최신&흘러간 성인가요 배우기	온라인	지역 주민 누구나	복지관 유튜브 업로드	무료
서예교실	붓글씨, 서예, 사군자 배우기	3층 프로그램실	장애인 및 비장애인 10명	월요일 14:00~16:00	무료
산책나들이	문화해설사, 금해설사 등 연계하여 공원뿐만 아니라 산, 마을 등 다양한 장소를 산책	야외	장애인 및 비장애인 10명	금요일 13:30~14:30	무료
난타교실	신나는 노래에 맞춰 난타북 연주	5층 다목적실	장애인 및 비장애인 10명	월요일 10:30~12:00	무료
미술심리치유	금곡도서관 연계 미술을 통한 치유활동	3층 프로그램실	장애인 및 비장애인 10명	금요일 14:00~16:00	무료

사업명	내용	장소	인원	시간	이용료
성인베이킹 교실	보건소연계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1층 다목적실	장애인 10명	수요일 14:00~16:00	무료
실버문화복지 미술	부산문화재단 연계 맞춤형 실버문화 복지활동	3층 프로그램실	60세 이상 장애인 4명	금요일 14:00~15:00	무료
다문화영어 교실	기초 영어 배우기	3층 프로그램실	장애인 및 비장애인 10명	목요일 10:00~12:00	무료
우쿨렐레	우쿨렐레 기초 배우기	5층 다목적실	장애인 및 비장애인 10명	목요일 10:00~11:30	무료
마음산책	독서를 통한 정서적 교류 및 나만의 자서전 만들기	3층 프로그램실	60세 이상 장애인 10명	금요일 10:00~12:00	무료
안마	부산안마사협회 연계, 안마서비스 제공을 통한 각종 퇴행성 질환개선, 시민 건강증진	5층 다목적실	성인장애인 8명 (1인당 30분)	화요일 13:00~16:00	무료
보치아	표적구에 공을 던져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하여 승패를 겨루는 경기	5층 다목적실	운동성 중증 장애인 7명	목요일 14:00~16:00	무료
쓰리짱 탁구	복지관 이용 장애인 의 탁구를 이용한 체력증진과 잔존 기능을 향상을 위해 탁구수업 진행	5층 탁구실	장애인 10명	화~목 13:00~15:00	무료

사업명	내용	장소	인원	시간	이용료
세발짝 자전거	복지관 이용 장애인 의 체력증진과 잔존기능을 향상을 위해 자전거타기 수업진행, 부산시 자전거대회 참가	복지관 인근 자전거도로	장애인 10명	월, 목 13:00~15:30	무료

▷ 기대효과

- 장애인의 신체기능(소근육운동, 근력증진) 및 사회성 향상
- 자신감 강화 및 스트레스 해소
- 비장애인과 장애인과의 지속적 만남을 통한 대화 및 소통의 장 확대
-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인식 개선 및 소통의 기회제공



출처: 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

② 부산뇌병변복지관(2020.12.31. 현재)

- ▷ 시설설치신고일: 2003.6.5.
- ▷ 운영 주체(법인): (사단)한국뇌성마비복지회 부산울산경남지회
- ▷ 설치 규모: 부지 2,239.60 m², 건물 411.71 m²
- ▷ 종사자: 24명
- ▷ 자원봉사자

- 개인: 실인원 33명 / 연인원 144명

- 단체: 실인원 98명 / 연인원 433명

▷ 후원자: 개인 131명, 법인·단체 등 37개

▷ 주요사업: 상담지도, 물리·작업·언어치료, 직업지원, 사례관리, 주간보호 등

▷ 부설기관: 주간보호센터

▷ 연혁: 부산뇌병변복지관은 “뇌성마비 장애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의료, 교육, 사회, 심리 등 종합적 재활 사업 및 자립 생활 능력 향상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지역 사회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03년 10월에 현재의 위치에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사단>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부산울산경남지회로 개명)가 부산뇌병변복지관을 개관하였다.



부산뇌병변복지관 전경과 내부

▷ 대표사업(프로그램)

- 사업(프로그램)명: 뇌병변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위한 시민옹호사업

‘시너지’ - (시민옹호를 너와 내가 함께하지)

- 목적: 지역사회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역량을 키우고 지역주민의 시민옹호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마련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목표

- 장애인당사자의 자립생활에 대한 주체성이 10% 이상 향상된다.

- 시민옹호인의 사회적 책임감이 10% 이상 향상된다.

-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한다.

- 사업 개요

- 사업 운영 기간: 2021.1.~12.
- 대상: 총 27명(장애인 당사자 13명, 시민옹호인 14명)

- 세부사업 내용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시기
장애인당사자 역량강화	<p>◇기획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장애인당사자 13명- 방법: 자체적으로 기획한 집단프로그램 및 교육- 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시설 후 자립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과 자립에 필요한 훈련 등을 주제로 기획회의 진행• 프로그램 주제, 강사, 장소, 진행일시, 참여인원, 회비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 수립 후 진행	4월 ~ 7월
	<p>◇포토보이스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장애인당사자 13명- 방법: 사진을 활용한 집단프로그램- 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별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모임 전 주제 사진을 촬영• 월별 일상생활주제 사진을 모아서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을 나눔	4월 ~ 11월
시민옹호인 역량강화	<p>◇양성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시민옹호인 14명- 방법: 외부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 내용: 장애 이해 및 인권, 실천사례 등 시민옹호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4월
	<p>◇워크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시민옹호인 14명- 방법: 발표, 토론, 의견교환 등 1박2일 연수- 내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개별 시민옹호인 활동 계획• 시민옹호인 간 네트워크 형성	9월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시기
	<p>◇간담회 및 보수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시민옹호인 14명 - 방법 : 시민옹호인 활동공유 및 집합교육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옹호활동에 대한 공유 및 동료 슈퍼비전 • 활동과 관련한 보수교육 요청이 있을 경우 진행 	7월, 9월, 11월
시민옹호활동	<p>◇일대일 시민옹호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장애인당사자 8명, 시민옹호인 8명 - 방법 : 일대일 매칭 자유주제 활동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월 1회 자유주제로 지역사회 내에서 시민옹호활동 진행 • 비공식적 옹호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활동 중 공식적 옹호활동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복지관과 함께 개입 <p>◇시민옹호 실천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장애인당사자 5명, 시민옹호인 6명 - 방법 : 지역사회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실천모임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병변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논의 • 지역사회의 준비 중 실천모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캠페인, 인식개선 강사활동, 지역사회 환경조사 등)을 정하여 실천모임 	4월 ~ 11월
평가회	<p>◇함께보고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장애인당사자 13명, 시민옹호인 14명, 지역주민 10명 - 방법: 사업보고회 및 사진전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옹호사업 연간 사업보고 • 장애인당사자 및 시민옹호인 활동사례 발표 • 활동영상 및 인터뷰 상영 • 포토보이스 프로그램의 일상생활사진을 활용하여 소규모 자리사진전 진행 	12월

- 기대효과

- 장애인당사자와 시민옹호인이 함께 지역사회 상가, 문화시설, 공공시설 등 을 이용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을 공유하게 되고, 지역주민들의 긍정적 장애인식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시민옹호인들은 시민옹호활동을 통해 평소 알지 못했던 지역사회의 어려움 (정비되지 않는 보행환경, 경사로가 없는 시설,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을 경험함으로써 장애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탈시설장애인들의 일상적인 권리를 옹호하고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옹호인 양성교육



일대일 시민옹호활동



시민옹호인 간담회



시민옹호 실천모임

출처: 부산뇌병변복지관

3) 아동·청소년 시설

(1) 보육시설(어린이집)

〈표2-18〉 금곡동 어린이집 현황(26개소)

어린이집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거목어린이집	화명신도시로 194	361-0025	화명한일유엔아이
과학나라어린이집	효열로 37번길 22	361-0016	금곡주공 5단지 근로복지관
금곡이안어린이집	금곡대로 550번길 6	361-5254	대우이안
금창초등어린이집	효열로 235-14	361-9918	금창초등학교 내
나라어린이집	효열로 38	362-6250	금곡주공 6단지
뉴아이사랑어린이집	화명신도시로 244	334-2737	화명리버빌2차
늘푸른어린이집	화명신도시로 194	364-3011	화명한일유엔아이
다사링어린이집	효열로 265	937-3625	벽산삼협한솔
도담영재어린이집	효열로 220번길 22	364-4712	금곡화목타운
라미어린이집	화명신도시로 255	335-5767	율리주공아파트
백조명문어린이집	효열로 39	361-5877	
빛고운어린이집	화명신도시로 209	363-5559	화명뜨란채
삐아제어린이집	효열로 220번길 23	364-0816	금곡주공 3단지
숲소리어린이집	효열로 135	365-0070	동원역삼정그린코아
예은어린이집	효열로 134	362-7677	
유엔아이어린이집	화명신도시로 194	334-1135	화명한일유엔아이
율리꿈나무어린이집	효열로 1	363-8090	율리벽산블루밍 1단지
인천어린이집	효열로 76	362-0777	화정종합사회복지관 내
지유어린이집	화명신도시로 194	957-7900	화명한일유엔아이
지혜어린이집	효열로 268	363-2066	공창종합사회복지관 내
참몬테소리어린이집	용수로 209	363-7055	화명뜨란채
창의글로벌어린이집	효열로 276	361-2633	
해나루어린이집	금곡대로 470번길 29	365-2006	신화명리버뷰

어린이집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해바라기숲어린이집	효열로 162번길 39	364-2530	협진태양
해피키즈어린이집	용수로 244	365-1505	화명리버빌 2차
YMCA어린이집	금곡대로 616번길 10-9	361-5656	동원종합사회복지관 내

자료: 북구청 주민복지과 내부자료

(2) 아동 시설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은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이다. 지역 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을 통해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가족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는 요보호 가정과 일반 가정 모두를 대상으로 가정 문제의 해결과 치료를 돋고 가정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비하여 모든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건강 가정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기존 가족 관계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가정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 체계로서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제안 및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돌봄나눔, 다양한 가족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잠재력 개발, 가족문제 예방 및 해결, 가족기능 강화,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광역사업, 아이돌봄 광역거점사업, 가족상담사업, 공동육아나눔터사업, 한부모가족 지원단사업,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이혼전후 가족관계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표2-19〉 금곡동 아동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지역아동센터	반딧불이 지역아동센터	금곡대로 616번길 10-9	070-4261-8524
“	글로벌영재 지역아동센터	금곡대로 550번길 30	361-2558
공동육아시설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북구 효열로 144	330-3474

자료: 북구청 희망복지과 내부자료

(3) 청소년시설

〈표2-20〉 금곡동 청소년 이용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수련관	① 금곡 청소년수련관	효열로 158	361-6685
공부방	② 금곡 청소년공부방	효열로 76-1(화정종합사회복지관 내)	362-0111

① 금곡 청소년수련관

- ▷ 시설개관일: 2004.4.25.
- ▷ 운영 주체(법인): (사단)삼동청소년회
- ▷ 설치규모: 부지 11,920.66 m², 건물 6,909.09 m²
- ▷ 종사자: 15명
- ▷ 주요 사업: 청소년 체육·문화 시설로 초등·중등·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기 개발 교육, 방학을 이용한 특강, 계절별 테마 체험 학습 등을 수행한다.



금곡 청소년수련관

4) 노인복지시설

(1) 요양시설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중이 커진 노인 요양을 국가적 차원에서 감당함으로써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노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7년 4월에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심신 상태와 부양 여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혹은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 기관 입소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부양가족을 위한 가족장애요양비 및 휴식 서비스도 제공된다.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 급여가 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 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 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심신기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받는 것이다. 금곡동에는 요양시설 1개소와 재가시설 1개소가 있다.

〈표2-21〉 금곡동 노인요양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요양원	성문소규모요양시설	금곡대로 550번길 22	362-5508
재가시설	화정재가노인 지원 서비스센터	효열로 76	362-0111

자료: 북구청 주민복지과 내부자료

(2) 경로당

경로당은 노인들이 동년배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건전한 취미와 오락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의 집으로 노인정이라고도 한다.

노인 여가시설의 기원은 우리나라 전통사회에 스며있던, 누각·정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누각은 양반계급이었던 권세자나 선비들의 향연장소였으며, 정자는 주로 서민 층이 이용하던 여가활동 장소였다. 전통사회의 노인 여가시설은 급격한 산업화와 사회 변화의 과정에서 자취를 감추거나 기능을 상실하고, 광복 이후 새로운 여가시설로서

경로당 또는 노인정이 생겨났다.

198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고령화 현상으로 사회복지정책이 중요하게 대두되었고, 이로 인해 전국에 경로당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경로당이 증가하게 된 사회적 배경은 사회가 점점 핵가족화되어 가정 내에서 젊은 세대와의 대화 단절, 노인들의 역할 감소 등으로 노인들이 가정 밖에서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금곡동에는 26개소의 경로당이 있다.

〈표2-22〉 금곡동 경로당 현황

경로당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공창경로당	효열로 268	363-2063	공창복지관 내
공창부락경로당	효열로 219번 가길38-9	343-2667	
금곡경로당	금곡대로 616번길 105	364-1123	
금곡2단지경로당	금곡대로 616번길 10-9	361-0045	동원복지관 내
금곡3단지경로당	효열로 220번길 23	363-4047	
금곡4단지경로당	효열로 76	362-2343	화정복지관 내
금곡5단지경로당	효열로 37번길 22	362-5495	금오경로당
금곡6단지경로당	효열로 38	362-2017	
금곡7단지경로당	금곡대로 55번길 23	361-1081	
금곡8,9단지경로당	효열로 98	361-2636	
금곡 이안아파트경로당	금곡대로 550번길 6	361-3752	
동원역 삼정그린코아 노인회	효열로 135	363-0818	
신화명리버뷰자이 아파트경로당	금곡대로 470번길 29	365-2001	
유림2차아파트경로당	효열로 193	362-0244	
유림효도관	금곡대로 616번길 35	938-1265	
효도관(유림1차)	금곡대로 470번길 33	-	
율리경로당	금곡대로430번 가길 27-20	341-4827	
율리벽산블루밍경로당	효열로 1	361-2680	
율리주공마을아파트경로당	화명신도시로 255	337-3488	
조성협진아파트경로당	효열로 162번길 41	362-3914	

경로당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한솔경로당	효열로 265	362-5745	
화명한일유엔아이 아파트경로당	화명신도시로 194	361-5157	
화명드란채경로당	화명신도시로 219	362-6631	
화명리버빌2차 아파트경로당	화명신도시로 244	365-1771	
화목타운경로당	효열로 220번길 22	334-7347	

자료: 북구청 주민복지과 내부자료

(3) 대한노인회 부산북구지회

구 분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대한노인회 부산북구지회	금곡대로 470번길 31	-	



대한노인회 부산북구지회

3. 기타 시설

〈표2-23〉 금곡동의 기타 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자활센터	① 북구희망터 지역자활센터	학사로 297(성원빌딩 2층)	365-0045
다문화가족	②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효열로 76	365-3409
자원봉사	③ 금곡동 자원봉사캠프	금곡대로 466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내)	309-4814
	④ 공창마을행복센터	효열로 275번길 12	362-6988
	⑤ 공장 새마을회관	효열로 219번가길 38-9	-

① 북구희망터 지역자활센터

- ▷ 시설설치신고일: 2004.1.14.
- ▷ 운영 주체(법인): (재)부산와이엠씨에이
- ▷ 설치 규모: 부지 301.1 m², 건물 725.91 m²
- ▷ 종사자: 11명(바우처 전담 1명 포함)
- ▷ 주요 사업
 -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 자립 유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형 자활 근로사업,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사업, 청년자립형 자활근로사업, 게이트웨이



북구희망터 지역자활센터 전경과 내부

자활근로사업

- 기타사업: 자활기업,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등

▷ 역할: 지역자활센터는 다양한 복지 제도들의 최종 목적은 대상자들을 단순히 돋는다는 시혜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본다면 대상자(저소득층)들을 단순히 복지 대상자로서의 수동적인 존재만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선 ·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자활사업은 복지 제도의 목적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내용으로 정의된다.

자활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관련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던바 이를 위하여 지역자활센터가 설립되었다.

지역자활센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노동의 기회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원조 활동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자활 근로 사업을 통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금 융자 관련한 법적 · 기술적 지원 등의 창업과 관련한 지원을 통해 자활 공동체를 발전시킨다. 자활 공동체가 완전히 독립하여 시장 진입이 가능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 지원을 한다.

②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시설설치신고일: 2010.1.1.
- ▷ 운영 주체(법인): 인천(仁泉)사회사업재단
- ▷ 설치규모: 건물 321.2 m²(화정종합사회복지관 내)
- ▷ 종사자: 22명
- ▷ 주요 사업
 - 기본사업: 가족사업, 성평등 · 인권사업, 사회통합사업, 상담사업 등
 - 특성화사업: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통번역 서비스사업 등
- ▷ 역할 :이주 결혼 여성과 이주 노동자의 증가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

부가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 지원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 및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 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도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금곡동 자원봉사캠프

- ▷ 개소 일자: 2017.4.1.
- ▷ 운영 주체(법인): (사)부산광역시 북구자원봉사센터
- ▷ 회원 수: 12명
- ▷ 역할: 자원봉사 활동 지원
 - 북구자원봉사센터 위임업무
 - 지역 문제와 욕구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 운영
 - 자원봉사자 상담 및 배치, 활동 관리
 -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홍보 등

④ 공창마을행복센터

- ▷ 개소 일자: 2013.11.8.



공창마을행복센터

- ▷ 운영 주체(법인): 마을공동체
- ▷ 설치 규모: 부지 330 m², 건물 160 m²
- ▷ 회원 수: 20명
- ▷ 주요 사업
 - 주민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성장 도모
 - 공간기반 조성: 공간 특성에 기반한 물리적 환경 정비로 지역 정체성 확보 및 노후 주거지 정비
 - 마을경제력 증대: 마을 특성에 맞는 마을 사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수익 창출

⑤ 공창 새마을회관



공창새마을회관 전경과 내부

4. 장학회

1) 금곡복지회

▷ 연혁

- 창립총회 및 초대이사장(이장술) 취임: 2011.7.15.
- 부산광역시 법인설립 인가: 2011.11.25.
- 사단법인 등록: 2011.12.5.
- 기획재정부 기부금단체 승인: 2012.3.31.

▷ 이사회 구성

- 이사장: 이장술(경동화학 대표이사)
- 이사회: 18명(의사 16명, 감사 2명)

▷ 자산 및 회원현황

- 자본금: 50백만원
- 회원(후원자): 200명
- 적립액: 139백만원(2021.5.31.현재)

▷ 추진사항(실적)

일시	내용	금액(만원)	비고
2012.2.20.	제1회 금곡동 장학생 선발 : 15명 - 대학생 5명(100만원씩) - 고등학생 10명(50만원씩)	1,000	
2012.10.13.	제2회 금곡동 느티나무축제 지원	500	
2013. 2.27.	제2회 금곡동 장학생 선발 : 22명 - 대학생 8명(100만원씩) - 고등학생 14명(50만원씩)	1,500	
2013.11. 2.	제3회 금곡동 느티나무축제 지원	500	
2014. 2.27.	제3회 금곡동 장학생 선발 : 22명 - 대학생 8명(100만원씩) - 고등학생 14명(50만원씩)	1,500	

일시	내용	금액(만원)	비고
2015. 2. 16.	제4회 금곡동 장학생 선발 : 22명 (대학생 12명, 100만원씩 고등학생 10명, 50만원씩)	1,700	
2016. 2. 1.	제5회 금곡동 장학생 선발 : 21명 (대학생 13명, 100만원씩 고등학생 8명, 50만원씩)	1,700	
2017. 4. 4.	제6회 금곡동 장학생 선발 : 20명 (대학생 15명, 100만원씩 고등학생 5명, 50만원씩)	1,750	
2018. 3.24.	제7회 금곡동 장학생 선발 : 19명 (대학생 15명, 100만원씩 고등학생 4명, 50만원씩)	1,700	
2019. 2.22.	제8회 금곡동 장학생 선발 : 20명 (대학생 15명, 100만원씩 고등학생 5명, 50만원씩)	1,750	
2020. 2.24.	제9회 금곡동 장학생 선발 : 20명 (대학생 15명, 100만원씩 고등학생 5명, 50만원씩)	1,750	
2021. 2.23.	제10회 금곡동 장학생 선발 : 17명 (대학생 17명, 100만원씩)	1,700	
	• 장학금: 총 198명, 16,050만원 지급, • 축제지원: 2회 1,000만원		

자료제공: 금곡동행정복지센터

제4절 금곡동의 교육과 종교

1. 교육시설

1) 유치원

〈표2-24〉 금곡동 유치원 현황

유치원명	구분	주 소	전화번호	비고
금곡나래유치원	공립	효열로 220번길 35	790-9500	
백조명문유치원	사립	효열로 39	361-5871	
신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공립	효열로 42	330-6490	
원효정사유치원	사립	효열로 162번길 180-14	343-0567	
한국몬테소리 금곡유치원	사립	금곡대로 616번길 12	362-3100	
햇빛유치원	사립	효열로 117	362-6636	
화명꿈유치원	사립	금곡대로 359	790-3200	

자료: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bukbu.pen.go.kr>)



금곡나래유치원



백조명문유치원



신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효정사유치원



한국몬테소리 금곡유치원



햇빛유치원



화명꿈유치원

2) 초등학교

〈표2-25〉 금곡동 초등학교 현황

학교명	설립별	설립일자	주소	전화(교무실)
① 금곡초등학교	공립	1994.11.11.	효열로 174	330-5504
② 금명초등학교	공립	2002.8.14.	화명신도시로 197	364-1838
③ 금창초등학교	공립	1994.11.11.	효열로 235번길 14	320-5602
④ 신금초등학교	공립	1994.11.11.	효열로 42번길	330-6400

자료: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bukbu.pen.go.kr>)

① 금곡초등학교

▷ 연혁

- 1994.11.11.: 금곡국민학교로 설립 인가
- 1995. 3. 1.: 27학급으로 개교
- 1996. 2.15.: 제1회 졸업 190명(남 105명, 여 85명)
- 2020. 2.21.: 제25회 졸업 69명(졸업생 누계 4,040명)
- 2021. 3. 2.: 개학식 및 입학식(전교생 306명)

▷ 학교현황(공립, 단설)

- 학생수: 312명(남 148명, 여 164명)
- 교원수: 23명(남 4명, 여 1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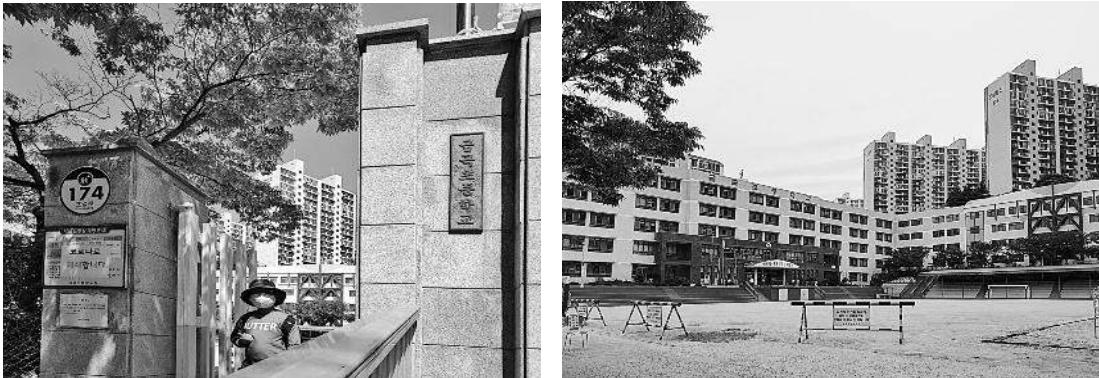
▷ 비전: 꿈을 키우는 머릿돌을 놓는 행복한 인성학교

▷ 교육목표: 꿈을 키우고 함께 나누는 건강한 어린이

▷ 학교 상징

- 교목: 느티나무(넉넉한 느티나무는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우리 금곡 어린이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 교화: 진달래(진달래의 청렴하고 절제하는 아름다움은 우리 금곡 어린이의 꿈과 희망입니다.)

(자료출처: 금곡초등학교 홈페이지(<http://www.gemgok.es.kr/>))



금곡초등학교

② 금명초등학교

▷ 연혁

- 2002.8.14.: 설립인가(화명초등학교에서 20학급 315명 분리)
- 2002.9.1.: 개교(20학급)
- 2003.2.20.: 제1회 졸업식(졸업생 123명)
- 2019.2.21.: 제18회 졸업식: 151명 졸업(졸업생 누계 3,289명)
- 2020.3.1.: 29학급 편제(특수학급 1포함), 입학(4학급 106명)

▷ 학교현황(공립, 단설)

- 학생수: 644명(남 336명, 여 308명)
- 교원수: 38명(남 9명, 여 29명)

▷ 교육목표

- 목표: 창의성과 인성을 갖추고 실력 있는 학생이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
- 미션: 오색빛깔 COLOR로 물든 행복한 금명어린이

▷ 학교상징

- 캐릭터: 금세미(금명, 세계로, 미래로)
- 교목: 소나무(소나무처럼 푸르게)
- 교화: 장미(장미처럼 아름답게)

(자료출처: 금명초등학교 홈페이지(<http://www.gemmyeong.es.kr/>))



금명초등학교

③ 금창초등학교

▷ 연혁

- 1995.3.1.: 금창국민학교로 개교(1994.11.11. 설립 인가)
- 1996.3.1.: 금창초등학교로 교명 변경
- 2019.2.21.: 제24회 졸업
- 2019.3.1: 13학급 편성

▷ 학교현황(공립, 단설)

- 학생수: 211명(남 116명, 여 95명)
- 교원수: 22명(남 6명, 여 16명)

▷ 교육목표

- 비전: 놀이는 신나게 배움은 즐겁게
- 교육목표: 즐겁게 배우며 존중하는 행복한 어린이

▷ 학교상징

- 교목: 느티나무(넓은 그늘로 쉼터를 제공하는 느티나무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 하며 바르고 크게 자라는 금창어린이의 인내와 끈기 상징)
- 교화: 개나리(개나리의 꽃말처럼 가슴에 희망을 품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밝고 맑은 금창어린이의 청순함과 아름다운 꿈 상징)

(자료출처: 금창초등학교 홈페이지(<http://www.gemchang.es.kr/>))



금창초등학교

④ 신금초등학교

▷ 연혁

- 1994.11.11.: 신금초등학교 설립 인가
- 1995. 3. 2.: 신금초등학교 개교(화명초등학교 구내) → 26학급 편성(학생수 791명)
- 1995. 6. 23.: 신금초등학교 입교식
- 2021.2.19.: 제26회 졸업식(졸업생 46명, 누계 4281명)

▷ 학교현황(공립, 단설)

- 학생수: 331명(남 180명, 여 151명)
- 교원수: 26명(남 8명, 여 18명)

▷ 교육목표

- 비전: 신명나는 지금! 배움이 즐거움이 되는 행복신금교육
- 교육목표: 아I, 이E, 야Y, 호H

▷ 학교상징

- 교훈: 더 높이 더 멀리 꿈을 펼치자
- 교목: 느티나무(꿋꿋하고 당당함을 자랑하는 느티나무)
- 교화: 동백(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는 동백)

(자료출처: 신금초등학교 홈페이지(<http://www.simkum.es.kr/>))



신금초등학교

3) 중학교

〈표2-26〉 금곡동 중학교 현황

학교명	설립별	설립일자	주소	전화(교무실)
① 금곡중학교	공립	1994.11.11.	효열로 162번길 3	330-0800
② 금명중학교	공립	2003. 3. 5.	화명신도시로 210-1	330-4500

자료: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bukbu.ben.go.kr>)

① 금곡중학교

▷ 연혁

- 1994.11.11.: 설립 인가
- 1995. 3. 5.: 제1회 입학식(8학급 375명)
- 2018. 2. 9.: 제21회 졸업식(5학급 129명, 졸업생 누계 6,239명)
- 2019. 3. 4.: 제25회 입학식(4학급 92명)

▷ 학교현황(공립, 단설)

- 학생수: 279명(남 137명, 여 142명)
- 교원수: 30명(남 9명, 여 21명)

▷ 교육 목표: 따뜻한 핵심 역량을 갖춘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금곡인 육성

▷ 학교상징

- 교훈: 지혜롭고(창조적인 사람) / 성실하며(봉사적인 사람) / 예절바른 사람(도덕적인 사람)
- 교목: 은행나무
- 교화: 철쭉

(자료출처: 금곡중학교 홈페이지(<http://www.kumgok.ms.kr>))



금곡중학교

② 금명중학교

▷ 연혁

- 2001.10.1.: 학교설립개교(36학급) 조례통과
- 2003.3.5.: 개교 및 제1회 입학식(10학급 353명)
- 2006.2.21.: 제1회 졸업식(11학급 385명)
- 2021.1.29.: 제16회 졸업식(6학급 167명, 누계 5,015명)

▷ 학교현황(공립, 단설)

- 학생수: 485명(남 252명, 여 233명)
- 교원수: 41명(남 11명, 여 30명)

▷ 교육목표

- 비전: 소통과 공감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 교육목표: 강인한 체력과 올바른 인성으로 남을 배려 할 줄 아는 인재 육성



금명중학교

▷ 학교상징

- 교훈: 참되고 부지런하며 창의적인 사람이 되자
- 교목: 소나무 - 교화: 철쭉

(자료출처: 금명중학교 홈페이지(<http://www.geummyeong.ms.kr>))

4) 고등학교

〈표2-27〉 금곡동 고등학교 현황

학 교 명	설립별	설립일자	주 소	전화
① 금곡고등학교	공립	2002.12.16.	화명신도시로 236	330-2100

자료: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bukbu.pen.go.kr>)

① 금곡고등학교

▷ 연혁

- 2002.12.16.: 학교 설립 인가(개교 기념일)
- 2003. 3. 1.: 금곡고등학교 개교(금명중학교 시설 이용)
- 2003. 3. 3.: 제1회 입학식(10학급, 373명)
- 2006. 2. 20.: 제1회 졸업식(10학급, 378명)
- 2020. 2. 12.: 제15회 졸업식(10학급 292명, 누계 5,952명)

- 2020.3.2.: 제18회 입학(9학급 223명)

▷ 학교현황(공립, 단설)

- 학생수: 693명(남 374명, 여 319명)
- 교원수: 69명(남 19명, 여 50명)

▷ 교육목표

- 비전: 세계로, 미래를 향해 웅비하는 금곡인
- 교육목표: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창의성과 바른 품성을 갖춘 인재 양성

▷ 학교상징

- 교훈: 맑은 심성, 일찬 실력, 밝은 미래
- 교목: 느티나무(씩씩한 기상과 진취성 넓은 아량과 변함없는 신념)
- 교화: 매화(지조 높은 선비의 기풍 깨끗한 절개)

(자료출처: 금곡고등학교 홈페이지(<http://www.geumgok.hs.kr>))



금곡고등학교

2. 종교시설

1) 교회

〈표2-28〉 금곡동 교회 현황

명 청	소재지	비 고
금곡교회	금곡대로 616번길 80	
금곡사랑교회	효열로 205	
금곡초대교회	효열로 275	
대망교회	금곡대로 616번길 126	
동행교회	효열로 226	
로뎀나무교회	효열로 69	
명서교회	금곡대로 616번길 87-8	
반석선교교회	효열로 203번가길 8	
북성교회	효열로 219번나길 21	
빛된교회	금곡대로 616번길 13	
새금곡교회	금곡대로 616번길 7-28	
성문교회	금곡대로 550번길 20	
성민교회	효열로 219번길 27	
순복음희망교회	금곡대로 636번길 7	
스마일교회	금곡대로 616번길 21	
아름다운교회	효열로 235번길 56	
예벤에셀교회	금곡대로 441	
열린보화교회	효열로 75	
은총교회	금곡대로 616번길 121-8	
은혜교회	금곡대로 616번길 75	
주안복음교회	효열로 226	
주사랑교회	금곡대로 616번길 142	
포도원교회	효열로 205	
하나님의교회	금곡대로 458	
하늘큰소망교회	효열로 277	
화곡교회	금곡대로 441번길 15	

자료: 다음 인터넷(<http://m.search.daum.net>)

2) 사찰

〈표2-29〉 금곡동 사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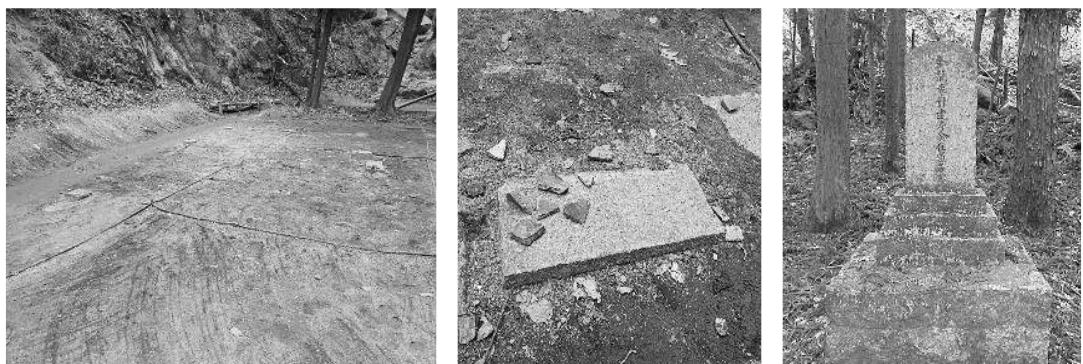
명 청	소 재 지	비 고
불암사	효열로 162번길 180-22	
진흥사	효열로 162번길 180-14	
화방사	효열로 75-16	
안심사	효열로 203번길 16	

자료: 다음 인터넷(<http://m.search.daum.net>)

◆ 없어진 사찰

- 조사자 : 낙동문화원 향토사연구소 민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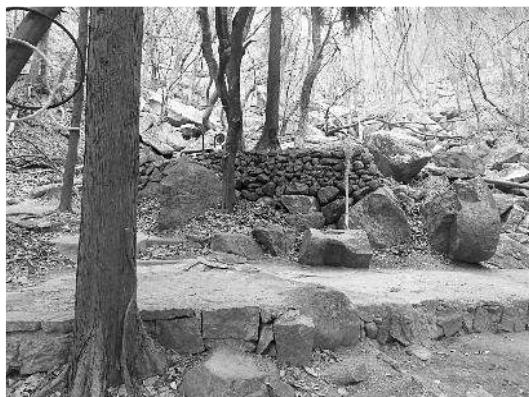
● 금룡사지 (금곡동 산3)



공창 마을에서(부산시 인재개발원 뒤) 수량이 풍부하고 가장 깊은 도덕골에서 내려오는 물길이 지나가는 곳에 금룡사지가 있다.『금곡동 사찰 이야기』의 기록에는 “금용사는 김재도 부부가 수양을 위해 토굴에 살다가 거사께서 돌아가시자 할머니께서 불사(佛舍)하고, 할머니의 아들이 출가하여 금룡사 주지가 되었다.”라고 한다. 온 가족이 이루어 놓은 금룡사는 건물 축대와 절구통, 입구에 창건주의 비석만 남아 이곳이 금룡사였음을 말해 주고 있다.

금룡사는 아주 큰 바위가 절 주변에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이 바위를 병풍바위라 한다. 한편 이 병풍바위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희귀식물이 자생하였다 한다. 거제도 해금강 같은 곳에서만 자라는 식물이라는 것으로 보아 식물보호 차원에서라도 식물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리라 짐작한다.

이처럼 산수가 수려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 공창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양산 동면 등 면 곳에서 신도들이 찾아올 정도로 유명하였다. 절에 큰 행사가 있는 날은 마을에서 절 쪽으로 바라보면 하얗게 줄을 이어 신도들이 올라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1977년~1978년경에는 신도들이 자금을 내어 절 앞에 흐르는 풍부한 수량을 활용하여 물레방아를 설치, 전기를 생산 사용하였다. 필자가 답사했을 때는 그 흔적이 없었으나『금곡동 사찰이야기』에 보면 물레방아 흔적이 사진에 수록되어 있다.



제3공화국(박정희 대통령) 시절, 산속의 무허가 건축물은 모두 철거하라는 지시로 철거되었다.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에 등록이 되어 있어도 금룡사는 철거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철거 후 불과 3일 후에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레방아를 설치한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은 물론 우직한 병풍바위가 보호하고 있는 금룡사가 허무하게 철거되니 신도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더할 나위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 문수암지(금곡사)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산79

1945년 4월 송순이(1888년생)의 꿈에 부처님을 현몽한 후 불사를 이루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스님을 모셔와 1950년 5월에 창건한 암자로 후에는 박분임(1911년생)이 운영하였다.

이곳 문수암(지금의 체육공원) 밑으로는 공창마을 등마(공창 윗동네 이름)의 냇가와 앞에 큰 저수지(현 조성아파트 자리)가 있어 논과 밭을 경작하는데 중요한 물 공급지였고 마을 어른과 아이들까지 수영장과 낚시터로 활용되어 마을의 친근한 장소였다. 특히 암자 옆에는 일제 항쟁 때 금이 발견되었다 해서 굴을 판 흔적이 있었고 암자 맞은편의 큰 바위 밑에는 산신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흔적이 조금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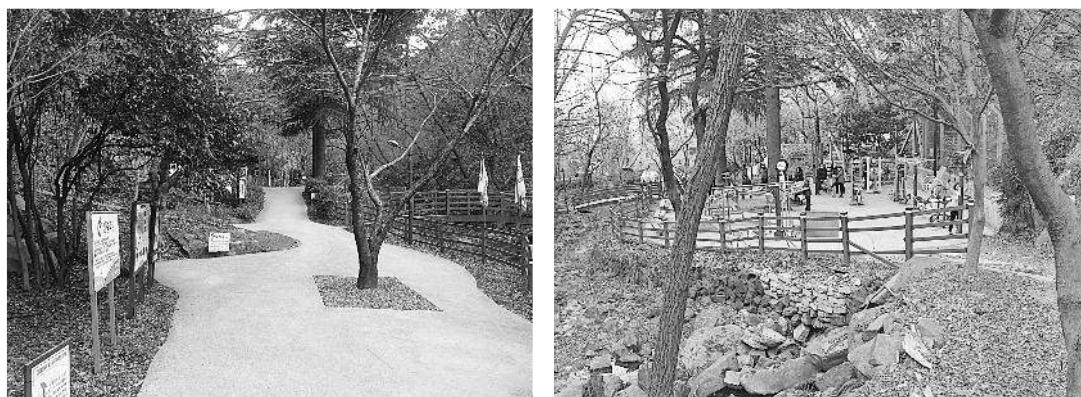


1950~1970년대까지만 해도 석가탄신일과 명절날을 전후해서 이곳 문수암에 시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인생 진로 상담과 사주, 점을 보는 것은 서민들이 유일하게 의지하고 싶은 위안과 기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구경거리이고 축제였다

고 한다.

아래로는 낙동강의 물줄기가 유유히 흐르는 풍광이 좋을 뿐만 아니라 조용하고 고요해서 이곳 암자에서 고등고시 등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요양차 치유의 장소로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였다. 그러던 곳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 간첩 사건으로 전국의 외딴집과 독립 암자를 일제 철거할 당시 철거되었는데 이후에 택지개발로 도시화 되기 직전 까지 암자 터의 구들장과 석축, 토담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으나 지금은 주민들의 체육공원이 되었고 저수지는 아파트 단지로 변하였다.

문수암도 도시화의 바람이 비껴가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의 기도처가 사라지고 말았다.



3) 성당

〈표2-30〉 금곡동 성당 현황

명 청	소 재 지	비 고
금곡성당	효열로 150	

자료: 다음 인터넷(<http://m.search.daum.net>)

제5절 금곡동의 생활편의 시설

1. 의료시설

1) 병·의원

〈표2-31〉 금곡동 병·의원 현황

병·의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금곡효 요양병원	금곡대로 458	927-7000	
김병동이비인후과 의원	금곡대로 616	363-0919	
박내과 의원	효열로 210	362-1736	
보람내과 의원	효열로 75	362-8848	
연세소아청소년과 의원	금곡대로 616-55	363-3636	
오케이신경외과 의원	효열로 228	363-9991	
윤소아청소년과 의원	효열로 69	362-1362	
좋은리버뷰 요양병원	금곡대로 586	914-8522	
참조은내과 의원	금곡대로 432	714-7119	
하나내과 의원	금곡대로 469	714-0082	
하나연합 의원	효열로 214-1	332-3355	

자료: 다음 인터넷(<http://m.search.daum.net>)

2) 치과 의원

〈표2-32〉 금곡동 치과 현황

의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고운이치과 의원	효열로 224	335-7181	
금곡이치과 의원	금곡대로 616	363-2828	
명치과 의원	금곡대로 212	361-2886	
연세비엔이치과 의원	금곡대로 469	361-2804	
율리프라임치과 의원	금곡대로 432	362-2275	

자료: 다음 인터넷(<http://m.search.daum.net>)

3) 한의원

〈표2-33〉 금곡동 한의원 현황

병·의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금곡한의원	효열로 218	362-3203	
우리가족한의원	학사로 291	365-1007	
우리한의원	효열로 77	361-0661	
율리한의원	금곡대로 432	362-1075	
장원한의원	효열로 210	361-6700	
진한의원	효열로 222	363-5453	
하나한의원	금곡대로 469	362-1836	

자료: 다음 인터넷(<http://m.search.daum.net>)

2. 금융기관

〈표2-34〉 금곡동 금융기관 현황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부산은행 금곡동영업소	금곡대로 616-126	362-2151	
KB국민은행 금곡동지점	금곡대로 616-55	363-0075	
NH농협 부산하나로클럽출장소	금곡대로 469	364-5471	
북부산농협 금곡지점	효열로 215	361-9007	
북부산새마을금고 금곡지점	금곡대로 616-83	362-4001	
북부산새마을금고 율리지점	화명신도시로 234-1	361-8527	

자료: 다음 인터넷(<http://m.search.daum.net>)

3. 유통시설

1) 농협하나로클럽 부산점

- ▷ 소재지: 금곡대로 469(T.330-9000)
- ▷ 설립일: 2004. 1. 1.(백화점 유통소매업)
- ▷ 사원 수: 300명
- ▷ 주 사업 분야: 하나로마트 사업, 식자재 사업, 온라인 쇼핑 사업 등



농협하나로마트 부산점 전경

4. 공원 및 동네체육시설

1) 공원

〈표2-35〉 금곡동 공원 현황(2021.6.30.현재)

연번	구 분	공 원 명	위 치 (지번)	면 적(m ²)
①	어린이공원	금빛공원	금곡동 53-2	1,554.1
②	"	건강공원	금곡동 57-2	1,600.1
③	"	솔공원	금곡동 97-2	1,600.0
④	"	공창공원	금곡동 92-1	1,507.6
⑤	"	우리공원	금곡동 98-2	1,600.4
⑥	근린공원	금곡공원	금곡동 100-1	11,908.9
⑦	어린이공원	행복공원	금곡동 810-2	3,325.2
⑧	"	미래공원	금곡동 811-2	2,125.0
⑨	"	사랑공원	금곡동 1107	3,600.0
⑩	"	열린공원	금곡동 1112-2	1,500.0
⑪	"	민주공원	금곡동 1115	1,740.6
⑫	"	율리공원	금곡동 1116-1	1,608.5
⑬	"	천사공원	금곡동 1884	1,500.2
⑭	"	대천공원	금곡동 1897	1,500.2

자료: 북구청 청정녹지과 내부자료



금곡동의 공원 위치도

① 금빛공원

- ▷ 위치: 금곡동 53-2번지
- ▷ 접근: 공창종합사회복지관 뒤(금곡주공아파트 1단지와 연접)
- ▷ 편의시설: 식수대, 쉼터, 놀이기구 5점



금빛공원의 전경과 편의시설

② 건강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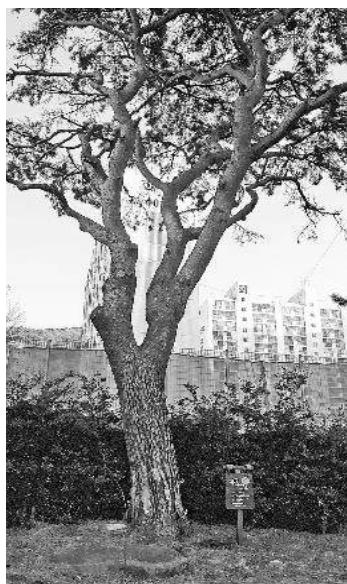
- ▷ 위치: 금곡동 57-2번지
- ▷ 접근: 금곡주공아파트 3단지와 연결
- ▷ 편의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2점, 운동기구 5점, 정자형 쉼터, 화장실



건강공원의 전경과 편의시설

③ 솔공원

- ▷ 위치: 금곡동 97-2번지
- ▷ 접근: 화목타운아파트와 연결
- ▷ 편의시설: 정자형 쉼터, 어린이 놀이시설 3점, 운동기구 11점
- ▷ 특이사항: 공원 내 ‘공창고당’ 이 있고 북구의 아름다운 나무(소나무)가 있음



솔공원의 전경과 편의시설

④ 공창공원

- ▷ 위치: 금곡동 92-1번지
- ▷ 접근: 금곡도서관과 인접
- ▷ 편의시설: 정자형 쉼터, 어린이 놀이시설 3점, 운동기구 8점, 화장실



공창공원의 전경과 편의시설

⑤ 우리공원

- ▷ 위치: 금곡동 98-2번지
- ▷ 접근: 금곡주공아파트 2단지 내
- ▷ 편의시설: 정자형 쉼터, 어린이 놀이시설 및 운동기구 다수



우리공원의 전경과 편의시설

⑥ 금곡공원

- ▷ 위치: 금곡동 100-1번지
- ▷ 접근: 청소년수련관 내
- ▷ 편의시설: 야외공연장, 정자형 쉼터, 어린이 놀이시설 다수



금곡공원의 전경과 편의시설

⑦ 행복공원

- ▷ 위치: 금곡동 810-2번지
- ▷ 접근: 금곡주공 8단지와 인접
- ▷ 편의시설: 쉼터, 어린이 놀이시설 6점, 운동기구 5점



행복공원의 전경과 편의시설

⑧ 미래공원

- ▷ 위치: 금곡동 811-2번지
- ▷ 접근: 금곡주공 7단지와 인접
- ▷ 편의시설: 정자형 쉼터, 테니스장, 음료수대, 운동기구 다수



미래공원의 전경과 편의시설

⑨ 사랑공원

- ▷ 위치: 금곡동 1107번지
- ▷ 접근: 금곡주공 4단지 및 9단지와 인접
- ▷ 편의시설: 정자형 쉼터 2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5점, 화장실



사랑공원의 전경과 편의시설

⑩ 열린공원

- ▷ 위치: 금곡동 1112-2번지
- ▷ 접근: 금곡주공아파트 5단지와 인접
- ▷ 편의시설: 정자형 쉼터, 어린이 놀이시설 5곳, 운동기구 5점



열린공원의 전경과 편의시설

⑪ 민주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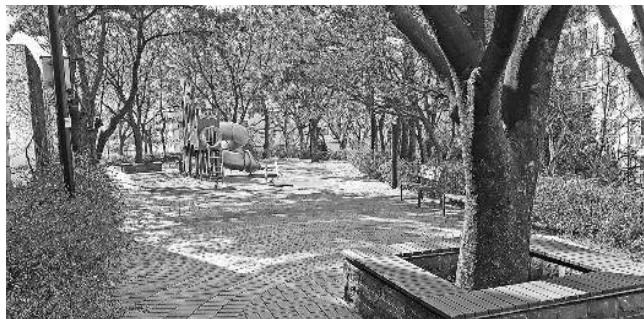
- ▷ 위치: 금곡동 1115번지
- ▷ 접근: 벽산블루밍 1단지 아파트와 인접
- ▷ 편의시설: 쉼터 2곳, 어린이 놀이시설, 운동기구 6점



민주공원의 전경과 편의시설

⑫ 울리공원

- ▷ 위치: 금곡동 1116-1번지
- ▷ 접근: 벽산블루밍 1단지 아파트와 인접
- ▷ 편의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5점



울라공원의 전경과 편의시설

⑯ 천사공원

- ▷ 위치: 금곡동 1884번지
- ▷ 접근: 율리마을주공아파트, 화명뜨란체아파트, 부산뇌병변복지관과 인접
- ▷ 편의시설: 정자형 쉼터, 어린이 놀이시설 3점, 운동기구 5점



천사공원의 전경과 편의시설

⑯ 대천공원

- ▷ 위치: 금곡동 1897번지
- ▷ 접근: 금명초등학교 및 대천천과 인접
- ▷ 편의시설: 쉼터 2곳, 어린이 놀이시설 3점, 운동기구 4점



대천공원의 전경과 편의시설

2) 동네체육시설

〈표2-36〉 금곡동 동네체육시설 현황(2021.6.30.현재)

연번	시설명	위치(지번)	시설내용	설치년도(소유별)
1	주공@ 1단지	금곡동 53-1	오금펴기 등 16종 28점	1996년(사유지)
2	주공@ 313동 위 상·중·하	금곡동 산79-2	지압보도(1면) 등 22종 41점	2000년(사유지)
3	주공@ 4단지 뒤	금곡동 산54	벤치여기 등 11종 13점	1999년(사유지)
4	금곡약수터	금곡동 산79-2	자전거타기 등 18동 34점	1999년(사유지)
5	주공@ 303동 앞	금곡동 101-1	양팔줄당기기 등 17종 23점	1999년(공유지)
6	금곡약수터 하부	금곡동 산79-2	하늘걷기 등 19종 26점	2004년(사유지)
7	대천천 체육시설	금곡동 1907	원형허리돌리기 등 15종 15점	2020년(공유지)

자료: 북구 문화체육과 내부자료



대천천과 대천천 체육시설 안내문



대천천 체육시설 운동기구

제3장

금곡동의 문화

제3장 금곡동의 문화

제1절 문화유산

1. 금곡동 문화관광지도
2. 유형문화유산
 - 1) 건축물
 - (1) 금곡동 율리바위그늘유적 (2) 금정산성 서문과 아문 (3) 동원(東院)
 - (4) 동원진 수참 (5) 주막(공창, 화정) (6) 공창마을의 장승과 솟대
 - 2) 비석과 알터바위
 - (1) 행군수순후상일 훌민성정비 (2) 효자 천승호와 열녀 이씨 정려비
 - (3) 행군수이후계필 청덕훌민비 (4) 원효정사 금호당 대선사 부도탑비
 - (5) 진흥사 대산당 선사 승탑 및 공덕비 (6) 율리 알터바위유적
 - 3) 문서
 - (1) 천씨효열문집(千氏孝烈文集)
 - (2) 금곡동 화정부락 장부
3. 무형문화유산
 - 1) 구비전승
 - (1) 금곡동 안등골에 나타나는 귀신
 - (2) 등대 역할을 한 동원나루 당산나무
 - (3) 효자 천승호와 열녀 이씨 효열이야기
 - (4) 산성으로 가는 모래재
 - 2) 세시풍속과 전승놀이
 - (1) 세시풍속 (2) 전승놀이
 - 3) 민간신앙(당산제)
 - (1) 공창 고당 당산 (2) 율리 당산 (3) 화정 산제당 (4) 동원 당산

제2절 문화생활

1. 문화관련 기관
 - 1) 금곡청소년수련관 2) 금곡도서관 3) 금곡 꽃박물관
2. 문화관련 단체
 - 1) 금곡 향토회 2) 유타리풍물단
3. 문화행사
 - 1) 금곡동 느티나무축제
 - 2) 경로잔치
4. 관광명소와 먹거리
 - 1) 낙동강 전망대 2) 금곡 공창 누룩 3) 질좋은 황금 쌀
 - 4) 낙동강 장어(금곡동 동원 장어마을) 5) 산딸기와 도토리묵
5. 금곡문학
 - 1) 서적소개
 - (1)『공창마을』 (2)『이만하면 잘 살았다 아이가』
6. 금곡동 경계석과 교통 경계 안내물

제1절 문화유산

1. 금곡동 문화관광지도



2. 유형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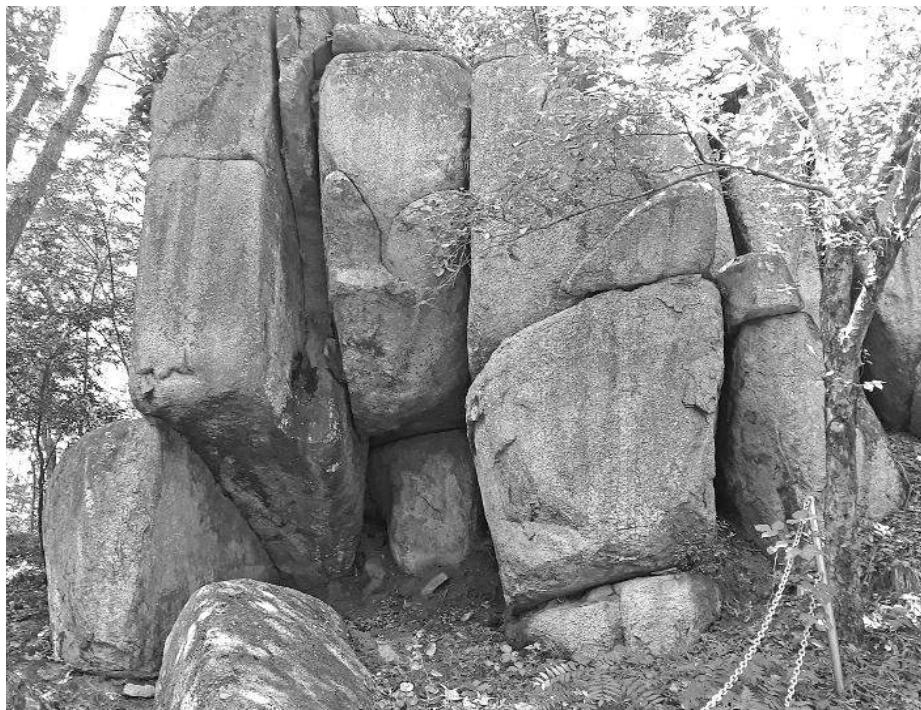
1) 건축물

(1) 금곡동 율리 바위그늘 유적

① 지리적 위치

금곡동 율리 바위그늘 유적은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산 24번지에 위치한 신석기시대 소규모 조개더미 바위그늘(岩蔭) 주거 유적으로 부산 금정산과 김해 신어산 사이로 흐르는 낙동강 하류지역의 금정산 서쪽 능선 중턱에 위치한다.

지형은 낙동강 삼각주가 끝나는 북쪽으로 해발 약 34m 높이와 낙동강과 거리는 900m이며, 동북쪽으로 양산 물금과 김해 대동사이의 해발 700~900m 높은 산악지대가 이어지는 협곡을 통하여 밀양, 창녕, 청도로 연결되며, 남서쪽으로 낙동강 삼각주와 가덕도 및 남해안에 이르고 있다.



금곡동 율리 바위그늘 유적

주변 유적으로 김해 예안리고분군과 농소리유적, 부산 북정패총, 죽림유적, 수가리패총, 범방패총, 양산 황산언 등 있으며, 수로와 육로를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다.

기후상으로는 동해와 서해안이 겹치는 영향으로 온대계절풍 기후대와 해안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해양성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② 자연환경의 변동

신석기시대는 흥적세의 빙하기가 끝나는 약 12,000년 전의 해수면보다 최고도가 60~90m 정도 낮아졌는데, 홀로세(Holocene) 이후, 충적세가 되면서 기후가 급격히 온난화되면서 해수면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대략 6,000년 전 부터는 현재와 같은 높이까지 해수면이 형성되었다. 자연환경 변화는 조사지점과 연구자의 해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낙동강 삼각주와 남해안 지역의 패총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수가리패총의 중기 단계에는 다뜻한 해수에 사는 산호와 현 해수층보다 아래에서 마모된 조개껍질이 발굴되었고, 후기 단계는 해수면이 해발 7.4m에 이르고 있다.

둘째, 범방패총 대상집석 시설은 해안선 변동을 알려주는 유구이며, 동삼동패총에서 는 기후 온난화를 알려주는 말전복 및 유적 층위내에 자갈층이 쌓여있는 등 해안선 변동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해수면의 하강으로 일본 규수지역까지 신석기인들이 왕래하였던 흔적으로는 남해안지역의 신석기 집단과 일본의 규수지역 집단과의 흑요석 교환 등이 있었다. 이는 거점집단 중심인 동삼동유적, 범방유적, 욕지도유적, 연대도유적이 주변 여러집단과 유통한 것으로 중간지대인 대마도에서 즐문토기가 나타나기도 한다.

신석기 후기 4,000년의 해수면이 평균 2.6m로 나타나며, 이후 기후의 냉량화로 식물자원이 축소되면서 내만성 어로 발달과 대규모 조개더미가 발굴된다. 그리고 다시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신석기시대에서 삼한시대까지 해수면이 상승한 것으로 보여진다.

③ 주거환경과 이동

빙하기 이후 해수면은 상승과 하강을 지속하면서 현재에 이르는 동안 낙동강 삼각주는 배후의 내륙지역까지 해양생태계를 확장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하여 남해안지역과 낙동강 삼각주에는 신석기의 이른시기부터 늦은시기까지의 거점지역이 발생하면서 거점지역인 동삼동유적, 범방유적 등을 중심으로 생활하였다.



신석기시대 해수상승면 경계

낙동강 삼각주의 거점유적과 패총은 낙동강 삼각주가 끝나는 하구와 남해안으로 이어지는 금병산 말단 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이 곳은 신석기 초기의 덧무늬토기, 전기의 영선식토기, 중기의 태선문토기, 후기의 퇴화 침선문토기, 말기의 이중구연토기 등 신석기 전 시기에 걸친 토기와 석기로는 뗀석기, 간석기의 돌도끼, 석착, 지석 그리고 흑요석제 격지, 결합식 낚시, 갈돌과 갈판, 그물추, 집석노지, 위석노지, 대형 집석시설, 구상유구, 방형 적석시설, 인골, 장신구, 골각기 등이 출토되었다.

거점지역인 범방유적과 패총을 중심으로 문화와 생활을 위하여 이동한 시기별로는 낙동강 삼각주의 북동쪽으로 신석기 전기와 말기까지 이어지는 소규모의 유적인 북정 패총이 6km 지점, 죽림유적은 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신석기 중기에서 말기까지의 수가리패총은 거점지역에서 1km 지점인 금병산 북쪽 끝자락의 낙동강 지류인 조만강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신석기 중기의 수가리 I 기에는 즐문토기, 붉은 간토기, 무늬없는토기, 태선침선문와 사슴뼈 지르개, 토제품, 현 해수층보다 아래에서 마모된 조가비의 발견과 산호의 발굴이, 수가리 II기인 신석기 후기에는 사격자문, 거치문, 갈판, 갈돌, 조가비 팔지와 고래, 사슴, 너구리, 맷돼지 등 육지 동물과 조개류 40여 종이 그리고 수가리 III기의 말기에는 이중구연토기, 그물추,

가락바퀴, 석착, 조류의 뼈등이 출토되었는데 당시의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신석기 말기에 해당되는 율리 바위그늘 유적은 거점지역에서 16km 지점에 농소리폐총은 8km 지점, 김해 예안리고분군의 신석기 말기 유적은 12km 지점의 낙동강 삼각주의 북쪽 끝부분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유적들간의 이동수단으로 통나무배를 이용하여 정주하거나 이동을 계속하면서 자연의 변화에 따른 식재원확보와 의례공간으로 임시주거지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중구연토기 및 퇴화된 단사선문 등의 출토는 낙동강 삼각주 지역의 유적간 문화의 전이와 계승관계를 추정 할 수 있겠다.

④ 율리 바위그늘유적의 환경

낙동강 삼각주 범위내에서 거점지역과 가장 멀리 떨어진 금곡동 율리 바위그늘유적은 신석기 후기 · 말기의 해수면 상승과 하강으로 이어지는 단계인 3,600년 전 금정산 서쪽 능선 중턱에 위치한 소규모의 바위그늘주거유적으로 당시의 환경을 살펴보면,

첫째, 김해평야를 형성하고 있는 낙동강 삼각주는 육상 면적이 약 173km²이며, 해발고도가 약 5m를 넘지 않는 우리나라 대표적 삼각주이다. 낙동강 삼각주 일원에는 선사시대의 패총과 고분군 등이 집중되어 있는데, 율리 바위그늘유적은 낙동강 하류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곳에 위치한다.

둘째, 해수면 상승과 하강이 계속되는 단계인 신석기 말기에는 김해평야의 낙동강 삼각주에 넓게 형성되었던 해수가 해안에서 낙동강쪽으로 거슬러 밀려들면서 부산 북구 금정산과 김해 대동면 신어산 줄기가 끝나는 지점의 지대가 시작되는 곳에서 낙동강 폭이 좁아지게된다. 그리고 양산 물금부터 삼랑진까지는 700~900m의 높은 협곡을 거치면서 밀양, 청도, 창녕 비봉리유적으로 이어진다. 또한 만조기가 되면 상류의 낙동강물은 하류로 내려가기 위하여 해수와 교차하면서 해수면이 최고치로 상승하게되어 율리 바위그늘유적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낙동강 삼각주에 위치한 다른 유적들 평균 해수면 보다 한층 높게 나타날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이렇게 높아진 해수는 좁아진 낙동강폭 주위로 불어나면서 해발 약 9m정도이며, 현 금곡동 율리 당산나무 있는 이곳까지 해수가 상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율리 바위그늘유적과 해수면이 접하는 부분까지의 거리는 약 300m 이내 거리이다. 그리고 율리 바위그늘유적 거주인들이 이곳 금정산지역에 병풍처럼 형성된 암벽과 거주가 가능한 작은 동굴들이 많은 산재하고 있는데 율리지역의 바위그늘유적을 선택한 이

유는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중 해수면과 가까우면서 특수한 목적의 3~4명 한 가족정도가 주거할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하여 거점 또는 정주지역을 떠나 이동을 하면서 이곳을 임시주거지로 활용하면서 굴과 조개 등 패각류를 채집하여 식량확보를 하였다. 그 이외 특별한 의례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낙동강 삼각주 북쪽지역 주변의 농소리패총과 김해 예안리고분군 신석기유적과 문화계승관계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⑤ 율리 바위그늘유적의 유구와 유물

ⓐ 바위그늘 주거지(岩蔭 住居址)

율리 바위그늘유적은 부산광역시 북구 금정산 서쪽 능선 중턱에서 서남쪽으로 낙동강 하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위그늘주거(Rock Shelter Dwelling) 유적으로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유일한 주거와 패총이 복합된 형식이다. 바위그늘은 후면의 능선을 등지고 병풍처럼 둘러쳐진 높이 4~6m, 길이 20여m의 길다란 암벽 입구에 형성된 암굴로 큰 바위가 여러개 겹쳐 형성된 암벽 밑바닥에 공간이 생겨 조그만한 바위그늘을 만들었기 때문에 굴(窟)이라기보다는 바위그늘이라고 해야 적당할 것이다.

바위그늘 내부의 규모는 입구 높이가 190cm, 안쪽의 높이 280cm이며, 전면의 너비는 270cm, 안쪽의 너비는 255cm이고 안쪽까지의 깊이는 평균 230cm정도이다. 서남쪽 벽이 동북쪽 벽보다 약 70cm정도 더 길게 나와 있으며 입구에는 서남쪽으로 약간 치우쳐 큰 바위가 놓여 있었다. 바위그늘 주위는 바위와 흙으로 완전히 막혀 있는데다 방향이 정동남향이므로 햇볕을 잘 받아 주거지로는 아주 적당한 위치이다. 바위그늘의 규모가 작아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므로 바위그늘 외부의 전면이나 측면도 생활공간으로 이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 화덕자리(爐址)

바위그늘 주거지(住居址) 내부에서 3개의 화덕자리 모두 주거지 내부 중간 층위와 아래 층위에서 발견되어 축조된 시기가 다름을 알 수 있다.



화덕자리 1



화덕자리 2



화덕자리 3

첫째, 화덕자리는 황색토층 아래로, 3개 화덕자리중 제일 윗층위에 있다. 바위그늘 뒤 쪽 암벽을 한쪽 벽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3면에 세개의 돌을 세워 장방형으로 만들고 내부 바닥에는 납작한 돌을 가로 75cm, 세로 55cm, 깊이 20cm로 깔았다.

둘째, 화덕자리는 바위그늘 내부의 최하층인 흑갈색부식토층 바닥 중앙에 위치한다. 3개의 화덕자리중 형태가 가장 완전한 원형 화덕자리로써 땅을 20cm 깊이로 파고 바닥 중앙과 서남쪽 측벽 일부에 돌을 직경 90cm로 깔고 내부에는 부드러운 흑색재가 가득차 있었다.

셋째, 화덕자리는 첫째 화덕자리 아래쪽에서 흑갈색부식토층에 축조된 것이다. 3개의 화덕자리중 가장 형태가 불완전하며 암굴의 내벽쪽에 치우쳐 폭 50cm정도, 깊이 20cm정도로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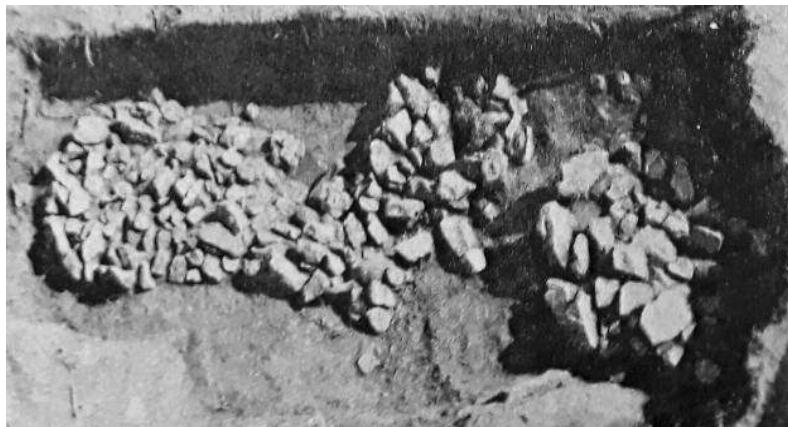
④ 적석유구(積石遺構)

바위그늘 전면의 동북쪽내에 있는 암벽과 나란히 남북으로 길게 배열되어 있었으며, 적석의 배치는 규모가 각각 다른 4개의 원형그룹을 3.5m×1.5m 범위안에 서로 엇갈리게 설치하였다. 제일 남쪽에있는 1개만 독립되어 있고, 나머지 3개는 서로 연결된 상태이다. 모두 현 지표아래 40~80cm에서 평평한 상태로 발견되고 있는데 원래 경사된 지면을 평면으로 정지하여 그 위에 적석을 축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적석의 축조는 바닥에 10~20cm정도의 부식토를 깔고 그 위에 납작한 판석편을 1~3단 깐 후 다시 둥근 돌을 2~3단 정도 더 쌓아 3~6단으로 만들었다. 적석의 평면은 부정형한 원형 혹은 타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적석 하부에 토광과 같은 다른 시설은 없었다.

적석의 규모는 긴축 120cm~70cm, 높이 40cm~15cm이며, 유구의 성격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숫돌과 함께 토기편이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적석이 여러단 겹쳐서 쌓여진 점 등으로 보아 당시 이곳 사람들의 매장시설의 일종으로 추측되며, 묘제(墓制)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하겠다.



율리 바위그늘유적 적석유구

④ 율리 바위그늘유적의 유물

율리 바위그늘유적은 소규모 유적이기 때문에 출토유물의 양도 적고 그 종류도 단순하다. 출토된 유물들은 즐문토기편 2,000여점, 단도마연토기편 2점, 석기 12점, 토제품 3점, 석제장신구 1점, 회색연질토기 1개체분, 적색연질토기 5편 뿐이며 골각기제품과 조개제품은 1점도 없다.

이러한 유물 중 회색연질토기와 적색연질토기는 삼국시대의 제품으로 이를 제외하고는 토기편에 색, 태토, 기형 등이 같은 동질의 토기편들로 상하층 혼합되어 출토되었다. 그러므로 이 유적은 상하층 시대차가 거의 없는 동일시기의 유적들이며, 신석기인들의 생활기간도 짧은 신석기 말기의 유적으로 보여진다.

ㄱ) 즐문토기(櫛文土器)

○ 태토 및 성형법

바위그늘유적에서 출토된 2,000여점의 토기편을 색, 태토, 경도 등에 의해 구분해 본 결과 15종류로 나뉘지며 각 종류별 토기의 양은 차이가 많지만 1~3개체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래 전체 토기량은 불과 10개체분 정도 뿐이었음을 알 수 있다.

▷ 태토 : 남해안지방 즐문토기 태토에는 점토질계와 사질토계의 두 종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점토질계가 주류이며 또한 순사질토 태토의 토기는 거의 대부분이 즐문토기 문화 후기에서 말기의 문화층이나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율리 바위그늘유적 출토 토기의 경우도 예외없이 같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토기의 색깔은 태토나 화력의 온도에 따라 적갈색, 회갈색, 황갈색, 회색, 회흑색, 갈색 등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 중 적갈색, 회갈색, 황갈색이 가장 많다.

▷ 성형 : 그릇의 두께는 저부쪽으로 가면서 약간씩 두터워지나 대개 0.6~0.8cm가 가장 많고, 0.5cm이하의 얇은 것과 1cm 이상의 두터운 것은 극히 적다. 전체적으로 토기벽이 비교적 고른편이며 토기의 표면은 태토에 이물질이 많아 혼합된 것은 거칠고 적게 혼합된 것은 곱다. 토기편의 파손된 상태와 큰 토기편에 횡선상으로 나타나 있는 흙띠의 부착흔적으로 보아 토기의 성형은 모두가 테쌓기(輪積法)이나 서리기(捲上法)을 이용한것 같다. 토기의 성형방식은 테쌓기, 서리기, 손빚기(手捺法) 등이 있으며, 쌓는 방향에 따라 바닥부터 쌓아 올린 정치성형(定置成形), 구연부로부터 거꾸로 쌓아 성형하는 도치성형(倒置成形)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일부 토기편의 단면에 나타나 있는 흙띠의 접합상태를 보면 얇고 납작한 띠가 위쪽은 안쪽위에서 바깥아래로, 아래쪽은 바깥위에서 안쪽아래로 심하게 경사를 이루며 접합되어 띠와 접합 면적이 아주 넓다. 또한 토기의 내외면에는 솔 혹은 손으로 정면한 자국은 기표면이나 구연 내외면에 고운 횡선상으로 남아 있고, 패각으로 긁어낸 자국은 주로 토기내면에만 남아 있는데 선이 긁고 선명하다.

이러한 상황들로 보아 점토띠로 토기를 성형한 후 내외 표면에 고운 흙을 바르거나 패각같은 정면구로 긁어내어 토기면을 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문양과 천공

총 2,000여점의 토기편중 문양이 있는 토기편은 60점이며, 토기편중 이중구연토기에 시문된 문양은 불과 9점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직립구연토기에 시문된 문양인 것으로 보아 문양은 직립구연토기에 주로 시문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문양의 종류는 사선문, 점열문, 어골문, 격자문, 파상선문 등으로 단순하다. 전형적인 즐문토기 문양은 아주 적고 시문수법 또한 조잡하다. 특히 태선문계의 전형적인 남해안식은 단 1점 뿐이다. 문양은 구연부 주위에만 시문하였고 문양 배치도 거의가 단일문양이며 복합적인 경우는 점열 혹은 단사선문을 1~2줄 더 시문한 것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문양없는 토기편이라해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태토가 일반적인 즐문토기의

것과 동일하므로 율리 바위그늘유적 출토 토기의 주류는 즐문토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문양

직립구연토기문양으로 단사선문, 단선열문, 점열문, 사선문, 어꼴문, 거치문, 격자문, 파상선문, 집선삼각문 등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이중구연토기 문양으로 단사선문, 거치문이 출토되었다.

▷ 천공수법

토기 표면에 나타난 인공적인 요소에는 문양 외에 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즐문토기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다. 구멍의 외부 직경은 1~1.5cm, 내부 직경은 1~0.5cm 정도인데 완전 원형은 없고 모두 불정형타원형이다. 구멍을 뚫는 방법은 외부에서 7~9부 정도, 내부에서 3~1부 정도 뚫는 것이 대부분이나 간혹 내외부 각각 5부 정도 뚫은 것도 있다.

큰 토기편은 구멍이 대개 2개가 쌍으로 뚫린 것은 2~3cm 정도이고 모두 수평으로 나란히 뚫었으며, 4.5cm 간격으로 뚫린 것도 1점 있는데 이것은 비스듬하게 배열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구멍이 단순히 장식을 목적으로 뚫은 것이 아니고, 다른 특수한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뚫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 기형(器形)

총 2,000여점의 토기편중 구연부편이 200점, 저부와 그 부근 토기편이 32점이고 나머지는 모두 동체부편이다.

▷ 구연부(口緣部): 직립구연이 114점, 이중구연이 86점으로 직립구연이 많으나 토기편이 주로 작은 것인데 비해 이중구연토기편은 대형토기편이 많다.

▷ 직립구연 형태: 구연 선단부의 모양에 의해 10여종으로 구분되나, 충위별 차이가 전혀 발견되지 않으므로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

▷ 이중구연 형태: 아주 다양하여 토기마다 구연부의 모양이 다른 것 같고, 충위별 구분도 없다. 이중구연은 주둥이에 곱씹운 띠의 형태에 따라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아주 두텁게 곱씹워져 턱이 크게진 것이 대부분이고, 곱씹운 띠가 얕게 부착되어 동체부의 접합부분에 턱이 지지않고 흔적만 남아있는 것이 약간 있다. 곱씹운 띠도 넓이 1cm 미만의 좁은 것, 2cm 내외의 중간 것, 2.5cm내외의 넓은 것 등 3종이 있는데, 그 폭도 일정하지 않고 넓은 것이 양이 많다. 그리고 구연 선단이 외경한 것이 대부분이나, 직립한 것, 약간 외경·내경한 것 등이 있다.

▷ 저부(底部): 뾰족한 바닥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10점, 둥근 바닥부분 20점, 평평



단사선문



단선열문



점열문



사선문



어골문



거치문



격자문



파상선문



격자 및 점열문



단사선문



거치문



V형반난형



이중구연토기



직립구연토기

한 바닥부분 2점 순이며 토기를 만들 때 바닥부분을 별도로 만들어 동체부와 연결 시켰으므로 바닥부분 조각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많다.

폭이 좁은 뾰족한 바닥부분은 동체부와 연결흔적이 전혀 없고 토기 표면이 매끈하게 처리되어 있으나 등근 바닥부분은 납작하여 폭이 넓기 때문에 동체부와의 연결부분이 단이 지던지 동심원 같은 횡선자국이 많이 남아 두렸이 구분되고 있다. 그리고 2점의 등근 바닥부분에는 바닥부분 주변에 나뭇잎을 누른 자국이 남아 있다. 평평한 바닥부분은 무문토기의 바닥부분과 같이 저구형(豬口形)으로 목이 잘록해진 것인데 형태가 남은 1점이 있다.

▷ 전체기형: 구연부나 바닥부분의 형태와 부분적으로 복원된 토기들을 살펴보면, 윤리 바위그늘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의 형태는 직립구연이나 이중구연토기 모두 뾰족한 바닥부분과 등근 바닥부분에 위로 벌어진 반난형의 옹形토기가 주류이며 구경에 비해 토기의 높이가 낮아 납작한 발형토기와 동체부가 호형을 이루고 목이 별도로 만들어진 호형토기도 소량 출토되었다. 이와 같은 기형의 출토상태는 남부지방의 동일시기 유적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 옹형(甕形) · 발형(鉢形) · 호형(壺形): 이곳에서 출토되는 토기는 평저, 첨저, 원저가 있다. 문양 없는 토기와 이중구연토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토기형태상 전형적인 빗살무늬토기의 전통을 강하게 계승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ㄴ) 단도마연토기(丹塗磨研土器)

바위그늘유적의 암굴 외부와 제일 아래층 바닥에서 각각 1점씩 2점이 출토되었다. 태토는 석영과 장석립이 혼입된 점토이며 토기벽의 두께는 0.7cm로 즐문토기의 것과 비슷하다. 직립구연이며 구연 선단(先端)이 동체부보다 얇아 뾰족한 느낌을 주고 토기편이 작아 전체 토기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즐문토기 형태와 같은 반난형의 옹形토기일 것으로 추측된다. 토기 내외 전면에 붉은단(丹)을 두텁게 발라 마연하고, 구연 주위에 조밀한 단사선문을 여러줄 시문하였다. 이 중 1점에는 단사선문이 끝난 바로 아래쪽에 3cm 간격의 작은 원형구멍 2개가 나란히 뚫려 있는 흔적이 남아 있다.

ㄷ) 토제품(土製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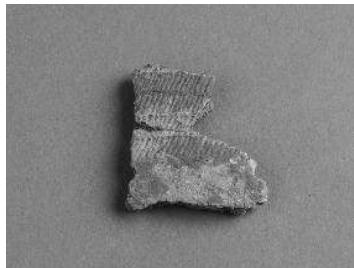
○ 자안쾌형(子安貝形) 토제품

율리 바위그늘 유적은 암굴내외 2층에서 출토된 적갈색으로 태토는 즐문토기와 같은 긴돌알맹이가 혼입된 점토이고 경도는 매우 단단한 토제품이다. 형태는 씨를 빼낸 약간 길죽한 복숭아 열매 모양의 껌질속에 단면 타원형의 납작한 점토대로 만든 P형의 큼직한 고리를 밖으로 튀어나오게 부착한 것으로 외형상 확실히 여성의 성기를 모방한 특이한 형태이다. 내부에 부착된 고리에 끈을 펼수 있는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펜단트처럼 매달고 다닌 특수한 목적의 장신구인 것으로 추정된다. 껌질의 외면은 곱지 않으며 손가락으로 누른 자국과 성형시의 점토띠 접합자국이 횡선상으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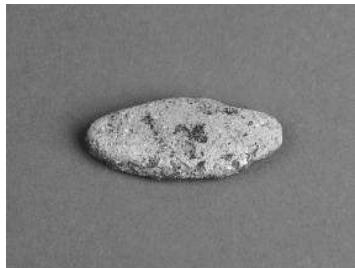
○ 타원형 토제품

모두 파손된 토기편의 측면을 갈아 만든 타원형에 가까운 납작한 토제품 2점으로 하나는 암굴내 2층에서, 다른 하나는 암굴내 4층에서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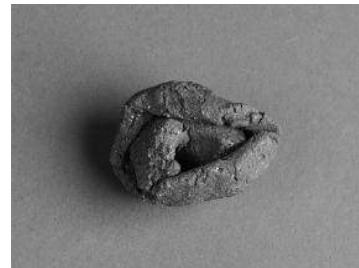
첫번째 것은 장석 등 세석립이 혼입된 자갈색의 단단한면이 고운 토기편으로 만든 것으로 형태는 양단면이 말각형태로된 타원형인데 한쪽이 약간 넓다. 두번째 것은 장석 등의 비교적 굵은 석립이 다량 혼입된 회갈색의 무른 토기편으로 만든 것인데 양쪽이 뾰족한 렌즈형의 타원형이다.



단도마연토기편



타원형 토제품



자안파형 토제품

근) 석기와 석제품

○ 마제석부(磨製石斧)

바위그늘유적 암굴내 최하위 4층의 흑갈색부식토층에서 출토되었고, 화강암재질로 자루부분은 좁고 칼날부분쪽으로 가면서 굽어진 단면 타원형의 석부이나 칼날부분은 완전히 결실되고 자루부분만 남아 있으며 전면을 곱게 마연(磨研) 하였다.

○ 석기(石器)

첫째 석기: 암굴 외부의 3층에서 출토된 사암제 석기로 3면이 결실되고 한쪽만 남아 있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둘째 석기: 암굴 내부의 2층에서 출토된 이암제 타제석기로 편면석에서 떼어낸 납작한 박편의 측면을 타정(打整)하고 한쪽에 날을 만든 것으로 스크랩으로 볼 수 있겠다.

셋째 석기: 암굴내 최하층인 흑갈색부식토층에서 출토된 이암제 석기로 횡단면이 삼각형인 소형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 환상석부(環狀石斧)

바위그늘유적 암굴 외부의 2층에서 출토된 세립사암제 석기로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현재는 형태가 부채꼴을 이루고 있다. 남아있는 둘레가는 타원형이며 둘레가 전면에 양날은 날이 세워져 있고 중앙부 양쪽에서 뚫은 조그만한 구멍이 1개 있었던 것 같으나 파손되고 흔적만 남아 있다. 납작하고 면이 고운 판석으로 만들었는데 양표면을 약간만 마연하여 원래의 굴곡면이 남아 있다. 칼날부분은 사용으로 끝이 많이 마멸되었고 원형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삼각형석도나 반월형석도는 아닌 것 같으며 환상석부의 파편일 것으로 추정된다.

○ 장방형석기(長方形石器)

바위그늘유적 암굴내 최하층에 위치한 제 3노지 밑에서 출토된 세립사암제 석기로 단면이 말각장방형으로 납작하고 외형은 반월형에 가까운 형태이나 실제 반월형 석도는 아니다. 양표면과 둘레가 측면을 모두 연마하였지만 날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며,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 마제석촉(磨製石鏃)

바위그늘유적 암굴 외부의 2층에서 판석 위에 놓여진 상태로 출토된 회색의 점판암으로 만든 유경촉(有莖鏃)이다. 화살촉의 단면은 마름모형이고 뿌리부분은 납작하고 짧으며 끝이 직선으로 잘렸다. 화살촉과 뿌리부분의 경계는 직각으로 구분되어있고, 화살촉 하단에는 뿌리부분을 납작하게 할 때 마름모형의 일부가 함께 마연되어 삼각형의 평면을 이루고 있다.

○ 마제석착(磨製石鑿)



마제석부



마제석기



타제석기



환상석부



지석



장방형석기

바위그늘유적 암굴내 최하층 흑갈색부식토층에서 출토된 단면 사다리꼴의 가늘고 긴 소형 석착으로 자루 부분이 일부 결실되었다. 날은 한쪽에만 만들어 췌고 날 반대 쪽은 곡면으로 마연되어 끝이 들리게하였다.

○ 지석(砥石)

지석은 3점이 출토되었는데, 첫째 지석은 적석유구 옆에서 발견된 것으로 사암제의 좁고 긴 석봉형 숫돌인데 양면은 많이 사용하여 납작해졌고 측면 한쪽은 곱게 손질되어 곡면을 이루고 있으나 다른 한쪽은 깨드러진 그대로이다. 둘째 지석은 암굴내 2층에서 출토된 입자가 굵은 조립사암의 장방형 자연석으로 한쪽 면을 숫돌로 사용하였는데 일부가 파손되었다. 마연면은 수평면이며, 물체를 횡방향으로 간 것 같다. 셋째 지석은 암굴 외부의 1층에서 출토된 사암제의 단면 방형에 가까운 작은 숫돌 파편이다.

○ 활석제 타원형장신구(滑石製 楕圓形裝身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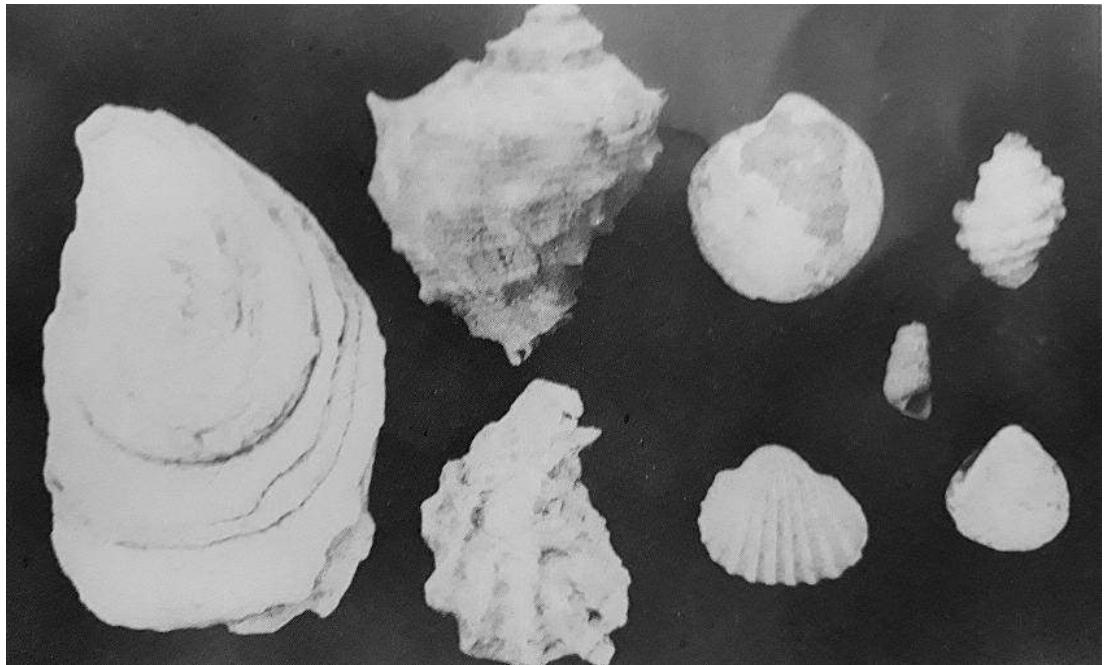
바위그늘유적 암굴 외부 2층에서 출토된 활석제 장신구 일종으로 한쪽은 결실되고 절반만 남아있어 완전한 형태는 알 수 없다. 전체 외형은 양쪽이 약간 잘린 타원형에 가까우며 단면도 타원형이나 밑쪽은 곡산(曲巒)이 완만하여 약간 평평한 맛을 낸다. 표면 중앙부에 U형의 깊은 홈을 긴축방향으로 팠으며, 홈 양쪽 끝을 다시 잘록하게 도려내었고 그 안쪽에 1개씩의 작은 구멍을 뚫었던 것 같으나 확실히 알 수 없고 구멍에 실을

꿰어서 매단 펜단트형의 장신구 일종으로 생각된다.

□) 자연유물

율리 바위그늘유적의 출토된 유물중에 자연유물은 먹고버린 조개껍질 뿐이며 기타 동물뼈나 물고기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곳의 입지적인 조건으로 보아 동물사냥이나 물고기잡이가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출토된 패류는 재첩, 꼬막, 가무락조개, 두드럭고등, 동다리, 투박조개, 피뿔고등, 굴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굴이 대부분이며 나머지 패류는 극히 소량이며, 대부분이 암석이나 모래속에 서식하는 바다조개이나 재첩만은 민물과 바닷물이 합치는 지역인 강하류의 모래속에서 생존하는 조개이다. 율리 바위그늘유적과 같이 낙동강 하류지역에 위치한 여러패총에서 재첩껍질이 출토되는 이유는 지역적인 조건과, 주변 유적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자연유물

⑥ 신석기인의 생활과 도구

ⓐ 주거지 형태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이동하던 구석기시대 사람들과 달리 해안가나 강가에서 정착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거주할 주거 공간이 필요하였다. 주로 자연 동굴이나 해안에서 생활하던 구석기인과 다르게 신석기인은 생업 활동과 환경에 적합한 형태의 주거시설을 조성하여 생활하였다. 주거형태는 대부분 움집(豎穴) 주거이지만 지역과 시기에 따라서 자연 동굴이나 바위그늘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움집은 50~100cm 정도의 깊이로 구덩이를 파고 기둥을 세운 다음 그 위에 이엉이나 갈대 등으로 지붕을 이어 만들었으며 형태는 원형, 방형, 장방형으로 구분된다.

자연 동굴과 바위그늘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을 주거 공간으로 이용한 형태로 금곡동 율리 유적, 청도 오진리 유적, 제주 북촌리 유적 등이 있다.

ⓑ 바위그늘(岩蔭) 주거지

바위그늘은 자연적으로 절벽에 그늘이 드리워진 것, 석회암지대에 충리면이나 절벽의 갈라진 틈에 지하수가 침투하여 용해되거나, 절벽이 붕괴되거나, 풍화작용에 의해 오목하게 형성되는 것, 하천이나 바다의 절벽에 파식작용에 의하여 조그만 바위그늘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자연적으로 암벽이 붕괴하여 형성된 것과 파식에 의한 바위그늘이 대부분이다.

바위그늘유적은 자연에 존재하는 바위그늘을 이용하여 신석기시대인들이 암음주거(Rock Shelter Dwelling) 또는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한 유적으로 구석기시대의 동굴유적, 하안(河岸) 유적이 사용되어 왔으며 넓게는 동굴유적에 포함되어 사용되었다.

유적은 대부분 햇빛이 잘 들어오고 북풍을 막을 수 있는 남쪽으로 틔여있으며, 유물은 거의 그늘내부와 그늘의 트인 앞에 넓게 형성되었다. 천장의 낙반과 유수의 유입으로 인한 퇴적토층이 문화층과 층서적(層序的)으로 양호하게 쌓여있고, 석회암지대의 바위그늘 유적은 석회수에 의한 효과로 유물의 화석화가 이루어져 사용시기의 선후관계와 당시의 기후·식생·주거로 이용하였던 계절, 그들이 취했던 동식물 등을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표 3-1〉 바위그늘 주거 유적의 비교

유적			
	금곡동 울리	청도 오진리	제주 복촌리
위치	금정산 서쪽 중턱, 해발 34m	운문천 인접, 해발 150m	고두기 언덕 들판, 해발 20m
생성	지연암반이 병풍처럼 형성	바위산 좌하단부분 풍화작용	용암동굴 천정부 함몰
입구	정동남향	정남향	정남향
규모	높이 4~6m, 길이 20m 입구 높이 190cm, 깊이 평균230cm, 너비 270cm	높이 2.5m, 너비 15.5m 깊이 평균 3.5m, 바위지붕까지 높이 5m	높이 2m, 너비 3m 길이 11m
해안/ 강거리	낙동강 900m	운문천 인접	해안 600m
시기/ 주거	신석기 말기 ~ 삼국시대 (소규모 임시주거)	신석기 전 기간~삼국시대 (소규모 임시주거)	신석기 말기 ~ 삼국시대 (소규모 임시주거)
유물	이중구연토기, 단도마연토기, 자안패형 토제품, 환상석부, 마제석촉, 마제석착 등	원시적토기, 융기문, 압인문, 침선문토기, 이중구연토기, 조개팔찌, 삼각구연무문토기 등	이중구연토기, 공렬, 골아가리 토기, 경질토기, 골각기, 패각 류 등
특징	한반도 최초로 발견된 산 중턱 의 바위그늘주거 형식과 신석 기 말기를 지표하는 이중구연 토기 및 청동기 이전 과도기를 나타내는 복합된 문화양상	신석기시대 거의 전시기에 존재했던 유적으로 내륙지역에 위치하면서도 남해안지방과 같 은 문화적 성격의 과정을 전개	남해안지역 신석기 말기의 늦 은 단계 나타나는 퇴화된 격자 문과 덧댄부분에 띄엄띄엄 자 돌문무늬의 이중구연토기 및 탐라시대 토기

④ 금곡동 율리 바위그늘 주거유적이란

율리 바위그늘유적이 있는 금정산 주위에는 병풍처럼 형성된 암벽과 작은 암굴들이 다수가 존재하는데, 당시 율리 바위그늘유적인들은 왜 이곳을 주거지로 선택하였을까?

첫째, 낙동강가와 인접한 지역으로 낙동강 삼각주 북쪽에 위치하여 낙동강 하구의 거점지역 또는 정주지역과 이동이 자유로운 한 범주에 포함되는 지역중에 한 곳일 것이다.

둘째, 현재 율리 당산나무가 있는 지역까지는 해수와 낙동강물이 교차하면서 만조기에는 율리 바위그늘유적과의 300m거리로 패각류가 풍부하여 식량자원 채집과 확보가 용이하였다 것이다.

셋째, 율리 바위그늘 주거유적은 주거와 패총이 복합된 형식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바위그늘의 규모는 주거로 13 m^2 정도이며, 당시 신석기인 1인 사용면적 3 m^2 로 볼 때 규모가 작아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기는 어렵고 3~4명의 한 가족 정도가 바위그늘 외부의 전면이나 측면도 생활공간으로 이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넷째, 신석기인들의 신장은 가덕도 장항유적에서 출토된 인골의 평균 신장으로 남성 157cm, 여성 146cm이며, 율리유적과 가장 인접한 청동기시기의 김해 예안리고분군의 인골 평균 추정치는 남성 164.7cm, 여성 150.8cm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율리 바위그늘유적인들의 평균 신장도 남성 157~160cm, 여성 146~149cm 정도로 추정할 수 있겠다.

다섯째, 집단에서 이동해온 한 가족 단위 또는 몇 명의 여성에 의하여 생산과 풍요 및 묘제를 위한 의례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라 보여진다.

여섯째, 암굴내부에 층위를 달리하는 3개의 화덕자리는 시기는 다르나 동일문화를 공유한 세대의 주거지로 보여진다. 그리고 계절별, 특수 목적별에 따라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낙동강 삼각주 주변지역과 청도 오진리, 제주 북촌리 등과 같은 문화를 전승과 계승 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생업활동

신석기시대는 식료자원의 안정적인 획득을 위하여 몇 개의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계절에 따라 이동과 유랑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석기 중기단계에서 조·피·기장을 중심으로 하는 원시농경이 시작되지만, 정형화된 경작지나 규모의 집단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이는 어디까지나 수렵과 채집경제가 중심을 이루고 농경은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ㄱ) 수렵

울리 바위그늘유적에서는 동물의 뼈나 골각기 관련된 유물은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으나, 수렵을 하였을 가능성은 배제 할 수 없다. 신석기시대의 동물포획을 위한 수렵 기구로 조기와 전기 단계에는 타제석촉과 석창이 중심을 이루며, 중기 단계에는 대부분 간석기로 대체된다. 그러나 흑요석 산지가 가까운 백두산 중심의 동북지역에는 늦은 시기까지 흑요석제 타제석촉이 많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의 석촉의 경우 초기단계로 편년되는 제주도 고산리유적을 제외하면 대부분 슴베(莖部)가 없는 삼각형 석촉이다. 신석기유적에서 확인된 수골류(獸骨類)는 사슴, 노루, 맷돼지 등 20여 종이며, 해수류(海水類)는 바다포범, 물개 등과 날짐승으로 꿩, 오리 등 14여종이 확인되고 있다.

ㄴ) 어로

신석기인들은 강이나 바닷가에 정착 또는 거점으로 하여 석촉, 골각기 등 각종 도구를 발전시켜 수산자원을 획득한것을 말한다. 골각기는 소재가 갖는 물리적 특성과 획득의 용이성 등으로 석기나 목기의 보완적 도구로 구석기시대부터 널리 사용되었다. 신석기시대 골각기는 식량자원을 생산 혹은 획득하는데 1차적으로 관계하는 생산도구와 획득된 자원을 처리하는 가공구인 낚시바늘, 첨두기류, 창, 화살촉 등과 실제 생업에는 관계되지 않지만 의례적·정신생활에 사용된 것과 대별 할 수 있다.

울리 바위그늘유적에서는 어패류로 만든 제품이 출토되지 않았으나, 낙동강 하류의 민물과 바닷물이 접하는 부분에 생성하는 패각류인 굴, 재첩, 꼬막, 피뿔고등 등 자연유물이 발굴되었다. 그 중 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소량이며 모두 식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식료자원의 안정적인 획득을 위하여 계절별 또는 목적별로 정주지역을 떠나 강을 통나무배로 이동하면서 몇 개의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일시적 머물러던 거점의 한 곳이 울리 바위그늘유적으로 보여진다. 그 후 이 곳에서 3~4명의 한 가족이 일정기간 거주 및 생활에 필요한 의례행위 등을 하고 다시 정주지역으로 귀환하지 않았나 추측되어 진다.

ㄷ) 농경

한반도의 신석기시대 농경은 중기 단계로 편년되는 빗살무늬토기 단계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이른 시기로 편년되는 농경 흔적으로 황해도 지탑리 유적 주거지 내부에서 조와 돌낫, 보습으로 추정되는 각종 농경구들도 함께 출토되었다. 이후 부산시립박물관에서 조사한 동삼동폐총 제1호 주거지에서도 탄화된 조와 기장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빗살무늬토기 단계에는 중부지역으로부터 남부지역에 걸쳐 조와 기장을 중심으로 하는 농경문화가 확산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옥천 대천리유적에서 다량의 농기구와 함께 출토된 탄화미와 보리, 밀, 조, 기장과 같은 곡물이 출토되었으며, 진주 상촌리유적에서는 벼, 기장, 수수의 규소체가 토기에 부착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석기 중기 단계에는 조와 기장을 중심으로 하는 밭작물이 후기 단계에는 벼를 비롯하여 보리와 밀이 재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농경구들은 마제석 촉이나 석창, 석부, 석검과 같은 발달된 마제석기 기술과 함께 중서부지역과 남부 각지로 전파되면서 농경문화 요소도 함께 파급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신석기 말기 단계에는 청동기시대 농경구의 대표적인 반월형석도가 나타나고 있어, 중기 단계로부터 후기 단계에 확산되는 농경문화는 한반도 전역에 걸쳐 영향을 주고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 도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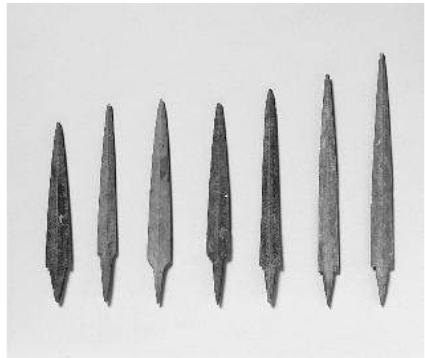
도구는 재질에 따라 석기, 골각기, 어폐류, 토제품으로 구분되며 생업과 관련된 용도에 따라서 수렵용, 어로용, 농경용, 일상 생활용품으로 분류 할 수 있다.

ㄱ) 석기(石器)

- 수렵용: 석창, 화살촉, 사냥돌
- 어로용: 작살, 어망추, 낚시추, 결합식 낚시바늘 축부
- 농경용: 낫, 보습
- 생활용: 별채구(석부류), 굴지구(괭이), 조리구(갈돌과 갈판, 돌절구통, 석도 긁개), 가공구(숯돌, 자돌구)
- 기타: 돌톱, 장신구



석창(김해)



석촉(창원)



사냥돌(김해)



석제 작살(가덕도)



어망추(분절패총)



결합식 낚시바늘



돌낫(김해)



보습(김해)



갈돌 및 갈판

ㄴ) 골각기(骨角器)

- 어로용: 뼈화살촉, 작살, 빗창(파류 채집도구), 조침(각종 낚시바늘)
- 농경용: 뒤지개(사슴뿔), 맷돼지 이빨로 만든 낫

- 생활용: 첨두기, 자돌구, 바늘, 비녀(뒤꽂이), 목걸이, 발찌 등 각종 장신구
- 기타: 토기제작 및 문양 새기개

ㄷ) 어패류(漁貝類)

- 어로용: 어망추(패류)
- 생활용: 팔찌, 목걸이 등 장신구류

ㄹ) 토제(土製)

- 어로용: 어망추
- 생활용: 이전(귀걸이), 방추차, 생활용 토기

⑦ 신석기인의 묘제

ⓐ 생활공간에 공존하는 매장유구

생활하는 동일한 바위그늘유적 주거지내에 옹관, 적석화장방법으로 시신을 안치한 예는 진주 상촌리유적에서 나타나며, 금곡동 율리 바위그늘유적 적석유구도 그 일종일 것으로 추측된다.

ⓑ 율리 바위그늘유적의 적석유구

수돌과 함께 토기편이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적석의 규모가 최대 길이 120cm, 높이 40cm로 여러단 겹쳐서 쌓여진 점 등으로 보아 당시 이곳 사람들의 매장시설의 일종으로 추측되며, 규모는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원형 적석유구는 동삼동패총 등에서 발견된 바 있어 묘제(墓制)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참고자료: 김동국, 최진식 『낙동강토문화연구』 부산북구 낙동문화원, 2020. 낙동강 하류의 유틸리 바위그늘유적에 대한 小考)

(2) 금정산성 서문과 아문

① 개요

- 사적 지정번호: 제 215호
- 지정일자: 1971.2.9
- 소재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과 화명동의 경계지점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금정산성은 그 축성연대를 알 수 없으나 구조의 일단(一端)에서 신라식의 축성법이 엿보이므로 낙동강 하류의 왜구를 막기위하여 신라시대부터 쌓았던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현존하는 금정산성은 1703년(숙종 29) 경상감사 조태동(趙泰東)이 남쪽 금정구·동래구 동편 끝에서 왜(倭)와 가까운 동래부의 방비가 필요하여 금정산에 축성 할 것을 조정에 장청(狀請)하고 재가를 얻어 동래부사 박태항(朴泰恒) 주관으로 쌓은 것이다.

그러나 금정산성의 축성은 이미 신라시대부터 있었다는 설이 유력하다.『釜山府史原稿』 제1권 금정산성조(條)에 보듯 원래 신라시대부터의 성이라는 사실은 이 성을 세밀하게 관찰해보면 알 수 있다. 즉 성의 4대문 가운데 동·서의 양문(兩門)은 고려·조선시대에 개수(改修)한 흔적이 있으면서도 신라의 기법을 찾아 볼 수 있다. 문(門)의内外(内外) 둔병(屯兵)사타의 양식은 신라 특유의 축성인 반원형 속단(屬段)으로 그것이 세겹 또는 다섯겹으로 되어있는 것을 볼수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금정산성은 신라시대부터 극성을 떨던 왜구에 대비하기위하여 울산의 관문성(關門城)이나 하동의 고소성(姑蘇城)과 같이 왜구가 극심하던 낙동강 하류 연안에 쌓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고장과 접해있는 금정산성의 성문(城門)인 서문(西門)과 아문(亞門)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② 산성이란

우리나라 성곽의 대표적인 형태는 산성이다. 산의 자연적인 지세(地勢)를 최대한 활용하여 능선을 따라 용이 산허리를 감듯 구불꾸불 기어 올라가는 산성은 자연에 순응하고 동화하려고 했던 우리 선인들의 생각을 잘 나타내고 있다.

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어 고려, 조선시대를 걸쳐 널리 유행하였던 형식이다. 조선초기에는 759개소의 성곽이 전국에 있었는데, 이 가운데에 산성이 182곳으로 가장 많다.

산성은 험한 지형을 이용하여 쌓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쉽게 노출되지 않고 또 성(城)에서 오래 항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갖추었다. 성벽은 산꼭대기로부터 골짜기에 걸쳐 고리모양으로 돌아나가고 가장 낮은쪽 근처에 성문과 수구를 설치하고 가장 높은 곳에 망루를 세웠다.

산성은 대체로 골짜기를 감싸고 축조되므로 성안에 많은 병력을 주둔시킬수 있고 군량창고, 병영, 장대 등 시설을 갖추었으며, 성벽과 관련된 시설물로는 성문, 옹성(甕城: 큰 성문을 지키기 위하여 성문 밖에 쌓은 작은 성), 여장(女牆: 성벽위에 설치하는 낮은 담으로 아군이 적의 화살 등을 피하면서 사방에서 적을 공격 할 수 있는 시설, 적대, 초루, 암문(暗門: 적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곳 또는 지도상 표시되지 않게 하여 설치한 작은문), 수구 등이 있었다.

성문은 적의 공격때 노출되지 않도록 골짜기에 설치하며 주변의 성벽은 큰 돌을 사용하여 다른 곳에 비하여 더 튼튼하게 쌓았다.

산성은 평야를 앞에둔 높은 산에 자리잡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은 들판을 건너오는 적을 빨리 발견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깊은 산속에 쌓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최대 산성으로는 금정산성이 손꼽힌다.

③ 금정산성 4대문

맑은 날 금정산에 오르면 인근의 섬들과 멀리 거제도까지 조망되는 부산의 진산이다. 정상인 고당봉(801.5m)이 솟아있고 그 품이 부드럽고 넉넉해 둔덕같은 느낌을 주는 포곡식산성으로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해 축성되었다.

Ⓐ 아치형의 동문(東門)

동래읍성에서 오르기 쉽기도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아 금정산성의 4대문중 가운데 정문으로 이용되어왔다.

〈표3-2〉 금정산성 4대문의 특징

4대문		위 치 높 이	관 리 마 을	새 이름의 뜻
옛 이름	새 이름			
동문(東門)	관해문(關海門)	415m	중리	왜구를 막기위해 동쪽 바다를 지켜야한다
서문(西門)	해월문(海月門)	230m	아문	낙동강의 아름다운 경관을 담았다
남문(南門)	명해문(鳴海門)	510m	공해	왜적을 향해 크게 화를 치며 호령한다.
북문(北門)	세심문(洗心門)	620m	죽전	금샘의 정기로 마음을 씻고 뜻을 다지자

④ 계곡에 세운 서문(西門)

낙동강에서 대천(大川)을 따라 산성마을 입구에 자리하며 동문보다 규모는 작지만 훨씬 견고하고 아름답다. 서문의 누각과 “ㄷ”자 형태의 성벽모습은 사뭇 예술적이다. 또한 서문 옆에 흐르는 대천에는 세 개의 아치형 수문이 천연요새의 협곡에 설치되어 있다.

⑤ 소박한 모습의 남문(南門)

동제봉과 상계봉을 있는 능선상의 잘록한 고개를 지키고 있으며, 남문은 신라시대의 축조기법이 깃들어있다는 기록과 가야시대 유물도 발견되어 유서깊은 곳임을 알 수 있다.

⑥ 투박한 북문(北門)

금정산성의 4대문중 가장 투박하고 거칠다. 이 모습이 오히려 금정산성의 역사를 가장 잘 나타내는 특성을 갖고 있다.

⑦ 금정산성 서문(西門)과 아문(亞門)

금정산성은 금정산에 둘러서 자리 잡고있으며 성벽의 길이는 18,845m, 높이 1.5~

3m이)고 면적은 8.264km²로 국내 최대 포곡식(包谷式: 내부에 넓은 계곡을 포용한 산성으로 계곡을 둘러싼 주위의 산 능선을 따라 성벽을 축조) 산성이다.

이 산성은 북쪽(고당봉), 동쪽(의상봉), 남쪽(상계봉), 서쪽(파리봉)의 봉우리와 자연암반 등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축조되었고, 4대문과 12곳의 망대가 있으며 제4망루에서 서문쪽으로 중성(中城)이 축조되어 성내를 남북으로 양분하고 있다.

지금의 산성은 1703년(숙종 29)에 축성된 것으로 보인다. 1667년(현종 8) 왕이 통제사 이지형을 불러 왜구 방수 계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금정산성은 형세(形勢)가 절승하여 기지가 완연하여 이제 만약 완전히 보수하기만 한다면 보장이 될 수 있는 터전이 되겠습니다.”라고 언급된 대목 『현종실록』 권16 현종 8년 「정미 정월경인조」에서 볼 때 그 이전에 산성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으나 축조 시기는 자세히 알 수 없다.

평상시에는 산성(山城)내에 있던 국청사와 해월사의 승려 1백명과 범어사 승려 3백명이 금정산성을 보수 및 지키는 호국사찰이다. 금정산성 복원사업은 1972년부터 4대문과 문루 및 망루 3개소, 장대, 성벽 등의 복원사업이 되었는데, 서문은 1973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④ 금정산성 마을

산성마을은 현재 금성동(金城洞)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전에는 산성리(山城里)라 하였다. 마을 구성은 공해마을, 중리마을, 죽전마을, 아문마을로 4개 마을이 국방방위를 위한 호국마을이라 할 수 있다. 동래에서 산성고개의 금정산성을 지나오면 파리봉 기슭에 자리잡은 공해마을, 그리고 산성천을 지나면 중리(中里)마을, 이 마을을 들어서면 곤실내를 경계로 왼쪽에 있는 마을이 죽전(竹田)마을이다. 부산학생교육원의 수련교를 지나 장골봉의 아문(亞門)으로 올라가면 왼쪽에 다락논과 주거지 흔적이 남아 있는 아문(亞門)마을이 나온다. 공해, 중리, 죽전 3개 마을은 금정산의 산성분지에 형성된 마을이며, 아문마을은 정수암에서 해월사지 부근에 형성된 사찰(寺刹)마을이다. 산성마을은 언제부터 형성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통일신라때부터 화전민과 스님들이 거주하다가 금정산성이 축조된 뒤에 마을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

⑤ 서문(西門)

금정산성의 서문(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133)은 금정산 서쪽 계곡 구릉지

(해발 230m)에 자리잡고 있으며, 금정산성의 방어와 축성 및 보수를 위하여 해월사에서 관리하였다.

서문은 동래부사 오한원(吳翰源)이 동래읍성의 배후 성지로서 금정산성의 경영을 요청하여 1824년(순조 24)에 문루(門樓)를 만들었는데, 4대문중 유일하게 계곡에 세워져 있다. 일제강점기에 방치되어 허물어져 육축(陸築: 성문을 축조하기 위해 무사석 등 큰 돌로 축조한 성벽) 일부만 있는 것을 1973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 정비하였다.

서문의 규모는 육축 부분이 72.34 m^2 정도, 문루가 36.04 m^2 이고, 성문의 형식은 앞면과 뒷면 모두 홍예식(虹霓式: 성문의 개구부의 윗부분이 무지개모양인 반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다. 문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정면의 어간을 좌우 협칸보다 두배 정도 넓게 잡았다. 성문위에 지은 초루(誰樓: 성문위에 세운 망루)와 “ㄷ”자 모양으로 모양으로 조성된 성곽은 그 모습이 견고하고 아름답다. 적대(敵臺: 성문의 방어력을 높이고, 적을 측면에서 공격 할 수 있게 설치한 시설물)는 좌우에 길이 5m, 높이 5m, 폭 4m, 규모로 설치하였고, 수문(水門)은 대천천에 교량식의 홍예형으로 높이 3m, 폭 2.5m인 3개의 수구(水口)를 되어있는데 아치형태를 이루고 있다.

달 밝은밤 낙동강으로 공격하는 적들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철저한 감시와 방어태세를 갖춰 만전을 기한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서문을 통하여 산성의 많은 주민들이 구포와 김해, 낙동강을 왕래하면 서생활필수품의 조달과 금정산성 마을에서 생산된 특산물인 누룩, 종이 등을 교역하였고, 그 외 많은 생활에 필요한 물자와 자원을 수시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변의 암문을 통하여 잣은 왕래를 하였다. 서문은 금정산성 4대문중



금정산성 서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한 조선시대 산성의 문루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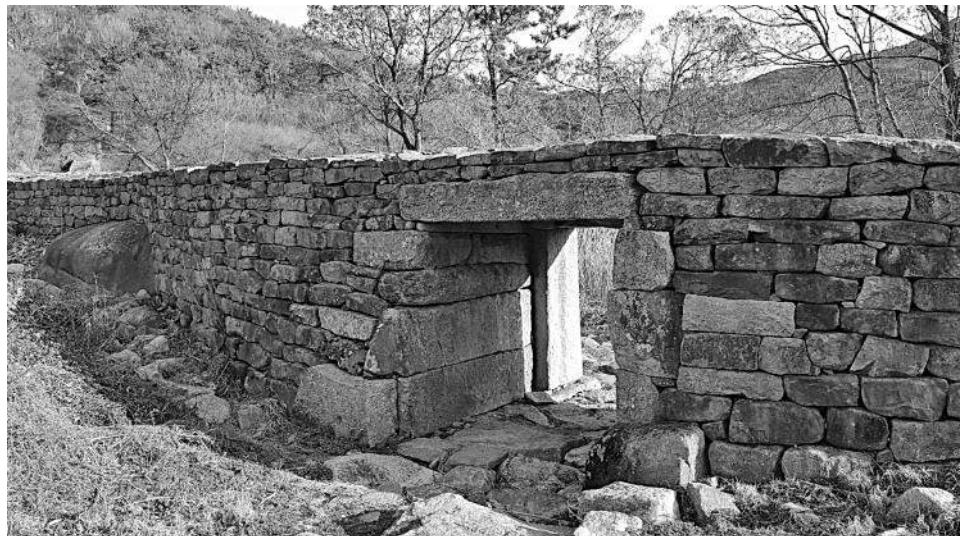
⑥ 아문(亞門)마을과 아문

아문마을은 해월사 구역에 있었던 사찰마을로 이 곳 주민들이 아문을 내통하였기 때문에 아문마을이라 불렸으며, 아문의 “아(亞)”는 무리아로 많은 주민들이 문(門)을 출입하였기에 아문이라 하였다.

첫째, 해월사는 사찰 경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미간지를 개척하여 전답을 경작하게 하였고 여기에 나오는 수확물로 사찰의 경비와 양식으로 쓰였다.

둘째, 『금정산성진지도』의 아문리에는 집 다섯채가 표기되어있고 아문에 북문으로 가는 가림길 동쪽에 집 한 채가 더 있었다. 아문마을은 북문지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계곡 수계를 따라 서문지 아래쪽까지 형성된 완만한 곳에 있어 농경지 확보가 가능한 곳인 부산학생교육원의 금정관을 지나 서쪽 장골봉의 문리재 아문아래 중간지점일대가 아문마을이 있었던 곳이다. 그리고 아문 남쪽에는 중성의 동쪽과 북쪽골짜기를 통해 내려오는 우수를 배출하기 위한 수문이 있다.

셋째, 지금은 아문마을이 없어지고 주거지 흔적과 달력을 남아 수목이 숲을 이루고 있다. 당시 아문마을 주민들은 금양(禁養)을 위한 소나무가꾸기, 산성의 특산물 누룩



금정산성 아문

생산, 종이생산 등 부역 노동에 종사하는 해월사에 종속한 부역민으로 구성되었다.

넷째, 아문(亞門) 부산학생교육원 신축공사(1989년)때 금정산 사시골 해월사터 구역에서 진행되었는데, 부산학생교육원의 남쪽에 있으며 중성의 외곽 제1건물지 아래에 있는 아문마을을 통하여 화명동 쪽으로 연결되는 石門이다.

다섯째, 해월사(海月寺)는 1708년(숙종 34)에 창사되어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승군 잡역 업무가 과중하여 승군의 환속하는자가 늘어 19세기 말 폐폐하여 폐사되었다. 이로 인하여 아문마을의 주민들도 이동하게되어 해체되고 말았다. 해월사에 관한 기록으로 『해월사중창상량기문(1795년)』에 “가람을 세우는데 험준한 산줄기가 둘러 싸고 개울 골짜기가 얹히고 돌며 취령에서 솟아나는 맑은 물이 낙동강으로 흘러드니 지형조건이 좋았음을 모두 다 표현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금정산 고당봉과 낙동강이 흐르는 명당지라 절 이름을 “넓은 낙동강을 달빛으로 거울같이 볼수 있어 해월사”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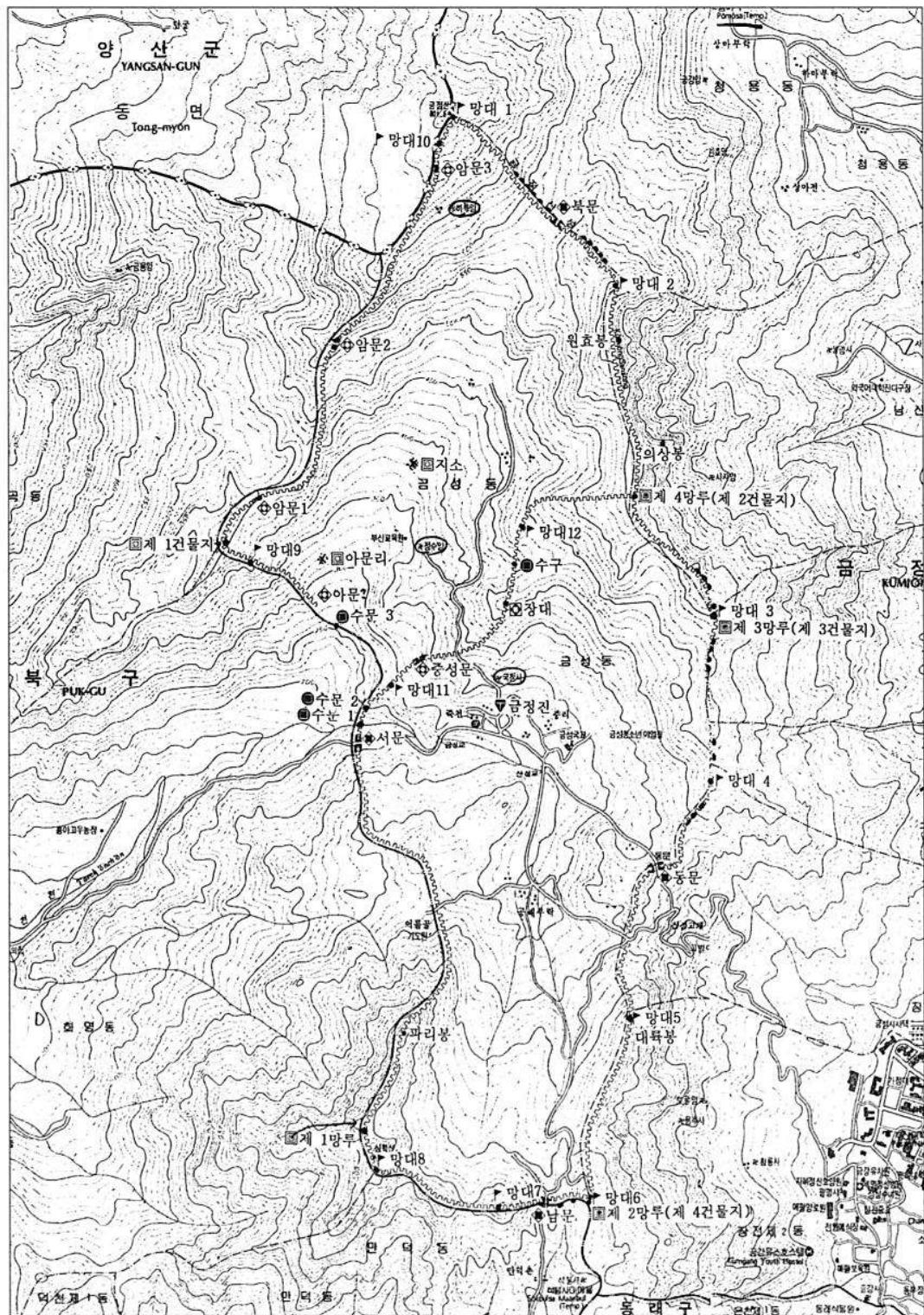
⑦ 금정산성 동문과 서문에 얹힌 얘기

정현덕이 동래부사로 재임(1867~1874년) 할 때, 금정산성 두 성문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전국에 유명한 석공을 수소문 한 결과 사제지간인 두 석공에게 성문의 재건을 의뢰하였다. 스승은 원래 야욕이 많아 웅대하게만 지으려 했던 반면, 제자는 기술을 앞세워 정교함과 아름다움을 강조하였다.

그런 연유로 동문과 서문은 각각의 특성이 담겨져 있는데, 제자가 먼저 성문을 완공한 뒤 스승을 찾아뵈었지만 스승은 규모를 중시하다보니 여태 성문도 달지 않았다. 동문은 서문에 비해 규모는 웅대하지만 견고하지 못해 결국 제자가 이겼다. 지금도 서문은 당시 바른 틈새의 흙이 시멘트와 같이 단단하게 붙어 있을 정도이다. 이 후 이들 사제간은 동문과 서문을 완공 한 뒤 서로 힘을 합쳐 밀양 영남루를 공사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금정산성 동문과 서문은 일제강점기에 훼손되었으나, 복원사업에 의해 1973년 현재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참고자료:

- 1.『부산 북구향토지』, 낙동문화원, 2014.
2. 주영택,『금정 26 전통마을의 역사와 민속 문화를 만나다』, 금정문화원, 2018.
3. 주영택,『금정의 설화』, 금정문화원, 2016.
4. 반영환『한국의 성곽』 주)대원사, 2011.



금정산성 지도

(3) 동원(東院)

원(院)설치의 사상적 기반은 고대국가 형성시기인 삼국시대에 지배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지방통치를 강화하고 외교적으로 유교사상 즉, 주례(周禮)를 인용한 빙객의 접대, 불교의 사회복지와 포교활동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원(院)은 조선건국 초부터 공무를 떤 관리의 숙식제공, 국왕의 지방 순시나 피난길 이용, 관내 관찰사의 고을 순행시 중식과 마필 교체, 신구 감사의 도계(道界) 부근 원에서의 교대, 일본사신의 왕래와 상인의 지방출장 및 일반 여행자에게 숙박 편의가 제공되었다. 대체로 대, 중, 소로(大, 中, 小路)의 교통요지와 높은 고개를 넘고 큰 강을 건너야 하는 위험지와 주로 인가가 드문 곳에 여행자를 위해 설치되었다. 그래서 원은 교통사정이 원활하지 못한 당시에 여행자를 도둑이나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사신접대와 숙식을 제공하였으며, 지방에서 기로연(耆老宴) 실시와 진제장(賑濟場)을 두어 굶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역할도 하였다. 아울러 일반 행인에게도 휴식 및 숙박지로 제공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파악되는 원은 전국에 총 1,310개소이고, 경상도는 468개소가 있었다. 먼저 원우(院宇)를 건축하고, 지방은 수령이 원우 부근에 살고 있는 주민 가운데 승려, 향리, 관리출신으로서 원주(院主)를 임명하는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운영형태였다. 원주에게는 잡역을 면제해 주면서 원의 운영책임을 맡겼다. 지방 소로(小路)에 위치한 원의 경우를 보면, 운영경비 충당으로 45부(負)의 원위전(院位田)과 2호의 원호(院戶)를 지급되었는데 관찰사가 이를 감독하였다.

1530년 집필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양산은 북정(北亭), 안정(安井), 동원(東院), 범어(凡魚), 내포(內浦), 성천(省川), 호포원(狐浦院)이 있었다. 여기서 이전에 폐지된 북정원과 호포원을 제외한 5개소가 당시에 실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맞아 양산의 원은 전부 소실·파괴되었다. 그 후 1878년 양산군수였던 이만도(李晚燾)가 집필한 『양산군읍지(梁山郡邑誌)』 「역원조(驛院條)」를 보면, “양산군 북정원, 안정원, 동원, 성천원, 범어원, 호포원 6개 원우는 임진왜란 이후에 아직 복설하지 못했다. 공무 출장자나 사신들을 위해 유참(留站)하도록 설치했으나 지금은 모두 없는 상태이다.”라고 하여 숙박시설인 6개의 원이 복원되지 못하자 대용으로 아마 양산 내에 있던 황산역(黃山驛), 위천역(渭川驛), 윤산역(輪山驛) 등 역참(驛站)을 이용했다.

조선시대 양산군에 속했던 동원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먼저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산군 산천(山川)조」를 보면, “동원진(東院津)이 양산군에서 남쪽으로 25리(10km)에

있고, 역원조에는 동원(東院)이 22리(8.8km)에 있다”라고 한다. 동원진과 동원은 3리(1.2km)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 동원이 있었던 정확한 위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동원진 수참지(水站址)는 발굴을 통해 그 위치가 정확히 밝혀졌다. 인접에 수참이 왜사신에게 주어지는 물품관리와 참선(站船)운행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자, 동원은 자연히 왜사신들의 숙소와 접대 장소로서 역할도 맡게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대부분 원우는 파괴되어 복설치 못하자 공공출장자는 역참과 객관(客館)·객사(客舍)를 사용하였다. 일반 백성은 주로 원 대신에 사설 식당과 숙박시설을 갖춘 주점(酒店) 혹은 주막(酒幕)을 이용하였다. 금곡동의 경우에 동원나루 이외에 공창나루, 화정나루가 있었고 각 나루를 중심으로 주막이 존재하였다. 조선 말까지 동원진의 주막집은 이 지역 명산물인 잉어와 장어요리로 명성이 높았다.(『낙동향토문화연구』1집, pp 130~133)

(4) 동원진 수참지(水站址)

① 동원진 수참 설치

먼저 참(站)은 고려·조선시대 역로(驛路)에 마련되어 공문(公文)을 중계하여 전하고 공용여행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던 시설이다. 원나라의 전령기관인 육참(陸站), 수참(水站), 보참(步站)으로 운용된 참적(站赤)제도에서 유래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역참(驛站)으로 통용된다. 고려후기 충렬왕 7년(1281년) 육로에 역참이 설치된 이후에 수역(水驛)이라고도 하는 수참(水站)도 1304년(충렬왕 30년)에 탐라에서 압록강 연해까지, 그리고 양주의 연해 약 30여개소에 설치되었다. 수참에는 참선(站船)을 두어 군량미·조세운반, 나루 왕래인을 규찰하는 구실과 조운(漕運)을 상호보조하는 진도(津渡)의 수상교통수단의 하나로서 설치하였다. 조선시대에는 1395년(태조 4년) 정월에 수참전운소완호별감(水站轉運所完護別監)을 두어 용산강에서 충주 연천(淵遷)에 이르는 지역에 7개소 수참을 설치하고, 각 수참에는 민호 30호를 예속시키고, 참선을 배치하였다. 세종조에는 좌, 우수참을 두고, 조운선(漕運船)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되어 조운은 물론 왕래인을 규찰하는 기능을 맡았다. 충주 가흥창에 있던 좌수참은 세조 때에는 영남·호서의 곡물도 운반하였다.

낙동강은 조선전기에는 조운선의 왕래와 왜인들의 상경 통로가 되었다. 왜국에 대한 세종의 강경정책으로 인하여 대왜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삼

포개항을 통해 세사미, 세견선에 대한 제한과 통제 및 사신의 통행로를 관리하였다. 세종 5년 왜인에 대한 조치는 관 무역의 물품과 진상품이 많아지고, 사신왕래가 빈번해짐으로 인해 육로로만 통행하던 것에서 낙동강 수로를 이용해 상주 수산역을 거쳐서 다시 충주로 넘어가는 코스와 10필 이하일 경우에 육로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왜인이 낙동강의 수로를 주로 이용함으로서 그 입구에 해당하는 김해의 도요저(都要渚, 김해군 생림면 도요리)의 선박이 이용되었다. 조운문제와 왜구에 대한 방어대책과 왜사신의 통행에 따른 관 무역과 사신접대 등으로 낙동강 유역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와 대책이 필요했다. 아울러 수참의 설치도 논의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1457년(세조 3년)에 충청·전라·경상도(慶尙道)의 도순찰사(都巡察使) 박강(朴薦)과 부사(副使) 구치관(具致寬) 등이 삼남의 여러 진(鎮)과 포(浦)를 순심(巡審)하고, 당연히 행할 사안을 조목조목 열거한 보고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여기서 경상도 지역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본영이 있는 고을 수령이 도절제사(都節制使)를 겸차(兼差)하고, 행정구역 재편과 해안방어체제의 개편, 수참의 신설을 거론되었다. 수참신설에 대해선 경상도 상주(尙州)의 낙동강(洛東江)으로부터 초계(草溪)의 사기소(沙器所)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의 여울물이 모두 배가 운행(運行)할 만하니, 마땅히 수참(水站)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 김해(金海)의 도요저(都要渚)는 비록 본디는 선척(船隻)이 있었지마는, 그러나 제포(齋浦) 와의 상거가 90리(里)이고 부산포(富山浦)에 이르기가 70리(里)이므로, 왜인이 가지고 온 물건을 운반하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양산(梁山) 동원진(東院津)의 동쪽 부근에 수참(水站)을 두고, 가까운 고을의 김해(金海)·양산(梁山)의 공천(公賤)으로써 참부(站夫)로 정하고, 양산 군수(梁山郡守)로 하여금 관찰(管察)하도록 한다.

도요저(都要渚)는 김해에서 동북 40리에 위치하여 수백 여호가 살았으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배를 전적으로 운행하였다. 그들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서 낙동강 상류의 여러 고을과의 장사하여 재산을 늘렸다고 한다. 도요저에 수참 존재했다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당시 이곳은 낙동강 하류지역에 있어서 강상교역이 활발했던 지역이다. 도요저에 있던 선척(船隻)을 기반으로 하여 동원진 동쪽 부근에 수참을 신설하였다. 도요저에 있던 선척이 관선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수참의 참선으로 수용된 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김해(金海)의 도요저(都要渚)가 맡고 있던 기능을 적어도 1457년(세조 3년) 이후에 신설된 동원진 수참이 맡아서 수행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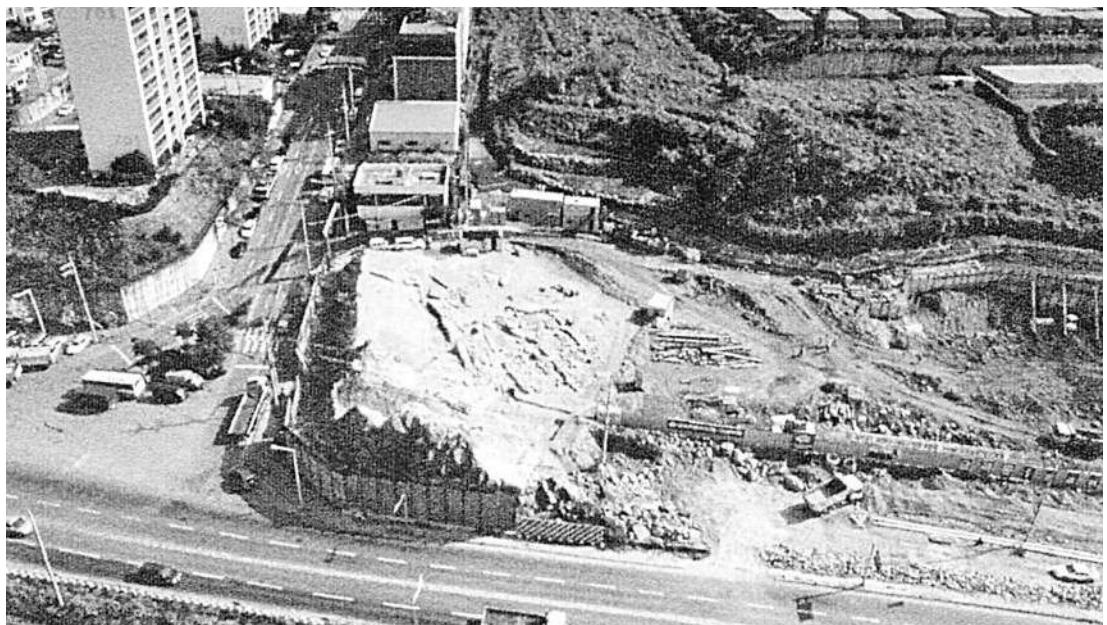
② 동원진 수참지 유적을 통해 본 규모

ⓐ 발굴지역

발굴지역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866번지 일대로 금곡동 공동주택 건설부지 및 화명~양산간 도로 확장공사 구간 내 유적을 경남문화재연구원(2004년 8월~2004년 11월)에서 발굴했다. 그 결과 이곳 유적지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복합건물 기초구조로서, 동원진 부근에 건설된 수참의 근거지로서 주로 왜물고(倭物庫)로 사용된 것이었다. 현재 금곡동 동원마을 대우이안아파트 내에 수참지 유적지로 보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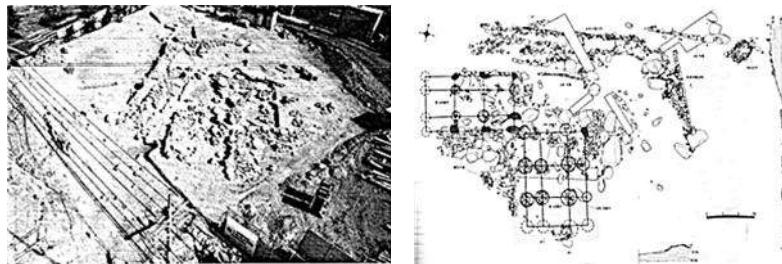
ⓑ 발굴 내용

동원마을 수참지는 2동의 건물지와 담장석열 2기, 석조유구 1기, 기타 부속시설로 이루어져 있었다. 건물지는 주건물과 보조건물이 평면 'ㄱ' 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주 건물은 주향이 서향으로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이며, 보조건물은 주향이 남향으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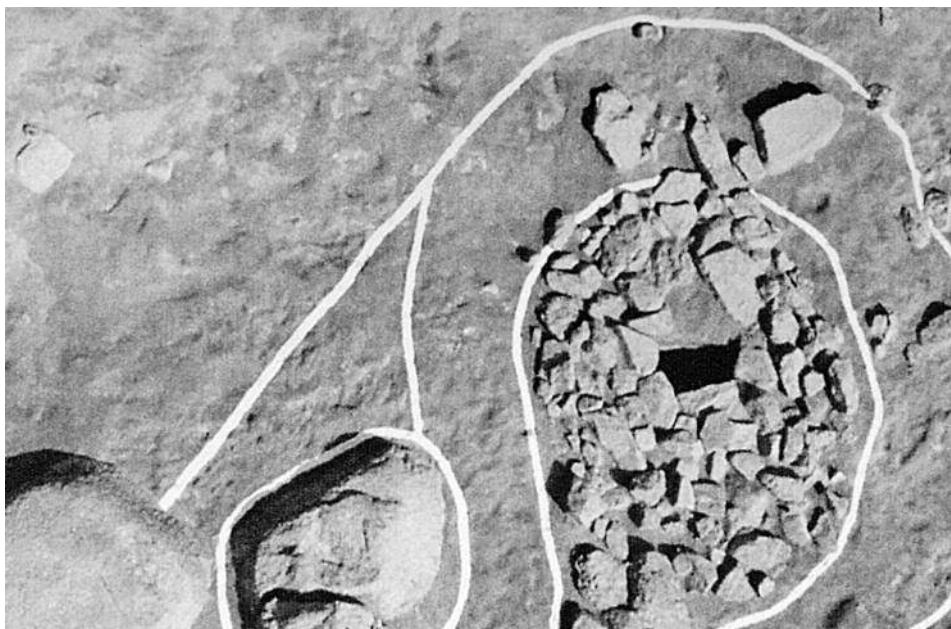


발굴 당시 원경 : 경남문화재연구원 제공

면 3칸, 측면 3칸 규모로 주건물의 우측에 배치되어 있다. 2동의 건물은 각기 1~2차에 걸쳐 사용되었다. 한편 주건물과 보조건물 모두 중앙에 출입시설인 계단이 마련되어 있어 건물의 전면은 마당으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은 초축은 고려중기에서 고려후기라고 보고, 수축은 고려말~조선초기라 추정하며, 임진왜란 이후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온돌이나 구들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일반적인 주거를 위한 시설로 보기는 일단 어렵다.



발굴 당시 사진 : 경남문화재연구원 제공



발굴 당시 석조유구 : 경남문화재연구원 제공



발굴 후 정비된 모습



정비된 현재 모습

○ 제1건물지(주건물)

1차 건물지는 서향으로 초석 적심석군 5기, 장방형 부석열(數石列) 등이 남아 있었다. 건물지는 1차와 2차에 걸쳐 사용되었다. 도상(圖上) 복원을 해보면, 정면 3칸, 측면 3칸, 전·후 양쪽 퇴칸으로 된 건물이었다. 발굴 당시에는 지대 석열과 기단 석열이 잔존해 있었다. 잔존한 유적을 보면, 정면 1,160cm, 측면 730cm이며, 주칸 거리는 정면 330~440cm, 측면 330cm, 측면 퇴칸 200cm이고, 소형 석축 배수로가 길이 240cm, 너비 80cm의 규모로 남아 있었다.

○ 제2건물지(보조건물)

제2건물은 제1건물의 좌측인 서북쪽에 있었고, 제1건물과 공존했던 남향건물이었다. 제2건물도 제1건물처럼 1~2차에 걸쳐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지 서쪽 전체가 결실되어 전모는 알 수 없다. 1차 건물지는 초석 적심석군 3기가 남아 있고, 주칸거리는 480cm이다. 2차 건물지의 잔존 시설은 남·북측 기단 석열과 남측 지대 석열, 초석 적심석군 2기, 초석 4기, 출입시설 등이다. 잔존 규모는 정면 2칸(1,040cm), 측면 1칸(720cm)이고, 주칸거리는 정면 360cm, 측면 480cm이다.

○ 담장 석열

담장석열은 북쪽과 동쪽 외곽부문에 위치하고, 2차에 걸쳐 중복되어 있으며, 1차 담장은 동쪽에, 2차 담장은 서쪽에 주로 잔존하고 있다. 1차 담장 석열은 너비 160cm로 길이 1,280cm가 잔존했는데, 활석(크기 20~60cm, 너비 200cm)을 기초석으로 하여 들여 쌓기로 벽석을 축조했다. 2차 담장 석열은 너비 150cm로 길이 1,060cm가 잔존했다. 기초석열 1단으로 들여쌓기를 하여 벽석 축조하였는데, 현재 1~3단까지 잔존을 보인다.

○ 석조 유구

방형의 석조 유구 1기는 화장실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0~40cm 천석을 사용해서 축조했는데, 평면 5각형에 가깝고, 바닥은 생토면이고, 현재 3단이 남아 있다. 내경 60cm, 깊이 38cm의 석조유구 외곽에 대소 천석으로 장축 280cm, 단축 200cm로 부설하고 있다.

○ 출토 유물

동원마을 수참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기와류, 그 외에 인화문토기, 청자, 분청

사기, 백자, 도기, 어망추 등으로 총 157점이다. 첫째, 기와류는 암·수키와가 대부분이며 수막새 1점이 확인되었다. 기와는 대부분 경질 소성이며, 황회색과 회청색 색조이다. 그리고 어골문·초하문 문양이며, 복합문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둘째, 자기류는 청자와 분청자, 백자가 출토되었다. 청자는 11세기 후반~14세기 제작되었으며, 조질계의 녹청자류와 상감장식의 청자로서 대접과 접시 등 일반 생활용기가 많다. 상감청자는 당초 문과 연화문, 국화문 등이고, 받침은 백색내화토나 모래를 사용했다. 분청자는 집단국화문을 전면에 배치한 인화분청이다. 분청자의 기종은 대접과 접시가 많으며, 바닥 면에 성생(成生)이라는 명문을 상감한 예도 확인된다. 백자는 소량이 확인되며, 조사지역의 하한연대는 16세기 이전으로 판단된다. 셋째, 도기류는 대부분 경질의 회청색 무유도 기이다. 도기 기종은 항아리, 완, 병 등이 출토되었다.

항아리는 두께(0.4~1.0mm)와 동체부 각도로 보아 중형 이상의 것이 많으며, 전면 격자 타날된 대호편도 확인된다. 병은 기벽이 얇은 소병 또는 광구병과 반구병, 기벽이 0.5~1.0mm 정도로 매병 형태도 있다. 문양은 외면에 격자타날문이 다수이고, 회전돌대문, 횡침선문, 파상문 등도 확인된다. 소수 출토된 시유도기는 대부분 녹갈유가 시유된 구연부편으로 구연단에 유약을 한 번 닦아낸 상태에서 받침흔이 있는 것이 있고, 파수는 갈색유가 시유되어 있다.(『부산 금곡동 동원지』, pp 29~111)

③ 수참의 인·물적구성

수참의 관리는 수참전운소완호별감(水站轉運所完護別監), 수참전운사·부사·판관(水站轉運使·副使·判官), 수운판관(水運判官) 또는 도차사원(都差使員)이 관장하였는데, 1779년(정조 3년)에는 호조판서 김화진(金華鎮)의 건의로 목사가 주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수참에는 수참간(水站干 또는 水夫)과 참리(站吏 또는 站夫)로 구성되어 있다. 1418년(태종 18년)의 기록에 따르면 참부는 충주 27명, 원주 57명, 천령 80명, 양근 72명, 광주(廣州) 75명, 과천 46명, 금천 52명으로 모두 409명 정도로 파악된다. 수부는 20명을 정원으로 하되 업무의 다과에 따라 정군(丁軍)과 봉족(奉足)을 더 주어 1영(領)마다 15명씩 좌우령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하였다. 참선은 7년마다 개삭(改?)하고 14년마다 새로 만들되, 그 값은 각 고을의 예산이나 백성의 민결(民結)에서 거두어 충당하였다. 그러나 참선을 개수나 건조할 때에는 폐단이 따랐다. 예를 들면 경강(京江) 백성이 값을 받고 배를 건조해서 충주 수참에 납입하면, 수참에서 참졸(站卒)로 하여금 배를 운행한다. 배를 운행하는 자가 배를 건조한 사람이 아니어서 오래지 않아

그 배가 망가지게 된다. 이것은 참줄들이 부서졌다고 속여 기한 전에 개수하기를 신청하게 되니, 그 비용이 민읍(民邑)에 폐를 끼치고 있다.

그리고 조선초기에는 조운에 동원된 참부가 농사일에 미참여, 장마비 등으로 수운 불운행, 미수운 조운미 보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사사노비(寺社奴婢)와 신량수군(身良水軍)으로 보충하고, 조운선 증선과 교대방식을 추진했다. 수부(水夫)에게 왜객의 영송(迎送)과 접대사무로 잡역면제와 다른 용역에 동원하지 않도록 하였다. 진상과 왜물 수송에 수참판관으로 칠방을 겸직하게 함으로서 역참과 수참의 업무구분이 없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편리에 따라 수송업무를 시행하게 하였다.

동원진 수참은 가까운 고을인 김해(金海)와 양산(梁山)의 공천(公賤)으로써 참부(站夫)로 정하고, 양산 군수(梁山郡守)로 하여금 관찰(管察)하도록 하였다. 양산군수가 수참을 관찰하도록 하고 있어 최고 책임자라 할 수 있지만, 수참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관리는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수참의 예상되는 인적구성을 보면, 수참을 직접 운영하는 별감(別監)같은 책임자와 참선을 운행하고 물품의 승·하역과 보관 등에 필요한 인원인 수부와 참부가 배속되어 있었을 것이다. 또한 배속된 관선(官船)인 참선(站船)과 동원된 사선(私船)도 있었다고 본다. 현재로선 이러한 운영에 관련한 자세한 관청기록은 찾을 수 없다. 아마 수참운영은 양산군수가 임명한 지방관리나 지역향리가 맡았고, 배속 참선(站船)과 수부에 대해선 김해 도요저(都要渚)에 있던 선척(船隻)과 강상무역을 통해 생업을 해오던 백사공으로 대처했으리라 본다. 조운이 있을 때에 필요한 인원은 주변 평민인 주로 농민이 동원되었다고 본다. 동원진 수참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은 수참이 있던 부근 공창리나 동원리이다.

④ 왜인 물품의 보관과 운송

조선의 외교정책은 사대교린정책이었다. 중국에 대해서는 1년 3사(使)의 정기 사행인 반면, 왜국을 비롯한 기타 지역은 교린(交隣) 체제에서 비정기적인 사행이 오갔다. 교린정책하에 무역도 회사(回賜)·답례(答禮)·하사(下賜)를 바탕으로 하는 공무역과 사행의 왕래에 부수하여 허용된 사무역 외에는 민간 차원의 사사로운 밀무역은 일체 금지하였다. 1419년(세종 1) 대마도(對馬島) 정벌 이후 중단되었던 대왜 무역은 1423년 부산포를 필두로 하여 삼포(三浦: 富山浦, 蔊浦, 鹽浦)를 개항하면서 재개되었다. 이 때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내왕하는 왜인의 수는 해마다 급증했고, 그들이 가지고 오는 물화도 대단히 많았다.

왜인들은 남해안에 설치한 삼포에서 상경으로 왕래하는데, 수로를 따라 당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중로(中路)에는 일행이 유숙(留宿)할 수 있는 숙소가 있었다. 김해의 중로 숙소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명월산은 김해부의 남쪽 4십리에 있고 산하인 구량촌의 견조암에 수참(水站)이 있어 왜국의 사신을 접대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창원의 중로 숙소인 주물연진은 창원부의 북쪽 4십리에 있으며, 칠원고을 매포의 하류이다. 언덕 위에 작은 공관을 개설하여 배를 타고 왕래하는 왜인의 사신을 접대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1457년(세조 3)에 동원진 수참을 신설하여 김해 도요저의 왜인 사행과 왜물 수송에 따른 거리상 불편한 점을 해소시키고, 여러 갈래 낙동강 하류지역의 1차적 중간 귀착지를 통합함으로 체계적인 왜인사행에 대한 숙식·물품보관·수송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왜인 무역이 증가하고 물품수송이나 교역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폐단이 발생하자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였다. 1485년 성종이 삼포의 왜인 무역에 대해 신하들과 논의하게 되었고, 여기서 우부승지 이세우(李世佑)는 무역하는 법이 비록 옛적부터 있었지만, 시대가 다르고 사세가 달라져 그대로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법인데, 혹시라도 이익을 다투다가 불화가 생기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다.

“삼포에 왜인들의 물품을 양산(梁山) 동원(東院) 나루에서 배로 역류(逆流)하여 7, 8 일이나 가야 바야흐로 화원(花園)에 닿게 되는데, 창고에 넣는 날에 이르러 조금이라도 전량(錢兩)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수량에 맞추어 추징(追徵)하므로, 영수하여 받는 관원이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따라서 도망해 흘어지는 사람이 자주 있습니다. 한갓 관원이 그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삼포에서 동원 나루까지의 거리가 부산(釜山)에서는 1식(息: 30리) 쯤이고, 제포(濟浦)에서는 3식(息)이고, 염포(鹽浦)에서는 4, 5식(息)이 되는데, 비록 농사철이라 하더라도 인마(人馬)를 뽑아서 정하여 짐을 실어 수송하게 하고, 웠다갔다 하는 동안에 으레 4, 5일이 걸려 농사에 방해가 되고 시기를 잊게 되므로, 백성들이 받는 폐해가 또한 적지 않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왜인들의 물품을 삼포에 갖다 놓을 적에 소재지의 관원이 회계하여 기록하고, 백성으로서 사기를 원하는 자가 호조(戶曹)에 신고하면, 호조에서는 이전에 사섬시(司贍寺)에다 대가(代價)를 바치고 무역하던 예에 의하여 물가가 높거나 낮은 대로 대가를 낮추거나 올려서, 아무 사람의 베(布) 몇 필, 아무 물품이 몇 근량(斤兩)이라는 것을 갖추 기록하여 문(牒)을 발급하고, 소재지의 관원은 그 문서에 의하여 베를 받고서 수에 맞추어 제급(題給)하게 하며, 전에 받은 베로 뒤에 오는 왜인들의 물품값을 충당하기도 하고, 혹은 관아에서 대가를 주고 무역

하여 이전처럼 화원현으로 실어 들여 국가의 사용에 대비하게 하며, 또 엄중하게 금방(禁防)을 세워 장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삼포에 왕래하지 못하게 한다면, 수송하는 폐단이 없어 관청이나 백성이 모두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호조(戶曹)에서 아뢴 바처럼 백성들로 하여금 오는 대로 사게 하느라 왜인들과 일시에 함께 오도록 해 놓고 곡진하게 방비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세우는 동원진에서 화원창까지 왜물수송에 따른 창고에 입고하는 부족분의 추징 문제와 수송에 동원되는 백성들의 고충 문제를 지적하고, 삼포에서 왜물에 대한 상인의 직접 거래를 차단하고, 사문진 화원창에서 모든 관·사무역을 시행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승지(承旨)들도 단지 상인들에게 화원(花園)에서만 왜인의 물품을 무역하도록 하여 관아에서 대가를 거두어 삼포(三浦)로 전달하여 보내고 담례로 하사하는 수량을 보충하게 한다면, 포소(浦所)에서 왜인들의 물품이 품절되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인들과 서로 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여기서 화원창은 예전에는 인흥사(仁興寺)를 빌려서 화원현의 군수·미곡을 저장하였는데, 세조(世祖) 때에 화원의 남쪽에 다시 세웠다. 왜국의 사신이 가지고 오는 동(銅)·철(鐵)·선목(蘚木) 등 여러 가지 물건을 저장하여 사용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대체로 화원창은 1446년(세종 28년)부터 40년간 왜와의 무역창고로서 역할을 하였지만, 1472년(성종 3년)에 왜물고(倭物庫)가 설치되어 대일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맡았다. 낙동강 사문진에 왜물고를 두고 왜무역의 장소로 삼았던 것은 왜인들을 빠른 시일내에 귀환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조선내 지리를 비롯한 많은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삼포에서 왜물대금에 우선 국고나 관수물(官需物)로 지급하여 수급하였다가 동원진 수참으로 수송하고, 다시 사문진 왜물고에 저장되었다. 이곳에서 왜물 중에 국가 소용품은 서울까지 운송되었고, 나머지 물품은 민간에 매매되었다.

그래서 동원진 수참은 왜인 사신이 삼포에서 도착한 후에 낙동강을 이용하여 서울 동평관까지 사행하는 길에 첫 기착지이다. 동원진 수참은 낙동강을 통한 왜사신의 사행을 위해 필요한 것인 왜료를 준비하여 7~8일이 걸려 성주의 사문진에 있는 화원창·왜물고까지 참선의 운행과 관련 제반 사항을 맡아 수행하였다. 왜인 사신 일행은 사문진 화원창에서 다시 상주 수산역까지 수로로 도착되었다. 이후 상주 함창~문경 조령관~충주까지는 육운되었고, 남한강 수로를 이용해서 서울 왜관(倭館)인 동평관(東平館)에 도착되었다.

왜 사신 일행에게는 사행 중에 필요한 식량인 왜료(倭料)가 지급하였다. 대체로 왜 사신의 지급 비용이 6백여석으로 삼포를 중심으로 왜료를 수납하게 하였다. 왜료에 대한

성종 때 경상도 수납 사정을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공안(貢案)에는 왜료(倭料)가 ‘어느 고을에서 몇 석’이라고만 적혀 있고 거두어 들이는 도회관(都會官)이 없으므로, 그 고을에서 스스로 거두었다가 도로 백성에게 주어 포소(浦所)에 실어 가서 바치게 하니, 백성에게 폐해가 미칩니다. 이제부터는 웅천(熊川)을 도회관으로 하여 웅천과 진주(晉州) · 김해(金海) · 창원(昌原) · 의령(宜寧) · 함안(咸安) · 곤양(昆陽) · 거제(巨濟) · 고성(固城) · 사천(泗川) · 남해(南海) · 하동(河東) · 단성(丹城) · 산음(山陰) · 삼가(三嘉) · 진해(鎮海) · 칠원(漆原) · 성주(星州) · 초계(草溪) · 고령(高靈)을 여기에 소속시키고, 동래(東萊)를 도회관으로 하여 동래와 경주(慶州) · 밀양(密陽) · 대구(大丘) · 양산(梁山) · 기장(機張) · 언양(彦陽) · 현풍(玄風) · 창녕(昌寧) · 영산(靈山) · 장기(長?)를 여기에 소속시키고, 울산(蔚山)을 도회관으로 하여 울산과 흥해(興海) · 영일(迎日) · 청하(淸河)를 여기에 소속시키소서. 그리고 모두 전세(田稅)의 예(例)에 따라 세리(稅吏)를 정하고 전부(佃夫)가 스스로 도회관에 바치게 하되, 풍년이면 그 세(稅)에 여유가 있을 것인데, 울산은 영(營) · 진(鎮)이 있는 곳이므로 그 남은 세도 모두 실어 들여야 마땅하고, 웅천 · 동래는 바닷가의 작은 고을이므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니, 웅천에 소속된 고을들은 김해에서 받아들이고, 동래에 소속된 고을들은 양산에서 받아들였다가, 왜료가 모자랄 때를 당하거나 임시(臨時)로 가져다 쓰게 하소서. 왕이 윤허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경상도 지역에는 웅천(熊川) · 동래(東萊) · 울산(蔚山) 세 곳에 도회관을 두고, 전세(田稅)의 예(例)에 따라 식량을 거두어 왜료를 마련하였다. 이때 동래(東萊)로 바치는 경주 · 밀양 · 대구 등의 왜료는 양산에서 거두어 저장하도록 하였고, 만약 왜료가 모자랄 때는 가져다 쓰게 하였다. 여기서 양산에서 거두어 들였던 왜료가 저장되었던 곳은 왜사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동원진 수참의 창고이라고 본다.

⑤ 동원진 수참의 쇠퇴

동원진 수참건물은 임진왜란으로 파괴되었고, 그 복구는 일차적으로 정부나 양산군에서 재원조달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으로 삼포왜란 이후에 왜인무역에 대한 정부가 포용적이고 미봉정책으로 인해 동원진 수참의 업무는 연속적이지 못하여 존폐여부에 이르는 처지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임진왜란 이후 왜국과 외교관계가 재개될 때까지 왜국사신업무가 전무하게 되자 수참을 폐쇄하는 한 요인이 되었다. 이후 인접에 있는 감동진에 감동창이 설치되어 조세미, 군수미, 왜료 등의 수취·운송·보관업무를 취급하게 되자, 동원진 수참의 창고와 조운의 운송기능도 필요없게 되었다. 감동창으로 인하여 포구상업 중심으로 감동장이 번성하게 되자, 왜인무역에서 밀무역을 단속하는 기구를 동래부가 구법진에 기찰을 설치함으로 감동진 수참의 단속업무도 사라지게 되었다. (『낙동향토문화연구』 1집, pp 141~156)

(5) 주막(공창, 화정)

① 금곡동의 주막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은 낙동강 천삼백리가 흘러 경남 김해 신어산과 양산의 천태산 협곡을 지나면서 금정산과 넓은 김해평야를 만나 부드러운 유속이 되어 바다로 흘러드는 길목에 있다. 그리하여 이곳은 옛부터 낙동강변에 유명한 동원진(東院津)을 이용한 동원(東院)이 설치되었다. 인근의 김해, 양산과 내륙 깊숙이 선산, 안동까지 물류의 이동과 왕래가 활발하였으며 바다쪽으로 나아가서는 남해안 지방과 멀리 왜국의 사신들이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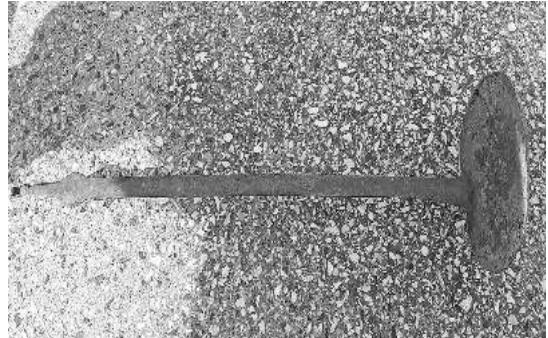
대체로 조선후기에 금곡동 화정과 공창에는 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류이동과 어자원(漁資源)이 풍부하여 많은 사람들의 왕래로 주요 길목인 수로와 육로의 교차지점인 나루터에 화정주막(酒幕)과 공창주막이 있었다.

화정(花亭)주막의 주모는 뚱뚱한 여인네(주민 이종철의 모친)가 타계후 그 혼적을 알 수 없으며, 공창(公昌)주막은 현재 도시철도 2호선 금곡역에 위치하였다. 이곳에서 대(代)를 이어오던 주막은 1970년 후반까지 주막과 함께 한 김정자(37년생, 김해 활천 출생)씨의 시댁으로 1958년 시집와서 남편과 시부모 등 가족이 영업을 함께 하다, 금곡동의 도시화로 주막을 그만두고 현재 공창마을에 생존하고 있다.

공창주막은 상호가 없고 주막의 표시로 대문옆에 창호지로 “주(酒)”와 “회 썰어 팝니다”라고 붙여 있었고, 집 구조는 갈대로 지붕을 이은 5칸 캠집으로 길게 벌어있는 작은 주막으로 방 몇 개와 술청이 있어 낮동안만 장사를 하였다. 주막앞 도로변에는 양산과 구포를 이어주는 버스종점으로 큰 회양나무 두 그루가 있어 길손들의 휴식처로 제공되었고, 막걸리와 회, 국밥 등으로 허기를 면하게 하였다. 주요 손님으로 양산과 김해에서



김정자 할머니 모습



3대째 사용했던 국자



회판매시 사용한 저울

숯과 장작을 구포장으로 이동하는 짐꾼과 낙동강에서 조리(笊籬)게배를 이용하여 붕어, 장어, 재첩 등을 잡아 파는 어부(1조 20명), 버스로 양산과 구포, 부산으로 이동하는 승객들이 이용의 대상이었다.

이용손님 중 때로는 외상으로 거래한 경우, 장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였고 가끔 숙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숙박은 하지 않았지만 불쌍한 사람과 멀리서 온 나그네들은 무상으로 재워주기도 하였다.

어느 해 정월보름 앞날 비오는 날 젊은 사람이 숙박하기를 청하여 불쌍하다고 재워주었는데, 집안의 양복 등 물건을 도둑질 당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철길 주변 텃밭을 활용하여 채소 등을 재배하기도 하였다.

② 공창주막 주변의 일

주변에는 밀양으로 이어지는 경부선 철길과 도로변에는 정미소가 있었고, 그 안쪽에 누룩공장이 있어 이곳에서 생산된 누룩은 부산과 경남 일원의 막걸리 제조회사로

공급하였다. 사장은 안동 김씨이고, 직원들은 공창의 여인들로 누룩작업과 차량에 적·하차(積·下車)를 하며 때로는 이동시 머리에 이고 날랐다.

주막 앞 낙동강에는 여름철 태풍이나 큰물이 나면, 안동지역 등 상류에서 떠내려온 나무, 가축 등 각종 부유물이 구포를 지나 남해안 바다로 흘러갔다.

그리고 공창마을 뒤편의 금정산에는 6.25동란이 끝난 이후에도 공비가 출몰하였는데, 1953년경에 공비가 공창 주막 앞 도로변과 일부 집까지 들어와 총격질을 하여 7명의 인명(人命)이 사상(死傷)되고, 주막에 탄흔을 남기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6) 공창마을의 장승과 솟대

솟대는 삼한(三韓)시대에 질병과 재앙을 없애기 위한 제사를 지내던 소도(蘇塗)에서 유래한 것으로 별읍(別邑)이라는 성역(聖域)에 세웠는데, 그 형태는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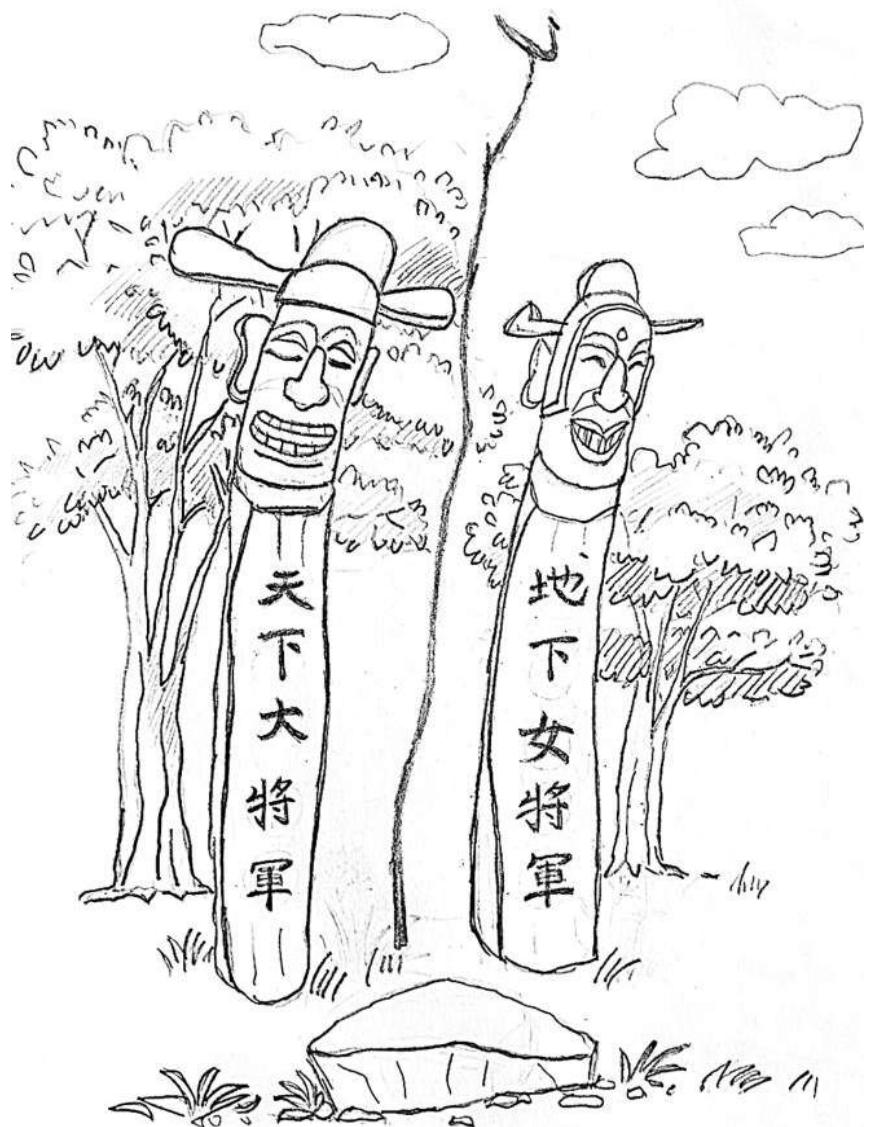
첫째, 화간(禾竿), 풍간(風竿)으로 개인의 가정에서 임시적으로 경축기도 등에 세웠다. 둘째, 조간(鳥竿) 또는 화주(華柱)라 하여 과거 급제한 자가 자기 집이나 조상의 산소에 세우는 것으로 오리를 장대 끝에 세 마리를 올려놓았다. 셋째, 신간(神竿)으로 마을의 수호신 역할로 촌락의 입구나 경계에 세웠는데 마을에서 공동으로 영구적으로 관리하고 동제(洞祭)를 지냈다.

금곡동 공창마을의 솟대는 마을 수호신 역할을 하는 신간(神竿)으로 마을 공동체의 안녕과 재앙, 질병, 풍요를 위하여 세웠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솟대가 있었던 장소는 마을 입구였던 곳으로 북구 효열로 219번길 45이며, 현재 장수꼬리곰탕 금곡점에 위치하였다. 그곳에는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과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의 장승 사이 중앙에 긴 장대의 솟대로 장대 끝에 나무로 각은 오리를 올렸으며, 앞에는 상석(床石)을 두었는데 삼각형태의 자연석이었다. 상석에 재물을 진설하여 하당신(下堂神) 거릿대제를 지내면서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빌었던 것이다.

1959년 사라호 태풍 전후로 솟대는 없어졌으나, 그 뒤에도 솟대가 있던 자리에 하당신(下堂神)제를 지냈다.

이오용 자문위원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박미숙 연구위원이 그림으로 복원하여 보았다.



공창마을 입구에 있던 장승과 솟대 복원도

2) 비석과 알터바위

(1) 행군수손후상일 훌민선정비(行郡守孫侯相駟 恤民善政碑)

손상일(孫相駟, 1812~?)의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선일(善一), 호는 오루(梧樓)이다. 1840년(헌종6년) 식년시 병과에 급제하여 1864년(고종1년) 사헌부 집의(執義)에 임명되었다. 1867년(고종4년) 통례원 좌통례를 거쳐 1870년 홍문관 수찬(修撰)을 지내고 그해 양산 군수로 부임하였다.



행군수손후상일 훌민선정비

양산 군수로 재임 시 손상일은 향교를 새로 짓고 사찰의 폐해를 바로잡았으며, 군민들의 토지 문제를 해결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1873년(고종10) 홍문관 부교리가 되었고, 1878년(고종15) 경상도 유생들과 서원 복구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훌민선정비는 16자로 치적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川浦沙陳(천포사진): 냇가에 모래벌판 펼쳐져

我境民(막아경민): 우리 경내 백성들에게 병폐가 되었네

捐廩蠲俵俵(연늠견표): 관곡을 대어 세금을 대신하셨으니

爲政以仁(위정이인): 정사를 품에 인으로써 행하셨도다.

동치12년(1873) 계유2월 일(同治十二年 癸酉二月 日)라고 적고 있으며, 동원마을 앞에 세워졌다가 금곡청소년수련원 정원으로 옮겨져 있다.

손상일을 기리는 비석은 이곳 이외에도 경상남도 양산시 교동 양산 향교에 있는 손상일 영세불망비(孫相駟永世不忘碑)와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통도사에 있는 양산 군수 김세호 손상일 영세불망비(金世鎬孫相駟永世不忘碑)가 있다.

(2) 효자 천승호와 열녀 이씨 정려비(孝子千乘昊烈女李氏旌閭碑)

① 개요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청소년수련원 정원에 있는 효자 천승호와 열녀 경주 이씨를 기리기 위해 조선 고종 9년(1872)에 양산 유림 건의로 세운 비(碑)이다.

② 비문

정려비로 앞면은 ‘효자 증 통훈大夫 사헌부 감찰 천공 승호 지려 열녀 감찰 천승호 처 증 숙인 경주 이씨 지려 자 치형 (孝子贈通訓大夫 司憲府監察 千公乘昊之間 烈女監察 千乘昊妻贈淑人 慶州李氏之間 子致亨)’ 와 뒷면은 동치 십일년 임신 십일월 십육일 수(同治十一年 壬申十一月十六日 竪)으로 1872년 11월 16일에 세웠다는 기록이다.

③ 형태

정려비는 높이 135cm, 넓이 72cm, 두께 14cm의 사각형 비신(碑身)만 세우고 비석 머리 양쪽을 세모로 줄인 형태이다. 비석 양 옆에는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옥개석 모양의 개석(蓋石)을 덮어 마치 비각(碑閣)처럼 비석을 보호하고 있다.

④ 내용

금곡동에 살던 천승호(본관: 영양, 1817~1866)는 임진왜란 공신(功臣) 천만리의 후손으로서 7세에 부친을 여의고 홀로 된 모친을 모시고 살았는데, 어느 겨울 모친이 중병에 걸려 화사(花蛇: 꽃뱀)를 구해야 낫는다는 말을 듣고 눈물로 찾아 헤매니 하늘이 감동하여 구할 수 있었다고 하며, 그의 부인 이씨 또한 열녀로서 시모(嫡母)를 지극 정성으로 모시고 남편이 죽은 후 그 뒤를 따르니 이들 부부(夫婦)의 착한 행실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양산 유림에서 건의하여 나라에서 천승호를 통훈대부(通訓大夫) 사헌부 감찰(정 3품)로 처 이씨를 숙인(淑人)으로 추증하고 열녀로 추모하여 효자열녀비를 1872년(고종 9년)에 세우게 된 것이다.

이 비는 율리마을 가는 입구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것을 1990년대 도시계획으로 금곡중학교 앞에 옮겼다가 금곡청소년수련원 정원으로 옮겨져 보존되고 있다.

(참고자료: 『낙동강 사람들 제18호』, 낙동문화원, 2006)



효자 열녀 정려비 (앞면)



효자 열녀 정려비(뒷면)

(3) 행군수이후계필 청덕흘민비(行郡守李侯啓弼 清德恤民碑)

금곡 동원진의 언덕위에 있던 것을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100-1번지에 있는 금곡 청소년수련원 정원에 옮겨 새로 받침대를 붙여서 보존된 양산군수 이계필(李啓弼) 청덕흘민비이다. 이 비(碑)는 양산군수 이계필을 기리기 위해 세운 음각 석조비(石造碑)로 1902년(고종6)3월에 세웠다.

형태는 직육면체의 비석에 지붕돌을 얹었고 받침대가 있다. 비석의 앞면 중앙에 제액을 새기고, 그 좌우에 공덕 내용을 기재하였다. 뒷면에는 비석을 세운 해와 관련 인물의 직위와 성명을 새겼다. 비의 크기는 높이 146cm, 너비 51cm, 두께 23cm이다.

금석문으로 비의 앞면에는 ‘행군수이후계필 청덕흘민비(行郡守李侯啓弼 清德恤民碑)’라는 비제(碑題)와 함께 “은혜를 베푸신 돈이 길에 널려 있고/ 재정을 덜어 병든 이



이계필 군수 청덕흘민비

고쳐 주셨네/ 세금을 조용히 거두셨고/ 송사를 깨끗이 판결하셨네/ 누구인들 은혜를 입지 아니했겠는가/ 우리 고을이 가장 기뻐하네/ 이 비석 부서지고 놓지도 말아라 / 고을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리라(鋪錢互途 捐金醫病 斂刷從容 試決清淨 孰不蒙恩 吾最咸喜 麻湖麻磨 與郡終始)"고 적혀 있다. 뒷면에는 "광무 6년 임인년(1902) 3월 일에 세움. 향장 최응건, 전수교 지상호, 수서기 정현직, 호장 전창록, 수형리 김인식, 도감 서재권, 시수교 허선, 도감 김덕현, 공창리 준위 신경택, 지사인 강대황, 동원지사 최유영, 준위 윤학문(光武陸年壬寅 三月日立 鄉長 崔應健 前首校 池尙塚 首書記 鄭憲植 戶長 全昌祿 首刑吏 金仁埴 都監 徐在權 時首校 許宣 都監 金德鉉 公昌里尊位 慎敬澤 知事人 姜大璜 東院知事 崔有瑛 尊位尹學文)"이라고 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적 측면의 이계필 청덕흘민비는 대한제국 때 양산 군수 송덕비의 제작 양식을 알 수 있는 실례이며, 비석 제작 관련자의 직위와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 당시의 단편적인 인물 정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진홍사 금호당 대선사 부도탑비(錦浩堂 大禪師 浮屠塔碑)

금호당 대선사 탑비는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효열로 162번길 180-14 진홍사 입구 좌측에 있는 화강암 석비(石碑)로 통도사와 선사를 추모하는 후인 및 신도들에 의하여 조성되었다.

금호당 대선사의 본명은 김윤학(金閏學, 본관 김해, 1896. 11. 15.~1974. 3. 7.)이며 당호(堂號)는 금호(錦浩)이다. 경상남도 양산군 하북면 용연리 630번지 내연사 인근 마을에서 4남 2녀중 4째로 출생하였다.

1910년 9월 15일 통도사로 출가하여 호봉당 경명선사를 은사로 사미계를 받으시고, 은사를 따라 양산 미타암에서 은사의 법사이신 혜명노사를 시봉하였다. 해담율사에게 구족계를 수지하고, 이후 15년간 금강산 마하연, 오대산 상원사, 범어사 금어선원 등에서 운수衲자(雲水衲子)로 전국 각처 선원에서 정진하였다. 그리고 사찰소임으로 양산내원사 원주, 기장 옥정사 주지 등을 역임하였으며, 만년(晚年)에는 부산 천마산 칠보사에서 주지로 주석(主席)하였다.

이곳에서 어렵고 외로운 청소년 10여명을 길러 훌륭한 사회인으로 진출시키고 주변의 불쌍한 사람들을 무주상(無住相)의 보시와 무애(無碍)하신 보살행을 실천하시다 1974년 3월 7일 세수 77세(법랍 64세)로 열반에 드셨다.



금호당 탑비

그리하여 통도사 방장 심우 김용태스님이 창건하신 원효정사(현재 진홍사)에서 선사
를 간절히 추모하는 마음으로 부도탑비를 조성하여 건립하게 되었다.

(5) 진홍사 대산당 선사 승탑 및 공덕비(大山堂 禪師 僧塔 功德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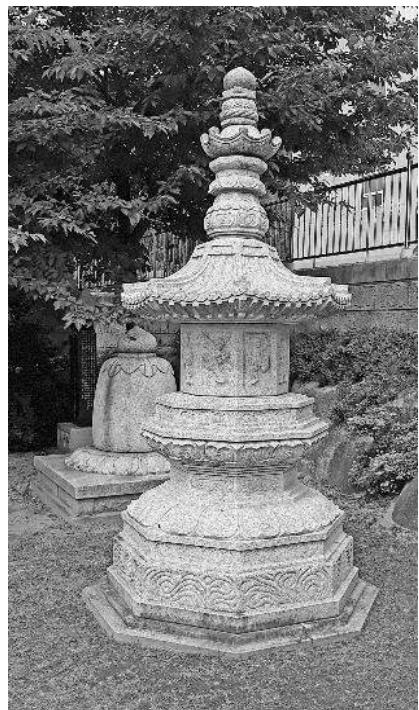
대산당 선사 승탑 및 공덕비는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효열로 162번길 180-14 진
홍사 입구 좌측내측에 화강암 석비(石碑)로 만덕 지장정사와 선사를 추모하는 후인 및
신도들에 의하여 2001년 4월에 조성되었다.

대산당 선사의 본명은 서영석(徐永錫, 본관 달성, 1927. 7. 10.~ 2000. 2. 18.)이며 당
호(堂號)는 대산(大山)이다. 출신은 서울특별시이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재학중이던
1946년 충남 정혜사에서 황용음스님에게 비구계, 1948년 경남 해인사 상월스님에게
구족계와 보살계를 받았다. 1974년 부산 만덕동 지장정사에 주지로 추임하여 포교에
힘썼으며, 소년가장 등 불우이웃을 도와 무애보살의 자비행을 실천하였다.

세수 74세(법랍 55)세에 열반하였으며, 150여과의 사리를 승탑에 봉안하였다.



대산당 공덕비



대산당 승탑

(6) 율리 알터바위유적

① 알터바위의 흔적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1239번지 율리마을 입구 금곡대로변에 있는 당산나무 울타리안에는 몇 개의 바위가 놓여 있는데, 그중에 크고 작은 구멍이 여러개 뚫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성혈(性穴, Cup-mark)이라 불리는 율리 알터바위 유적이다.

북구 금곡동에는 성혈이 있는 알터바위가 현재까지 3개가 발견되었다. 잘 보존되어 있는 율리마을 당산나무 안의 율리 알터바위가 1개이고 나머지 2개는 파손되어 없어져 버렸다. 파손된 2개의 알터바위는 양산과 구포쪽으로 향하는 길가 옆에 있었는데, 알터바위가 거암(巨巖)으로 성혈과 여러 사람들의 각명(刻銘) 및 시구(詩句) 등 흔적이 함께 있어 이 마을의 역사가 오래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파손된 사유는 율리마을의 율리천 하류 계곡에 1개가 있었는데, 호안(護岸) 공사를 할

때에 깨어서 석축(石築)에 사용되었다. 나머지 1개는 율리마을 옆 동네인 동원마을 당산 밑에 있었다. 그런데 알터바위가 마을안의 바깥쪽에 위치하여 있어 옆집의 담을 쌓는 석재로 사용되어 없어졌다고 한다.

② 성혈(性穴)

성혈(Cup-mark)은 바위 표면에 흠처럼 파여진 구멍 또는 오목하게 갈아서 만든 컵 모양 혹은 원추형 흠으로 크기는 직경 5~10cm의 정도에 깊이 3~5cm 내외가 대부분이나 15~20cm의 큰 것도 있다.

덴마크와 시베리아에서 발견되어 그곳에서 이렇게 명명(命名)되었다. 일반적으로 생 산과 풍요를 비는 원시종교의 유적으로 연관되며, 민간에서는 이를 알터바위, 알바위, 알 끼, 알구멍, 바위구멍 등으로 불리어진다.

성혈은 시베리아지역에서 신석기시대 말기에 나타났으며, 넓은 지역으로 분포와 전파 되었다. 청동기시대의 발달한 암각화와 관련지어 상한 연대를 BC 7~8C로 보고 있다.

한반도 역시 시베리아에서 전해온 것인데, 청동기시대부터 시작하여 석기시대의 거 석신앙(巨石信仰) 형태인 고인돌이나 선돌의 표면에도 성혈의 흔적을 볼 수 있으며, 늦은 시기인 최근까지 이런 원시신앙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온 지역도 광범위하고 이런 풍속을 시골에서도 볼 수 있었다.



율리 알터바위 성혈

③ 알터바위의 의미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은 생산과 풍요를 염원하는 것이 생활의 첫 번째 과제였을 것이다. 그것은 다음세대를 이어갈 종족 본능과 현실에서 삶이라는 생활 차원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나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 할 수 있겠다.

풍요와 생산을 기원하는 원시신앙이 생겨나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알터바위 유적으로 오랫동안 존재하며 전통이 이어져왔다.

그리나 지역에 따라서는 바위에 어떤 주문을 외우며 돌로 찧어서 구멍을 파거나 길쭉한 돌로 구멍을 갈며, 한 개의 바위에 작은 구멍 여러개를 파는 수도 있고 또는 한 개의 바위에 큰 구멍 한 개를 파는 성혈(性穴)이 있었다. 이는 최근까지 시골아낙들이 아들을 낳게 해 달라는 속신(俗信)으로 전해지고 있다.

성혈에 대한 여러가지 의미의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씨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둘째, 자연현상인 천둥을 경외한 표현이다. 셋째, 태양숭배사상이다. 넷째, 밤하늘의 별자리인 북두칠성으로 탄생과 죽음을 뜻하는 것을 사람사는 세상속으로 옮겨 표현한 것이다. 다섯째, 피장자의 신분 서열과 가족의 수와 연관되었다. 여섯째, 생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성혈(Cup - mark)이다. 일곱째, 아들을 낳게해 달라는 기원이다. 등으로 성혈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하며 종교적 행위 및 장례의식, 생산과 풍요의 기원 등등 여러 가지 각도로 이해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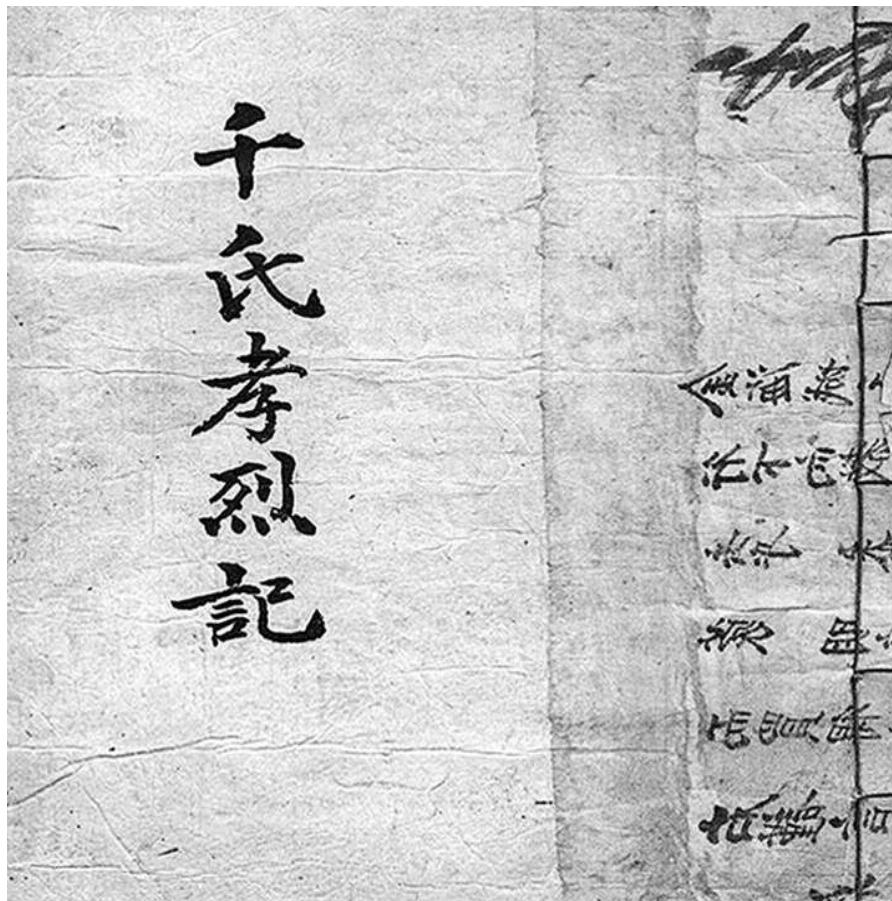
(참고자료: 『낙동향토문화 연구』 제1집, 낙동문화원, 2020.)

3) 문서

(1) 천씨효열기(千氏孝烈記)

①『천씨효열기(千氏孝烈記)』에 대하여

『천씨효열기』은 천씨문중의 천익주(千益柱: 종손)가 소장해 오던 문집을 당시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겸 낙동문화원 백이성(白珥成)님이 발굴하여 한학자 권정석(權正錫) 흥의서당 훈장님과 함께 발췌 번역한 고문서이다. 이번에 필자가 문화를 계승, 전파하는 의미에서, 독자로 하여금 체계적이고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발굴한 사진과 국문 해석을 연결하여 기록을 재구성, 편집하였다.



천씨효열기 표지

천씨효열기는 1870년 10월에 가로 20.5cm, 세로 30cm, 내지의 전체장수는 34장이며, 행자수는 대부분 세로 10행으로 되어 있다. 효자 천승호와 열녀 경주이씨 효열에 관련된 상소와 보고문, 정려비 제작 등 문서를 필사하여 끈으로 묶은 육침안정법(六針眼訂法)의 선장본(線裝本)으로 만들어진 서책이다. 첫 페이지에는 천씨효열문집(千氏孝烈文集)이라고 되어 있다.

②『천씨효열기(千氏孝烈記)』 목차

- 1) 대하면(大下面) 덕두리 존위 및 지사인 위첩보사(爲牒報事)
--- 존위(尊位) 및 지사인(知事人)이 올린 공첩(公牒:공문) --- 정묘(丁卯, 1867년) 8월 25일
- 2) 녹산면(菉山面) 집강서목(執綱書目) --- 녹산리(菉山里) 집강(執綱)
金○○가 올린 정려(旋閭) 포상(褒賞) 신청서 --- 계묘(癸卯, 1903년) 3월 초7일,
집강 김○○
- 3) 대하면(大下面) 유림(儒林) 등 상서 --- 대하면 유림(儒林) 73인이
연명으로 성주에게 올린 글 --- 정묘(丁卯, 1867년) 10월 --- (題音) 감영에 보고
할 것이라는 답신이 옴
- 4) 본군(本郡) 유림(儒林) 등 상서(上書) --- 양산군 유림 63인이 연명으로 성주에게
올린 글 --- 경오(庚午, 1870년) 10월
- 5) 대하면 유림 등 근재배상서우(謹再拜上書于) --- 대하면 유림 90인이 연명으로
성주에게 올린 글 --- 무진(戊辰, 1868년) 3월
- 6) 대하면(大下面) 집강서목(執綱書目) --- 대하면(大下面) 집강(執綱) 박○○가 올
린 건의문 --- 무진(戊辰, 1868년) 3월 초
- 7) 양산거 유학 유영렬(柳永列), 정시권(鄭時權) 등 상서(上書) --- 양산군 유림 유영
렬, 정시권 등 174인이 연명으로 성주에게 올린 글 --- 무진(戊辰, 1868년) 윤4월
○일
- 8) 대하면(大下面) 유림(儒林) 등 근재배상서(謹再拜上書) --- 대하면 유림 89명이
연명으로 3번째 다시 올린 글 — 기사(己巳, 1869년) 9월
- 9) 양산유학(梁山幼學) 정시권(鄭時權), 백사현(白思絢) 등 근재목재배상
서우(謹齋沐再拜上書于) --- 양산군 유학 정시권, 백사현 등 92인이 연명으로 순
상국합하(巡相國閣下)에게 재채 올린 글 --- 기사(己巳, 1869년) 12월

- 10) 대하면 유림 등 근재배상서우 --- 대하면 유림 90인이 연명으로 4번째 다시 올린 글--- 경오(庚午, 1870년) 정월 일
- 11) 도내(道內) 양산 진사 김원(金瑗) 선산진사 김기직 상주유학 유도빈 등 근재목재 배상서우 --- 도내(道內) 양산진사 김원(金瑗) 선산진사 김기직 (金基直) 상주유학 류도빈(柳道彬) 등 64명 연명—경오(庚午, 1870년) 10월
- 12) 도내(道內) 양산 진사 김원(金瑗) 선산진사 김기직 상주유학 유도빈 등 근재목재 배상서우 --- 도내(道內) 양산진사 김원(金瑗) 선산진사
김기직(金基直) 상주유학 류도빈(柳道彬) 등 재차 올림—경오(庚午, 1870년) 윤 10월
- 13) 예조입안문서(禮曹立案文書) --- 예조입안문서 동치(同治) 11년 (1872: 고종 9년) 4월 예조(禮曹)에서 입안한 효자 열녀정려 (旋閨)에 대한 문서 --- 판서(判書), 참판(參判), 참의(參議), 정랑(正郎), 좌랑(佐郎) 등 서명
- 14) 대하면(大下面) 존위(尊位)에게 명령을 전한 내용
- 15) 덕두리(德斗里) 존위(尊位)에게 명령을 전한 내용 --- 예조에 공문이 도착되어 감영에 진실 조사 보고를 의뢰한바 효행과 열행 사실을 물어서 즉시 보고할 일임을 전달함 --- 경오(庚午, 1870년) 10월 20일
- 16) 경오년 10월 대하면 덕두리 거 효자 천승호 열녀 이씨 효열행을 책으로 만듬 --- 천승호의 효행(孝行)과 그의 부인 열녀 이씨의 열행(烈行)을 적은 내용 --- 경오(庚午, 1870년) 10월 작성
- 17) 감결(甘結) 양산(梁山) --- 한성부에서 양산에 내려 보낸 공문(公文) --- 효자 천승호와 열녀 이씨의 포상에 대한 공문을 내려 보냈으나 고을에서 즉시 포고하고 그 집안에 면역(免役)할 일을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아전을 엄벌하고 잡역도 모두 면제하도록 할 것임을 나타냄 --- 임신(壬申, 1872년) 5월 초8일
- 18) 감결(甘結) 양산(梁山) --- 양산에 공문을 내려보냄 --- 본영(本營)에서 효자 천승호와 열녀 이씨의 효열행(孝烈行)에 대한 정려(旋閨) 의전(儀典) 시행에 대한 제시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임신(壬申, 1872년) 5월 초8일
- 19) 효열각(孝烈閣) 상량고사축(上樑告辭祝) --- 효열각에 상량을 올리면서 지은 고축문. 들보를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들어 올리며 축시를 읊은 내용
- 20) 정려상량문(旋閨上樑文) --- 정려(旋閨) 비각(碑閣)을 세우면서 지은 상량문
- 21) 정려각기(旋閨閣記) --- 정려비각의 내력과 효자 천승호와 아내인 열녀 이씨의

효행과 열행을 친양하는 내용 --- 양산군수(梁山郡守) 월성 손상일(月城 孫相
駟) 찬(撰)

22) 양산군 대하면 덕두동중(德頭洞中) 완문(完文) --- 덕두동중에서 논의(論議)하여 완결(完結)한 글. 수석(首席) 김종철(金鍾喆), 지사인(知事人) 박동호(朴東浩) 등 12인 연명과 존위(尊位) 김재로(金在魯), 필인(筆人) 윤기봉(尹基奉)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음 --- 광서(光緒)3년 정축(丁丑 1877년)

③『천씨효열기(千氏孝烈記)』 문서 내용

○ 대하면(大下面) 덕두리 존위 및 지사인 위첩보사(知事人爲牒報事)

대하면(大下面) 존위(尊位: 향촌의 존장)나 지사인(知事人)이 공첩(公牒) 즉 공문 서로 아뢰는 일은 대개 자기의 몸을 죽여 어진 행실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지극히 어려운 일이요, 어진 사람을 정려(旌閭)하여 열녀를 표창(表彰)함은 나라의 떳떳한 전례(典例)입니다.

본 마을 선비 천승호(千乘昊)의 아내 이씨(李氏)는 천성이 유순(柔順)하고 아름다우며, 본디의 행실이 엄숙하고 현숙(賢淑)하여 시어머니 섬김이 효성스럽고, 충성으로서(곧은 마음과 행실) 남편을 섬기며 자기 몸의 수행이 단정하고 엄격하며 집안을 다스림이 화평(和平)하며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사람을 접대함에 인으로서 용서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마을의 사나이나 마을의 부인네가 짚주리고 가난한 형편으로 위급함을 알리면, 음식을 주어 짚주림을 면하게 하고, 옷을 주워 추위를 면하게 하여 규문(閨門아녀자)의 혜택이 길 가는 사람까지 전하여 칭송토록 하였고, 더구나 남편 천승호가 지난 4월 21일 불행히 병을 만나 점점 위태하고 극심함에 이르러 이씨가 백방(百方)으로 돋고 구호하여 한결같은 정성으로 재계 목욕하며 매 밤, 하늘에 빌어 자기 몸으로 대신하고자 원했습니다.

천명(天命)이 한정(限定)이 있어 성(城)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남편의 사망)에 이르러서는 가슴을 치고 발로 뛰며 슬피 호곡(號哭:부르짖어 울기)하였으나 한결같이 모두 예절에 맞았고, 염습하고 성복함에, 유사(有司)에게 일임(一任)하고, 다만 시어머니를 위로하였으나 한 오금의 물도 마시지 못하며 쌀알 낱을 삼키지 못하였는데 성복(成服:상복을 입는 상중의 절차) 다음날에 아들과 딸을 불러놓고 울며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살아서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들은 반드시 숙부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집안의 명성을 더럽히지 말거라. 또한 너희 오빠와 남동생이 종가(宗家)의 뒤를 이었으니, 내가 죽은 뒤

에라도 마땅히 가사(家事)를 돌보지 않을 수 없겠구나. 너희들은 잘 있거라” 하면서, 또 출계(出系)한 아들을 불러 말하기를, “내 뜻이 결단되었으니 되돌릴 수 없다. 너는 모름지기 약한 아우와 약한 여동생을 잘 보호하여 내가 지하(地下)에서 유감이 없게 하여라.” 하면서, 드디어 짚주림을 참고서 별세하니,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날짜를 계산하면 쌀을 끊은 지 7일이었습니다.

사람이 하기에 능히 어려운 일을 이씨가 홀로 단행(斷行)하셨으니 어찌 장하고 아름답지 않으리오? 일이 터졌을 때 즉시 보고(報告)해야 마땅할 것이나, 신중(慎重)하게 살피려는 도리에 있어서 갑자기 경솔히 보고할 수 없어, 이 사실을 여러 곳에 널리 물었더니, 주변 사람들의 말이 함께 칭탄하였음에, 이에 감히 공첩(公牒)으로 보고하는 것이니 참작(參酌) 상량(商量)하신 뒤에 영문(營門)에 전보(轉報)하시어 어진 분을 정려(旌閨)하고 열녀를 포상(褒賞)하는 처지에 행실이 합치(合致)되도록 문서를 올리고 업드려 청하오니, 살피고 증철하시어 시행하도록 이상의 공첩을 관도(官道)에 올리나이다. 정묘(丁卯) 8월 25일.

존위(尊位) 朴○○, 지사인(知事人) 孔○○ 金○○ 李○○ 金○○
申○○ 閔○○

[제음(題音)]

이씨의 효열(孝烈) 절의(節義)를 들으니 매우 아름답고 높아 남다른 일이니 널리 여러 사람의 논의를 거쳐 채택하여 감영에 보고(報告)할 것임.

○ 녹산면(畢山面) 집강서록(執綱書目)

본면(本面) 녹산리(稟山里)에 사는 선비 천승호는 천성으로부터 솟아난 효성이 붉은 마음속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나이 겨우 7세에 문득 아버지의 상례(喪禮)를 당했으니 시체를 안고 슬피 부르짖어 피눈물이 솟아났으며, 3년간 소식(素食)을 행함이 노성(老成)한 이와 다름이 없었기에 이웃과 마을의 늙은이까지 모두 효동(孝童)으로 칭찬했으며 그 어머니를 섬김에 집안 형편이 매우 가난하여 산에 나무하고 물고기 잡아 달고 맛난 음식 공궤(供饋)가 모자라지 않았으며 어두우면 부모님 잠자리를 정하고 새벽에 살피며 문안드리는 일이나 부모님 계시는 자리가 따스한가 차가운가를 묻는 절차가 게으르지 않았는데, 지난 경인년(庚寅年) 겨울, 어머니가 풍질(風疾)에 걸려 여러 달 위태하다가 극심하시므로 능구렁이 여러 마리를 산중의 얼음과 눈 속에서 얻어 약으로 썼더니 풍병이 즉시 나았으며 또 부추 나물을 드시고자 원하시므로 담장 밑을 서성거렸더니 새파란 부추가 눈 속에 자라나 있었고 신축년(辛丑年) 봄에는 40리 김해읍(金海

邑) 시장에 송아지를 팔아 돈 열 꾸러미를 받아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산골짜기에 갑자기 도적들이 나와 칼을 가지고 몸을 수색하여 돈을 빼앗기에 승호가 울며 간청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병든 모친을 공양할 돈이요”

했더니 도적들이 그 효성 찬 말에 감동하여 돈을 던져주고 가버렸다. 이와 같이 하여 대개 겨울의 뱀으로 병을 치료한 것은 효자(孝子) 왕상(王祥)이 눈 속에서 잉어를 얻은 것이나 눈 속에서 부추를 원한 것은 효자 맹종(孟宗)의 죽순에 비하여 못하지 않은 것이며 도적을 감복시킨 것은 어찌 천고(千古)에 우뚝한 효성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높고 남다른 효행을 마땅히 정려(旌閭)로 포상(褒賞)하는 것은 전례(典例)에 합당(合當)한 연유입니다. 계묘(癸卯) 3월 초7일

집강(執綱) 金○○

[제음(題音)]

높고 남다른 효행을 듣기에 매우 가상하다. 마땅히 감영(監營)에 보고(報告)할 것과 고목(告目)으로 면중(面中)에 포고하여 호역(戶役)을 밝혀 면제할 것임.

○ 대하면(大下面) 유림(儒林) 등 상서

대하면(大下面) 유림(儒林) 등은 삼가 목욕재계하고 두 번 절하며 성주(城主) 양산군수 합하(閣下)께 글을 올리나이다.

대개 효도란 것은 모든 행실의 근원이며, 정렬(貞烈)이란 백행중(百行中)에 어려운 것 이기에 사람이 비록 여기에 한 가지만 있어도 그 효행의 자취를 민몰(泯沒) 시킬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효도와 정렬을 겸한 사람이 아니오이까.

민등(民等)은 이 높고 남다른 행실을 칭송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이에 감히 소리를 함께 하여 우러러 호소하오니, 엎드려 비는 사정을 세세(細細)히 둘러 살펴 주시옵소서.

본면(本面) 덕두리(德斗里) 선비 천승호의 아내 이씨는 타고난 성품이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평소의 행실이 엄숙하고 현숙하며 흘시어머니를 30여 년간 섬겨 어두울 때 잠자리를 정해 드리고 새벽에 살피며 문안하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게으르지 않았으며, 따습고 찬 온도를 때에 따라 알맞게 하며, 달고 맛난 음식을 마음에 맞추어, 욕구대로 해 드렸어도, 오히려 불효할까, 스스로 경계하여 공경하고 삼가, 매우 조심스럽게 모시어 깊은 못에 임하여 살얼음을 밟듯 하였으며, 매양 말하기를,

“부모에게 불효(不孝)한 사람은 비록 시장이나 조정에서 매를 맞더라도 부끄럽게 여길 수 없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남편이란 아내의 벼리이니, 무릇 아내 된 이는 남편 섬기기를 충직(忠直)하게 하지 않으면, 윤리 기강이 끊어지는 것이며, 몸을 닦고 집안 다스리는 차례에 또 남편이 아랫 사람을 거느리고 사람을 접대하는 사이에 그 어진 성품으로 용서할 일도 있을 것이며 마을의 남정네와 아낙네가 혹시 짚주리고 가난한 사정으로 급한 사정을 아뢰면, 음식을 주어 짚주림을 면하게 하고 옷을 주어 한기(寒氣)를 면해야 하니 규문(閨門)의 혜택이 길 가는 사람에게 전송(傳頌)되게 하였고 지난 4월 양중(良中)에 그 남편 천승호가 불행히 병을 얻어 점점 위태하고 극심함에 이르러 백방(百方)으로 다스리고 구호하기에 한결같은 정성으로 목욕재계하며 매일 밤에 하늘에 빌어 자기 몸으로써 병을 대신하기를 원하다가 성(城)이 무너지는 아픔에 이르러, 가슴을 치고 발로 뛰며 슬퍼 부르짖는 일이 한결같이 다 예의에 맞았으며, 염습과 성복을 유사께 일임시키고 다만 시어머님을 위안하였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절차를 전부 물리치고 삼키지 않으므로, 친척이나 비복들이 죽 물을 무수히 권하고 너그럽게 위안시켜도 끝내 들어 대응하지 않고 죽음을 자행함으로 그 시어머니 김씨께서 한잔의 죽 물을 권하고 타일러 가로되

“남편이 죽어 아내가 따르는 것은 일에 진실로 당연하나, 다만 슬하의 자식 걱정은 아니 하는 것인가? 1남 1녀가 모두 동자(童子)를 면하지 못했는데, 네가 만약 문득 목숨을 끊으면, 집안 사정이 망창함은(갑자기 큰일을 당하여 아무 계획이 없음) 물론 저 약한 어린애들이 밤낮 부르짖어 울 것이니, 내가 어찌 차마 보겠느냐? 네가 모름지기 마음을 돌려 다시 생각하여 목숨을 보전하거라.”

하였더니 이씨가 곧 눈물을 그치고 죽물을 삼키고는 곧 피를 토하는데 삼켜버린 것보다 배가 되었다. 이러므로 결의 사람이 다시 감히 권하지 못하였다. 성복(成服) 이 지난, 다음날 자녀를 불러 앞에 앉히고 쓰다듬어 울며 말하기를

“내가 지금 살아서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들은 반드시 숙부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집안 명성을 더럽히지 말 거라. 또한 네 오라비와 네 누이는 비록 종가(宗家)로 출계(出系)하였으나 내 죽은 뒤에 집안을 응당 돌보지 않을 수 없겠구나! 너희들 잘 있거라”

또 출계한 아들을 불러 울며 이별하는 말이

“내 뜻을 결단했으니 되돌릴 수 없겠구나! 너는 모름지기 약한 아우와 누이를 잘 보호하여 내 지하(地下)에서 유감이 없게 하여라”

는 말을 마치고는 곧 입을 닫고 별세하셨으니, 처음과 끝의 날짜를 계산하면 곡기를 끊은 지 7일 만이었다. 사람이 능히 하기 어려운 일을 이씨가 홀로 단행(斷行)했으니 어찌 장(壯)하지 않으며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 동네로부터 이미 첨보(牒報)가 되

었으니 교시(敎示)판결이나 처리하는 글)에

“이씨의 효행과 절의는 함께 높고 우뚝하여 남과 달라 듣기에 매우 가상(嘉尙)하므로 (아름답고 높으므로) 널리 여러 사람의 의견을 채택하여 요식(要式)을 갖추어 감영(監營)에 보고할 일이라고 교시(敎示)하였거니와, 사림(士林)이 천양(闡揚)할 도리라 끝내 민멸(泯滅)하고, 침묵할 수 없으므로 널리 여러 사람의 의논을 채택하여 연명으로 우러러 호소하였으니 참작 상량(商量)하신 뒤에 이씨의 지극한 행실과 높은 정렬(貞烈)을 영문(營門)이 보고하시어 포상(褒賞)을 아뢰어 정려(旌閭)할 것을 천만(千萬) 염드려 비오니 교시(敎示지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주합하(城主閣下)의 처분(處分)을 기다리나이다.”

정묘(丁卯) 10월 일

김석규(金碩奎) 이종권(李鍾權) 민치우(閔致佑) 강영황(姜永璜) 김창우(金昌佑) 정영(鄭暎) 나상규(羅相奎) 윤경신(尹敬莘) 공홍노(孔興魯) 백동경(白東璟) 안경윤(安景潤) 정시권(鄭時權) 안사벽(安思璧) 나상룡(羅相龍) 백사현(白思絢) 류영렬(柳永烈) 김우하(金佑河) 정윤민(鄭閔珉) 박동호(朴東浩) 이동연(李東演) 박유항(朴有恒) 김응노(金應魯) 공진의(孔進儀) 오기영(吳驥榮) 김진태(金振泰) 박지영(朴枝榮) 황종신(黃鍾晨) 신서종(申瑞宗) 김주택(金做澤) 김종철(金宗喆) 박규상(朴奎祥) 김치화(金致和) 김영기(金榮基) 오치문(吳致文) 김학조(金學祚) 민치현(閔致現) 김기순(金基淳) 조종한(曹宗漢) 안동인(安東仁) 박희준(朴羲駿) 손규택(孫奎宅) 신도열(申道悅) 김후호(金瑚鎬) 여민행(呂敏行) 장성동(張成東) 윤치은(尹致殷) 이성욱(李成旭) 김치영(金致榮) 김두규(金斗奎) 김영신(金永臣) 최영호(崔永浩) 강두렬(姜斗烈) 백진복(白振福) 김지택(金枝宅) 박건(朴建) 백락선(白樂宣) 이학조(李學祚) 장주한(張周漢) 이화택(李和宅) 서학순(徐學淳) 장성돈(張成敦) 황계룡(黃啓龍) 김기호(金基昊) 오봉기(吳鳳基) 방두열(方斗烈) 김유기(金裕基) 김기용(金基鎔) 김종현(金鍾鉉) 안사찬(安思燦) 구용조(具龍祚) 노화칠(盧化喆) 심의준(沈宜俊) 이경권(李慶權) 등

[제음(題音)]

들으니 매우 가상(嘉尙:아름답고 높음)하구나!

따라서 마땅히 감영(監營)에 보고(報告)할 일임. 17日.

○ 본군(本郡) 유림(儒林) 등 상서(上書)

본군(양산군) 유림(儒林)들이 삼가 두번 절하고 성주(城主, 양산군수) 합하(閣下)께 글을 올립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효자 열녀를 표창하고 정려를 내리는 것은, 국가의 아름다운 의전(儀典, 의식 전례)이요, 선행(善行)과 미담(美談)을 널리 알리는 것은, 사림(士林)들의 공의(公議)입니다.

본군의 옛 선비 천승호(千乘昊)는 곧 임진왜란의 공신(功臣) 화산군(花山君) 사암(思庵) 천만리(千萬里)[본래 중국인으로 명(明)의 원군장(援軍將)으로 조선에 남아 귀화(歸化)한 사람으로 김해 생림면(生林面)에 후손들이 거주함]의 9세손이며, 한성부(漢城府) 좌윤공(左尹公) 휘(諱) 상(祥)의 8세손입니다.

명나라 장군의 공신 후예로서, 그 전통을 이어받아 시례(詩禮)의 풍(風)과 타고난 효도를 배우지 않고도 글을 알았으며, 시체를 안고 땅을 치고 펼펼 뛰며, 숨이 여러 번 끊어져 피울을 3년을 울어 노성(老成)한 사람과 달리 없었으며, 여러 아이들이 풀밭에 뛰노는 장소에 발을 대지 않으며, 무당과 배우들이 북을 울리는 자리에 이목(耳目)을 대지 않으니, 이웃과 마을의 노인이나 소년이 감탄하지 않음이 없어 말하기를 ‘이 아이가 겨우 젖 뗄 나이에 효행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고금(古今)에 드문 일이다’ 하였는데, 상(喪)을 마치자 가계(家計)가 전혀 없어, 부엌 연기가 여러 번 끊어져도, 매양 흘어머니를 봉양하지 못한 지극한 통한으로 산에서 나무하고 물에서 고기 잡아, 중국 처사 당대(唐代)의 동소남(董召南)처럼 맛난 음식이 끊이지 않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서늘하게 하는 횡향(黃香)의 지성(至誠)이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직기 풍담(風痰)으로 여러 달 병에 누웠는데, 입은 옷에 띠를 풀지 않고, 자리는 곁을 떠나지 않으며, 이리저리 약을 물었는데, 의원의 말이, ‘능구렁이(花蛇화사)가 가장 좋은데, 때가 겨울이니, 어디서 얻겠는가! 승호가 하늘을 부르며 울어 널리 구하니, 끝내 얼음과 눈 쌓인 산에서 얻어 어머니 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가 학질을 앓아 좋은 음식을 구할 길이 없어, 송아지를 시장에 팔아 받은 돈 10꿰미를 가지고 저녁에 돌아오는데, 산골에서 갑자기 산적(山賊) 두 세명이 나타나 칼을 휘둘러 돈을 뺏으니, 승호가 병든 어머니 봉양할 돈이라고, 지성으로 울며 간청하니, 말씨가 사람을 감동시켰다. 적도들이,

“당신이 효자 천승호인가?”

“성명(姓名)은 맞으나 효자는 아닙니다.”

“효자의 이름은 일찌기 귀 따갑게(우뢰처럼) 들었다. 우리들이 비록 흥년으로 곤란하나, 어찌 감히 효자의 돈을 빼앗아, 모친 봉양을 못하게 하리까?” 하며, 백배사죄하며 가버렸습니다.

대개 성효(誠孝)가 동물을 감동시켜 능구렁이가 저절로 나왔고, 사람을 감동시켜 흥도(凶徒) 산적들이 저절로 교화(敎化)된 것입니다.

23세에 비로소 결혼하여 능히 부부의 도리를 다하여 또한 부부유별(夫婦有別)의 뜻을 다하였고 그 아내 경주이씨는 본래 전통 있는 가문의 딸로, 천성이 순수하여 바탕과 행실이 정숙하며, 이미 어진 보모(保母)의 훈계를 듣고, 또 남편의 법도를 따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시어머니를 봉양하니, 물 길고 방아 짹고 길쌈하기 30여년에 혈기(血氣)가 이미 쇠약해도 혼정신성(昏定晨省)의 절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부지런하였고, 방이 차고 더운 문안까지 밤이나 낮이나 게으르지 않았으니, 이것이 50살에도 부모를 사모하는(五十而慕父母者, 오십이모부모자) 사람입니다.

이웃 여자들이 감화되고, 춘 아낙네들이 사모하고 본받아, 시모 섬기는 이야기에는 반드시 이씨를 일컬었으니, 만약 출천지효(出天之孝)가 아니면,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깊이가 어찌 이와 같겠습니까?

슬프도다. 지난 정묘년(丁卯年) 4월에 그 남편 천승호과 문득 병에 걸려 점점 위독하게 되니, 이씨가 백방(百方)으로 구호하다가 한결같은 정성으로 재계목욕하고 매일 밤 하늘에 빌어, 자기 몸을 대신하기 원하였습니다.

그 남편의 운명에는 슬픔을 절제하여 곡성을 그치고, 그 시어머니를 위안하여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있는 것이니 애통하다고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하며, 염습범절을 모두 남에게(有司 유사: 책임자) 맡기고, 오직 시모 공양을 일로 삼으니, 그 시모가 속병이 들었으나 겉으로는 편안한 체 하는 것을 알고, 음식을 권하면, 마시지 않고도 ‘마셨습니다’ 먹지 않고서도 ‘먹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성복(成服)하는 날, 노비들이 가서 그 시모에게 아뢰니, 비로소 여러 날 동안 곡기(穀氣)를 끓은 줄 알고, 손수 음식을 억지로 권하니, 물 한 숟가락을 마시고는 피를 몇 되나 토하니, 이것은 진실로 정은 감출 수 있으나, 피는 감출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튿날, 자녀들을 불러 이별하는 말이, “너희들, 아버지가 세상을 버리는 날, 내가 어찌 즉시 따라 떠나지 않으려 했겠는가! 다만 할머니가 방에 계시기에 감히 거듭 마음의 상처를 드릴 수 없어, 참아 오늘에 이른 것이나 내 뜻은 이미 그때 결정했었다. 지금은 네 아버지 상복을 입었고, 할머님 마음도 조금 너그러워졌고, 또 봉양할 며느리가 있으니, 내가 죽더라도 좋은 음식 대접은 그치지 않으리라. 너희들은 인간의 할머니가 계시고 나는 지하(地下)의 남편이 있으니, 살아 계신 할머니를 섬기고, 죽은 남편을 따르는 것은 지금부터 길이 다르니라. 너희들은 너무 한탄하지 말거라.” 하면서, 또 출계[出系, 양자로 간]한 아들 부부를 불러 말하기를, “내 죽은 뒤에 어린 동생들과 여동생들을 네가 거

두어 길러, 염려가 되지 않게 하라. 사람의 모든 행실이 어버이 섬김이 으뜸이요, 가정 다스리기에 완성되니, 너는 모름지기 힘쓰고 힘써 집안 명성(名聲)을 떨어뜨리지 말거라.” 또 말하기를, “부부는 무덤까지 같이 간다는 옛말이 있느니라. 이것이 내 지하(地下)의 소원이다.” 하며, 말을 마치고 입을 닫아 떠나니, 그 곡기를 끊은 처음과 끝날을 계산하면 무릇 7일간이었습니다.

아아, 슬프도다. 남편이 죽어 아내가 따르는 것은 세간에 혹시 있는 일이니 약을 마시거나, 물에 몸을 던지거나, 자살하거나, 목을 매어, 잠시간에 생명을 죽이는 일은 열행(烈行)에 용단을 낸 자로써 오히려 가능한 일이나, 이씨는 시모가 계시기 때문에 슬픔을 숨기고, 병들지 않은 입에 곡기를 끊고, 피울음을 울어 목구멍에 소리를 내지 않고, 그 시모가 조금 진정되기를 기다려 자녀들을 경계하고 조용히 죽음의 의리에 나아갔으니, 이 어찌 효성과 열행을 완전히 겸한 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 열녀 중에 특히 다른 분이 아니겠습니까?

아아, 성대(盛大)하도다. 그 남편은 어질고도 효성스러우며, 그 아내는 효도와 정렬이 겸비했으니, 감영과 고을에서 미행(美行)을 포창하는 일이 거듭되지 않음이 아니라, 조정에서 효렬(孝烈)을 드러내어 밝히는 혜택(정려각)은 아직 지금까지 받지 못했으므로, 도내(道內) 선비들의 의논이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여, 지난달, 상감의 행차(거동)가 왕릉을 뵈오러 가시는 때에 사유를 갖추어 말씀을 올렸더니, ‘도(道)에 조사토록 하겠노라’는 하교(下敎)가 계셨기에, 도유(道儒: 道代表 儒者, 도대표 유자)의 공의(公議)가 이미 이처럼 동의(同議)했으니, 본색(本色) 사림(士林)이 어찌 침묵하겠습니까?

이에 감히 연명(連名)하여 우러러 하소연하오니 참고하시어 즉시 실제대로 감영에 보고하여 천승호의 지극한 효도를 포창하고, 그 처 이씨의 높은 열행(烈行)을 정려(旌閭) 내리시어, 조정에서 권장하시는 높은 은택을 내리시기를 성주합하(城主閣下)께서 처분하시옵소서. 경오(庚午) 10월 일

[제음(題音)]

천씨(千氏) 가문(家門) 효열(孝烈)이 열매를 맺어 만인(萬人)의 입에 칭송되거니와 이 제 조사를 거쳐 감영에 보고할 것이니, 공문(公文)은 마땅히 실례(實例)를 따라 낱낱이 알릴 것이다.

○ 대하면 유림 등 근재배상서우(謹再拜上書于)

대하면(大下面) 유림(儒林) 등(等)은 삼가 두 번 절하고 성주합하(城主閣下)께 편지를 올리나이다.

엎드려 생각건대, 효(孝)와 열(烈)은 남녀의 높은 행실이며, 포상 장려함은 성대(聖代)의 떳떳한 전례(典例)입니다. 효도와 정렬(貞烈)에 하나도 오히려 능숙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겸전(兼全)한 사람이겠습니까? 한가지도 오히려 버리기 어려운데 더구나 두 가지를 함께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본군 선비 천승호의 아내 경주이씨는 천성이 순일(純一)하고 질박한 행실이 정숙하여, 그가 시집 온 처음에는 집안 형편이 매우 가난하여, 시아비 죽고 시어머니만 있는데, 힘을 다하여 바느질하여 지성으로 봉양한 것이 30여년이나 되었습니다. 집안이 조금 넉넉해지자 나이 또 쇠년(衰年, 50세)이 되었으나 그 혼정신성(昏定晨省)의 절차가 시종(始終) 오직 부지런하여 추울 때 방이 찬가운가 더운가의 문안을 밤낮 게으르지 않았으니, 이것이 곧 50세가 되어도 부모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오십(五十)에도 부모를 사랑한 사람은 제순(帝舜)일 뿐이다’라는 말이 있음: 오십이모부모자(五十而慕父母者) 여어대순(予於大舜) 견지의(見之矣)]

이웃 처녀가 감화하고, 촌 아낙네도 사모하고 본받아, 말이 시부모 섬기는 일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이씨를 일컬으니, 만약 출천(出天)한 효성 아니라면, 그 사람을 감동시킴이 어찌 능히 이와 같겠습니까?

슬프게도, 지난 정묘년(丁卯年) 4월 0일에 그 남편 천승호가 문득 병에 걸려 점점 위독함에 이르자, 이씨가 백방으로 구조하여 한결같은 정성으로 목욕재계하여 매일 밤 하늘에 빌어, 자기 몸을 대신하기 원하였고, 그 운명함에 이르러 슬픔을 억제하여 통곡을 중지하여, 그 시모를 먼저 위안하여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있는 것인데, 애통한다고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염습 범절을 모두 맡은 이에게(有司, 유사) 맡겨 두고, 오직 시모 섬기기를 일삼으니, 어찌 진심(眞心), 중정(中情속마음)이었겠습니까!” 다만 시모를 위로하려 그랬을 것입니다. 그 시모가 그가 안으로 상처를 받았으나 밖으로 태연한 채 함을 알아, 음식을 권하면, 마사지 않고서도 ‘마셨습니다’ 먹지 않고서도 ‘먹었습니다’ 하고 비복(婢僕)들에게도 끝내 그것을 숨겼다가 성복(成服)한 뒤에 나타나 아뢰니, 그 시모가 비로서 여러 날 곡기(穀氣)를 끓은 줄 알고 손수 마시기를 권하니, 물 한 숟가락을 마시고는 두어 되 피를 토하니, 이것은 진실로 마음은 감출 수 있으나 피는 감출 수 없었음이라.

그다음 날 자녀들을 불러 앞에 앉히고 이별하며 말하기를, “네 아버지 돌아가시던 날, 내가 어찌 즉시 따라 죽지 않으려 했겠느냐? 다만 할머니 계신 때문에, 감히 거듭 슬픔을 드릴 수 없어 참아 오늘에 이르렀으나, 내 뜻은 이미 그 때에 결정된 것이었다. 지금은 남편의 상복을 이미 입었고, 할머니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으니, 또 장부(長婦)가 봉양

을 주장하면, 내가 비록 죽더라도 좋은 음식 대접은 아마 모자라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살아계신 할머니가 계시고, 나는 지하의 남편이 있어 살아계신 분을 섬기고, 죽은 이를 따르는 것은, 이로부터 길이 다르니, 너희들은 너무 한탄하지 말아라” 하며 또 출계(出系)한 아들 부부를 불러 말하기를, “가 비록 출계했으나, 내 죽은 뒤에 어린 아우 약한 여동생을 응당 거두어 길러라. 꼭 염려할 것은 아니나, 사람의 모든 행실이 어버이 섬김에 근원이 되고 집안 다스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너는 모름지기 힘쓰고 힘써 집안 명성을 떨어뜨리지 말라”하고, 또 말하기를, “부부(夫婦)는 함께 묻힌다고 옛부터 말이 있으니, 이것은 나의 지하의 소원이니, 네가 잊지 말아라.” 말이 끝나자 입을 닫고 죽으니, 그 곡기를 끊은 전후사를 계산하면 모두 7일이었습니다. 이웃과 마을이 슬퍼 울어, 친척을 젊은 듯했고, 길 가는 사람들도 탄복하여 그 효열(孝烈)을 일컬었습니다. 이웃을 구휼한 후덕과 음덕을 쌓은 것이 역시 여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아아, 남편이 죽어 아내가 따르는 일은 세상에 더러 있는 일로, 스스로 목을 찌르거나, 목을 매거나, 약을 마시거나, 강물에 몸을 던지거나, 당장에 목숨을 끊는 일로, 열행에 용단을 내는 일은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씨 같은 분은 시모가 계시므로 슬픔을 참아, 병들지 않으면서도 곡기를 끊었으며, 목구멍에 소리 없이 피를 삼켜, 그 시모의 안정을 기다려, 그 자녀를 훈계하여 조용히 죽음에 나아갔으니 이것이 어찌 효(孝)와 열(烈)이 함께 완전한자로, 역시 여러 열부(烈婦) 중에 탁이(卓異)한 이가 아니겠습니까?

민등(民等)이 엎드려 감탄 칭송함을 이기지 못하여, 합동(合同)으로 전임佛任) 성주합하(城主閣下)께 우러러 호소하였더니, 제음에 말씀이 「식년(式年)을 기다려 다시 호소하라」 하셨으므로 이 식년(式年: 子午卯酉)을 당하여 이에 감히 합동으로 다시 호소하오니 성주합하(城主閣下)께서 처분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진(戊辰, 1868) 3월 일

유영렬, 정시권 등 90명 연명

[제음(題音)]

이씨의 효열을 들으니 심히 가상하다, 당연히 감영(監營)에 보고(報告)할 것이다.

○ 대하면(大下面) 집강서록(執綱書目)

본면(本面) 덕두리(德斗里) 선비 천승호의 아내 경주이씨는 천성이 순수하고 한결 같으며 질박한(꾸밈없는) 행실이 정숙하여 홀시어머니를 30여년간 섬김에, 지성으로 봉양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부지런했는데, 지난 정묘년(丁卯年) 4월, 그 남편 천승

호가 불행히 문득 죽었는데, 이씨가 슬픔을 절제하여 통곡을 그치고 먼저 시어머니를 위로했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마음속으로 병들고 무너져 내렸으나 밖으로는 편안한 체하여 음식을 권하는 줄 알고 음식을 들지 않고 말하기를 ‘과식(過食)했다’ 하였다.

성복(成服)한 뒤에 비복(婢僕)들이 보니 자기 손으로 물 마시기를 권했는데 물 한 숟가락을 마시고는 피 몇 되를 토하였다. 다음 날 아들딸과 출계(出系)한(양자로 간) 아들 며느리를 불러 이들과 함께 울며 이별하면서 조모 섬기는 도리를 가르치면서, 죽어서 남편과 같은 묘혈(墓穴, 무덤)에 묻힐 뜻을 부탁하면서 말을 마치자, 드디어 입을 닫고 별세하였으니 그 고키를 끊은 처음과 끝을 계산하면 무릇 7일이었다.

아아 슬프구나!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따르는 이는 세상에 혹시 있거니와 스스로 목을 찌르거나 목을 매거나 약을 마시거나 물에 몸을 던져 당장에 목숨을 버리는 이는 정렬(貞烈)에 용감한 사람으로 오히려 가능하겠거니와 이씨 부인에 이르러는 그 시어머니 계심으로 그 슬픔을 숨기고 참다가 병들지 않은 입에 곡식 난알까지 소리 없는 목구멍으로 피를 쏟으며, 그 시어머니 마음이 차츰 너그러워지기를 기다려 아들을 훈계하고 딸을 경계하며 조용히 죽음을 이루니 이 어찌 효성과 정렬(貞烈)이 함께 온전한 분이 아닐 것이며, 역시 여러 열녀(烈女) 중에 높고 남다른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높고 남다른 행실은 마땅히 정려(旌閭)를 내리시어 포상할 만한 전례(典例)로 합당(合當)한 연정려(旌閭)를 내리시어 포상할 만한 전례(典例)로 합당(合當)한 연유입니다. 무진(戊辰) 3월초 일. 집강(執綱) 朴○○

[제음(題音)]

이씨의 효열(孝烈)은 듣기에 매우 가상(嘉尚)하다. 따라서 마땅히 감영(監營)에 보고(報告)할 것이다. 무진3월12일.

○ 양산거 유학 유영렬(柳永列), 정시권(鄭時權) 등 상서(上書)

양산(梁山)에 사는 유학(幼學) 유영렬(柳永列) 정시권(鄭時權) 등(等)은 삼가 목욕재계하고 순상국합하(巡相國閣下)께 글을 올리나이다.

엎드려 생각건데, 대개 효(孝)와 열(烈)은 여리(閭里, 마을)의 높은 행실이며 포상하고 장려함은 나라의 성대(盛大)한 전례(典例)입니다.

효(孝)와 열(烈)에 한 가지도 오히려 능하기 어려운데, 더구나 둘을 함께 가진 분이 있겠습니까? 본군(本郡) 사인(士人) 천승호의 아내 경주이씨는 천성이 순수하고 한결같으며 질박한 행실이 정숙하여 그가 시집왔을 처음에는 집안 형편이 매우 가난하며, 시아버지가 죽었고 시어머니만 계셨는데 힘을 다하여 베를 짜고 길쌈하여 지성으로 시어머

니를 봉양하며 30여 년 만에 집안이 이미 조금 요족(饒足)했으며(넉넉해졌으며) 나이가 또 쇠년(衰年, 50세)에 가까워지는데 그 모시는 절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부지런했으며 방이 따습고 찬가를 묻는 일이 이르거나 밤이나 게으르지 않았으니, 이것은 곧 50세가 되어도 부모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五十而慕者, 오십이모자) 이웃의 여인들이 감화하였고 마을의 부녀들이 사모하고 본받아 말이 시어머니 섬기는 일에 미치면 반드시 이씨를 일컬으니, 만약 하늘로부터 태어난 효성이 아니라면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깊이가 결코 이와 같을 수 없습니다.

슬프게도 지난 정묘년 4월에 그 남편 천승호가 문득 병에 걸려 병이 점점 위태하고 극심함에 이르러서는 이씨가 온갖 방도로 돋고 구호하는 한결같은 정성으로 목욕재계하며 매일 밤에 하늘에 빌어 자신이 병을 대신하기 원했으나 그가 운명(隕命)함에 이르러서는 슬픔을 절제하고 통곡을 그쳐 먼저 그 시어머니를 위로하면서 ‘죽음은 운명에 있는 것인데 애통하다고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하고 염습 범절을 유사(有司)에게 일임시키고, 오직 시모님 봉양을 일삼았으니, 이것이 바로 중심(中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시어머니 마음을 위안하려 그런 것입니다.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 속이 병들어 무너져 내렸으나 밖으로 편안한 척함을 알고 음식을 권하면 물을 마시지 않고 밥을 먹지 않고 말하기를 먹었다고 하니 비복들이 끝내 숨기지 못하고 성복(成服)한 뒤에 시어머니께 아뢰니 그 시어머니가 비로소 여러 날 곡기를 끊었음을 깨닫고 손수 마시기를 권하니 물 한숟가락 마시고는 피를 몇되나 토하니, 이는 진실로 비록 피는 가릴 수 있어도 사정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었다.

다음 날 그 자녀들을 앞에 불러 앉히고 그들과 이별하여 말씀하시기를

“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날에 내 어찌 즉시 따라 죽지 않으려 했을까마는 다만 시어미니께서 방에 계시기에 거듭 감히 슬프게 할 수 없었기에 참고서 지금에 이르렀으나 내 뜻은 이미 그 때에 결단했느니라. 지금은 남편의 복상(服喪)이 이미 이뤄졌고 시어머니 마음도 조금 너그러워졌고 또 맏며느리가 있어 봉양할 것이니, 내가 비록 상중(喪中)에 죽더라도 달고 맛난 음식 드리기에는 아마 모자라지 않으리라. 너는 인간 세상의 할머니가 계시고 나는 지하(地下)의 가부(家夫, 남편)가 있으니 대개 산 사람을 섬기고 죽은 분을 따르는 것은 이로부터 길이 다른 것이니 너희들은 매우 한탄하지 말고 각자의 봄을 보중(保重)하여라.”

하면서 또 그 출계(出系, 양자 간)한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네가 비록 출계(出系) 하였으나 내 죽은 뒤에 어린 아우와 약한 누이를 네가 응당 거두어 길러 꼭 걱정하지 않도록 하여라. 사람의 온갖 행실 근원이 어버이 섬김에 있고 가

족에게 마땅하게 해야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너는 모름지기 힘쓰고 부지런히 하여 집안 명성을 떨어뜨리지 말아라.”

하면서 또 말하기를

“부부(夫婦)는 묘혈(墓穴)을 함께한다는 말이 옛날부터 있는 말이며 이것이 내 지하(地下)에 가는 소원이니 너는 잊지 말거라”하면서 말이 끝나자 드디어 입을 닫고 별세하였으니 그 곡기를 끊은 처음과 끝을 계산하면 무릇 7일이었다 합니다. 이웃과 마을에서도 슬퍼 울며 친척을 잊은 듯 하였고 길가는 나그네도 찬탄하여 아까워하며, 모두 어진 부인(賢婦, 현부)이라 일컬으니 평소에 이웃과 화목한 후덕함이나 공을 쌓은 것이 많았기에 역시 이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아, 슬프도다! 남편이 죽어 아내가 따르는 일은 세상에 혹시 있는 일이나 스스로 목을 찌르거나 스스로 목매거나 약을 마시거나 물에 몸을 던져 목숨을 당장에 죽이는 것은 오히려 할 수 있으나, 이씨(李氏)에 이르러서는 시어머니 계시기에 그 슬픔을 참고 숨기며, 병들지 않은 입에 곡식 낱알을 끊으며 소리 없는 목구멍으로 피울음을 올다가 그 시어머니 마음이 조금 너그러워지기를 기다려 아들을 훈계하고 딸을 경계하시며 조용히 죽음을 이루니, 이 어찌 효(孝)와 열(烈)을 겸전(兼全)함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 열녀 중 높고 남다른 분이 아니겠습니까? 생등(生等)은 엎드려 감격하고 칭송하는 마음 이길 수 없었기에 이에 감히 재계하고 소리 내어 우러러 맑으신 관찰(觀察) 아래에 호소하거나 참작 상량(商量)하신 뒤에 특별히 이씨의 효열(孝烈)은 즉시 표창하여 아뢰어 주시어 정려로 포창해 주시기를 삼가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감히 진술하나이다.

순상국합하(巡相國閣下)의 처분(處分)을 기다립니다.

무진(戊辰) 윤사월 일

이상민(李祥玟) 최우인(崔遇仁) 김우하(金佑河) 정윤민(鄭潤玟) 오성문(吳性文) 김종철(金宗喆) 이동연(李東演) 서상년(徐相年) 손기주(孫基柱) 신도열(申道悅) 장성동(張成東) 김응노(金應魯) 박유항(朴有恒) 안사찬(安思璨) 공진의(孔進儀) 김진태(金振泰) 박지영(朴枝榮) 민치현(閔致現) 황종신(黃鍾晨) 박규상(朴奎祥) 오기영(吳驥榮) 김치화(金致和) 신서종(申瑞宗) 김주택(金做澤) 박동호(朴東浩) 신정태(辛正泰) 김영기(金榮基) 이성욱(李成旭) 김영신(金永臣) 여민행(呂敏行) 윤치은(尹致殷) 김두규(金斗奎) 손규택(孫奎宅) 송원룡(宋元龍) 김치영(金致榮) 박의준(朴義駿) 안동인(安東仁) 김기순(金基淳) 조종한(曹宗漢) 허진(許榛) 김후호(金瑚鎬) 김학조(金學祚) 민국용(閔國鏞) 최영호(崔永浩) 노정두(盧定斗) 오치문(吳致文) 강두렬(姜斗列) 백진복(白振馥) 임원(林垣) 김지택(金芝澤) 김종현(金鍾鉉) 라상렬(羅相列) 김유기(金裕)

基) 장주한(張周漢) 박건(朴建) 백낙선(白樂宣) 서학순(徐學淳) 이형모(李衡模) 김기호(金基昊) 오봉기(吳鳳基) 양재춘(楊在春) 방두열(方斗列) 김기용(金基鎔) 김익택(金益澤) 배사희(裴思憲) 이경권(李慶權) 신광팔(申光八) 김기하(金基夏) 심의준(沈宜俊) 구용조(具龍祚) 황계룡(黃啓龍) 박기수(朴箕洙) 유석진(劉錫縉) 정재준(丁載俊) 김치병(金致秉) 노화철(盧化哲) 엄한일(嚴漢逸) 등

[제음(題音)]

식년(式年, 子午卯酉에 해당하는 해)을 기다려 다시 호소할 것임. 12일

○ 대하면(大下面) 유림(儒林) 등 근재배상서우(謹再拜上書于)

대하면(大下面) 유림(儒林) 등(等)은 삼가 두번 절하고 성주합하(城主閣下)께 편지를 올리나이다.

엎드려 생각건대, 효(孝)와 열(烈)은 남녀의 높은 행실이며, 포상 장려함은 성대(聖代)의 뛰어난 전례(典例)입니다. 효도와 정렬(貞烈)에 하나도 오히려 능숙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겸전(兼全)한 사람이겠습니까? 한 가지도 오히려 버리기 어려운데 더구나 두 가지를 함께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본군 선비 천승호의 아내 경주이씨는 천성이 순일(純一)하고 질박한 행실이 정숙하여, 그가 시집 온 처음에는 집안 형편이 매우 가난하여, 시아비 죽고 시어머니만 있는데, 힘을 다하여 바느질하여 지성으로 봉양한 것이 30여년 되었습니다. 집안이 조금 넉넉해지자 나이 또 쇠년(衰年, 50세)이 되었으나 그 혼정신성(昏定晨省)의 절차가 시종(始終) 오직 부지런하여 추울 때 방이 찬가 더운가의 문안을 밤낮 게으르지 않았으니, 이것이 곧 50세가 되어도 부모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오십(五十)에도 부모를 사랑한 사람은 제순(帝舜)일 뿐이다’라는 말이 있음: 오십이모부모자(五十而慕父母者) 여어대순(予於大舜) 견지의(見之矣)]

이웃 처녀가 감화하고, 촌 아낙네도 사모하고 본받아, 말이 시부모 섬기는 일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이 씨를 일컬으니, 만약 출천(出天)한 효성 아니라면, 그 사람을 감동시킬은 어찌 능히 이와 같겠습니까?

슬프게도, 지난 정묘년(丁卯年) 4월 10일에 그 남편 천승호가 문득 병에 걸려 점점 위독함에 이르자, 이 씨가 백방으로 구조하여 한결같은 정성으로 목욕재계하여 매일 밤, 하늘에 빌어, 자기 몸을 대신하기 원하였고, 그 운명함에 이르러 슬픔을 억제하여 통곡을 중지하여, 그 시모를 먼저 위안하여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있는 것인데, 애통해한다고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염습 범절을 모두 맡은 이에게(有司, 유사) 맡겨

두고, 오직 시모 섬기기를 일삼으니, 어찌 진심이었겠습니까?” 다만 시모를 위로하려 그랬을 것입니다.

그 시모가 그가 안으로 상처를 받았으나 밖으로 태연한체함을 알아, 음식을 권하면, 마사지 아니하고 ‘마셨습니다’ 먹지 않고서도 ‘먹었습니다’ 하고 비복(婢僕)들에게도 끝내 그것을 숨겼다가 성복(成服) 한 뒤에 나타나 아뢰니, 그 시모가 여러 날 곡기(穀氣)를 끊은 줄 알고 손수 마시기를 권하니, 물 한 숟가락을 마시고는 두어 되 피를 토하니, 이것은 진실로 마음은 감출 수 있으나 피는 감출 수 없었음이라.

그다음 날 자녀들을 불러 앞에 앉히고 이별하며 말하기를, “네 아버지 돌아가시던 날, 내가 어찌 즉시 따라 죽지 않으려 했겠느냐? 다만 할머니 계신 때문에, 감히 거듭 슬픔을 드릴 수 없어 참아 오늘에 이르렀으나, 내 뜻은 이미 그때 결정된 것이었다. 지금은 남편의 상복을 이미 입었고, 할머니 마음도 조금 누그러졌으니, 또 장부(長婦)가 봉양을 주장하면, 내가 비록 죽더라도 좋은 음식 대접은 아마 모자라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살아계신 할머니가 계시고, 나는 지하의 남편이 있어 살아계신 분을 섬기고, 죽은 이를 따르는 것은, 이로부터 길이 다르니, 너희들은 너무 한탄하지 말아라” 하며 또 출계(出系)한 아들 부부를 불러 말하기를, “네가 비록 출계 했으나 내 죽은 뒤에 어린 아우 약한 여동생을 응당 거두어 길러라. 꼭 염려할 것은 아니나, 사람의 모든 행실이 어버이 섬김에 근원이 되고 집안 다스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너는 모름지기 힘쓰고 힘써 집안 명성을 떨어뜨리지 말라”하고, 또 말하기를, “부부(夫婦)는 함께 묻힌다고 옛 부터 말이 있으니, 이것은 나의 지하의 소원이니, 네가 잊지 말아라.” 말이 끝나자 입을 닫고 죽으니, 그 곡기를 끊은 전후사를 계산하면 모두 7일이었습니다.

이웃과 마을이 슬퍼 울어, 친척을 앓은 듯했고, 길 가는 사람들도 탄복하여 그 효열(孝烈)을 일컬었습니다. 이웃을 구휼한 후덕과 음덕을 쌓은 것이 역시 여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아, 남편이 죽어 아내가 따르는 일은 세상에 더러 있는 일로, 스스로 목을 찌르거나, 목을 매거나, 약을 마시거나, 강물에 몸을 던지거나, 당장에 목숨을 끊는 일로, 열행에 용단을 내는 일은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씨 같은 분은 시모가 계시므로 슬픔을 참아, 병들지 않으면서도 곡기를 끊었으며, 목구멍에 소리 없이 피를 삼켜, 그 시모의 안정을 기다려, 그 자녀를 훈계하여 조용히 죽음에 나아갔으니 이것이 어찌 효(孝)와 열(烈)이 함께 완전한 자로, 역시 여러 열부(烈婦) 중에 탁이(卓異)한 이가 아니겠습니까?

민등(民等)이 엎드려 감탄 칭송함을 이기지 못하여, 합동(合同)으로 전임(前任) 성주부사(府使) 합하(閤下)께 우러러 호소하였더니, 제음(題音, 처결문(處決文))에 말씀이 「식

년(式年)을 기다려 다시 호소하라』하였기에 이 식년(式年, 자오묘유(子午卯酉))을 당하여 이에 감히 합동으로 다시 호소하오니 성주합하(城主閣下)께서 처분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사(1869년) 9월 일.

유영렬, 정시권 등 89명 연명

[제음(題音)]

감영의 제음이 이미 내렸는데, 왜 진작 세전에 토착토록 부송(付送)하지 않았는가? 본 영에 보고하리라.

○ 양산유학(梁山幼學) 정시권(鄭時權), 백사현(白思絢) 등 근재복재배상 서우(謹齋沐再拜上書于)

○ 대하면 유림 등 근재배상서우(謹齋拜上書于)

○ 도내(道內) 양산 진사 김원(金瑗) 선산진사 김기직 상주유학 유도빈 등 근재복재배상서우(謹齋沐再拜上書于)

도내(道內) 양산(梁山) 진사(進士) 김원(金瑗)과 선산(善山) 진사(進士) 김기직(金基直) 상주(尙州) 유학(幼學) 류도빈(柳道彬) 등(等)은 삼가 목욕재계하고 재배(再拜)하고 순상국(巡相國) 합하(閣下)께 글을 올리나이다.

엎드려 생각건데, 효도를 포상하고 열녀(烈女)를 정려함은, 국가의 아름다운 전례(典例)요, 선행(善行)을 표창하여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은 사림(士林)들의 공론(公論)입니다.

도내(道內) 양산군(梁山郡) 고(故) 사인(士人) 천승호(千乘昊)는 임란공신(壬亂功臣) 화산군(花山君) 사암공(思庵公) 휘(諱) 만리(萬里)의 9세손이며 한성부좌윤(漢城府左尹) 휘(諱) 상(祥)의 8세손입니다. 황조(皇朝, 대명(大明))의 공훈(功勳)의 후예로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시례(詩禮)를 숭상하는 기풍과 하늘로부터 타고난 효도가 배우지 않고서도 알았으니 7세에 부상(父喪)을 당했는데, 시체를 안고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고 발로 뛰면서 기맥이 여러 번 끊어졌으나 되살아났고 피 울음을 3년간 계속하여 7세 동자가 노성(老成)한 어른과 다름이 없었으며, 여러 아이들이 풀밭에서 싸우는 장소에는 발자취가 이르지 않았고, 무당 광대가 북을 울리는 자리에도 이목(耳目)이 머무르지 않았으니, 이웃과 마을의 노소(老少)가 감탄하여 마지 않으며 말하기를 “이 아이가 나의 겨우 젖을 면했는데 효행(孝行)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고금(古今)에 드물게 있는 일이다” 하였

으며 상복을 마치고는 가계(家計)가 박락(剝落)하여(완전히 없어져) 부엌에 연기가 없었기에(불 때지 못했기에) 매양 홀어머니를 봉양할 수 없었음을 지주한 아픔으로 여겨 산에 나무하고 물에 고기를 잡는 등 동소남[董召南, 당대(唐代)의 효자]처럼 달고 맛난 음식이 끊이지 않게 하며 겨울에는 따습게 하고 여름엔 서늘하게 하여 황향(黃香)처럼 부개맡에 부채질하는 지극한 정성이 게으르지 않았는데, 그 어머니가 일찌기 풍담(風痰)으로 여러달 아팠는데, 옷에 띠를 풀지 않고 부모님 곁에 떨어지지 않았으며 동서(東西)로 약을 물으니 의원이 말하기를 “화사(花蛇 능구렁이)가 가장 좋지요” 하니 때가 겨울을 당하니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승호가 흐느껴 울며 찾아 구하니 결국 얼음과 눈 쌓인 산중에서 여러 마리를 얻을 수 있었기에 이를 약으로 썼더니 어머니 병이 즉시 나았답니다.

그 후에 어머니 병이 또 나서 헛되게 진미(珍味, 맛난 음식) 드리기를 생각하니 돈을 준비할 방도가 없어 송아지를 시장에 팔아 10꿰미의 돈을 받아 저녁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두서너 도적이 산골짜기에 있다가 내려와 칼을 안고 수색하여 돈을 뺏으니 “병든 어머니 봉양할 돈이요”하며 지성으로 울면서 간청하니 말과 기상이 사람을 감동시켰던지 적도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효자 천승호 아닙니까?” 하기에 대답하기를 “성명은 과연 그렇소 마는 효(孝)란 말씀을 어찌 감당하겠소?” 적도들이 말하기를 “일찍 효자를 우러러 사모하여 우뢰소리처럼 귀에 익었습니다. 우리들이 비록 흥년에 곤란하여(도둑이 되었으니) 어찌 효자의 돈을 뺏아, 효자가 부엌에서 드릴 음식을 폐하게 하겠소?” 하며 드디어 백배 사죄하고 떠났으니, 대개 그 정성과 효도가 이르는 곳마다 사물을 감동시킴이니 겨울의 뱀이 스스로 나오고 사람을 감화시켜 흥한 무리가 저절로 감화(感化)한 것입니다. 23세에 비로소 아내를 맞이하여 능히 아내 다스리는 도리를 다했으니 또한 엄숙하고 유별한 뜻이라, 그 아내 경주이씨(慶州李氏)는 본디 법도 있는 양반 가정의 딸로서 천성(天性)이 순수하고 한결같으니 질박한 행실이 정숙하며 이미 어진 보모(保母)의 훈계를 들었고, 또 군자(君子)의 법도를 따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시어머니를 봉양하니 우물 길고 절구질하며 베짜고 길삼하기로 30여년간 고생하였으니 연세가 이미 쇠할 나이가(50세) 되어도 저녁에 자리 깔고 새벽에 살피고 문안하는 절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부지런하였으며 방이 따습거나 찬가를 물으시며 밤낮 게으르지 않으시니 이는 문득 50세가 되어도 부모를 사모하는 사람[오십이모부모자, 五十而慕父母者]이라, 이웃 여인들이 감화하고 마을의 부녀들이 사모하고 본받아, 많이 시어머니 섬기는 일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이씨를 일컬으니 만약 출천(出天)한 효(孝)가 아니라면 그 사람을 감화시키는 깊이가 어찌 이와 같으리오?

슬프구나! 지난 정묘년(丁卯年) 4月 〇日○ 그 남편 천승호가 문득 병을 만나 점점 위태하다가 극심함에 이르러 이씨가 백방으로 도우고 구호하여 한결같은 정성으로 목욕 재계하면서 매일밤 하늘에 빌어 자신으로 병을 대신하기 원했으나 그가 운명함에 이르러 슬픔을 절제하고 곡을 그치며 먼저 시어머니를 위안하니 시어머니가 그가 속으로 병들어 가슴이 무너지는 것과 밖으로 편안한 척 하는 것을 알고 음식을 권하면 마시지 않고도 ‘마셨다’ 먹지 않고도 ‘먹었다’ 하며 성복함에 이르러 그 시어머니께 알리고 비로소 여러 날 곡기를 끊었음을 고(告)하니 시어머니 손수 얹지도 음식을 권하니 물 한 숟가락 마시고 피를 몇되나 토하니 이것은 진실로 정은 비록 숨길 수 있으나 피는 숨길 수 없음인 것입니다. 이튿날 자녀들을 불러 이별하여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 별세하시는 날에 내 어찌 즉시 따라 죽지 않으려 했겠느냐? 다만 시어머니가 방에 계시기에 감히 상처를 거듭 드릴 수 없어 참고 참아 지금에 이르렀으나 그런 내 뜻은 그 때에 이미 결정한 것이었다. 지금은 남편의 복상(服喪)도 이미 이루었고 시어머니 마음도 점점 너그러워지셨으며 또 맏며느리가 봉양을 주장할 것이니 내가 오직 죽더라도 달고 맛난 음식 올리기는 아마 모자라지 않으리라. 너희들은 인간의 할머니가 계시고, 나는 지하의 남편이 있으니 산 이를 섬기고 죽은 이를 따르는 것은 이로부터 길이 다른 것이니 너희들은 너무 한탄하지 말거라” 하시며 또 그 출계(出系)한(양자로 간)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 어린 아우와 약한 누이를 네가 거두어 길러 반드시 염려하지 않도록 하거라. 사람의 모든 행실은 어버이 섬김에 근원이 되는 것이니 집에 가족으로 마땅히 하여 네가 모름지기 힘쓰고 힘써 노력하여 집안 명성을 떨어뜨리지 말거라.”

또 말하기를, “부부(夫婦)는 같은 구덩이에 묻힌다는 옛말이 있는데, 이것이 내 지하에 가는 소원이니라” 하면서 말씀이 끝나자 입을 닫고 별세하니 그 곡기를 끊은 처음과 끝을 계산하면 무릇 7일이었다. 아아, 슬프구나! 남편이 죽어 아내가 따르는 것은 세상에 혹시 있는 일이나, 스스로 목을 찌르는 일이나 목을 매는 일이나 약을 마시거나 물에 몸을 던져 잠깐 사이에 목숨을 죽이는 일은 열(烈)에 용감한 자로서는 오히려 가능한 일이나, 이씨에 이르러서는 시어머니 계심으로 인하여 그 슬픔을 숨기고 참으며 병들지 않은 입에 곡기를 끊으며 소리 없는 목구멍으로 피울음을 울며, 그 시어머니 마음 조금 너그러워지기를 기다려 자녀를 훈계하고 조용히 죽음을 취함은 이 어찌 효와 열이 겸전(兼全)한 분이 아니며, 역시 어찌 여러 열녀중에 행실이 높고 남다른 분이 아니겠습니까? 아아 장하도록. 한 가정 안에 그 남편 어질고 또한 효도하며, 그 아내가 효도와 열을 겸하는데, 영(營)과 읍(邑)에서 아름다움을 포상하는 글을 쓴 것이 거듭되지 않음이 아

닌데 조정에서 드러내어 밝히는 혜택을 아직 입지 못했으므로 사론(土論)이 함께 우울한데, 지난달 어가(御駕)가 능침(陵寢)을 봐러 가시는 때에 생등(生等)이 이름을 연(連)하여 말씀을 올려 도(道)에 조사시키겠다는 하교(下敎)가 있어 계셨는데 지금에까지 포양여부(褒揚與否)가 오직 처분(處分)이 어떠하신가에 달려 있으니, 엎드려 빌건대 성상(聖上)께서는 백성의 부모(父母)시니 빨리 해읍(該邑)에 조사 보고하라 알리시옵소서!

순상(巡相)께서는 계문(啓聞)하여 천승호의 지극한 효행을 포창하시고, 그 아래 이씨의 높은 정열(貞烈)을 정려(旌閭)를 내리시어 한결같이 권장하는 뜻을 보여 주소서. 한 결같이 함께 호소하는 정성으로 삼가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감히 진술하옵니다. 순상국합하(巡相國閣下)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경오(庚午)10月 日

안동진사(安東進士) 김철수(金喆銖) 생원(生員) 김진호(金晋浩) 진사(進士) 김태림(金泰林) 상주(尙州) 유학(幼學) 강림형(姜林馨) 류경조(柳經祚) 성석민(成錫民) 문경진사(聞慶進士) 신영규(申英奎) 유학(幼學) 채주목(蔡周睦) 풍기진사(豐基進士) 황재형(黃在) 예천유학(醴川幼學) 권구상(權久相) 선산진사(善山進士) 이철영(李喆永) 유학(幼學) 노성교(盧聖敎) 김문교(金文敎) 함창유학(咸昌幼學) 홍보현(洪輔鉉) 예안진사(禮安進士) 이만갑(李晚甲) 인동생원(仁東生員) 이진악(李鎮岳) 유학(幼學) 장석수(張錫壽) 조진구(曹鎮九) 이재유(李在裕) 개녕진사(開寧進士) 허○(許○) 칠곡유학(柒谷幼學) 노형연(盧衡淵) 진사(進士) 홍리연(洪履淵) 정용영(鄭龍英) 유학(幼學) 조석년(曹錫年) 양산유학(梁山幼學) 백사현(白思絢) 정시권(鄭時權) 신재을(辛在乙) 윤경순(尹敬純) 나지열(羅之烈) 류영렬(柳永列) 안사혁(安思奕) 나상규(羅相奎) 공흥노(孔興魯) 정영(鄭暎) 윤경신(尹敬莘) 김창우(金昌佑) 이종권(李鍾權) 이종철(李宗喆) 안경윤(安景潤) 황중신(黃鍾晨) 김재호(金在昊) 박유항(朴有恒) 장성동(張成東) 이성욱(李成旭) 윤치은(尹致殷) 나상룡(羅相龍) 조석한(曹錫漢) 오기영(吳驥榮) 김진태(金進泰) 임수계(林守桂) 이형모(李衡模) 김기(金基) 려민행(呂敏行) 민국용(閔國鏞) 신도열(申道說) 백낙선(白樂宣) 서학순(徐學淳) 강두열(姜斗烈) 유석진(劉錫縉) 등(等)

[제음(題音)]

마땅히 특별히 채용(採用)할 것임. 초구일(初九日)

- 도내(道內) 양산 진사 김원(金瑗) 선산진사 김기직 상주유학 유도빈 등 근재
목재배상서우(謹齋沫再拜上書于)

○ 예조입안문서

동치(同治) 11년(1872 고종 9년) 4월 예조(禮曹)에서 입안(立案) 한 문서이상의 입안(立案)은 효자를 증직(贈職)하고 열녀(烈女)를 정려(旌閭)한 사절(事節)로 아뢴 일을 예조(禮曹)에 하교(下敎)하신 계목(啓目)으로 경상도(慶尙道) 진사(進士) 이만갑(李晚甲) 등(等)의 상언(上言)에 양산(梁山) 고학생(故學生) 천승호(千乘昊)의 효행(孝行)과 그 아내 이씨의 열행(烈行)을 지금 그 도신(道臣)이 상세히 실적(實蹟)을 탐사(探查)하고 널리 여론을 채택하여 크게 보고된 뒤에 다시 아뢰었거늘 분부(分付)하였다 하오니 즉시 엎드려 보니 경상감사(慶尙監司) 김세호(金世鎬)의 계본(啓本)에는 말하기를 양산군(梁山郡) 고(故) 학생(學生) 천승호(千乘昊)는 곧 임란공신(壬亂功臣) 화산군(花山君) 천만리(千萬里)의 9세손인데 대대로 독실한 충효(忠孝)의 가정(家庭)으로 시(詩)와 예(禮)를 전하며 대개 7충(忠) 5효(孝)의 가정(家庭)으로 가세(家世)가 유명하며, 승호(乘昊)가 나자, 지극한 효(孝)와 성의(誠意)가 출천(出天)하여 나이 겨우 7세에 문득 부상(父喪)을 당하자, 가슴을 치고 발로 뛰며 슬피 흐느껴 우니, 피눈물이 용솟음쳐 나왔으며 비록 깊은 밤이나 성(盛)한 더위에도 상복(喪服)을 벗지 않았으며 그 어머니가 일찍이 풍담(風痰)으로 여러 달 아파 누웠는데 동서(東西)로 약을 물었으나 괴롭기만 하고 효력이 없었는데,



교지 유인이씨

의원이 말하기를 ‘능구렁이(花蛇)가 가장 좋소’ 하는데 때가 겨울철이라 동물들이 침거(蟄居)하니 구하여 얻을 길이 없었는데 승호가 흐느껴 울며 널리 구하다가 끝내 몇 마리를 얼음과 눈속에서 구하여 약으로 썼더니 풍담(風痰)이 즉시 나았다.

그 뒤에 어머니가 병중(病中)에 부추나물 먹기를 생각하니 큰 눈이 방금 내리는데 구할 희망이 만무하여 승호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여 가로되 ‘사람의 자식이 되어 병든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니, 이 어찌 자식의 직분인가?’ 하다가 다음날 첫 새벽에 담 아래를 서성거리다가 갑자기 몇오큼의 새파란 부추가 눈 속에 솟아나 있으므로 즉시 낫으로 베어다가 삶아서 입에 맞추었다. 또 참 맛난 음식(珍味) 생각하시기에 돈을 장만할 길이 없어, 송아지를 시장에 팔아 돈 10꿰미를 받아 저녁에 돌아오는데 산골짜기의 도둑때 두서너 놈이 칼을 안고 길을 막으며 가진 돈을 뺏기며 승호가 병든 어머니 봉양할 돈이라 하며 지성으로 울며 간청하니 말과 기운이 사람을 감동시켰던지 “당신이 효자 천승호 아닙니까?” “이름은 맞소만 효자는 아닙니다.” 했더니, 그들이 “우리들이 비록 흉년에 곤란하여 도둑이 되었지만 어찌 감히 효자가 부모 공양할 돈을 뺏겠소이까?” 하며 즉시 땅에 엎드려 죄를 사과하고 떠났다고 한다.

그 아내 이씨는 본디 법도 있는 가정의 딸로서 천성이 부드럽고 고우며 질박한 행실이 엄숙하고 현숙하시어 시어머니를 효도로 섬기고 남편 섬기기를 예를 다하며 자기 몸을 닦음에 단정하고 엄숙하며 집안 다스리기를 화평(和平)하게 하면서, 아랫사람을 거느리고 남을 상대하는 사이에 어질고 용서하는 마음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규문(閨門)의 혜택이 남에게까지 전하고 칭송함에 이르렀다. 홀시어머니를 섬겨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부지런하시니 이웃과 마을이 다 감탄하여 가로되 “효성스럽구나! 이 남편은 효도하고 이 부인은 한 가정에서 효도하니 쌍효(雙孝)로 아름다음을 겸했으니 온 지경에 효도가 일어났구나!”

그 남편이 병에 걸려 점점 위태하고 극심함에 이르러, 이씨가 목욕재계하여 하늘에 빌어 자기 몸으로 병을 대신하기 위했으나, 남편이 운명함에 이르니 슬픔을 절제하여 곡성을 그치고 시어머니를 너그럽게 위안하였다.

여러 날 곡기를 끊었기에 밖으로는 편안히 보였으나 그 시어머니 이 정상(情狀)을 들어 알고 손수 마시기를 권하면 물 한술같 마시고는 피를 몇되나 토하였다. 성복(成服)한 다음 날 자녀들을 불러 이별하여 가로되 “너희들, 아버지 세상 버리신 날에 내가 즉시 마땅히 따라 가야 했으나, 한 실끝같은 완고한 목숨이 구구하게 지금에 이른 것은 다만 늙으신 시어머님이 방에 계신 때문이었다. 지금은 남편의 복상(服喪)이 이미 이루어졌고, 시어머니 마음도 조금 너그러워지셨고 또 맘黝느리가 있어 봉양을 주장할 것이니

내가 비록 죽더라도 음식 올리기는 아마 모자라지 않으리라. 너희들은 너무 한탄하지 말거라” 하면서 또 그 출계(出系)한 아들 부부를 경계하여 말하시기를 “내 죽은 뒤에 어린 아우와 약한 누이를 잘 보호하여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또 몸을 닦고 집안 다스리는 도리에 힘써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오늘의 부탁을 저버리지 말게 하라”하고 또 말하기를 “부부는 같은 구덩이에 묻힌다는 말은 예부터 있는 말이니라” 하면서 말을 마치자, 드디어 입을 합치고 말았다 하였으니 천승호의 효행과 이씨의 열행 실적(實績)은 사림(士林)의 공론(公論)으로 오래 답답하게 여겼고 감영과 고을에서 채택하여온 바이니 천승호의 효행과 그 아내 이씨의 열행 실적은 사림의 공론이 오랫동안 불만으로 여겼으며 감영과 고을에서 논의를 널리 채택(採擇)한 것도 이미 자상했으니 이와 같은 높고 남다른 행실은 포창하고 권장하는 거사(舉事)가 합당(合當)하다고 하므로 천승호에게는 증직(贈職)하는 의전(儀典)을 베풀고 이씨에게는 정려(旌閭)를 베푸는 의전(儀典)이 아마 풍성(風聲)을 세우는 정사(政事)에 합당(合當)하겠다 하므로 은전(恩典)에 관계된 것은 신(臣)의 무리가 감히 천단(擅斷, 마음대로 처리 할) 할 수 없으므로 위에서 재결(裁決)함이 어떻겠습니까?

동치11년(同治, 1932년) 4월 12일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이교복(李敎復) 차지모(次知某)의 계달(啓達)에 의하여 돌려 아뢰어 시행하려 하신 일로 판단하여 하교(下敎)해 주시고 증직(贈職)은 자조(自曹, 예조)에서 거행하거니와 정문(旌門)을 세울 때 재목(材木)과 장인 목수들은 의례(依例) 관아(官衙)에서 거행하며 그 자손 집의 연호(煙戶), 환상(還上) 등 여러 잡역을 의례(依例)하여 견제(蠲除)해 주심이 합당할 것으로 입안(立案)함

판서(判書) 참봉(參奉) 참의(參議) 정랑(正郎) 정랑(正郎) 정랑(正郎)

좌랑(佐郎) 좌랑(佐郎) 좌랑(佐郎)

- 대하면(大下面) 존위(尊位)에게 명령을 전한 내용

- 덕두리(德斗里) 존위(尊位)에게 명령을 전한 내용

공문(公文)이 도착한 것은 예조(禮曹)에서 순영문(巡營門, 감영(監營))에 의거할 감결(甘結, 하급관아(下級官衙)에 내린 공문) 내에 진실로 조사 보고할 일인데, 서호(西湖)에 고(故) 학생(學生) 천승호의 효행과 그 아내의 열행 사실을 말씀 올린 장축(狀軸, 문서)과 그 자질간(子間)에 즉시 알려 때에 맞추어 묻고 물어 조사 보고 할 일임

경오(庚午) 10월 20일

- 경오년 10월 대하면 덕두리 거 효자 천승호 열녀 이씨 효열행을 책으로 만듬
경오년(庚午年) 10월 ○일에 대하면(大下面) 덕두리(德頭里)에 살았던 효자 천승호와 그 아내 열녀 이씨의 실행(實行)을 책으로 만든 것임.

효자 천승호는 곧 임란공신 화산군(花山君) 사암공(思菴公) 휘(諱) 만리(萬里)의 9세손이며 고(故) 한성부(漢城府) 좌윤공(左尹公) 휘(諱) 상(詳)의 8세손인데 대대로 충효(忠孝)가 독실했으며 집에 시(詩)와 예(禮)를 전했으며 더욱이 7충 5효의 가문으로 당세에 유명했으며, 승호(乘昊)가 나자 지극한 효성과 정성스런 뜻이 하늘을 감동시켰으며, 7세에 부상(父喪)을 만나자, 가슴을 치고 발로 뛰며 슬퍼 부르짖어 피눈물이 솟아났으며 거의 성품을 잊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보는 이들이 깜짝 놀라지 않음이 없었으며, 마음을 슬퍼하지 않을 이가 없었는데 3년 거상에 몸이 여위어도 빈소를 떠나지 않았으며 비록 깊은 밤이나 무더위에도 상복을 벗지 않았으니, 남이 혹시 효도로써 효(孝)를 다치지 말라는 뜻으로 권유하면 문득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하기를 “죄역(罪逆)이 깊고 무거운 제가 스스로 죽어 멸망하지 않고 겨우 부모의 품을 면하자, 이런 망극한 아픔을 당했는데, 어찌 감히 편히 살며 여러 여느 분과 더불어 스스로 오만(傲慢)함이 같겠습니까? 하니 이웃과 마을의 노소(老少)들이 슬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 말하기를 “일곱살 작은 애의 효행(孝行)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고금(古今)에 드문 일이다”하였다. 기타(其他) 형을 섬기고 어른 공경하는 도리와 스승님을 높이고 벗을 친하는 절차는 하나하나 들 수 없으나 가장 효행(孝行)으로 특별히 드러난 사람이라 말하겠다. 그 어머니가 일찍이 풍담(風痰)으로 여러달 아파 누웠는데, 옷에 띠를 풀지 않고 앓아서 결을 떠나지 않으며 동서로 약(藥)을 물어도 괴롭기만 하고 그 효과가 없었는데 의원이 이르기를 “능구렁이가 가장 묘한 약이다”하니 때가 동물들이 땅밑에서 겨울잠을 자는데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승호가 흐느껴 울면서 널리 구하여 끝내 얼음과 눈이 쌓인 산중에서 몇마리를 얻어 약에 썼더니 풍담(風痰)이 즉시 나아지고, 어머니가 병중에 부추나물 드시기를 생각하니 큰 눈이 바로 쏟아지는데 구할 도리가 만무하여 승호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말하기를 “사람의 자식이 되어 병든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니 이것이 어찌 자식의 직분이겠느냐?” 하며 다음날 첫새벽에 담 아래를 서성거리고 다녔더니, 갑자기 몇 웅큼의 부추가 눈속에 나 있기에 취하여 어머니께 드렸고, 그 뒤에 어머니가 병들어 혀되어 진미(珍味)를 생각하시기에 돈을 갖출 길이 없어, 송아지를 시장에 팔아 돈 10꿰미를 받아 저녁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산골짜기에서 도둑 두서너 놈이 칼을 안고 길을 막으며 가진 돈을 찾아 뺏기에 승호가 병든 어버이 공양하여 받들 돈이라고 지성껏 울며 간청했더니 말과 기상이 사람을 감동시켰는지 도둑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효자 천승호

아닙니까?” “이름은 그렇소만 효자는 아닙니다.” “우리들이 비록 흉년에 곤란하여 도둑이 되었소만 어찌 감히 효자가 부모님 공양할 돈을 뺏겠소. 자 여기 있습니다.”

드디어 옆드려 백배사죄하고 떠나갔다. 그 아내 열녀 경주이씨는 본디 법도 있는 가문의 딸로서 천성이 부드럽고 고우며 질박한 행실이 엄하고 현숙하여 시어머니를 효도로서 섬기고 남편 받들기를 충심(忠心)으로 하여 자기 몸을 수양함에 단정 엄숙하고 가정을 다스림에 화평(和平)하여 아랫사람을 다스리거나 남을 상대하는 사이에 그 어질게 용서함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웃과 마을이 굽주리고 가난하면 옷과 밥을 주어 규문(閨門)의 혜택이 길가는 사람에게까지 전하고 칭송되었다.

홀시어머니를 섬긴 30여년 간에 저녁에 자리 깔고 새벽에 살펴 문안하는 절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부지런하여 방이 더운지 찬지를 묻는 것도 밤낮 게으르지 않았으니 이웃의 여인들이 감탄하여 말하기를 “효성스런 이 남편에 효성스러운 이 아내는 한 가정 안에 지극한 효성이 쌍으로 완전하니, 다만 한 지경에 효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일천 부인이 그 효도를 사모하게 되리라.” 슬프구나! 정묘년(丁卯年) 4월 0일에 그 남편이 병에 걸려 점점 위태하고 극심함에 이르니, 이씨가 목욕재계하고 하늘에 빌어 자신으로써 병을 대신하게 빌었으나, 그러나 남편이 운명함에 이르러서는 슬픔을 절제하여 통곡을 그치고 오직 시어머니를 너그럽게 위안시키기를 급선무로 하여 여러 날 곡기를 끊었으나, 밖으로는 편안한 척하니 그 시어머니가 이 형편을 들어 알고 몸소 손으로 물 마시기를 권했더니 한 숟갈 물을 마시고선 피를 몇되나 토하니, 이것은 진실로 정상(情狀)은 가릴 수 있어도 피는 가릴 수 없음이었다.

성복(成服)한 다음 날, 아들과 딸을 불러 영결하는 말씀이 “너희 아버지 별세하신 날에 즉시 당연히 따라가야 했으나 한 실 끝같은 완악한 목숨이 구구하게 이제 이른 것은 다만 높은 시어머니께서 방에 계시니 감히 거듭된 슬픔을 드릴 수 없었음이라. 지금은 남편의 복상(服喪)도 이루어졌고 시어머니 마음도 조금씩 점점 너그러워지시고 또 만며느리가 있어 봉양을 주장할 것이니, 내가 비록 죽더라도 음식 공양은 아마 모자라지 않으리라. 너희들은 당상(堂上)의 조모(祖母)가 계시고, 나는 지하(地下)에 남편이 있으니, 산분을 섬기고 죽을 이를 따름은 이로부터 길이 다른 것이니, 너희들은 너무 한탄하지 말거라”하면서 또 출계(出系)한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힘써 경계하기를 “내 죽은 뒤에 어린 아우와 약한 누이를 잘 보호하고 옳은 방향으로 보도하며 또한 몸을 닦고 집을 다스리는 도리에 힘써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오늘의 부탁을 쳐버리지 말거라”하면서 또 말하기를 “부부(夫婦)는 같은 구덩이 묘혈(墓穴)에 묻힌다”는 옛말이 있어 왔으니, 이것이 내 지하(地下)의 소원이다” 하며 말을 마치시자, 드디어 별세하였느니라.

○ 감결(甘結) 양산(梁山) - 한성부에서 양산에 내려 보낸 공문(公文)

한성부(漢城府) 관문(關文, 공문)이 직접 닿은 것은 본도(本道) 양산군(梁山郡)인데, 대하면(大下面) 덕두리(德斗里)에 사는 천승익(千乘翊) 치곤(致崑) 등이 하소연한 내용에 말하기를 생등(生等)의 9대조 휘(諱) 만리(萬里)께서는 황조(皇朝, 명나라) 수위사(守衛使)로 지난 임진년(壬辰年) 난리에 특별히 총독장(摠督將)에 제수되시어 대보겸조지령양사(大報兼調旨領糧使)로 명령을 받아 동래(東萊)에서 여러 번 싸워 승첩(勝捷)하시어 선조조(先祖朝)에 화산군(花山君)에 봉(封)하여지고 대보단(大報壇) 수훈(酬勳)에 참록(參錄) 되셨고 공을 포상한 덕이 지극히 크며, 판단을 내린 사목(事目) 안에 화산군의 후손이 된 사람에게는 환곡미(還穀米) 공출(供出)이나 봉수군(烽燧軍)의 일에는 침범하지 말란 뜻으로 영원해 내려 넉넉히 구휼(救恤)하라시는 명령이 또 무거운데도 생등(生等)이 사는 고을의 봉수지기에는 고을의 아전 무리가 조정의 명령을 받들지 않고 제마음대로 침노하고 꾸짖으며, 현금(現今)의 유포(儒布)는 모두 역(役)에 응하니, 감히 면제하기를 도모하지 않거니와, 이 연역(烟役)을 면제받지 못함을 어찌 원통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민망하고 급박함을 이기지 못하여 이에 감히 호소하거나와 엎드려 빌건대, 경상본도(慶尙本道)에서는 그 고을 유포(儒布)의 한 조목 외에 제반 잡역을 면제하라는 판하사목(判下事目)을 지금 내려 주시고 조정의 명령을 받들지 않고 침탈(侵奪)하는 그 고을은 법률에 의하여 엄정하게 질책하여 뒤의 폐단을 막게 할 것을 호소한 바는 황조인(皇朝人) 후예로 연역(烟役)에 침탈받은 사람으로 원통함을 호소함은 괴이함이 없으므로 호소한 바에 의하여 이에 관문(關文, 공문)을 발하였거나와 그 고을의 유포(儒布) 외에 즉시 탈급(頃給, 면제(免除))를 명령한 뒤에 마음대로 부과한 그 아전을 상세히 조사하여 엄벌로 징계하여 다시 호소하는 폐단이 없게 함이 마땅한 일로 관문(關門, 공문)을 둔다 하였습니다. 황조인(皇朝人, 명나라 후손) 후예(後裔)는 봉수역(烽燧役)을 당하지 말도록 이미 판하사목(判下事目)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섞어 침노함이 있어 본손이 원망하여 호소하는 이가 있게 되니 어찌 이러한 도리(道理)가 있습니까?

유포(儒布)와 관계된 통행의 일은 거론(舉論)할 수 없으며 밖의 다른 잡역(雜役)도 매양 하나하나 면제할 것이며, 그 아전 무리가 만약 따르지 않으면 조정의 명령을 일향(一向, 줄곧) 침략하고 고기 잡는 듯한 폐단이니 상세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징계하려면, 먼저 즉시 치보(馳報)함이 의당(宜當)한 일임. 임신(壬申) 5월 초8일

○ 감결(甘結) 양산(梁山) - 양산에 공문을 내려 보냄

예조(禮曹)의 공문 안에 절(節)로 아뢰어 하교(下敎)한 것은 도내(道內) 진사(進士) 이만갑(李晚甲) 등의 상언(上言)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본도(本道)에서 조사하고 아뢴 일에 의거한 일은 양산(梁山)의 고(故) 학생(學生) 천승호의 효행이 높고 남달라 증직(贈職)하는 의전(儀典)을 시행함이며, 그 아래 이씨의 열행(烈行)은 정려(旋閭)의 의전(儀典)을 시행할 일로 본조(本曹, 예조(禮曹))로부터 거듭 아뢰어 유허(允許)를 입었음이며, 정려를 세울 때의 재목과 장인 목수는 관아(官衙)로부터 거행(舉行)하라는 뜻이며 그 고을에서 진실로 알맞게 위임(委任) 시행할 것이며 세우는 형태는 새롭게 함이 그쳐야 마땅한 일로 관문(關門, 공문)을 두었거니와 역시 관문의 말을 서로 살펴 본색(本色) 고(故) 학생 천승호와 아래 이씨 정문(旋門)을 세울 때에 재목과 장인 목수는 관(官)으로부터 제공하여 거행하고 정려를 세운 달과 날짜로 꾸며 옮기던 사실을 책에 써서 보고하여 이동하는 처지에 알맞게 할 것. 임신(壬申) 5월 초8일. 본영(本營).

○ 효열각(孝烈閣) 상량고사축(上樑告辭祝)

태극(太極)이 비로소 판별(判別)하자, 사람의 문화가 펴져 밝으니, 만물(萬物)에 빼어난 인간이 모여 돈독하게 오륜(五倫)을 펴니 서적에 실려 극히 넓으며, 오직 효도(孝道)와 오직 정열(貞烈)은 왕상(王祥)의 잉어와 맹종(孟宗)의 죽순에도 일찍이 정열을 겸 하지는 못했으며 육씨(陸氏)의 재(梓)나무와 강씨(姜氏)의 잣나무도 일찍이 효를 속이지 못했으니 효성(孝誠)스럽구나! 千公(天功)이여! 열렬(烈烈)한 이씨여! 사람을 교화시키고 사물이 감화(感化)하여 곡기를 끊고 함께 신선이 되셨구나! 대왕께서 “정려(旋閭) 내려라”하시니 예조(禮曹)에서 완문(完文)하여(문장을 완성함) 도우시니 하늘이 보물 같은 땅을 아끼지 않아 사람을 기다린 것 같구나! 나무나 돌로 공사를 마치니, 이에 정채한 들보를 올린다. 모두가 질서 있어 글은 없으나 천명(天命)이 아름답다. 영원히 복된 아들을 주시리니, 하늘이 주신 복록 크고도 아름답다.

(들보를 동쪽에 엎으며) 붉은 햇빛 열렬(烈烈)하여 긴 채색 무지개를 쏟는구나! 빛나게 비치고 빛나게 맑으니, 낙수(洛水) 위에 새긴 글자 분명하니 하얗게 새겨 햇빛을 맞는다.

(들보를 서쪽에 엎으며) 밝고 밝은 문설주에 채색(彩色) 구성(奎星) 내린 듯하니, 강 왼편 행인들이 흠토(欽慕)하고 공경한다. 곧은 소나무 효성스런 대나무 그늘져 강 언덕이 차구나!

(들보를 남쪽에 올리며) 천길 물기운이 푸르고 맑아 빛나니, 강언덕에 돌을 꽂아 비록

마멸(磨滅)되어도 오직 두분의 이름 백세(百世)토록 빛나리.

(들보를 북쪽에 올리며) 여러 별 상서러운 구름 멀리 극(極)에 이었으니, 아름다운 명령 밝고 밝게 정려(旋閨)로 표(表)하시던 날, 아름다운 천고(千古)에 흘러 이 나라 길게 빛나시라.

○ 정려상량문(旋閨上樑文)

아들과 며느리들이 그 예수(禮修)를 다하니 그 정성이 모두 인간사의 거동과 법칙으로 말미암음이다. 살피고 살펴 밝고 밝으니 위에서 덮고 아래에서 실리어 이에 신지(神祇)가 느껴 통함을 보겠구나!

소리가 오랑캐와 중화(中華)에 멀치며, 땅이 봉래(蓬萊)와 양산(梁山)에 붙으니 철석간장(鐵石肝腸)과 원숭이 창자 1천년, 푸른 소나무에 절의(節義)가 빼어나고 곧은 구슬과 기와장 새날개와 삼백척 부상(扶桑)의 붉은 해가 영통하구나! 하늘에 빌어 대신하기를 비니 효자 검루(黔婁)의 아름다운 이름이 전대(前代)의 아름다움에 함께 하며, 땅에 엎어져 희롱을 짓는 것은 노래자(老萊子)의 정성이 이른 것이니, 이러므로 지금 사람에게 흠토(欵慕)를 받으며 송아지를 팔아 돈 가져오니 산골짜기 도둑때가 와서 굴복하고, 언눈속에서 뱀을 찾으니 신옹(神翁)이 나타나 마음이 뜨거움을 아시는구나! 해가 빛을 다투어 한 사람 창자 속에 찬 눈이 늠름하고 의(義)에 처(處)하여 둛대를 돌리는 힘이 백행(百行)의 근원 위에서 순풍(順風)을 만나고, 7일동안 곡기를 끊으니, 남산(南山)의 얼룩진 표범이 공연히 백년을 울고, 어미에게 돌려 먹이는(반포(反哺)) 서림(西林)의 저녁 까마귀가 성상(聖上)의 은혜가 끝이 없음에 날개를 나직하게 나는구나!

어지신 남편 감찰(監察)이란 교지(教旨) 내리시어 그 이륜(彝倫)이 갖추어졌고 법도(法度) 있는 철인군자(哲人君子)의 기풍이 높이 전하여 여러 사람이 밝고 밝구나! 9층의 높은 대(臺)가 여러 땅에서 일어나니 백공(百工)이 서발의 나무를 허락하여 도성문(都城門)에 정려를 세우니, 붉은 난간이 밤중에 용이 서린 듯하고, 호랑이가 구부리고 앉은 듯하구나! 안개낀 기둥을 엎으니 상급풍(上級風)에도 갈리지 않고 비에 광채(光彩)나지 않으나, 열렬(烈烈)하고 향기로운 이름이 린석(磷石)의 높은 면(面)에 붉게 새겨지니, 빛나고 빛난 장한 행적이 푸르게 새발자국 같은 전서(篆書)의 남은 서책(書冊)에 실렸으니 내려다보고 우러러보아 가까이에 천가(千家)의 미륵불이 선 듯하여 노래하며 읊고 춤추어 발을 뛰니 다 함께 한 지경의 여러 사람의 마음에 나아 간 것이다. 누른 종이를 태우고 붉은 호초를 볶으니 향긋한 바람이 집 모서리에서 일어나 글 새긴 현함(軒檻)을 만지고 그림 같은 발을 걷으니, 나루목에서 상서로운 구름을 이끌어 오네. 아들이 있고

손자가 이으니 억만세 화산(花山)의 남은 음덕을 신이 지키고 귀신이 지키니 백천(百千)길 금정(金井) 우물에 높은 산이 완연히 빛나고 현판에 새긴 글은 교룡(蛟龍)과 봉황(鳳凰) 같은 글이다. 사림(士林)들을 강좌(江左)에 모우니 소요부(邵堯夫, 宋의 학자 邵雍)의 지초(芝草)와 난초는 년월(年月)을 잊어버리고, 별이 도니 누르고 걸은 길이 건물(建物)의 중간 경계에 섰구나! 땅이 돌아 산수(山水)의 병풍에 예(禮)를 드리고, 공경히 제사하고 글귀를 읊으니 채집(採集)한 여자가 원함을 따라 복을 받고, 행인(行人)에게 종이돈을 사르게 한다. 아름답구나! 효(孝)와 열(烈)이여! 하늘이 길고 땅이 오래도록 그 가정의 사람으로 마땅하며 산과 바다에 맹세하니 인일(寅日)에 이르러 스스로 거듭 아름다운데 그 사(辭)에 말하기를,

(동쪽에 들보를 엎으며) 낙수(洛水)는 도도히 흘러 끝나지 않으니 백로(白鷺)가 마음 알아 상하(上下)에 나란히 나네. 빼어난 소나무 긴대가 사시(四時)로 같네(푸르네).

(들보를 서쪽에 엎으며) 금자라 등 위에 해바퀴 붉은데, 널리 원하오니 산 높이가 300 발만 되거라. 하늘 가득한 서기(瑞氣) 광채(光彩) 긴 무지개에 이으리라.

(들보를 남쪽에 엎으며) 경옥루(瓊玉樓) 앞에 황하(黃河)와 한수(漢水)가 통하니, 백사람과 어부가 와서 하례(賀禮)를 드리네. 상서로운 구름과 여러 별은 영롱하게 비쳐다오.

(들보를 북쪽에 엎으며) 대류게 양기(陽氣) 생겨 화기(和氣)가 용용하니, 봉황새 날고 용이 춤추니 마땅히 봄날 천지로세 만고(萬古)에 산이 푸르러 죽지 않을 바람 부네.

○ 정려각기(旋閨閣記)

효(孝)와 열(烈)은 바깥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 아니고, 내 본성 가운데 본디 있었던 것이니, 사람마다 다 효도를 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행실은 천백년에 드물게 한 사람 있는 것이요, 남편이 효자요, 아내가 열녀(烈女)되어 한 가정에 짹으로 아름다와 아울러 동시에 포상됨도 이것은 또 지난 옛날에 드문 바이요, 겨우 지금의 량주(良州)고을 천공부부(千公夫婦)에 겨우 보이니, 아아 슬프구나! 이는 다 하늘로부터 얻은 것이었다. 공이 겨우 7세에 아버지의 상(喪)을 만나, 피울음으로 슬퍼 부르짖으며 3년을 하루와 같이 마쳤으니, 이는 어릴 때의 대소련(大小連)이다(소련, 대련은 중국의 형제 효자임).

어머니 병에 오직 뱀을 잡아야 했는데, 그것을 추운 겨울 겨울잠 자는 굴 속에서 얻은 때에 병은 듣고서 나았는데, 병든 사이에 오직 원하는 것이 오직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쌓인 눈 언 울타리 아래에서 구하였으니, 이는 또 왕상의 수리(水鯉, 얼음 속에서 잉어를 구함)나 맹종(孟宗)의 겨울 죽순과 동일한 효성에 하늘이 감동한 것이며,

강도가 이름을 듣고 감히 어머니 봉양할 돈을 뺏지 못함을 그 소략(疏略)한 절의를 다시 엎드려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아내 이씨는 부덕(婦德)이 일찌기 드러나 그 집 가족으로 마땅한 사람이며, 순수한 정성이 시어머니 섬기기에 능히 독실(篤實)했으니, 참으로 그가 효자의 아내 되기에 알맞았으며, 불행히 남편의 병이 극심했으니 이씨가 문득 밤낮으로 하늘에 빌어 자신이 병을 대신하기를 원했으나 그 병이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남편이 문득 운명했으니 이씨가 밖으로는 슬픔을 절제하여 곡성을 그치고 늙은 시어머니를 너그럽게 받들었고 그 마음은 이미 맹세하여 죽어서 따르기로 했으며 또 능히 뒷일을 치치한 뒤에 드디어 잠깐 사이에 조용히 가셨으니, 아아, 매섭구나(烈矣). 그 지아비에 그 아내로서 한쪽은 효자요, 한쪽은 열녀이시니, 어찌 전에 이른 바로 전혀 없으나 겨우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천공(千公) 승호는 임진왜란 때의 공신(功臣)이신 화산군(花山君) 천만리(千萬里)의 후손이며 세상에서 일컫는 칠충오효(七忠五孝)의 가문으로, 이미 이어 받은 것이 있으며 열행(烈行)은 역시 효성으로 이룬 것이니 금상(今上)께서 재위(在位)하신 10년 임신(1872) 11월 16일, 특별히 정례를 표하시고 그 문중과 마을에 함께 더불어 벼슬을 내렸으니 슬픔과 평안함이 고루 이르렀으니, 역시 한세상 사람에게 충효를 권유함이었으니, 그 조카 치관(致寬)이 정성을 다하여 깊은 사실을 드러내어 바로 작성하여 정례(閨)를 세워 걸고 세우니 시경에 이른바 「영원히 너희 무리에게 준다」는 것(영석이류(永錫爾類))인가! 내가 마침 이 고을에 도임하였으니 백성들이 잘못되게 한마디 말을 요구하기에 만약 끝내 문장(文章)을 짓지 못한다고 사양한다면 고인(古人)이 충신(忠臣) 효자의 전기(傳記)를 즐겨 읽은 뜻이 아니기에, 높이고 옳게 여겨 말하기를 ‘좋구나! 이 아름다운 덕성(德性)이여’ 했으니, 삼가 그 가장(家狀)과 계문(啓聞)한 말로 그 대략(大略)을 뽑아 찬양하는 만분지 일에 더하게 하노라.

통훈대부(通訓大夫) 전행(前行) 홍문관(弘文館) 수찬(修撰) 지제(知制) 교겸(敎兼) 경연(經筵) 검토관(檢討官) 춘추관(春秋館) 기사관(記事官)

행양산군수(行梁山郡守) 월성(月城) 손상일(孫相駟) 찬(撰)

○ 양산군 대하면 덕두동중(德頭洞中) 완문(完文)

광서(光緒) 3년(1877년) 정축(丁丑) 2월 11일 대하면(大下面) 덕두동중(德頭洞中)에서 논의(論議)를 완결(完結)한 글 이 문장(文章)으로 의논(議論)을 완결시킨 일은 본 마을에 사는 천치형(千致亨)은 본디 공신(功臣), 열사(烈士)의 후손이니 봉수군(烽燧軍)

이나 잡역에 침입(侵入)시키지 말라는 뜻으로 열성조(列聖朝)에서 내리신 절목(節目)임이 밝혀졌는데, 우리 백성들이 감히 성상(聖上)의 뜻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또 더구나 돈 20냥을 내리시어 특별히 동중(洞中)의 폐단(弊端)에 보충하게 하셨으니 지금 이후로 몇 년에 이르도록 천치형(千致亨)의 이름 아래 봉수군이나 잡된 부역은 함께 아울러 부과시키지 못하도록 온 동네의 노소(老少) 여러 어른이나 모든 인원이 난숙하게 의논하여 의논을 완성시킨 일임.

이상 완문: 대동중(大洞中)의 의논을 완결한 사항임

수석(首席) 김종철(金宗喆), 지사인(知事人) 박동호(朴東浩) 공홍노(孔興魯) 이춘성(李春成) 김창국(金昌國) 이성홍(李成弘) 이진권(李震權) 신도열(申道悅) 민응용(閔應鏞) 이위찬(李渭贊) 황종신(黃鍾晨) 김석노(金釋魯) 김대철(金大喆) 여민행(呂敏行) 시존위(時尊位) 김재노(金在魯), 필인(筆人) 윤기봉(尹基奉), (千致亨은 千乘昊의 아들이 됨)

(참고: 낙동강사람들, 제18호, 부산북구낙동문화원, 2006.)

(2) 금곡동 화정부락 장부(金谷洞 花亭部落 帳簿)

화정부락의 마을 형성은 3~4백년전 마을뒷 정상에 있던 연못 둑이 홍수로 붕괴하면서 하류에 신촌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마을의 북쪽입구에 돌도 많고 정자나무도 있었는데, 언뒤위에 백일홍이 많이 피었다. 그리하여 백일홍과 정자나무가 많았던곳이라 화정(花亭)이라 불렸다.

화정부락은 마을의 안녕과 단합을 위해 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마을 일을 처리하는 협조와 단결이 잘되었다. 화정부락 장부는 일제강점기인 1940년부터 광복 후 1961년 까지 21년간의 마을 운영 장부로서 회의일시와 세입과 세출 등 마을 공동의 일을 주민들의 협조로 자치적으로 운영한 기록을 남긴 장부이다.

1940년 당시 동래군 구포면(읍) 금곡리 화정부락은 금곡동 4개 자연마을 중 하나로 광복후 금곡동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서는 등 금곡동의 중심지가 되는 마을로서 장부에는 농사에 필요한 농약, 비료구입, 전염병예방, 산제당제 등 마을 전체의 일을 협의하여 경비를 지출했던 기록을 통하여 당시 농촌마을의 형태를 파악해 보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부산북구향토지』, 낙동문화원, 2014. p839)



화정부락 장부 표지 3호(1955년~1960년)

화정부락 장부 사용내역 기록

3. 무형문화유산

1) 구비전승

(1) 금곡동 안등골에 나타나는 귀신

금곡동 공창 마을에는 근정산 정상에서 다양하게 흘러내리는 개울물을 이용하여 산답을 형성,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몇 군데 남아있다.

가야시대 쇠를 녹이는 야철지(冶鐵址)였던 불메등에는 산답이 근래까지 4천여 평정도 있었고, 안등골에도 6천여 평의 산답이 남아있었다. 이곳 안등골에는 옛날 자연적인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 물로 농사를 풍요롭게 지으면서 4~500년전 조선시대부터 함안조씨(咸安趙氏)들이 모여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저수지가 무너져 내려 조씨 일가는 멸족의 화를 당하게 되었다.

그것을 증명하듯 안등골이 있는 산에 나무가 우거지기 전만 하더라도 이곳에는 사기, 옹기, 기와조각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고, 옛 무덤 자리에는 조씨(趙氏)의 각자(刻字)가 새겨진 비석들이 눈에 띄었는데 여기에서 나온 부식된 기와조각으로 동네 사람들이 놋그릇을 닦을 때 사용했다. 그리고 이 저수지가 무너지면서 생겨난 두 곳의 너덜정에 쌓여있던 돌들은 일제강점기 김해 쪽 낙동강 제방을 쌓을 때 운반되어 갔다고 한다.

이곳 안등골에서 산을 따라 더 올라가면 안등과 불메등으로 물줄기가 갈라지는 곳이 있었다. 여기에는 마을 정자나무로서 수백 년 된 소나무가 있었는데 이를 동네 사람들은 방아송(盤松)이라고 불렀다.

산답(山畠)이 많았던 이곳에서 여름철이 되면 물이 풍부할 때는 골고루 논물을 갈라썼는데 가뭄이 겹치면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자신의 논으로 대느라 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특히 밤에 물을 대기 위해 물길을 지키고 있으면 어느 날 엔 가 난데 없이 어디서 소리가 나면서 우장 삿갓을 쓴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누가 몰래 물을 끌어가는가 싶어 다가가 보면 금세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우장 삿갓을 쓴 사람이 나타난 그 이튿날에는 반드시 비가 와서 가뭄을 해소해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아마 안등골에 살다가 저수지가 무너져 몰사했던 조씨 집안의 귀신이 가뭄에 애를 태우는 동네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나타난 것이라 믿게 되었다.

안등골에 산사태가 나서 조씨 일가가 몰사했던 곳을 가리켜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다



안등골 불상사 터

는 뜻으로 불쌍 터라고 하였는데, 현재 이곳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그리고 안등골 위쪽에는 제단을 쌓아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는데 이를 제공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공창 사람들은 재난을 막아달라는 치성을 드려왔다. (『부산북구향토지』, 2014, p.998)

(2) 등대 역할을 한 동원나루 당산나무

부산의 제일 위쪽 마을인 금곡동 동원 마을 앞 나루터에는 옛날부터 이 마을 사람들 이 할배 당산으로 섬기던 큰 고목나무가 버티고 서 있었다.

동원 마을은 조선시대부터 일본과 교역을 하던 나루터로서 강변에 주점(酒店)이 들어서 흥청거렸고, 잉어, 장어요리로 유명한 곳이어서 외지인의 발길이 잦은 곳이 있는데, 지금은 마을도 강나루터에서 높은 지대로 옮겨가고 나무도 그 당시의 나무는 사라지고 없다. 지금 서 있는 나무는 훗날 마을사람들이 옮겨 심은 것이다. 지난날 있었던 나무는 차랑차랑한 강물이 닿을 듯 말 듯 한 위치에 서있던 팽나무였고 30m 이상 가지를 뻗쳐나간 웅장한 모습이었는데, 1979년 태풍 때 가지 한쪽을 끊어버리고 9m 가량 되던 나머지 가지도 뒤이어 불어닥친 태풍으로 사라져버렸다.

마을 주민들에게는 옛날 전기도 없어 벽지였던 이곳에서 수령 400년이 넘었을 당산나무가 어업을 주로 하던 동민들의 등대 역할을 했다. 고기잡이 나갔다가 강물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는 꼭 이 당산나무를 보고 뱃길을 잡았던 것이다.



옛 동원진 당산나무



현재 동원진 은행나무

또 어민들은 그 당시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이면 만선(滿船)을 비는 출어제(出漁祭)를 지냈다. 이처럼 당산나무를 마을 사람들은 신주(神柱)로서 굳게 믿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나무 옆에 있던 나루터의 큰 바위를 깨뜨리려던 일본인 2명이 갑자기 죽었는데 이 나무의 신령술 때문이었다고 이야기가 전한다. 해방 직후 콜레라가 창궐해서 그렇게 많은 목숨을 앗아갔어도 이 마을 주민들은 당산나무의 보호 덕분에 한 사람도 콜레라로 인해 불행을 겪지 않았다고 한다. 1979년 태풍으로 끊어진 나뭇가지를 시내의 어느 재벌이 가구용으로 쓰기 위해 몇 백만 원을 줄 테니 팔라고 해도 주민들은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랬다가는 마을에 큰 재앙을 초래한다는 이유였기 때문인 것이다.

이처럼 받들어 모시던 당산나무가 자취를 감춘 뒤 강변 나루터의 나무등치가 있는 자리에 지금은 은행나무를 심어 30여 년이 흐른 지금도 치성을 드리는 사람이 찾아 오곤 한다. (『부산북구북구향토지』, 2014, p.999)

(3) 효자 천승호와 열녀 이씨 효열(孝烈) 이야기

효자 천승호와 열녀 이 씨의 효행은 1872년 나라에서 교지를 내려 금곡동에 정려비를 세운 실제 있었던 이야기로서 양산군 유림들이 군수에게 올린 추천서에 잘 나타나 있다. 효자 천승호는 선비 집안의 전통을 이어 받아 시례(詩禮)의 풍(風)과 효도를 배우

지 않고도 글을 알았으며, 그 어머니가 일찍이 풍담(風痰)으로 여러 달 병에 누웠는데, 입은 옷에 띠를 풀지 않고 곁을 떠나지 않으며 이리저리 약에 대해 물었다. 의원이 “능구렁이(花蛇)가 가장 좋은데, 때가 겨울이니, 어디서 얻겠는가” 였다. 승호가 하늘을 부르며 물어 널리 구하니 끝내 얼음과 눈 쌓인 산에서 얻어 어머니 병이 즉시 나았다.

그 후에 어머니가 학질을 앓아 좋은 음식을 구할 길이 없어 송아지를 시장에 팔아 받은 돈 10꿰미를 가지고 저녁에 돌아오다가 산골에서 갑자기 산적(山賊) 두 세명이 나타나 칼을 휘둘러 돈을 뺏으니, 승호가 병든 어머니 봉양할 돈이라고 지성으로 울며 간청하니 말씨가 사람을 감동시켰다. 적도들이 “당신이 효자 천승호인가?” “성명은 맞으나 효자는 아닙니다.” “효자의 이름을 일찍이 귀 달갑게 들었소. 우리들이 비록 흥년으로 곤란하나 어찌 감히 효자의 돈을 뺏어 모친 봉양을 못 하게 하리까?” 하며 백배사죄하며 가버렸다.

지극한 효성이 동물을 감동시켜 능구렁이가 저절로 나왔고, 사람을 감동시켜 흥도(凶徒) 산적들이 저절로 교화(敎化)된 것이다.

23세에 비로소 결혼하여 능히 부부의 도리를 다하고 또한 부부유별(夫婦有別)을 다하였다. 그 아내 경주 이 씨는 본래 전통 있는 가문의 딸로 천성이 순수하여 바탕과 행실이 정숙하여 일찍이 어진 부모의 훈계를 듣고 또 남편의 법도를 따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시어머니를 봉양하였다.

물 길고 방아 짚고 길쌈하기 30여 년에 혈기가 이미 쇠약해도 혼정신성(昏定晨省)의 절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부지런하였고 방이 차고 더운 문안까지 밤이나 낮이나 게으르지 않았으니 이것이 50살에도 부모를 사모하는(五十而慕父母者) 사람인 것이다.

이웃 여자들이 감화되고 촌 아낙네들이 사모하고 본받아 시모 섬기는 이야기에는 반드시 이 씨(李氏)를 일컬었으니, 출천지효(出天之孝)가 아니면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깊이가 어찌 이와 같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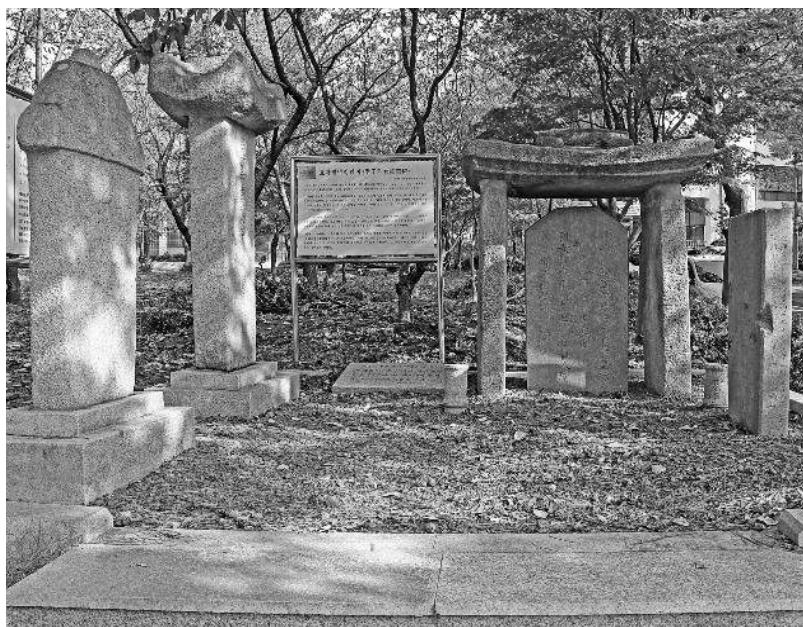
정인년 4월에 남편 천승호가 병에 걸려 점점 위독하게 되니 이 씨가 백방으로 구호하다가 한결같은 정성으로 목욕재계하고 매일 밤 하늘에 빌어 자기 몸을 대신하기 원하였다.

남편이 운명하자 슬픔을 절제하여 곡성을 그치고 시어머니를 위안하여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있는 것이니, 애통한다고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하며, 염습 범절을 남에게 맡기고 오직 시모 공양을 일로 삼으니 그 시모가 속병이 들었으나 겉으로는 편안한 체 하는 것을 알고 음식을 권하면 마시지 않고도 “마셨습니다.” 먹지 않고서도 “먹었습니다.” 하였다.

성복(成服)하는 날 노비들이 가서 그 시모에게 아뢰니, 비로소 여러 날 동안 곡기를 끊은 것을 알고 손수 음식을 얹지로 권하니 물 한 숟가락을 마시고는 피를 몇 되나 토하니, 이것은 진실로 정(情)은 감출 수 있으나 피는 감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아이들을 불러 “너희들 아버지가 세상을 버리는 날, 내가 어찌 즉시 따라 떠나지 않으려 했겠는가! 다만 할머니가 방에 계시기에 감히 거듭 마음의 상처를 드릴 수 없어 참아 오늘에 이른 것이다. 내 뜻은 이미 그때에 결정했었다. 지금은 네 아버지 상복을 입었고 할머님 마음도 조금 너그러워졌으며 또 봉양할 며느리가 있으니 내가 죽더라도 좋은 음식대접은 그치지 않으리라.”

“너희들은 할머니가 계시고 나는 지하의 남편이 있으니 살아 계신 할머니를 섬기고 죽은 남편을 따르는 것은 지금부터 길이 다르니라. 너희들은 너무 한탄하지 말거라.” 하시며, 또 양자로 간 아들 부부를 불러 말하기를, “내 죽은 뒤에 어린 동생들과 여동생들을 네가 거두어 길러 염려가 되지 않게 하라. 사람의 모든 행실이 어버이 섬김이 으뜸이요, 가정 다스리기에 완성되니 너는 모름지기 힘쓰고 힘써 집안 명성을 떨어뜨리지 말거라.” 또 말하기를, “부부는 무덤까지 같이 간다는 옛말이 있느니라. 이것이 내 지하의 소원이다.” 하며, 말을 마치고 입을 닫으며 떠나니 그 곡기를 끊은 처음과 끝날을 계산하면 무릇 7일간이었다. 그 남편은 어질고도 효성스러우며 그 아내는 효도와 정렬을 겸



효자 천성호와 열녀 이씨 정려비

비했으니 감영과 고을에서 미행을 포창하는 일이 거듭되지 않음이 아니나, 조정에서 효열(孝烈)을 드러내어 밝히는 혜택(정려각)은 아직 지금까지 받지 못했으므로, 도내(道內) 선비들의 의논이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여 상감의 행차가 왕릉을 뵈오려 가시는 때에 사유를 갖추어 말씀을 올렸더니, “도(道)에 조사토록 하겠노라”라는 하교(下敎)가 있었기에, 도 대표 유학자의 공의가 이미 이처럼 동의했고 본읍 사람이 침묵할 수 없었다.

이에 ‘연명하여 우러러 하소연하오니 참고하고 즉시 실제대로 감영에 보고하여 천승호의 지극한 효도를 포창하고, 그의 처 이 씨(李氏)의 높은 열행을 정려(旌閭) 내려 조정에서 권장하는 높은 은택으로 처분해달라는 글’을 올려 나라에서 효자 열녀 정려(旌閭) 교지(敎旨)가 내려진 것이다.(『부산북구북구향토지』, 2014, p.1000)

(4) 산성으로 가는 모래재

산성마을에서 서쪽으로 대천을 따라 산성 길로 내려가면 모래재가 나온다. 이 고개는 산성마을과 구포로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로 구포장을 다녀오는 사람들로 왕래가 잦았다.

모래재는 모래로 써 이루어졌으며 예전에는 숲이 울창하게 우거진 깊은 고개라 호랑이가 살았다. 사람들이 구포장에 갔다가 오면 호랑이가 꼬리로 모래를 훨훨 날려 이 모래재에서는 겁이 나서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고 한다. 이 고개의 바로 동쪽 위에는 50여 호의 죽전마을이 있고 대천 옆에는 금정산성의 서문이 당당하게 낙동강을 지켜보고 있다.

죽전마을에는 홀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 한 청년이 살았는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영리한데다가 마음 씀씀이도 착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마을 어른들을 공경함이 지극하였다. 이 마을에서 칭찬이 자자했으며 장래가 촉망되어 17세가 되었을 즈음에 딸자식 가진 집에서는 누구나 돈은 별로 없지만 성실하고 착한 이 청년에게 시집보내기를 다투어 원할 정도로 덕망이 높았다.

모자가 돈은 없지만 서로가 믿고 의지하며 행복한 생활을 엮어 나갔는데, 이 청년이 스무 살이 되던 해 겨울, 어머님께서 노후하신 탓으로 그만 병이 들었다. 이렇게 되고 보니 가난해서 번번히 약 한첩 쓸 수가 없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정성으로 간호를 했지만 어머님의 병환은 차도가 없었다. 착하기만 한 이 청년은 새벽마다 정화수를 마당가에 떠 놓고 백일기도를 올렸다.

그 지독한 추위도 어머니를 걱정하는 효성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기를 근 1백

여 일이 다 되어 눈이 평평 쏟아지는 어느 날 저녁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내리는 눈을 가까스로 쓸고 정회수를 떠놓고 빌던 중 눈과 추위에 떨던 그 자리에서 어느 결엔지 깜박 잠이 들었다. 그때 백발노인이 백호를 타고 나타나서 “나는 이 고을의 산신령이니라, 너의 효성이 지극하니 특별히 너에게 어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비법을 일러주겠으니 똑똑히 들어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니 꿈결일망정 이 청년의 가슴은 떨듯이 기뻤다. 청년이 무릎을 끓고 엎드렸더니 “이 마을 밑의 모래재 산꼭대기엔 무슨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약초가 있을 것이니 그걸 캐서 네 어미에게 먹이면 병을 고칠 수 있을게다” 하고는 홀연 사라지고 말았다. 이 청년이 눈을 번쩍 떠 보니 자기가 물을 얹어 놓은 소반에 엎드려 잠이 들었음을 알고 깜짝 놀랐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꿈이 신기하여 날이 새자마자 곧장 그 눈 덮인 모래재의 산위로 단숨에 기어 올라갔다.

사방은 몇 치나 되는 깊은 눈으로 덮여있었고 웬만한 사람은 이 산을 올라 갈 엄두도 내지 못했겠지만, 이 청년의 효성은 자기의 몸을 돌볼 겨를도 없었다. 그래서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한나절이 넘어서야 중턱까지 겨우 올라갔을 때 갑자기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꼬리를 들어 등을 두드리는 꼴이 마치 자기 등에 타라는 시늉 같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호랑이가 어젯밤 꿈에서 산신령이 타고 있던 호랑이와 꼭 같았다. 그래서 산신령님이 보내주신 것으로구나 생각하고 산신령께 깊이 감사드리며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커다란 바위 밑에까지 가서 그 약초를 캐어다 어머님께 달여 드렸더니 곧 병은 쾌차되었고 두 모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산성으로 가는 모래재는 구포에서 화명동을 거쳐 대천천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 있었다. 또 한 편으로는 금곡리 공창 나루터에서 화물을 지개에 지고 산성 모래재를 넘어 동



공창 모래재 고개



금정산성 죽전마을



금곡동 공창나루

래로 가는 길도 있었다. 금곡에는 동원 진 나루와 공창 나루가 있었는데 동원 진 나루는 요새 같으면 여객 나루터이고 공창 나루는 낙동강 상하류에서 오고 가는 화물들을 다루는 물산 집합장이었다.

그러므로 공창 나루터에서 동래로 가는 화물을 운반하려면 지름길인 금곡동에서 산성 죽전마을로 가는 모래재를 이용하였다. 이 길은 어느 때는 욱어진 숲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여 왕래하기가 어려운 때도 있었으며 어느 때는 민등산으로 변할 때는 다니기가 조금은 나아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울창한 삼림으로 인해 흔적조차 지워지고 없어서 마을의 춘장들에게나 겨우 전해 들을 정도로 잊혀 가고 있음은 안타까움이다.(『부산북구북구향토지』, 2014, p.1002)

2) 세시풍속과 전승놀이

(1) 세시풍속

① 동제(洞祭)

정월 열흘쯤이면 당제(姑堂 할미祭)를 지낼 제주(祭主)를 선정하며, 제주로 선정된 집은 정결히 소쇄(掃灑)하고 삽작에다 황토를 뿌려 잡인의 출입을 금(禁)하고 마을에서

추렴한 비용으로 제사상을 보며, 제주 부부는 제사에 소용되는 물품을 새것으로 장만하고 그 값은 일절 흥정하지 않는다.

정월 대보름 앞날(14일) 저녁 무렵 제수 음식을 짊어지고 당집으로 가서 찬물로 목욕을 하고 제물을 진설한 후 연중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성심껏 빌며 제를 지낸다. 제를 다 지낸 뒤 제에 참석한 인원과 마을 주민이 같이 제수를 나누어 먹는다. 그리고 대동회를 열어 지난해 결산과 시정 및 장려사항을 논의하고 다음년도 제주를 선정하기도 한다.

② 정월대보름

정월 대보름날에는 새벽 일찍 오곡밥을 짓고 갖은 나물을 만들어 먹으며 한해 건강하기를 기원한다. 아이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 ‘새홋기’를 하며 긴 장대를 들고 대나무 밭으로 가서 휘~이 소리치며 새들을 물알로 가라고 홋는다. 이는 금년 한해를 참새떼에게서 곡식의 피해를 막으려는 사전 방어적 노력이다. 어른들은 새끼 토막을 한 발씩 끊어 불에다 그을려 집안 곳곳을 끌고 다니며 뱀몰이를 한다. 하절기에 뱀들의 극성이 방지하려는 방법이다.

노인들은 노랭이를 쫓기 위해 처마 끝 서까래에다 속거천리 원거만리(速去千里 遠去萬里)라고 쓴 글을 붙인다. 부인들은 짚으로 말(馬)을 만들고 조그만 망태(오재기) 두 개를 만들어 말뚝에 걸쳐 놓고 밥과 나물을 담아 잡귀를 몰아낸다.

아침밥을 먹은 후에 소에게는 오곡밥과 나물을 키(챙이)에 담아 먹이고 소가 밥을 먼저 먹으면 풍년이 나물을 먼저 먹으면 흥년이 든다고 한다.

보름달이 더오르면 미리 지어놓은 달집에다 불을 지르고, 마을을 돌면서 풍물울 울리며 달을 쳐다보고 합장하여 가족의 건강과 집안의 평안을 기원한다. 달이 붉게 물들면 그해 가뭄이 들고 너무 푸르게 뜨면 물이 많다고 한다.

③ 영등할매 풍신제(風神祭)

이월에는 초하루날에 영등할매 바람 올리기를 한다. 그해 풍재(風災)를 없게 해 달라는 제사로 음식을 간소하고 정결하게 장만하여 장독간 옆이나 뒤템에 오색 깁 조각을 매어 걸고 두 손을 부비며 자녀들의 공부 성취 등을 기원한다.

이날은 다른 날 보다 유달리 바람이 세고 몇일간 계속되기도 하며, 이후로는 신년맞

이 놀이가 끝나고 바쁜 농사철이 시작된다.

그리하여 머슴과 며느리 들은 싸리문(삽작)과 반식기대(살강)을 잡고 고달픈 노동을 위해 눈물을 흘린다.

④ 보리타작과 모심기

사월 하순부터는 모자리 일이 끝나고 보리타작이 시작된다. 들판의 누른 황금 색 보리가 다자라 모심기 전에 거두어 들어야 하니 일손은 부족하고 바쁘기가 끝이 없다. 또 한나절이 되면 별살은 쟁쟁 죄어 팔죽같은 땀방울이 전신에 타고 내린다. 땀을 빼니 갈증이 나오 시원한 뒷국과 막걸리로 잠시나마 피로를 풀고, 타작소리를 선창과 후창으로 불러기운을 복돋아준다.

이렇게 한 고비를 넘기고 나면 잇달아 모심기가 시작된다. 일손이 모자라 품삯꾼을 들이는데 이를 ‘양빼이꾼’이라 하며, 이것은 한루 품삯이 한 양(兩)이란 뜻이다. 대개는 서로 날짜를 골라잡아 품앗이를 한다. 이때는 온 마을의 인원이 총동원되어 아침부터 모찌는 모판에서 등지(모노래)소리가 시작되고, 모노래는 그 시각에 따라 가사가 바뀌기도 하며 선창 후찬 두파로 나뉘어 부른다.

하루해가 기우도록 끊임없이 부른 모노래 소리는 그 가사만도 가지각색으로 수없이 많고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 철에는 중참, 새참 등 하루에 여섯 끼를 먹는데, 밥과 국수, 찬을 장만하여 논밭에 가져오는 아낙들 또한 바쁘기가 그지없는 실정이다. 모내기를 마치고 나면 초벌 논메기 전에 논두렁에 콩(논두룸)을 심는다. 논메기란 여간 고된 작업이 아니라서 한낮에 더운 햇볕아래 두레 논메기를 하다 보면 엎드린 상태에서 벼 포기를 갈리고 잡풀을 골라 내는 등의 일로 이마에 동여맨 수건과 콧등에 땀이 타고내려 숨이 막힌다.

두벌 논메기 때면 용신을 먹인다. 용신(龍神)의 원래 뜻은 용이 물을 관장하여 농사를 풍요롭게한다는 뜻이나 여기서는 각기 자기 논밭머리에 막대기를 꽂아 명태와 떡을 매어 놓고 용신과 쥐, 벌레들에게 고사(告祀)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때쯤 마을 아이들은 무리무리 쏘이 다니며 떡을 따 먹기도 한다.

⑤ 땔나무 장만과 은어 잡기

음력 칠월 중순부터는 동민을 동원하여 길 닦기가 시작되어 노인과 아낙들은 마을

골목길을 손보고, 장정들은 큰길과 산길을 말끔히 닦는다. 그리고 이듬해 까지 쓸 땔 나무를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장만하여야 한다. 각자 산골에 나무터를 갈라서 풋나무를 베어 집안에 재어놓는데 많이 베는 집은 70~80짝 베어 말린다.

칠월은 낙동강으로 은어떼가 산란을 하기위해 상류로 올라오는 시기로 낮동안 농사로 고된 몸을 이끌고 은어잡이를 위해 집집마다 그물과 가래(漁具)를 들고 강가로 나가 불을 휘황스럽게 밝혀서 하루밤에 한 망태씩 잡는 사람이 많다. 은어는 추석전 십일간에 가장 많이 올라온다.

⑥ 낙동강변의 재첩잡이

낙동강 하구지역의 특산물인 재첩은 하단에서부터 구포, 금곡에 이르기까지 많이 서식을 하였는데, 1987년 하구언둑이 완공되면서 강물과 바닷물의 썰물·밀물 현상이 없어지면서 강변의 모래톱과 갯벌이 형성되지 않고, 또한 주변 바위들이 물속에 잠기지 않아 재첩, 다슬기, 빛조개 등 어패류와 돌 등 수생식물, 그리고 철새 등이 없어지고 강물이 혼탁하게되었다. 그 이전에는 금곡 공창 등 주변 마을 아낙네 7~8명 정도가 주로 3~4월경 재첩 등을 많이 채취하여 국과 반찬으로 활용하였다.

⑦ 추수와 겨울나기

팔월 한가위가 지나면 본격적인 추가가 시작된다. 추수기는 천재지변에 따라 희비(喜悲)가 엇갈리는 철이다. 속말로 ‘열 사람이 지은 농사 한 사람이 거둔다’

이모작(二毛作)에는 벼를 단囷음으로 베어서 논두렁에 세워서 밭갈이를 하여 두었다가 보리부터 갈고 난 다음 들여며, 그 다음은 마다옆에 낱가리로 쌓아 두었다가 탈곡한다. 보리갈이도 끝내고 탈곡한 영개(이엉)을 엮어 집 이우기를 하고 나면 농한기로 접어든다. 동짓달이면 팔죽을 쑤어 삽짜 등 곳곳에 뿌려 잡귀를 물리치고 쑤어 팔죽을 먹는데, 이 날부터 한 살 더 먹는다고 한다.

남의 집 머슴은 겨울 동복을 한 벌과 세경(年俸)을 받고, 각자 비용을 염출하여 술과 안주를 장만하여 마을 노인들을 찾아 뵙고 파임(파임) 인사를 하며 자유의 몸이 되어 다음해의 머슴살이를 결정한다. 그리고 가용도구 만들기와 길삼과 옷감을 장만하여 과년한 자녀를 둔 집안에서는 성혼 준비를 하고 또 한편으로 음주와 도박 등 잡기가 심한 철이기도 하다.

(2) 전승놀이

① 짱치기

마을 청년들이 땔나무 하러 산에 들어가면 모이는 곳에서 한마당 놀이를 하는데, 그 중 짱치기놀이를 가장 많이 한다. “짱”이란 굵은 소나무마디를 낫(鎌)으로 쪘아 깍아서 주먹만 하게 나무공을 만드는데, 짱 치는 “짝지”는 끝이 휘어져야 한다. 처음 시작 할 때는 참가 인원수대로 각자 짹지를 한 곳에 모아 놓고 짹지를 같은 수로 양쪽으로 갈라 놓는다. 그러면 자기 짹지 가는 곳으로 모여서 편이 된다. 그리고 양쪽에 땅을 쪽아 금 선을 긋고 한 가운데 오목한 구덩이를 파 놓는데 구덩이 안에 짱공을 놓고 짹귀로 쳐서 양머리 금선을 넘기면 점수를 얻는다. 다른 한 방법은 “들짱치기”란 것이다. 이것은 한 사람이 중앙에 서서 “짱공”을 공중으로 던져서 떨어지는 짱공을 받아 치는 것이다. 짱 공이 짹지에 맞아 날아갈 때는 소리가 나며 잘못 맞으면 부상을 당하기도 하여 위험하다. “짱바탄”은 뒤날 “꽁바탄”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이 곳은 주로 소년들이 놀기 때문에 부모들이 “짱치기”를 금하고 짱 대신 고무공을 치게 하였더니, 공 친다는 말보다 “짱 “대신 공을 ”꽁“이라 하여 공바탄이 되어 버렸다.

② 꼬누

“꼬누”놀이를 이 곳에서는 “꼰”이라하여 “꼰둔다”라고 한다. 꼬누놀이는 대개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ㅁ’ 자를 놓고 사각에다 선을 긋고 중간마다 선을 그어서 선이 교차하는 자리가 전체 둘레에 스물네곳이 있다. 그 교차점 어느 곳이든지 직선으로 자기 말이 자지런히 서면 이긴다. 다른 한가지는 ‘ㄷ’ 자로 엎어 놓은 형을 그려 놓고, 양쪽 위 모각에서부터 ‘X’ 표를 그어 교차선을 만들어 놓고 그 어느 곳이던지 자기 말이 일직선으로 서면 이긴다. 다만 아래쪽 하단 트인 곳은 넘지 못한다. 이것을 “샘이꼰(샘꼰)”이라 한다.

③ 낫도내기

개밭 들에서 풀베기 할 때 청소년들이 하는 놀이인데, 각기 풀을 한 웅큼씩 캐어다

모아 놓고 낫(鎌) 끝을 앞으로 하고 낫 자루를 세워서 쥐고 던진다. 그리하여 가장 멀리 던져서 낫이 땅에 꽂힌 사람이 이긴다. 만약 낫이 땅에 꽂히지 않으면 아무리 멀리 던져도 소용없다. 그리하여 이긴 사람이 풀을 차지한다.

④ 땅뺏기

이 놀이는 어린 소년들이 하는 놀이로 소년들이서 마주앉아 땅바닥 한가운데다 큼직하게 네모꼴 줄을 그려 놓고 사기그릇 부서진 조각을 조그만하고 둉글게 다듬어서 각기 한 개씩 가지고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지는 쪽이 자기 앞 금선에다 사기조각을 놓는다. 그러면 이긴 쪽에서 역시 자기 금선에다 사기조각을 놓고 손가락으로 퉁겨서 상대방 사기조각을 맞추면 자기 앞 금선에다 염지손가락을 재어서 뺨을 벌려 손가락 끝에다 사기조각을 대어서 반달형으로 긋는다. 그 안은 내 짹이 된다. 다음부터는 뺏은 땅금선에다 놓고 상대편 사기조각을 맞추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 져서 맞추기가 쉽다. 그렇게 해서 누가 땅을 많이 차지하는가 하는 놀이이다.

⑤ 씨 차내기

소년들이 하는 놀이로 땅바닥에다 넓적하게 쓸 용(用)자로 선을 그어 놓고, 손바닥같이 둉글고 납작한 돌을 주워 온다. 이것을 “씨바”라 하며 오른쪽은 세 칸이요 왼쪽은 두 칸이다. 오른쪽 첫칸에서부터 오른쪽 발을 들어 왼발로 “씨바”를 차 가며 뛰어돌아 왼편으로 나오는데, 누구던지 금선에 “씨바”가 걸리면 상대편이 차게된다. 그래서 금선에 “씨바”가 걸리지 않고 무사히 돌아 나오면 한 동 이기게된다.

금곡동 마을의 놀이 문화는 우리 민속 놀이와 같은 것이 많이 있었으나 채취, 기록 등이 미흡하여 몇 가지 기록하여 본다.

3) 민간신앙(당산제)

(1) 공창 고당 당산

① 공창(公昌)마을

금곡동은 부산광역시 서북쪽 끝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으로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속 한다. 북구는 북에서 남으로 진행되는 금정산과 낙동강 사이의 금정산 구릉말단부와 낙동강 충적층에 걸친 경사지와 저평구릉, 낙동강 동편의 둔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남으로 길죽한 모양이다. 그 중 금곡동은 북구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다. 금곡동을 구성하는 공창, 화정, 동원, 울리 마을은 동쪽으로 금정산을 등지고 서쪽으로 낙동강을 바라보고 있는데, 원래 낙동강 강가에 있던 나루와 연관된 자연마을이었으나 지금은 대부분 아파트와 일반택지로 개발되어 마을이나 나루의 옛날 모습은 거의 남아 있지않다.

공창마을에 거주했던 토박이 주민들은 대부분 근처로 이주하여 주택지에 살고 있는데 공창새마을회관 주변의 주택지가 그곳이다.

② 공창마을의 유래와 변화

공창마을 지명 유래는 조선시대 전라, 충청, 경상의 세 도(道)에서 조세를 실어 서울로 보낼 때 중간 기착지점으로 설치된 수참(水站)과 연관된다. 낙동강 유역에 설치된 수참으로 금곡동 동원마을에 동원진(東院津)이 설치되었는데 여기에서 참부(站夫)로 일을 했던 공천(公賤)들이 집단으로 거주했던 곳이라 하여 공창(公昌)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한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공창마을이 자체로 두 개의 마을로 형성되었는데, 하나는 등마라고 하여 산줄기의 약간 높은 등성이에 형성된 마을로 공창마을의 본동내이다. 또 하나는 골마라 하는데 도랑을 경계로 북쪽의 낮은 골짜기 주변 동네를 말한다.

현재 공창나루 위치에는 금곡역이 들어서 있으며, 1980년대 낙동강 하구언둑이 설치되면서 어획량이 점차 줄어 고깃배들도 사라지고 있다. 공창마을 주민들은 약 30호 정도로 공창새마을회관 또는 노인정에서 모여서 시간을 소일한다.

③ 공창마을의 고당제 과정

공창마을 당산제는 제관을 선정 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매년 음력 정월 대름날 첫 시에 당산제를 모시고 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동회(洞會)를 여는데 이 자리에서 다음해 당산제를 지낼 제관을 뽑는다.

제관이 지켜야 할 금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집안에 사고 및 급사 등 우환과 출산이나 초상이 없어야 하며, 잔치나 초상집에도 가지 못하고 싸움이나 분쟁 등 혐한 일에 노

출되지 말아야 한다. 또 항상 갓을 쓰고 다니며 제관임을 표시하였고 당산제 지내기 한 달 전부터 새벽마다 찬물로 목욕재계를 하였다. 당산제 제일(祭日)이 가까워지면 직접 장(場)을 보았다. 이처럼 까다로운 금기 때문에 어려운 조건이 되자 모두 제관이 되는 것을 꺼리게되어 마을사람들이 의논하여 인근 사찰(구포동 소재, 삼보정사)에 맡기기로 하였다. 현재는 사찰 스님이 제관이 되어 당산제를 주관한다.

당산제는 며칠 전부터 당산 주변을 깨끗이 하고 항토를 뿐어서 청결하게 정화하고 대나무를 둘레에 세우고 금줄을 둘러 출입을 막는다. 고당마을의 당산제에 정화하고 금줄을 치는 대상은 고당봉, 산신당집, 거릿대 등 세 곳이었는데, 현재는 당산제 일주일 전쯤 산신당으로 모셨던 당집만 정화하고 금줄을 친다.

당산제 제물은 원래 제관이 직접 구포장에 가서 재수를 사는데 흄이 없고 모양 좋은 최상품만 고르는데 물건값은 흥정하지 않는다. 재물도 일반 당산제와 마찬가지로 돼지 머리와 북어포, 덕, 나물, 탕국, 메, 과일 등이 차려졌다. 그러나 현재에는 사찰에 맡긴 이후 돼지머리는 없어지고 나머지 제물의 종류는 큰 변함이 없다.

당산제 제일 날이 어두워지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금기하고 당제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목욕재계하고 제관을 도와 당제에 차릴 제수(祭需)을 지게에 지고 올라가 제관을 도왔다. 제의가 시작되면 제관이 제상을 차리고 마을 사람들이 옆에서 제관을 도우며 절을 하며 제(祭)를 함께 지냈다. 그러나 지금은 당산제를 맡은 스님만 당안에 들어가 사찰 형식으로 제를 진행하며, 마을 사람들은 좌우에서 돋는다.

공창 고당당산은 마을 뒷산인 금정산의 최고봉인 고당봉(801.5m)의 산신인 고당할매를 주신(主神)으로 모신다. 음력 15일 첫 시(子時: 11~01시)에 금정산 고당봉에서 고당할머니 당산에게 당산제를 드린후, 할매신을 신대에 모시고 내려와 현재의 당집에 산신 할아버지와 같이 모셔두고 산신제를 지냈고, 마을로 내려와 거릿대제 순서으로 지냈다. 거릿대제는 마을 앞에 향나무에 오리를 엎은 거릿대를 세우고 지냈으나 금곡동 택지개발로 이 향나무가 없어지고 현재는 지내지 않는다. 거릿대 향나무가 있던 자리에는 현재 금곡동 70-10~12번지 일대로 공창 새마을회관 바로 아래 서북편에 있었다.

옛날에는 거릿대제가 끝나고 나면 마을 사람들이 동사에 모여서 제를 드린 음식을 나누어 먹고 풍물을 치며 즐겁게 놀고 그후 당산제를 위한 동회를 열었다. 그러나 지금은 스님이 제물을 정리하고, 마을 사람들은 대보름날 아침 10시에 공창마을 새마을회관에 모여서 동회를 개최한다.

당산제 경비는 원래 공창마을 주민 전체가 추렴하였으나 현재는 공창마을 새마을회

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낸 성금을 기금으로하여 충당한다. 당산제당의 수리나 보수, 유지에 드는 비용은 주민들이 상황에 따라 추첨하고 유지들이 봇돈을 내는 경우도 더러 있다.

④ 당산제당의 형태와 신체(神體)

원래 공창고당 당산은 산 정상부의 고모당(姑母堂), 마을뒤 산허리에 있는 산신당(山神堂). 그리고 마을 앞 오리를 올리고 거릿대제를 드리는 향나무 거릿대 형태로 존재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 고모당에 제를 드리기 위해 밤에 산을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 마을 사람들이 의논하여 고당할매의 위패를 모시고 내려와 산신당에 함께 모시게 되었다. 또한 나무오리를 올리던 향나무 거릿대는 도시개발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당산제를 드리는 곳은 세 제당 중 중간에 있던 산신당뿐이다.

산신당은 원래 공창마을뒤편의 웅장한 소나무 숲에 위치하였으나 도시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소나무와 아름다운 자연석들이 대부분 파괴되었다. 그러나 개발 당시 마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약 700평 정도의 당산부지를 받아내어 당집과 그 주변을 확보 하였으나 개발업체의 훼손으로 현재는 약 600평 정도 남아있다. 산제당은 금곡화목타운 아파트 내의 소나무밭에 있으며 수백년 된 소나무 2그루는 훼손되고, 한 그루 향나무와 10여 그루 소나무와 자연적인 화강암이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다.

제당 주위는 콘크리트와 자연석으로 약 120cm의 담장을 둘렀고, 그 위에 알루미늄 기둥과 그림판으로 된 울타리를 둘렀다. 울타리 문은 알루미늄으로 된 외짝 여닫이 직각망사문이며, 그 안에 있는 제당은 서북향이다. 제당의 대지는 35.6m²이며 당집 면적은 10m² 정도이다. 제당 좌·우, 뒷벽은 돌과 콘크리트를 섞어서 쌓아 올렸으며, 앞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하였다. 지붕은 우진각으로 기와를 올렸고, 사당 문은 두 짹 여닫이인데 나무로 만들었다. 제단은 직사각형 나무로 뒤쪽 벽에 1m가량의 높이로 선반형을 설치되었다.

나무 제단 위 양쪽의 각 ¼ 지점에 나무로 만든 위패 두 개가 모셔져 있다. 왼쪽 위패에는 귀의본산대신위(歸依本山大神位), 오른쪽 위패에는 귀의고모영신위(歸依姑母靈神位)라고 먹을 이용해 세로 글씨로 썼다. 그러나 판독이 어려워 2020년 4월경 판독이 어려운 위패를 길이 14cm, 높이 60cm와 누릅나무 재질과 강신길이 글을 썼어 다시 만들어 모셨다. 제당 오른쪽 벽에는 동래군 구포면 금곡리 공창 고당제당 수선기자명열(東萊郡 龜浦面 金谷里 公昌 姑堂祭堂 修繕寄者明列)이라는 목판이 걸려 있다. 이 목판

에는 제당을 수리할 때 기부를 한 강의경(姜義敬) 외 67명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공창마을 제당은 1956년 3월 29일에 세워졌으며, 1993년 4월 6일에 개수하였다.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이전의 당산제당의 모습은 분명하지 않지만 정사각형 형태였는데, 고당할머니 신위를 옮겨 모시면서 다시 당산제당을 짓을때 주민들의 토목, 목수 등 잡일의 협조와 양조장하던 진양 강씨가 주도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어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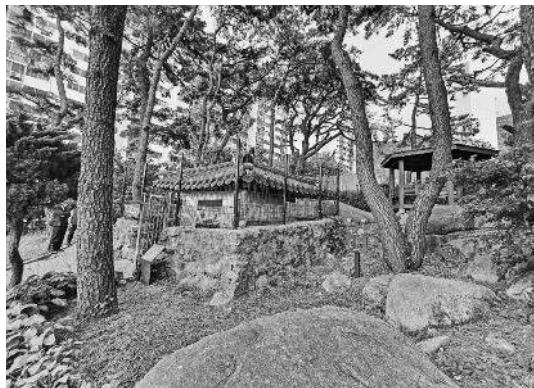
⑤ 공창 고당 당산제의 의의

공창 고당당산이 다른 주변의 다른 당산에 비해 중요한 이유는 첫째, 명칭으로 주변에서 금정산 고모당 당산을 모시는 당산제 중에서 고당당산이라는 이름을 갖게된 것은 이 당산제가 주변 당산제보다 중시되며 주된 당제라는 의미가 된다.

둘째, 당집과 주변 환경이 원형적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고당당산이 위치하는 장소와 주변 자연물은 옛 모습 그대로이다. 이곳의 솔밭은 수백년 된 소나무와 크고 작은 화강암 바위들이 잘 어우려져 있는데, 원래 자연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고대부터 당산의 신체가 거목과 거석 등을 매개로 하는점을 고려하면 원형적 조건을 매우 잘 갖추고 있다. 셋째, 제를 드리는 시간의 지속성이다. 공창마을 고당당제는 당산제를 드리는 주변의 당산제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이른 시간인 첫 시에 제사를 지낸다. 이는 주변의 여타 당산제가 편의를 위해 새벽이나 아침시간으로 변경하여 지내는데 비해 원래 당제 시간을 지키는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다. 넷째, 제당의 유구한 시간성과 위치성이다. 이 제당은 건립연대가 1926년으로 90년을 넘겼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증언으로는 원래 제당이 있던 자리에 제당을 다시 지은 것이므로 현재의 제당 규모는 확대되었지만, 그 원래의 형태를 간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창마을 사람들의 당산 관리와 당산제의 지속성이다. 대개 마을들은 도시화 되면서 마을이 없어지면서 당산의 주체가 사라져버리고 당제도 점차 없어져 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 공창 고당당산은 마을사람들이 아직도 인근에서 공동체를 지속하고 있고, 당산제 관리 유지보수, 당산제 청소, 당산제 참관, 당산제를 위한 동회 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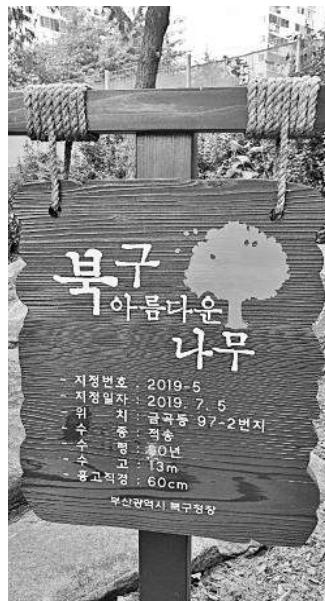
다만 현재 동회 참석자들이 60대 이상이므로 당산제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고당당산의 동제가 가진 문화적 중요성과 의미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집



위패



복구의 아름다운 나무



당산나무

금곡 공창 당산제

(2) 율리 당산

① 율리(栗里)마을

율리는 금곡동을 구성하는 네 개의 자연마을인 공창, 동원, 화정, 율리 중 한 마을이

다. 울리는 금곡동의 가장 남쪽 대천천을 경계로 화명동과 접하고 있다. 울리역에서 금정산으로 오르는 서당골에는 신석기 시대의 울리패총 유적이 있고, 북쪽 사거리 동쪽 길 가운데 삼각형 공원에 울리 알터바위 유적과 울리 당산나무가 있다. 울리는 옛날부터 금곡동 다른 마을에 비해 물이 풍부하여 논농사를 짓기에 용이하였고 식수로는 고당봉 아래의 맹근쟁이골 물을 끌어와 풍부하게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울리는 비교적 안정된 마을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2008년 이곳이 도시로 개발되면서 자연마을은 모두 사라지고 현재 울리역 옆에 새롭게 들어선 고층 아파트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주변의 상가 상인이나 아파트 주민들은 당산제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당산나무와 울리 알터바위가 보존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마을의 명물로 여기고 있다.

② 울리마을의 형성과 지명

울리 마을의 형성 배경이나 최초 입향 성씨, 입향 유래, 마을 형성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없다. 단지 인근의 신석기 유적인 울리패총과 청동기 유적인 알터바위를 볼 때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거주지가 현대에까지 지속해서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울리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부산 북구향토지에서 “옛날 이 마을에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밤>은 <밝>에서 왔다고 볼 때 <밝>은 곧 <신神>과 관련이 있어 생긴 지명이 아닌가 짐작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개 지명에서 사용되는 율栗이 ‘밤’으로 읽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울리의 ‘栗’도 처음 시작이라는 의미인데 이것과 연관된 것이 알터바위이다.

인간은 신에게서 새로운 일년의 질서를 받아 그것을 인지하고, 처음 실행하는 의례를 치르게 된다. 이 때문에 그 제의를 지내는 바위는 ‘새로운 질서를 알리는 바위’ 이므로 알바위 또는 알터바위가 되고 그러한 제의를 지내는 나무는 우주목으로 당목, 당산목이 되는 것이다.

③ 울리 당목(堂木)

울리당산나무는 북구 금곡동 1239번지 울리마을 입구 금곡대로 변 사거리에 삼각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쌓인 10평 남짓한 화단에 위치한다.

당산목은 부산시나무로 • 고유번호: 2-8-2-2, • 수종: 폭나무, • 수령: 220년, • 수고: 15m, • 나무둘레: 3.5m, • 지정일자: 1980.12월이며, 당목 앞에는 1.8x1.2m, 높이 10cm 정도 크기의 화강암 제단 상석이 바둑판 형식으로 놓여 있고 좌향 동북북향이다.

그 앞쪽에 서북편에는 자연석 화강암이, 서남쪽 약 2m 거리에는 화강암질의 알터바위가 있는데 남북방향으로 길게 누운 상태로 둥근 마루등과 경사면에 약 10개의 성혈이 새겨져 있다. 이 알터바위에서 약 2m 앞에 알터바위를 소개하는 ‘금곡유리 알터바위’이라 새긴 화강암질의 인공제작 표지석이 있다. 그러나 금곡동 울리 당목과 알터바위를 보호하는 삼각지는 마치 도로의 경계나 완충지 역할을 하며 마을 사람들이 섬기던 당산목과 알터바위가 공동체 의식과 신성하고 존엄성이 상실한 안타깝다는 마음을 더해주고 있다.

④ 울리 당산제 실태와 특이사항

금곡동 울리 당산은 원래 울리마을 입구 도로변에 위치하였으며, 이곳에는 당산목인 폭나무와 콘크리트 블록과 시멘트로 만든 제단 그리고 알터바위가 함께 있었다. 원래 음력 정월대보름 첫시(0시)에 제를 지냈는데 제의 순서는 당산제 → 산신제 → 거릿대제의 순서로 지냈으나 점차 편의에 따르면서 산신제는 없어지고 당산제와 거릿대제만 지내게 되었다. 거릿대제를 지내는 당산나무는 금곡 산업도로변의 낙동강 강변 쪽에 있었던 회화나무였다. 그 뒤에도 150여년 된 폭나무 2그루와 큰 바위가 몇몇 쌓여 있었고 당산나무 앞에는 돌로 만든 제단이 놓여 있었다. 현재는 아파트와 도시개발공사로 모두 사라지고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울리 당산제의 제관은 대(竹)을 잡아 선정하였으나, 현재 당주(堂主)는 배동철씨 개인이다. 배동철씨가 당산제를 맡아서 지낸 것은 벌써 십여 년이 되어가고 그 이전에는 마을에서 당산제의 재원을 모아서 충당하되 배동철씨 모친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였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당산제를 맡을 사람이 없어서 몇 년 동안 당산제를 맡을 사람이 없어서 지내지 않다가 흐지부지 당산제가 없어질 지경이 된 것이다. 이에 배동철씨가 어머니가 모시던 정성과 뜻을 생각하여 자신이 당산제 경비를 충당하고 옛날 어머니가 다니시던 절인 수정법사에게 부탁하여 당산제를 지내게 되었다. 이 절은 미륵불을 모시는 대처승 비구니들이 무속적 신앙을 결합하여 섬긴다고 한다.

원래 당산제는 정월대보름 첫시(0시)에 제를 모시는데 산신제와 거릿대제가 없어지

고 현재는 당일 아침 7시에 당산제를 지낸다. 절에서 준비한 재물을 차로 싣고와서 제단에 차리고 불교의례 절차에 따라 절하고, 독경하고, 술올리고, 삽시(插匙) 한 다음 제문을 읽는다.

제문 내용은 대개 당산제를 지내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것이며, 현 당주인 배동철의 이름이 내용에 들어간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당주가 따로 술을 올리고 세 번 절하고 물러난 다음에 독경하고 축문을 태우는 분축(焚祝)을 하고 마지막에 절을 하고 제의를 마무리한다. 제의가 끝나면 올렸던 술만 간단하게 당주가 음복하고 나머지 음식은 그대로 절에 가지고 가서 신도들과 나누어 먹는다고 한다.

율리 당산나무와 그 아래 알터바위에 대하여는 마을 사람들이 믿는 마음은 특이하며 당산신의 영험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여겼다.

첫째, 당산나무 옆에 거북모양의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는 옛날 과거 보러 가던 사람이 과거에 합격을 빌었던 바위로 영험이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소원을 비는 바위는 대지의 중심인 지모신을 의미하는데, 그 신성함이 하늘과 땅, 지하세계를 관통하여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당산에 있는 개미는 사람을 물지 않으며, 도 당산나무에 아이들이 올라가 놀다가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믿음은 당산나무에 깃들어사는 동물도 당신을 믿는 사람과 동질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셋째, 거릿대에 대한 신안으로 거릿대 앞을 지날 때 말을 타고 가던 사람은 반드시 내려서 예를 표하고 지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화를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⑤ 당산제 참고사항

○ 당산제

당산은 동신(洞神)의 형태에 속하며 체계는 다음과 같다.

마을 배후 제일 높은 산꼭대기에 국수당을 마련해 천상의 신을 지상에 모셔 마을을 보살펴 주게 하였으며, 산중턱에 산 전체를 신성하게 여겨 신격이 형성되어

산신을 산신당을 짓어 신앙하게 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마을 동구에 모시는 서낭신앙이 형성되어 밖으로부터 마을로 들어오는 잡귀와 액운 등을 막고, 마을 안의 좋은 기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서낭당 그 옆에 장승과 솟대(거릿대)가 함께 있는 복합적이다.

○ 당산의 신체

제의 신체는 대체로 문자 상징의 위패와 지방(紙榜), 자연물 상징의 돌, 신간(神竿), 조각 상징의 목우(木偶), 토우(土偶), 가면(假面), 회화 상징의 신의 모습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문자(文字) 상징: 문자로 당신의 이름을 써서 신체로 상징하는 것인데 위패와 지방이 여기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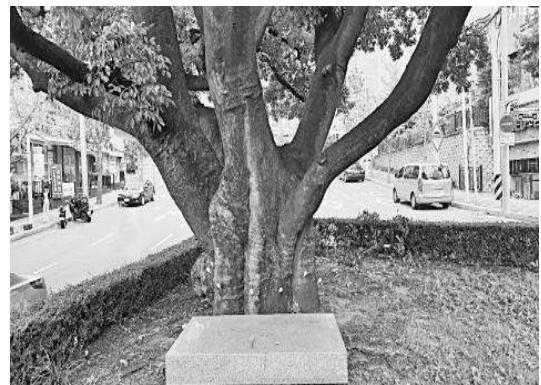
▷ 자연물 상징: 교묘하게 생긴 돌, 꿩의 깃털, 신간(神竿) 등을 당신의 신체로 상징하는 것이다.

▷ 조각(彫刻) 상징: 당신의 신체를 조각하여 신으로 상징하는 것인데 목우, 토우, 가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회화(繪畫) 상징: 당신의 신체를 그림으로 그려 신으로 상징하는 것인데 무신도 계통과 흡사한 신상이 여기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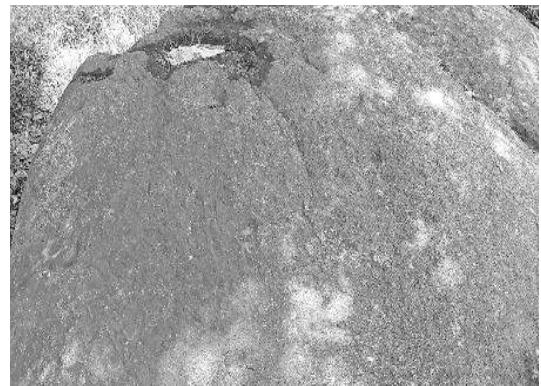
율리 당산나무



율리 당산나무 제단



율리 알터바위



율리 알터바위 성혈

○ 당산의 신수

당나무만 있는 신수(神樹)를 당(堂)이라 부르는데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나무만 있는 신수 형태, 둘째, 신수 밑에 장방형의 자연석이 있는 형태, 셋째, 신수 밑에 1칸 정도 당집이 있는 형태, 넷째, 신수가 있거나 또는 신수가 없이 당집보다 규모가 크고 건물이 세련되어 지붕에 기와를 얹고 기둥과 도리등에 채색을 한 형태 등이 있다.

(3) 화정 산제당

① 화정(花亭)마을의 형성과 변천

화정마을은 낙동강 쪽에서 바라보면, 오른쪽은 동원과 공창마을이, 왼쪽은 율리마을을 경계로 하고 있다. 마을 형성은 3~4백년 전에 마을 뒷 정산에 있던 연못 둑이 홍수로 붕괴되어 물길이 바뀌어지면서 하류에 신촌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화정(花亭)이란 지명은 마을 북쪽입구에 돌도 많고 정자나무도 있었는데, 언덕 위에 백일홍이 많이 피어 있었다. 이처럼 다른 지역보다 백일홍과 정자나무가 많았던 곳이라 하여 주민들이 화정이라 불렀다고 이야기 한다.

화정마을은 산등성이와 낙동강이 가까이 위치하며, 현재 부산지방 조달청이 자리하고 있는 진등대는 옛날 공동묘지였다. 이곳에 진달래가 많이 피어 진달래 구더기라 불렀으며. 화정마을에서 동원마을로 이어지는 산등성이가 곱게 생겼다고 고분등이라도 하였다. 그리고 영남대로 아래의 농토는 낙동강의 잦은 홍수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하지 못했다. 농경지가 협소하고 나루터도 마을 앞에 없었기에 주변 지역보다 생활 수준이 낮아 마을 형성도 늦었고, 1920년대에 강변에 10호 정도와 현재 큰 도로 위쪽에 60호 정도가 마을을 이루었다.

2000년 후반부터 도시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되어 화정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이주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입주자들이 마을을 형성하게되면서 옛날의 흔적은 찾을 수 없으며, 마을 고유의 전통문화가 원만히 계승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② 화정 당제의 유래와 특징

당제의 유래는 화정마을에 살던 조씨 집안에서 빌복을 위하여 불당골 절이 있었던

법당터에 시신을 묻게 되었다. 그러자 마을 젊은 청년이 계속 사망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자 그 원인이 조시 무덤 때문이라는 소문이 나돌게 되었고, 마을 아낙네들은 죽창을 들고 강제로 묘를 제거하였다. 이후 마을은 안녕과 평안을 되찾아 당산에 제사를 적극적으로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화정 당산은 산능성을 따라 수령 250여년 된 폭나무와 대나무 숲이 있고 크고 넓은 바위에 산제당(山祭堂)이 있으며, 산제당 앞에는 20여명이 앉을수 있는 넓은 바위이다. 현재의 산제당은 화정마을 주민들이 기금을 모아 1920년 2월 목조 기와집을 세워고, 1972년 8월 10일 개축하였다. 현재 산제당은 화방사 경내로 사찰에서 관리하고 있다.

화정마을 주민들은 마을의 안녕과 단합을 위해 주민 전체가 돈을 모아 산제당 건물을 세우고 개인의 안전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처음에는 당제는 마을주민 모두가 참여하였으나, 산제당 소유권 문제로 인해 근래에는 화방사 스님만이 제를 올린다. 당제의 제사 방식도 주민이 참여하는 유교식 제물진열과 제의과정에서 불교식 제의로 전환됨으로써 당제의 성격이 많이 변화되고 있었다.

③ 제의 절차와 구성

○ 준비과정

금곡동 화정 당산제는 매년 음력 정월 14일 자정에 마을주민 중에 한 부부를 당주로 선출하여 이들 부부가 모든 제물을 마련하고 제를 지내왔다.

제의 경비는 마을에서 주민 50명이 각출하여 40만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그해 당주 부부에게는 동답(洞畠) 300평을 1년 동안 경작하여 수확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화방사가 산제당 주변에 들어오면서 주지 법출스님이 제관의 자격으로 참가하게 되어 마을 대표 1명과 함께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마을의 공동 제사로 변하였다.

그러나 1993년 산제당 소유권 문제로 주민들과 사찰간의 공방이 생기면서 마을에서 제의 경비를 각출해서 주지에게 건네주고, 마을사람들은 참가하지 않는다. 2006년 마을에서 제사비용을 낸 자료가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마을 지원 없이 법출스님이 제주가 되어 제의를 지내고 있다.

정월 초에 당주부부가 선출되면 정월 대보름제사를 지낼 때까지 제관과 아내는 목욕 재계를 하면서 근신하였고, 아내는 창포물로 머리를 감고 큰머리를 하여 제를 모셨다.

제사에 필요한 제물은 당주부부가 구포장에 가서 기제사와 같이 장을 보았으며, 제물장만도 당주부부가 모두 하였다. 그리고 제의를 위하여 금기지역의 표시로 산제당

건물과 주변, 거릿제를 지내는 하당산나무 주변, 당주부부의 집 대문에 금줄을 쳤다. 그러나 화방사에서 전담하고부터 육류는 제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제당의 형태와 신격

화정 산제당은 부산관역시 북구 효열로 75-16 화방사 경내 북쪽에 있다. 산제당에 있는 자연석을 이용하여 기둥과 지붕을 만들고 사이사이에 목재로 만든 당집이었다고 한다. 1920년 2월 목조 기와로 당집을 건립함으로 초기 당집은 확인 할 수 없다.

산제당 뒤에는 세죽(細竹)이 있고, 왼쪽에는 흉고 둘레 205cm, 높이 17m의 상당산나무인 폭나무가 서 있었다. 그러나 태풍으로 인해 쓰러지자 현재는 그 터와 보호수 안내판만 남아 있다. 오른쪽에는 스러진 나무보다는 규모가 적지만 폭나무 2그루가 일렬로 있다. 제당 앞에 있는 바위는 2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넓은 바위였으나 사찰 건물로 인해 많이 축소되었다. 산제당 아래쪽으로 내려와 금곡대로를 거너면 화정원이 있는데 그곳에 하당산나무인 폭나무 2그루가 있다. 그중 큰 나무는 괴사직전 상태로 하단부에는 거릿제에 재물을 진설 할 수 있는 직사각형 좌판석이 놓여 있다.

화정 산제당은 서향이며 면적은 5.6 m²이다. 지붕은 우진각이며 벽은 블록을 쌓아 시멘트로 마감하였으며, 문은 여닫이 두짝 띠살문으로 만들었다.

제당 위에에는 산제당(山祭堂)이라 한자로 쓴 나무 현판이 걸려 있고, 산제당 이란 현판 옆에는 경신 2월일(庚申 二月日)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다. 제단은 직사각형 나무판으로 되어 있으며, 붉은 천으로 앞을 가렸다. 제단 위에 위패가 2개 있는데 범어사 남산스님이 제작했다. 오른쪽 위패는 고모령신지위(姑母靈神之位), 왼쪽 위패는 항주본산왕대신지위(恒住本山王大神之位)라고 쓰여 있다. 위패 아래에는 붉은 방석이 놓여있다. 제당 안의 동쪽 벽에는 제당창건구재기(祭堂創建鳩財記)가 붙어 있는데, 대정(大正, 9년 (1920)) 경신(庚申) 추(秋) 7월일이란 기록이 있다. 그 내용은 산제당 건립기금 내력으로 총 70명이 1원50~20전을 내었다.

산제당 밖 현판 오른쪽에는 산제당개축시찬조인명단(山祭堂改築時贊助人名單)이 걸려 있는데, 1972년 9월 개축시 총 62명 중 38명이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을 찬조했다.

제의 목적은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마을 사람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위패는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 신령을 모시는 것이다. 동신제로 금정산신과 고당봉의 고모신을 모시는 것은 주변 마을에서 볼 수 없는 신령 모신이다.

④ 당제의 진행과정

금곡동 화정 당산제는 산신제 → 고모령신제 → 성왕제의 순서로 진행 된다. 금정산 신을 위한 산신제는 항주본산왕대신지위(恒住本山王大神之位) 위패를 모시고 제를 지내며, 고당봉 고모령신제는 고모령신지위(姑母靈神之位), 위패를 모시고 제를 지냈다. 마지막으로 거릿제인 성왕제는 산제당에서 300m 정도 떨어진 하당산나무로 이동하여 좌판석에 제물을 진설하고 성왕제를 지냈다. 지금은 마을주민이 이곳에 화정원(花亭園)을 조성하여 하당산나무와 좌판석을 보존하고 있다.

처음 마을사람들이 지낸 당산제의 절차와 제물은 가정의 기제사와 같이 제물을 진설하고 유교식으로 축문을 읽으며 진행하였다. 음복은 제관만 하며, 제관은 1년간 금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산제당의 토지소유권 문제로 인해 사찰에서 지내는 제사는 불교식으로 지내며 유통률을 쓰지 않는다. 현재 성왕제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⑤ 당산제의 인식과 특이사항

금곡동 화정마을은 재개발되어 다수의 주민이 이주했고, 원주민은 극소수만 남아 있다. 현재 마을주민 대부분은 산당제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

산제당에서 100m 정도 좌측 아래쪽에 보호수인 폭나무가 있는데, 이곳이 재개발된 지역으로 신화명 리버뷰자이아파트가 건립되었다. 2016년 완공되어 입주하였으나 원래 주민보다는 외부에서 이사온 사람이 대부분이다. 2017년 이곳 아파트노인회장 송동섭씨가 중심이 되어 당산제를 지내기를 제안하여 제를 지내게 되었다. 보호수를 향해 제단을 마련하고, 제물은 기제사와 비슷하게 진설하고 위패는 없으나 축문을 읽으며 음력 정월 15일 오전 11시에 제를 지내고 있다. 오전 11시는 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것이란다. 그리고 아파트의 안녕과 화합, 가정 화목, 다복, 건강 등을 기원하고 있다. 제물 비용은 동대표가 모금으로 마련해 왔는데, 당제의 부정적 시각이 확대되면서 주민의 참여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현재는 당산제의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1930년대 영도대교 공사시 이곳에서 채석을 많이하게되자, 산제당 주위를 고학문이란 석수쟁이가 당집 앞쪽에 있는 큰 바위를 깨트리고자 해서 화방사 주지스님과 마을사람들이 불가하다고 말렸다. 그러나 일을 진행하였고, 석수쟁이는 얼마 후에 돌을 깨는 모습으로 죽었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



옛 화정 산제당



옛 화정 산제당 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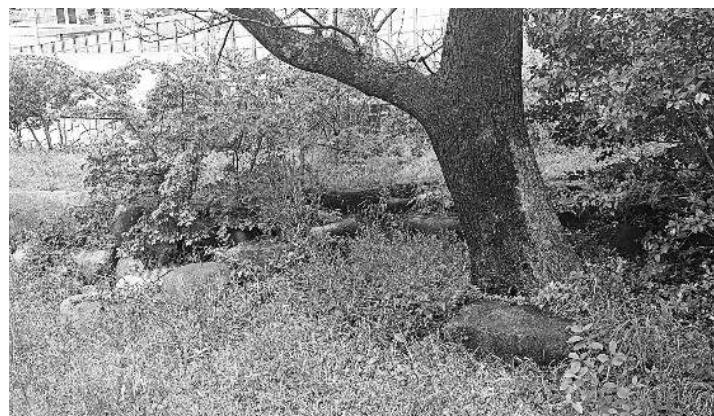
화정 산제당



화정 산제당 위파



화정원



화정 하당 제단

(4) 동원 당산

① 동원(東院)마을의 형성과 변천

금곡동을 구성하는 공창, 화정, 동원, 을리 마을은 동쪽으로 금정산을 등지고 서쪽으로 낙동강을 바라보고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공창, 화정, 동원일대를 모두 동원이라 했다. 원래 낙동강 강가에 있던 나루와 연관된 자연마을이었으나 지금은 대부분 아파트와 일반택지로 개발되어 마을이나 주막, 나루의 옛날 모습은 거의 남아 있지않다. 동원 마을에 거주했던 토박이 주민들은 대부분 이주하고 원래 주민보다는 외부에서 이사온 사람이 대부분이다.

동원은 고려시대부터 생겨난 역원제(驛院制)에 의해 원(院)이 설치된 곳이다. 조선시대 일본과의 교역과 전라, 충청, 경상의 세 도道에서 조세를 실어 서울로 보낼 때 중간 기착지점으로 설치된 수참(水站)이 설치되었던 곳인데 그 이름이 그대로 전해오고 있다.

동원리에는 낙동강변에 동원이 있었고, 500여년된 당산나무가 있어 동원진(東院津) 나루터의 역사를 증명해 주고 있다. 동원고개는 동원마을 강변 주막이 있었던 곳에서 북쪽으로 가는 짧은 고개를 일컫는 곳이며, 양산군수 이계필공덕비가 있었던 곳이다. 옛날에는 이곳을 지나갈 때 낙동강을 내려다보며 쉬어가던 곳이기도 하다. 현재는 부산의 7대 진미(珍味) 중 하나로 지정된 장어구이 요리마을이기도 하다.

② 제의 절차와 구성

○ 준비과정

금곡동 동원 당산제는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 자정에 지냈으며, 음력 정월 초 3일경에 마을주민 회의를 열어 주민들중 당주를 선출하여 제물을 마련하고 제의를 지내왔다.

제의 경비는 마을에서 주민과 유지에서 추렴하여 약 50만원을 마련하여 소요경비로 하였으며, 최근까지는 인근 사찰에 위탁하여 스님이 제의를 주관하여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제의를 지냈으나, 지금은 지내지 않고 있다.

정월 초에 당주부부가 선출되면 정월 대보름 제사를 지낼 때까지 제관이 제의를 위

하여 금기지역의 표시로 상당(上堂) 바위와 하당(下堂) 당산나무 주변, 당주 집 대문에 금줄을 쳤다. 그리고 부정을 가리는 등 엄격한 금기를 실천했다.

○ 제당의 형태와 신격

동원 당산은 상당과 하당으로 구분되며, 상당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50번길 6 대우이안아파트 단지내와 부산지식산업센터, 부산지방조달청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당집은 없고, 주변에 팽나무 3그루, 폭나무 3그루, 감나무 10여 그루가 밀집해 있으며, 큰 바위 4개가 있는데 중앙이 겹쳐있는 바위 아래에 서남향인 시멘트 제단이다. 그러나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신체는 바위이다.

하당은 상당에서 직선거리로 250m 정도로 경부선 철로 아래쪽의 낙동강변에 은행나무 2그루를 심고 그 주변에 담장이 둘러쳐져 있다. 신체는 은행나무이고, 제단은 은행나무 아래에 동동남향인 시멘트 제단이 설치되어 있다.

제의 목적은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며 마을사람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일제강점기 호열자(콜레라)가 마을에 창궐하자 개인들 건강을 위해 진압(鎮壓)장군제를 지내게 되었다.

③ 당제의 진행과정

금곡동 동원 당산제는 상당 산신제 → 중당 고모령신제 → 하당 진압장군제 → 거릿제의 순서로 진행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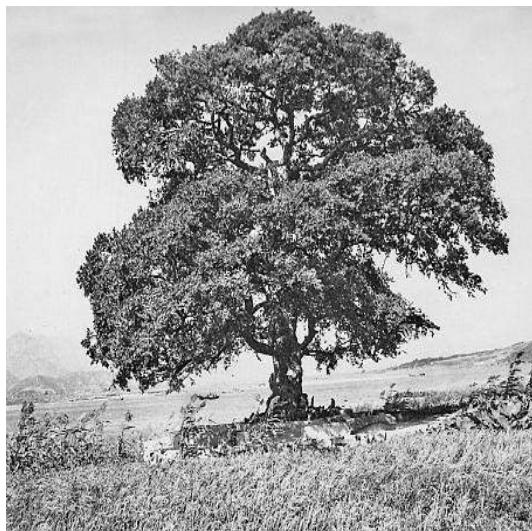
이곳이 재개발지역으로 대우이안아파트 건립과 공공기관의 이주로 원래 주민보다는 외부에서 이사온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리하여 당제의 부정적 시각이 확대되면서 주민의 참여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현재는 당산제의 유지가 어려워 제의를 지내지 않고 있다.

처음 마을사람들이 지낸 당산제의 절차와 제물은 가정의 기제사와 같이 제물을 진설하고 유교식으로 축문을 읽으며 진행하였다. 그러나 인근 사찰에서 지낼때는 불교식으로 지내며 육류를 쓰지 않는다. 제의를 마친후 제물 일부를 떼어 잡귀(雜鬼) 귀신에게 먼저 먹인후, 당주로부터 제의에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음복을 하였다.

④ 당산의 특이사항

○ 진압장군제(鎮壓將軍祭) 설화

일제강점기에 동원마을 호열자(콜레라)가 창궐하였다. 그러던 중 마을의 한 노인이 꿈을 꾸니 “마을 앞에 한 건장하고 준수한 장군이 서서 백만군사가 쳐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한다. 그 뒤 장군이 서서 백만군사를 막았던 곳을 하당(下堂)으로 정하여 그 때부터 진압장군제를 올리게 되었다고 한다.



옛 당산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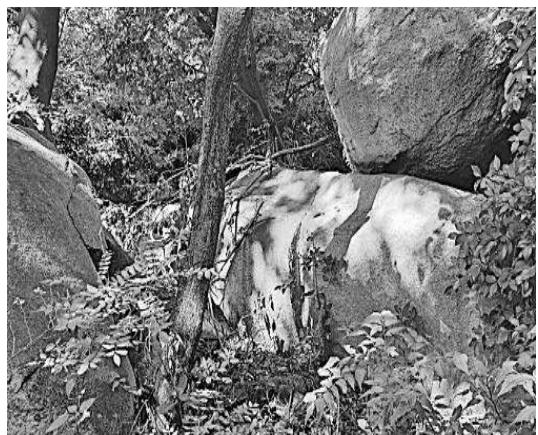


현재 은행나무

동원 하당(下堂)



바위제단



바위와 나무

동원 상당(上堂)

○ 당산신(堂山神)의 영험담

1990년대 한 제관이 제의를 모시는 날 오전에 마을에 아이가 죽어 그 시신을 제관 집 앞으로 운구하였는데, 그 일이 있은 후 제관이 제의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자 갑자기 흙이 방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불이나는 등 큰 곤욕을 치렀다 한다.

이러한 일로 마을에서는 당산신에 대한 영험담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당산제를 모실 때에는 부정을 가리는 등 엄격히 금기(禁忌)를 실천하였다.

(참고자료: 『부산광역시 북구 당산제 실태조사』, 부산문화원연합회, 낙동문화원, 2020.)

제2절 문화생활

1. 문화관련 기관

1) 금곡청소년수련관

(1) 개요

- 위치: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158 (금곡동)
- 명칭: 금곡청소년수련관
- 관리: (사)삼동청소년회
- 개관: 2000년02월15일
- 면적: 토지(11,908.90 m²) / 건물(6,938.53 m²)
- 구성: 지하2층 - 지상3층



금곡청소년수련관

금곡청소년수련관은 백두대간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금정산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접근방법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 동원역과 금곡역 중간지점에 있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로도 갈 수 있는데, 덕천동에서 111번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금

곡중학교 정류소에서 하차 하면된다. 횡단보도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은 위치에 있어서 편하게 방문을 할 수 있었다. 수련관 출입구 좌측에는 3개의 비각이 자리하고 있다. 첫 번째 비각은 「금곡 효자 천승호 열녀 이씨 정려비각」이며, 비각 바로 옆에는 “이 정려비는 원래 금곡동 율리부락에 있었으나 도시개발로 이전하게 된 바 북구청과 낙동향토문화원의 협조로 현장소로 이전하게 되었다(1996년 3월)”라는 정려비 이전 안내석이 자리하고 있다. 이 비각은 ‘위대한 북구 유산 40선’에 선정되어 있어 북구의 자랑스런 문화재이다. 좌측 아래쪽의 두 번째 비각은 「행군수손후상일일흘민선정비」 바로 접한 세 번째 비각인 「행군수이후계필청덕흘민비」가 함께 세워져 있다.

(참고자료: 북구청 누리집)



행군수손후상일 흘민선정비



효자 천승호와 열녀 경주이씨 정려비각

(2) 설립경위와 배치현황

① 설립경위

금곡청소년수련관은 초등·중등·고등학생 등 청소년들의 튼튼한 체력, 건강한 정신, 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도와주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건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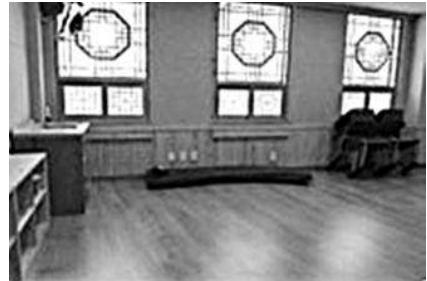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체육문화 공간확보를 위해 대지면적 11,908 m² 위에 건물연면적 6,938 m², 지상3층·지하2층 건물로 부산광역시가 2000년 1월 6일 건립하여 준공하였고, 2000년 2월 15일부터 (사)삼동청소년회가 수탁계약 하여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다.

② 층별현황

[지상3층] : 공연장, 음악실, 세미나실, 청소년실, 창의적체험활동실, 청소년힐링룸,
클럽활동A, 클럽활동B, 클럽활동C (방과후아카데미)



[3층]공연장



[3층]청소년 힐링룸



[3층]세미나실



[3층]창의적 체험활동실



[3층] 피아노 음악실

[지상2층] : 예체능교실, 상담실, 예절실, 관장실

[지상1층] : 실내체육관, 특성화실, 야외무대, 체력단련실, 청소년독서실



[1층]야외무대



[1층]체력단련실

[지하1층] : 실내수영장, 무용실A, 무용실B, 강사대기실,



[지하1]실내수영장



[지하1]무용실

[지하2층] : 기계실, 전기실

(3) 구성과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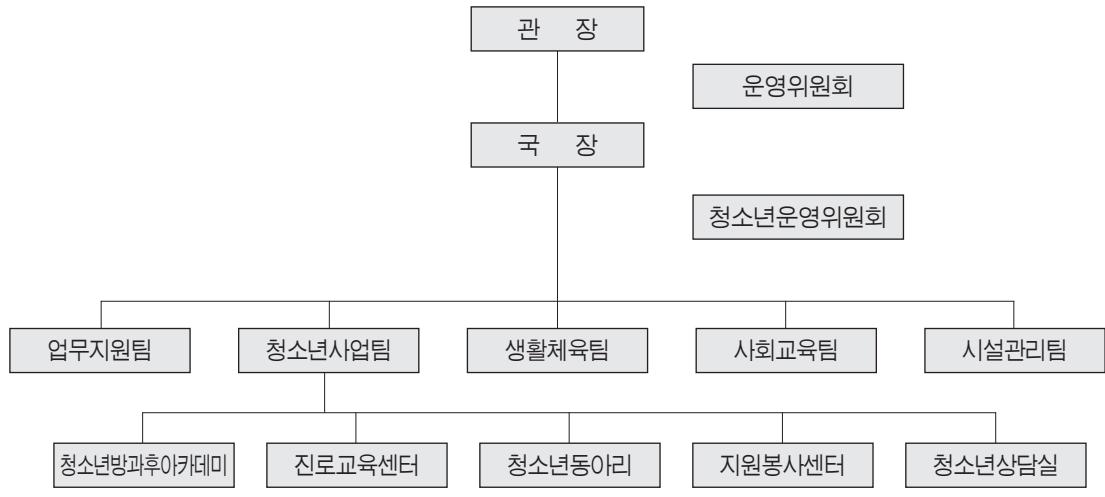
① 구성

금곡청소년수련관의 지하 1층에 25m, 5레인의 수영장, 미니축구를 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 280여석의 실내공연장이 있다.

지상에는 100여석 규모의 야외무대가 있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청소년 20명으로 구성)’에서는 프로그램모니터, 설문조사 등 다른 시설들과의 교류도 활발히 하고 있다. 청소년의 체육문화, 유아 예·체능단, 공모사업, 방과 후 아카데미, 금곡교화단 등으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고자료: 원불교신문, 2016.2.5.)

② 조직도



(사)삼동청소년회 부산광역시 금곡청소년수련관 조직도

2) 금곡도서관

(1) 개요

- 위치: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203번길 34(금곡동)
- 명칭: 금곡도서관
- 관리: 부산광역시 북구청(교육지원과)
- 개관: 2016년9월24일
- 면적: 부지(532.0 m^2) / 건물($1,772\text{ m}^2$)
- 구성: 지하1층 - 지상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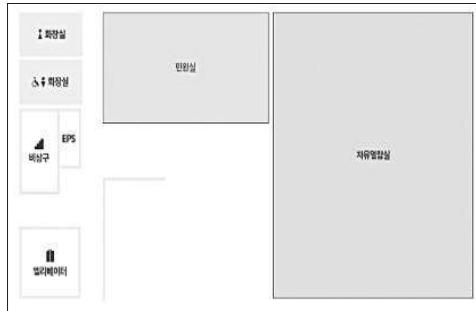


금곡도서관

금곡동에 위치한 금곡도서관은 2013년 5월에 공공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비와 시비보조금으로 2015년 6월 건립공사에 착공하여, 2016년 9월 24일 개관한 공공도서관이다. 도서관의 관리는 부산광역시 북구청(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다. 이용 일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며, 월요일과 국경일, 정부지정 공휴일은 휴관이다. 이용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현재 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는 54,979권(일반도서 33,042권/아동도서 21,937권)과 비도서438점, 연속간행물(신문12/잡지48)5명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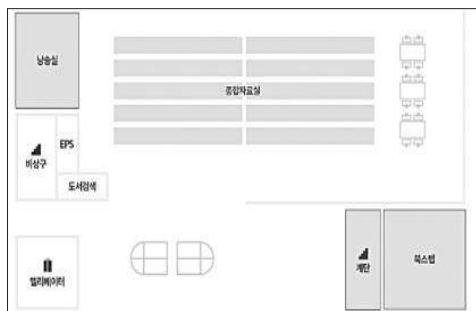
(2) 층별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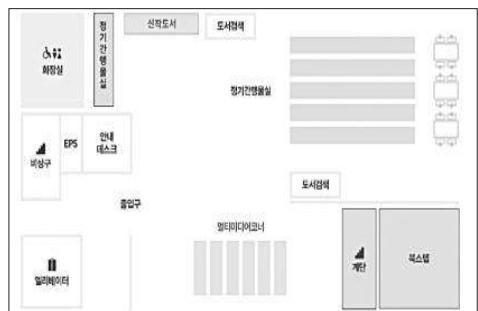
[지상5층]



[지상5층] 사무실(민원실), 자유열람실(97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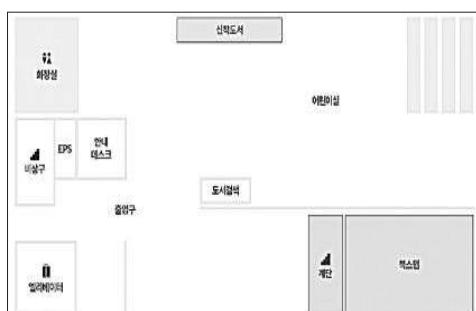
[지상4층-3층]



[지상4층-3층]



정기간행물실(106석), 문학실, 신착도서, 멀티미디어코너, 종합자료실, 취업정보코너, 낭송실



[지상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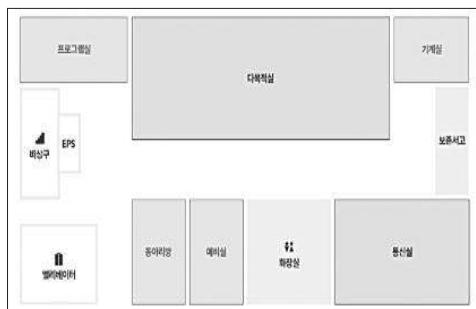
[지상2층] (어린이실(96석), 온돌), 복스텝, 신착도서)



[지상1층]



(갤러리홀, 북카페, 안내실, 주차장)



[지하1층]

[지하1층]
다목적실(80석), 프로그램실(30석),
동아리방(10석), 예비실, 기계실,
통신실, 보존서고

3) 금곡 꽃박물관

- 소재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금곡대로 1608-5

금곡 꽃박물관은 부산 금곡동과 양산시 동면 기산리로 이어지는 금곡대로의 낙동강과 철로쪽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에서 2000년 6월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길이는 사백육십여 미터로 소나무, 접시꽃 등 많은 수목과 꽃들이 심어져 있다. 낙동강변을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휴게소 2개소와 건강 지압봉 바닥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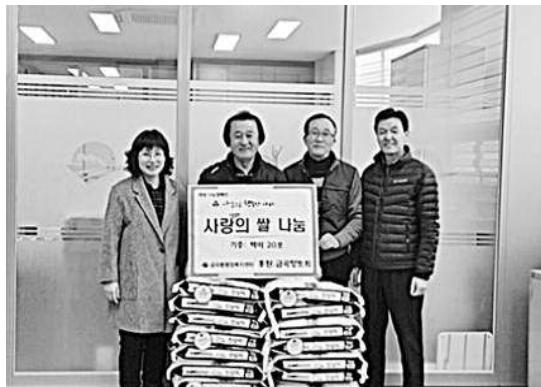
끝부분(출구)

금곡 꽃박물관

2. 문화관련 단체

1) 금곡향토회

금곡동에는 문화관련 단체로서 1995년에 발기총회로 탄생한 향토회(초대회장 손



불우이웃돕기



대보름 달집태우기

봉동)가 있다. 2021년 06월 현재까지 제7대 회장(현 회장 배문철)과 회원 36명에 고문 2명으로 구성되어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향토회 회의자료 참조)

향토회의 영위사업으로는 매년 지역방역 유류대 지원,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전달, 대보름 달집태우기 등 문화사업을 하고 있다.

지역의 어려운 주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백미 20포를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였고, 우기 행사는 주민들과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며 주민노래자랑의 축제를 즐기면서 보름달이 뜨는 시간이 되면 액운을 물리치고 소원을 비는 기원제를 지내며 한해의 소원을 비는 행사로 이어오고 있다.

2) 울타리 풍물단

금곡동의 문화관련 단체로 울타리풍물단(초대단장 이두만)이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616번길71(지하1층)에 연습실을 두고 있다. 울타리 풍물단은 처음 공연을 2003년



풍물단 창단공연



풍물단 연습실

12월 6일 금곡동 청소년수련관에서 공연이 있었다.

‘울타리풍물단’은 각 동의 풍물단에서 활동하던 단원들이 북구의 행사에서 공연을 하며 어울리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지난 2003년 5월 10일 창단한 모임이다. 북구 관내 행사에서의 공연은 물론 멀리 남해 설천면 등에까지 가서 공연을 벌여왔다.(북구청 자료실참조)

울타리풍물단은 모듬북, 사물놀이, 트롯트 장고, 팽과리, 상모 판굿, 등을 배울 수도 있고 색소폰수리도 할 수 있다. 풍물단은 중간에 3년 정도를 제외하곤 2021년 6월 현재 까지 이두만 단장이 이끌고 있다.

3. 문화행사

1) 금곡동 느티나무축제



제2회 금곡동 느티나무 축제 안내 팜프렛



제8회금골동 느티나무 출제 안내서 팜프렛

2) 경로잔치

부산 북구 금곡동에서는 경로잔치가 해마다 가끔씩 열렸다.

마을사람이나 외부인이 들릴 때마다 내미는 촌지를 모아 마을의 어르신들을 공창 마을에 있는 새마을 회관에 모시고 장만한 음식으로 대접을 해 드렸다.

딱히 정해진 규칙은 없었으나 시골마을같은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마을 행사는 항상 온정이 넘쳤다. 이런 아름다운 풍습은 언제부터였는지 확실한 기록이 보전되지 않아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1970년대 말쯤으로 기억된다. 그때쯤이면 전국적으로 잘 살 아보자는 새마을 운동이 활성화되어 도시의 오거나 다름없는 금곡동에서는 마을 전체가 명절과 같은 분위기가 되었다.

행사 준비는 향우회 회장과 7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들과 그리고 통장과 총무 및 부녀회원들이 주동이 되어 잔치에 쓰일 음식을 장만하여 경로잔치를 여는데 핵심 역할을 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주민들이 서로서로 협력하여 즐거운 행사를 하였다.



금곡동 새마을회관

어느 때는 동래 온천장으로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온천욕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시켜드리면 엄청 좋아들 하셨으며 형편이 조금 더 멀리 동해안 기장까지도 모시고 갔었다. 그럴 땐 강물만 바라보고 살다가 확 트인 동해바다를 바라보면서 탄성을 지르던 어른들을 보면 함께 한 일행들까지도 덩달아 가슴이 봉 뜯 기분이었을 것이다.

돌아올 때는 주머니 쌈지돈을 꺼내어 미역과 김 등 해산물을 사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기분은 정말 좋았으리라 생각된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독지가들의 가슴 따뜻한 성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듯 수십 년을 거쳐 온 아름다운 풍습도 전 인류를 경악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더 많이 중단될까 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아무튼 중단된 행사들이 다시 원상 복귀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겨내야만이 가능하리라 본다.

이렇듯 공창 동원 화정 율리 마을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금곡동은 무수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금곡동이란 지명이 자랑스럽다.(금곡향우회 회장 이오용씨 인터뷰)

4. 관광명소와 먹거리

1) 낙동강 전망대

가람낙조길 중에서도 풍경을 감상하기 좋은 명당인 낙동강전망대는 낙동강과 하늘 이 그리는 풍경이 아름답지만 낙동강 위로 노을이 물드는 장관은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이다.

강의 옛말인 가람과 낙조의 의미를 더해 이름 붙인 가람낙조길은 천혜의 자연경관인 낙동강을 바라보며 부산의 명산인 금정산을 체험할 수 있으며 화명수목원, 대천천, 화명생태공원 등 친환경 생활공간과 더불어 금곡동의 율리 바위그늘유적, 알터, 열녀 이씨 정려비 등 우리 지역의 문화 유적지와도 연계되어 있어 주민들이 지역문화와 녹색 웰빙길을 같이 체험하며 생활에 건강과 활력을 찾게 되는 산책길이다.

코스는 진홍사 앞(금곡주공3단지)~낙동강전망대~화명수목원~율리 바위그늘유적 ~전망대~진홍사 앞(금곡주공3단지)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거리는 약 10.6km정도로 소요시간은 3시간 40분 정도이며 난이도는 보통이다.

금정산 고당봉에서 미륵봉을 거쳐 장골봉 남서쪽으로 흘러내려온 능선 위에 있는 가람낙조길 전망대에서는 낙동강 상류 방향이 시원하게 조망된다.

전망대에서 내려보면 낙동강과 부산외곽순환도로 낙동강대교와 중앙고속도로지선의 양산낙동강교가 바라보인다. 낙동강 상류 방향에서 오른쪽에는 물금 시가지와 오봉산과 멀리 토곡산이 보이고, 강 건너에는 김해 신어산과 무척산이 가깝게 보인다.



낙동강 전망대

굽이쳐 흐르는 낙동강 물줄기와 주변 시가지와 주변 산들을 조망할 수 있으며 낙동강 너머 낙조는 한 폭의 그림같지만, 꼭 일몰 무렵이 아니더라도 풍광은 아름답다.

(참고 자료: 부산광역시 북구 북구문화관광사이트)

2) 금곡 공창 누룩

공창마을의 등마에는 조선시대 동원진(東院津) 수참(水站)에서 일하던 공천(公賤)들이 살아서 공창(公昌)이란 지명이 생겨났다.

공창나루터, 화정나루터, 동원진은 일본인들이 교역을 하면서 드나들었고, 서울로 가는 관리나 일본사절들이 쉬어가는 곳이었는데, 이처럼 사람의 내왕이 많아 강변의 주막집은 숙식업소로서 크게 번창하여 술의 수요가 많았고 술을 만드는 재료인 누룩을 공창마을에서 생산했던 것이다. 공창의 누룩생산은 산성마을의 누룩보다 100여년 앞섰다고 하는데 누룩을 만들기 위해 구포의 남창에서 밀을 지게에 지거나 소등에 엎어 운반해 왔다고 한다. 이렇게 생산된 누룩은 동원뿐 아니라 김해쪽으로도 배에 실려 팔려갔다고 한다.

왜인과 교역로인 동원나루터가 있어 주변에 주막집들이 많이 형성되어서 술 수요가 많고 맑은 물이 산에서 내려와 공창 마을에서 누룩을 빚기 시작하였다. 밀은 동원나루를 통해 삼량진에서 밀을 실고와 마을에서 누룩을 빚는데 사용하였으며, 남은 밀은 이웃마을이나 산성고개 넘어 온천장으로 팔려나갔다.

해방 전에는 공창마을에는 누룩공장(곡자회사)과 양조장이 있었으며 면 이웃까지 자전거 타고 술을 배달하기도 하였으며 누룩공장에는 많은 마을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기도 하였다.

산성마을은 온천장으로 가는 중간지점이라 가는 도중 산성마을에도 밀을 팔았으며 산성마을에서도 누룩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해방이후 식량부족과 1962년의 벼농사가 대흉작으로 정부에서는 술제조에 쌀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려서 세무소에서 단속이 나왔다. 누룩을 숨기기 위해 아녀자의 치마폭, 거름자리 밑, 장작더미 같은 곳에 숨겨두기도 하였지만, 계속되는 단속에 더 이상 마을에서는 누룩을 만들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산성마을에서는 끝까지 정부에 저항했으나, 막걸리 금지법이라는 별명을 가진 양곡관리법의 시작으로 일제강점기의 방식으로 간신히 이어오던 전통주와 양조장마저 명맥이 끊겨 버렸다.

그 이후 공창마을에 있던 양조장은 연산동에 있는 부산 막걸리회사와 합병하게 되었다.(향토사연구소 자문위원 이오용씨 증언)

산성마을 누룩이야기를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다.

과거 산성 마을은 화전민이 살고 있었고, 화전민들은 생계수단을 아랫마을에서 사온 밀로 누룩을 빚어 술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조선 후기, 나라에서 전쟁을 대비해 산성을 쌓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금정산에 올라와 생활하다보니 자연적으로 술소비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산성을 쌓기 위해 부역 온 사람들이 산성막걸이를 먹고 맛이 좋아 마을에 가서도 잊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산속의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로 인해 맛있고 좋은 술이 익어갔을 것이다.

금정산 위 산성마을 자락의 화전민들이 생계수단으로 누룩을 빚으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이후 마을 전체 600여 가구가 집집마다 자체적으로 누룩을 만들 정도였는데, 1960년대 정부의 누룩과 쌀로 만든 술 제조금지 시책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 당시 누룩을 단속원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보초를 서고 지금의 낙원집 앞에 걸어놓은 종을 울리면 누룩을 숨겼다고 한다. 이렇게 밀주로 한동안 고생하다 부산 방문차 우연히 맛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라질 위기라는 말에 급히 양성화 시켰고 1980년 전통민속주 제도가 생기면서 우리나라 막걸리 중에서 유일하게 전통향토민속주(1호)로 지정되어 있다.

3) 질 좋은 황금쌀

금곡동의 서쪽은 낙동강이고, 동쪽은 금정산이 있어 남북으로 길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평지가 적어 옛 선조들은 어업을 하거나 산을 개간하여 다랑이 산답을 만들어 농사를 지었으며, 지금의 금곡 소방학교 부근에는 과거 다랑이 논, 밭이 형성되어 있었던 곳이다.

이곳에서 재배된 쌀 한 가마는 대동미 두 가마랑 바꿀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기름지고 찰진 쌀이 생산되어 주변에서는 황금쌀이라 불리었다. 또한 황금쌀 한 가마니 도정을 하면 약 30되가 나와서, 다른 지역에서 재배된 벼 한 가마니 도정하면 약 20되가 나오는 것에 비해 금곡동의 황금쌀 한 가마니를 도정하면 약 30되가 나올 정도로 품질이 우수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타지역보다 품질 좋은 황금쌀이 생산되게 된 원인은 산에서 풀을 베어 거름으

로 사용하고, 금정산 계곡에서 내려온 깨끗한 물이 있어 가능하였을 것이다. 밤에는 서로 자기 논에 계곡물을 대기 위해 몰래 물골을 터기도 하였다고 전해진다.

4) 낙동강 장어(금곡동 동원 장어마을)

예전에는 장어마을이 형성될 정도로 금곡동은 낙동강 장어로 유명하였다. ‘장어마을’로 지칭(指稱)되고 있는 이곳에는 20가구 중 16가구가 요리점을 열어 놓고 있었는데 이 동네 요리집들이 부산의 7진미(珍味) 중의 하나인 장어구이 마을로 지정되어 있었다

장어(長魚)는 뱀처럼 봄이 길고 매끈하여 뱀장어라고도 불리는데 살갗 밑에 매우 작은 비늘이 묻혀 있고 지느러미에는 가시가 없는 고기이다. 다른 어류와는 달리 50년이 넘도록 사는 뱀장어는 스테미너를 돋워 주는 탁월한 영양가 때문에 낙동강변의 주민은 물론 부산 시민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격이 비싼 고급 식품인 뱀장어는 알을 낳기 위한 산란(產卵) 여행을 위해 9월 하순 경부터 낙동강의 혈수역(穴水域)인 구포~금곡 주변으로 몰렸다. 낙동강 상류쪽의 늪지대나 하천, 논 속에서 6년~12년을 자란 뱀장어는 성어(成魚)가 되어 여행을 시작한다. 염분(鹽分)이 없는 민물 속에서 반평생을 보낸 뱀장어가 산란장(產卵場)인 깊은 바다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체질을 바꾸어야만 된다. 이 고통스러운 훈련장이 바로 금곡동 일대의 낙동강이었다.

낙동강 하구둑이 건설되기 전에는 바닷물이 올라왔던 이곳은 염분농도가 0.4~1.6%



금곡 장어마을 표지석

수준이었는데 뱌장어는 여기서 먹는 것도 잊은 채 체질 변화 훈련을 하였다. 이때 소화기관이 퇴화되고 생식기관이 특히 성숙한다. 훈련은 첫 얼음이 어는 시기까지 계속되는데 탈락하는 것은 자손번식도 못하고 50년 가량 살다가 죽는다. 이곳에서 훈련을 마친 뱌장어는 내장이 바닷물에 적응할 만큼 되는데 낙동강 하구에서 다시 2차 테스트를 해보고 깊은 바다로의 여행에 들어간다.

3천~4천 마일의 긴 여행 끝에 뱌장어는 산란장이 있는 태평양 남지나(南支那) 깊은 바다의 산란장에 도달한다. 이곳에서 암수 뱌장어는 산란을 끝낸 후 모두 죽어 버린다. 고아로 태어난 수많은 뱌장어는 수심 500m 이상 되는 수온 섭씨 15도 내외의 따뜻한 곳에서 3년 가량의 치어기를 보낸 후 어미들이 살던 낙동강으로 되돌아 온다. 김해 녹산 수문 근처에서는 매년 4월께면 어린 뱌장어(흰실 뱌장어)가 수 없이 몰려 들었는데 이들이 바로 낙동강을 고향으로 한 뱌장어떼인 것이다.

낙동강에 뱌장어가 번성할 때는 산란여행을 떠나기 위해 염분이 있는 강물에서 훈련을 하던 뱌장어를 전기그물로 대량 학살하여 잡던 불법어업 행위가 빈발하여 뱌장어 어족을 살리기 위해 한때 금곡동 낙동강 일대를 단속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흘러간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1970년대 낙동강은 큰 가오리가 잡히고 장어도 하루 5관씩 잡던 풍요로운 생명의 강이었다. 낙동강에서 직접 장어도 잡고, 북구 금곡동 장어마을에서 30년간 식당을 운영한 어씨는 “하굿둑이 조성되기 전 낙동강은 장어를 비롯해 잉어, 승어, 도다리, 웅어, 조개 등이 잡히는 그야말로 풍요로운 생명의 강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2관(1관은 3.75kg)이나 되는 아주 큰 가오리가 잡힐 정도로 수산 자원이 풍부했다”라고 한다.

장어는 주로 긴 낚시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물속으로 늘어뜨리는 주낙(연승)으로 잡았다. 미끼는 직접 잡은 지렁이나 갯지렁이를 사용했다. 장어는 강 바닥에 주로 살아 물가에서 가까운 지점은 수심 5,6m 정도였고, 깊은 곳은 20m나 되는 지점도 있었다.

어 씨는 “장어를 주로 잡던 어부들은 하루에 5관 정도를 잡았지만 특히 많이 잡힐 땐 하루에 10관까지 잡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그 정도면 괜찮은 밥벌이였다고 한다. 주낙 어업의 경우 보통 저녁 무렵 낚시를 던져놓고 다음날 아침 일찍 전날 표시해둔 지점으로 가 낚시줄을 당겨 장어를 건졌다. 특히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에 벼금가는 수위에 이르면 하루에 두 번 정도 낚시를 내려 장어를 건지기도 했다.

금곡동 동원마을(장어마을)에선 구포어촌계에 소속한 20명 정도가 농사 대신 장어를 잡았다. 장어의 주 어획기는 봄부터 가을까지였지만 장어를 잡지 않을 땐 다른 어구를 이용해 잉어나 웅어 등을 잡기도 하였다.

구포동에는 8·15 광복 이후 구포 선창 지역에서 가건물을 짓고 거북촌이라 하여 잉어회와 장어구이를 팔던 요리집이 즐비했으나 1970년대에 철거되었고 금곡동 동원마을에는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그 명맥이 이어져 오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 지역도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서 변하였다.

요즘 민물장어라 불리는 (뱀)장어는 거의 99%가 양식산이지만 낙동강에서는 하굿둑이 들어서기 전까지인 지난 1980년대 중반까지 맑고 깨끗한 낙동강변에 장어구이가 부산을 대표하는 요리로 유명세를 떨친 적이 있었다.

민물장어 요리는 구워서 간장, 고춧가루, 물엿, 마늘, 후추, 된장 등을 섞어 끓여 만든 독특한 비법의 양념장에 찍어 먹는데, 여기에 풋고추, 야채, 시금치, 통마늘이 뒤따르면 맛이 더욱 일품이다. 조리법은 장어뼈와 창자를 골라 내어 토막을 낸 뒤 1차 구이를 하고 양념을 발라 2차 구이를 해서 먹는다. 이 뱀장어는 특히 병환 후 회복을 위한 보양식품으로 많이 먹고 있다.

낙동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배기 마을의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따라 쭉 늘어선 장어구이집은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곳의 이름은 북구 금곡동 동원마을이었지만 사람들은 장어구이집이 몰려 있어 ‘장어마을’이라 불렀다. 워낙 유명세를 탄다 보니 마을 입구에는 멀쩡한 마을 이름 대신 아예 ‘금곡 장어마을’이라 음각된 어른 키보다 큰 입석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낙동강 뱃길을 쉬어가는 나루터로, 수참이 설치되기도 했던 동원마을은 현재 사라지고 없다. 장어마을의 장어구이집은 한때 16곳까지 늘어나는 등 성업을 했지만 1987년 낙동강 하굿둑이 들어서고 1991년 도시철도 공사가 시작되면서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IMF 한파 등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더욱 위축받아 6곳 정도만 남아 있었으나 2000년대 초반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뿔뿔히 흩어졌다. 아쉽게도 동원마을 입구에 서 있던 ‘금곡 장어마을’이라 적힌 입석도 행방불명이 돼 버렸다.

5) 산딸기와 도토리묵

공창마을 뒷산에는 산딸기 군락지가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새벽부터 산에 올라 큰 바구니에 가득 찰만큼 많이 딸 수 있었다. 산딸기가 알이 굽고 근실해서 상품가치가 높았다. 그래서 구포시장에 내다 팔면 제법 높은 가격에 팔렸다고 한다.

또한 공창마을 뒷산에는 많은 참나무류가 자생하고 있어, 도토리를 주워서 묵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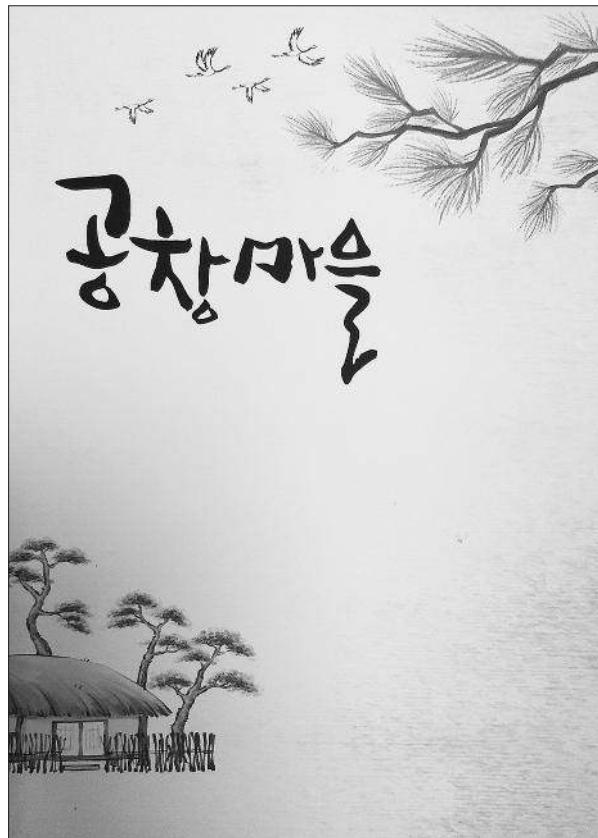
이것을 현재 부산진시장 뒤쪽 철도(과거 청과도매시장)새벽시장에 판매하였다. 도토리묵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을 앞 냇가에서 도토리를 씻었는데, 냇물이 붉게 물들었다. 이 물은 독성이 있어 미꾸라지나 피라미 같은 물고기가 죽어서 물위로 떠오르기도 했다.(『공창마을』, p12)

5. 금곡문화

1) 서적소개

(1) 『공창마을』(공창행복마을만들기 추진협의회, 201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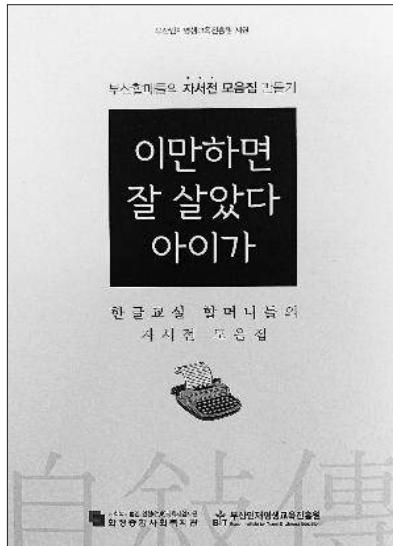
부산광역시 마을재생 프로젝트 <행복마을만들기사업> 하나로 <함께 꿈꾸는 공창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12월에 출판되었다. 이오용씨(공창행복마을만들기 추진협의회장)를 비롯한 주민들이 손수 자료수집과 원고작성하였다. 이야기(옛날, 효자열녀, 복승나무골, 안등골, 골짜기, 바위, 산등, 사찰)형태로 사라져 가는 공창마을 문화자산을 재미있게 잘 엮었으며, 사진으로 공창마을 변천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창마을 책 표지

(2)『이만하면 잘 살았다 아이가』(화정종합사회복지관, 2020.12.)

국가문화교육센터와 북구청 성인문화교육지원사업,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재량활동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화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강생들의 교육활동으로 이루어진 책자이다. 아홉 명의 작가가 쓴 66편의 자서전 모음과 37점의 성인문화교육 시화전 작품, 2명의 강사 소감문으로 구성되었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 아이가’ 책 표지

**‘이만하면 잘 살았다 아이가’
할머니들 자서전 잔잔한 감동**

화정복지관이 꾀낸 한글교실 할머니들의 자서전 모음집 〈이만하면 잘 살았다 아이가〉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이 책에는 가난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글을 읽지 못하는 상태로 오랜 세월을 살아온 할머니 아홉 분의 구구절절한 사연이 담겼다. 이들은 뒤늦게나마 복지관의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글을 깨친 덕분에 삶의 회로애락을 한 글자 씩 꼭 꼭 눌러 담아 자서전을 집필할 수 있게 되었다. 자서전 모음집에는 지난해 10월에 금곡동 농협하나로클럽 맞은 편 오리온 구

포영업소 벽면을 이용해 진행했던 ‘시화전’의 출품작을 실었으며 문해교육 강사들의 소감문도 게재하였다. 한편 화정복지관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위해 1995년부터 문해교실을 운영해오고 있다. 문의 화정복지관 ☎362-0111

희망북구신문, 2021. 3. 25.자

6. 금곡동 경계석과 교통 경계 안내물

- 소재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금곡대로 468-8 일원

금곡동 경계석은 금정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경계석 옆 하천으로 흘러 낙동강으로 진입하는 지점에 위치하며, 이곳을 경계로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과 양산 동면 기산리로 구분되어지는 시간(市間)의 경계지역이다. 그리고 금곡동은 옛날부터 중요한 육로와 수로의 입구로 부산과 양산·울산 등을 이어주는 부산의 관문중 한 곳이었다. 현대에는 육로는 철도와 도시철도가 운행되고, 수로는 낙동강변을 따라 시민들의 여가를 활용하는 자전거길과 산책·운동을 위하여 조성되었으며, 김해공항으로 이어지는 항공노선을 통하여 세계로 나아가는 주요거점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부산의 인구팽창과 위성도시의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많은 산업시설과 공장들이 양산과 김해로 이주하는 관계로 물류 이동량의 원활한 소통을 하는 대동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개통(1차: 2017.2.28, 2차: 2018.2.7.)에 따라 진영분기점부터 기장분기점까지 49.6km(도로명칭 600호선)의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기



금곡동 경계석



교통경계 표지석

장지역쪽의 산업단지 물류와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되며, 또한 부산광역시 북구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통경계 입간판

[참고문헌]

1.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2.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3.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4. 『김해여지승람(金海輿地勝覽)』
5. 『대동지지(大東地志)』
6. 『김해읍지(金海邑誌)』
7. 『김해지리지(金海地理志)』 김해문화원, 1991.
8. 이만도(李晚燾), 『양산군읍지(梁山郡邑誌)』(『역간 양산읍지초』 향토사료집 4집, 양산문화원), 1990.
9. 『조선신사대동보(朝鮮紳士大同譜)』, 大垣丈夫(편집 발행자), 1913.
10. 『부산북구향토지(釜山北區鄉土誌)』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북구낙동문화원, 2014.
11. 『낙동강사람들』 1호~32호, 부산북구 낙동문화원.
12. 『공창마을』 공창행복마을만들기 추진협의회, 2012.
13. 『북구 이야기로 물들다』 부산광역시 북구청, 2016.
14. 『우리 고장 북구를 만나다』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북구다행복지원센터, 2019.
15. 『우리 고장 북구를 만나다』(학생용)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북구다행복지원센터, 2019.
16. 최진식 편저, 『부산북구 문화해설사 양성과정 교재』, 부산북구낙동문화원, 2019.
17. 『부산 금곡동 동원지(釜山 金谷洞 東院址)』, 학술조사연구총서 제55집, 경남문화재연구원, (주)디앤씨홀딩스, 2006.
18. 『금곡동율리폐총- 암음주거유적-』 유적조사보고 제3집, 부산대학교 박물관, 1980.
19. 『가야문화권유적정밀조사보고서- 부산직할시-』 부산직할시립박물관, 1991.
20. 『부산의 선사유적과 유물』, 부산시립박물관 복천분관연구총서 1집, 1997.
21. 혀태수 편저, 『수정마을이야기』, 수정마을복지회, 2020.
22. 백이성 엮음,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 부산북구 낙동문화원, 1999.
23. 『화명 대천(華明 大川)마을의 정담(情談)』, 낙동문화원 향토사연구소, 2007.
2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25. 『부산광역시 북구 당산제 실태조사』 부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부산북구낙동문화원, 2020.

26. 『낙동향토문화연구』 제1집, 부산북구 낙동문화원, 2020.
27. 『부산의 마을신앙1』(강서구, 북구편), 부산광역시, 국립민속박물관, 2020.
28. 『이만하면 잘 살았다 아이가』 화정종합사회복지관,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0.
29. 『만덕사람들』 창간호, 2호, 만덕2동 주민자치회, 2017. 2020.
30. 이유미, 『우리나무 백가지』, 주)현암사, 2005.
31. 강판권, 『역사와 문화로 읽는 나무사전』, 주)글항아리, 2010.
32. 박상진, 『궁궐의 우리 나무』, 주)눌와, 2014.
33. -----, 『우리 나무의 세계2』, 김영사, 2011.
34. 김정학, 정징원, 『금곡동 율리쾌총』, 부산대학교박물관, 1980.
35. 신경철, 『수가리쾌총 Ⅱ』, 부산대학교박물관, 2011.
36. 정징원, 『김해 예안리고분군 Ⅱ 본문』, 부산대학교박물관, 1993.
37. 김용기, 『농소리쾌총 발굴조사보고서』, 부산대학교박물관, 1965.
38. 『청도 오진리 암음유적 발굴조사보고서』, 부산대학교박물관, 1994.
39. 『한국의 신석기시대 패총』, 동삼동패총전시관, 2010.
40. 『한국의 고고학 전문용어집』, 중앙문화재연구원, 2018.
41. 『한국 신석기시대 토기와 편년』, 중앙문화재연구원, 2014.
42. 하인수, 『한국 고고학의 이해』, 복천박물관, 2008.
43. -----, 『부산의 선사유적과 유물』, 복천박물관, 2008.
44. -----, 『고고학으로 보는 부산의 역사』, 복천박물관, 2008.
45. 정징원, 『부산의 선사문화』, 부산광역시, 2002.
46. 임학종, 『신석기시대의 묘제』, 부산광역시, 1993.
47. 김권중외 4인 공저, 『수혈주거지 조사방법』, 백두문화재연구원, 2019.
48. 주영택, 『금정 26 전통마을의 역사와 민속 문화를 만나다.』, 금정문화원, 2018.
49. -----, 『금정의 설화』, 금정문화원, 2016.
50. 반영환, 『한국의 성곽』, 대원사, 2011.
51. 『부산 금석문』, 부산광역시·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2.
52. 『부산의 마을신앙(북구편)』, 부산광역시, 국립민속박물관, 2021.
53. 김태곤, 『동신당(洞神堂)』, 주)대원사, 1999.
54. 『부산의 자연마을(제5권)』,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0.
55. 『통계연보』, 부산광역시 북구청, 2005.~2014.

[홈페이지]

1.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busan.go.kr>).
2. 부산광역시 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3. 북구청 홈페이지(문화체육과) (www.bsbukgu.go.kr)
4.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sbukgu.go.kr>)
5.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청 홈페이지 (<http://bukbupen.go.kr>)
6. 금곡청소년수련관홈페이지 (www.kum-gok.or.kr)
7. 금곡도서관 홈페이지 (<https://www.bsbukgu.go.kr/bplib/index.bsbukgu>)
8. 다음 인터넷 (<http://m.search.daum.net>)
- 9.『고인돌 성혈』(다음 인터넷), 고인돌 사랑회, 2021.
- 10.『디지털 양산문화대전』(<http://yangsan.grandculture.net>).
- 11.『원불교신문』(2016.02.05.) / <http://www.wonnews.co.kr>
12.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홈페이지 (<http://m.grandculture.net>)
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
14. 금곡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geumgok.hs.kr>)
15. 금곡중학교 홈페이지 (<http://geumgok.ms.kr>)
16. 금명중학교 홈페이지 (<http://geummyeong.ms.kr>)
17. 금곡초등학교 홈페이지 (<http://geumgok.es.kr>)
18. 금명초등학교 홈페이지 (<http://geummyeong.es.kr>)
19. 금창초등학교 홈페이지 (<http://geumchang.es.kr>)
20. 신금초등학교 홈페이지 (<http://sinkum.es.kr>)

『부산북구 금곡동 향토지』 부문별 집필자 명단

(부산북구 낙동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부문별	항목별		작성자
	중분류	소분류	
자연환경	자연	기초 환경	김복순
		산세·강과하천	김복순
		계곡·바위	이외철
		산등·고개	지외석
		나루	최진식·지외석
	산책길·보호수	산책길	김복순
		보호수·노거수	한일우
	지명유래	지명유래	이수재
		자연마을	이수재
인문환경	역사	행정구역의 연혁	김경숙
		전래문화과 집성촌	김정수
		출신 인물	김경숙
		역대 동장과 시·구의원	한일우
	행정	기본현황	한일우
		공공기관	한일우
	사회복지	사회복지 일반	한일우
		영역별 사회복지	한일우
	교육·종교	교육시설	박미숙
		종교시설	민갑식
	생활편의	의료·금융·유통	이상찬
		공원·동네체육시설	민갑식
문화환경	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건축물)	김동국·최진식
		유형문화유산(비석·문서)	박구수·김동국
		무형문화유산	서주열·김동국·최진식
	문화생활	문화기관·단체	정종학
		문화행사	서주열·이정자
		관광지원	이정자
기타		사진 등	박찬석·박태현

『부산북구 금곡동 향토지』 편찬위원회

편찬위원장(총괄)	낙동문화원 원장	임성근
편찬추진위원장	향토사연구소장	최진식
편찬위원	향토사연구소 자문위원	이오용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이수재 한일우
	"	김동국 이외철
	"	김복순
낙동문화원 사무국장	지외석	
북구청 문화체육과	원상이	
금곡동 행정복지센터	박종곤	

『부산북구 금곡동 향토지』 발간과 함께 하신 분

공창마을 주민 일동
금곡장학회 이사장 이장술
영천이씨 재부종친회 회장 이광재
삼진여객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성흠
공창마을 행복센터장 이수재
전)부산광역시의원 배문철
가람기획 이외철

부산북구 금곡동 향토지

발행일 : 2021년 12월 27일

발 행 :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북구 낙동문화원

편 찬 : 부산북구 낙동문화원 향토사 연구소

출판인쇄 : 도서출판 가람 051.302.6806